



심청가 바다별전집 1

김연수 바다

Kim Yeon-su Version Simcheongga
(Sung by O Jeong-suk)



심청가 바디별 전집 1

2008년 12월 10일 인쇄

2008년 12월 15일 펴냄

지은이 || 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Thomas Christopher Cummings,
Sumi Hong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Tel. 02-3704-9119
전 라 북 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Tel. 063-280-2114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509-2 04810
978-89-5925-508-5 (전4권)

한영
대역

심청가
바디별전집 1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작년에는 첫 번째로 〈춘향가〉 다섯 바탕을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심청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심청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작년에 〈춘향가〉 자막 프로그램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그 칭찬과 격려가 올해 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심청가〉, 2권은 〈박동실 바디 정순임 창 심청가〉와 〈김소희 바디 김소희 창 심청가〉, 3권은 〈정웅민 바디 성우향 창 심청가〉와 〈정웅민 바디 성장순 창 심청가〉, 4권은 〈정웅민 바디 윤진철 창 심청가〉로 되어 있다. 이 정도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심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의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에 인용되고 있는 시, 소설, 역사, 고사 등은 엄청난 양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말 주석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은 또한 우리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예술성까지를 살리는 번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번역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우리가 나섰다. 우선은 예술성을 살리는 것보다도 의미전달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번역을 보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다만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는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판소리가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만 했지,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성과물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예쁜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앞당길 것으로 믿는다.

2008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1. 심봉사 내력	12
2. 곽씨부인 품팔이	12
3. 기자 치성	16
4. 심청 출생	20
5. 딸 확인	22
6. 삼신 축원	24
7. 심봉사 딸을 안고 어름	28
8. 곽씨부인 유언	30
9. 곽씨부인 죽음	36
10. 상여소리	42
11. 평토제	46
12. 심봉사 탄식	48
13.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램	50
14. 젓동냥	54
15. 심봉사 동냥	62
16. 심청 부친 봉양	62
17. 심청 결식	66
18. 시비 따라	70
19. 장승상택 부인 수양딸 제안	74

20. 심봉사 물에 빠짐	78
21. 심봉사 구출	82
22. 공양미 시주 약속	86
23. 심청의 위로	92
24. 심청 치성	96
25. 심청 매신	98
26. 심청 하직	104
27. 심청 자탄	108
28. 부녀 이별	110
29. 심봉사 통곡	114
30. 승상부인 공양미 제의	120
31. 심청 화상	122
32. 선인 따라	126
33. 범피중류	130
34. 소상팔경	134
35. 떡라수 탄식	138
36. 인당수 투신	142
37. 선인 애통	148
38. 심청 용궁행	150
39. 수정궁	152
40. 망사대와 타루비	156
41. 심청 모친 상봉	160
42. 심청 환생	164
43. 사공이 꽃을 싣고 귀향	168
44. 화초타령	170

45. 황제 심청 발견	176
46. 심청 황후 책봉	180
47. 추월만정	182
48. 심황후 맹인잔치 제안	186
49. 맹인잔치를 베풀	190
50. 심봉사 딸 생각	192
51. 뽕덕이네	194
52. 뽕덕이네 행실	196
53. 심봉사 가산 탕진	200
54. 뽕덕이네 도망	206
55. 심봉사 탄식	210
56. 심봉사 목욕	214
57.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218
58. 방아찢는 여인들과 수작	224
59. 방아타령	228
60. 안씨 맹인	234
61. 심봉사 꿈	238
62. 심황후 탄식	242
63. 심황후 부친 발견	244
64. 심봉사 개안	246
65. 모든 맹인 개안	254
66. 맹인들 송축	258
67. 황봉사 뉘우침	262
68. 후일담	266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오정숙 창

Sung by O Jeong-suk

1. (심봉사 내력) 심학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스무 살에 장님이 되었다.

[아니리] 송나라 원풍¹⁾ 말년²⁾에 황주 도화동³⁾ 시는 한 소경⁴⁾이 있으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⁵⁾ 잠영지족⁶⁾으로 문명⁷⁾이 자자터니,⁸⁾

가운⁹⁾이 영체¹⁰⁾허여 이십에 안맹허니,¹¹⁾

낙수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¹²⁾ 금장장수¹³⁾에 공명¹⁴⁾이 비었으니, 향곡¹⁵⁾에 곤헌¹⁶⁾ 신세 강근한¹⁷⁾ 친척 없고,

겸하여 안맹¹⁸⁾하니

뉘가¹⁹⁾ 대접하라마는,

그 안해²⁰⁾ 곱씨부인 또한 현철하여,²¹⁾

임사²²⁾의 덕과 장강²³⁾의 고움과 목란²⁴⁾의 절행²⁵⁾이며,

예기²⁶⁾ 가례²⁷⁾ 내칙편²⁸⁾과 주남²⁹⁾ 소남³⁰⁾ 관저시³¹⁾를 모를 것이 바
이없고,³²⁾

봉제사³³⁾

접빈객³⁴⁾과 가장³⁵⁾ 공경,

치산범절,³⁶⁾

백집사가감³⁷⁾이나,

이제³⁸⁾의 청렴³⁹⁾이요, 안연⁴⁰⁾의 가난이라.

가련한 곱씨부인 몸을 바려⁴¹⁾ 품⁴²⁾을 팔 제,

2. (곱씨부인 품팔이) 어진 곱씨부인은 품을 팔아 가장을 보살핀다.

[자진모리] 샅바느질⁴³⁾ 관대⁴⁴⁾ 도복⁴⁵⁾ 행의⁴⁶⁾ 창의⁴⁷⁾ 직령⁴⁸⁾이며,

1. (Mr. Sim's Personal History) Mr. Sim is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He became blind at the age of twenty.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a village called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is Sim, and his first name i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at twenty.

His family no longer serves in the government, and has lost the fame.

He lives a poor life in a country without relatives.

Besides, he is blind.

So who would respect him?

His wife, Mrs. Gwak, is wise and intelligent.

She is virtuous, beautiful, and faithful.

She knows about the moral rules specified in ancient Confucius books.

She holds a ritual for her husband's ancestors.

She serves guests well and respects her husband.

She does housework well and is good-mannered.

She can cope with any difficult matter.

She is incorrupt and indigent.

Poor Mrs. Gwak works hard as a day laborer.

2.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s. Gwak supports Mr. Sim by working as a day laborer.

[Jajinmori] Mrs. Gwak does needlework on an official's, a Toist's, a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협수⁴⁹⁾ 쾌자⁵⁰⁾ 중치막⁵¹⁾과 남녀 의복의 잔누비질,⁵²⁾
 상침질⁵³⁾ 꺾음질⁵⁴⁾과
 외올뜨기⁵⁵⁾ 패땀⁵⁶⁾이며,
 고두누비⁵⁷⁾
 술올리기⁵⁸⁾ 망근⁵⁹⁾꾸미기
 갓끈집기 배자⁶⁰⁾
 토수⁶¹⁾ 버선 행전⁶²⁾ 포대⁶³⁾ 허리띠 다님⁶⁴⁾
 줍치⁶⁵⁾ 쌈지⁶⁶⁾ 염낭⁶⁷⁾에 필낭⁶⁸⁾
 휘양⁶⁹⁾ 불치⁷⁰⁾ 복건⁷¹⁾ 풍채⁷²⁾이며,
 천의⁷³⁾ 주의,⁷⁴⁾ 갓은⁷⁵⁾ 금침⁷⁶⁾
 벼갓모⁷⁷⁾ 쌍원앙⁷⁸⁾ 수놓기와
 화관⁷⁹⁾ 원삼⁸⁰⁾ 장옷,⁸¹⁾
 문무백관⁸²⁾의 빛난 흉배⁸³⁾ 외학⁸⁴⁾ 쌍학⁸⁵⁾에 범⁸⁶⁾ 그리기.⁸⁷⁾
 명모⁸⁸⁾ 악수⁸⁹⁾ 제복⁹⁰⁾이며,
 길쌈을 논지허면⁹¹⁾ 궁초⁹²⁾ 공단⁹³⁾ 수주⁹⁴⁾
 선주⁹⁵⁾ 낙룡⁹⁶⁾ 갑사⁹⁷⁾에
 운문⁹⁸⁾ 토주⁹⁹⁾
 갑주¹⁰⁰⁾ 분주¹⁰¹⁾
 표주¹⁰²⁾ 명주¹⁰³⁾
 생초¹⁰⁴⁾ 통견¹⁰⁵⁾에 조포¹⁰⁶⁾ 북포¹⁰⁷⁾
 황저포¹⁰⁸⁾ 춘포¹⁰⁹⁾ 문포¹¹⁰⁾ 제추리¹¹¹⁾며,
 삼배 백저¹¹²⁾ 극상세목¹¹³⁾ 샅을 받고 말어 짜기.
 청 황 적 백 침향¹¹⁴⁾ 회색 오색¹¹⁵⁾으로 염색하기.
 초상난 집 상복¹¹⁶⁾ 제복,
 혼대사¹¹⁷⁾ 음식 숙정,¹¹⁸⁾
 갓은 증편¹¹⁹⁾에 중계¹²⁰⁾ 약과¹²¹⁾

She quilts military, male, and female clothes.
She sews the edge of clothing with a needle.
She makes a headband and a bag.
She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She patches and embroiders a man's headband.
She works on a string of a cylindrical hat, a female vest,
wristlests, socks, leggings, a ramie band, a belt, ankle bands,
a bag, a tobacco poach, a money pouch, a brush pouch,
a long headgear, a muff, a cloth headgear, a furred headgear,
a small quilt, a topcoat, a quilt, a pillow,
a pillow end, a pair of mandarin ducks,
a flowery female headgear, a formal female attire, and a long
hood.
She embroiders nobilities' clothing with a crane, a pair of cranes,
and a tiger.
She also works on a shroud and a uniform.
She weaves a thin silk, a thick silk, a silk of high quality,
cloths, a silk for summer clothe,
a silk having a cloud figure, a silk cloth,
a fancy silk, a silk from a region,
a silk with five colors, a silk without a figure,
a raw silk, a coarse silk, a narrow ramie cloth, a fine ramie cloth,
ramie cloths from different regions,
a white ramie cloth, and a fine cotton cloth to make money.
She dyes them with several colors.
She makes a clothe for a funeral and a uniform.
For a big event, such as marriage, she makes food:
a rice cake, an oily cake, a honey cake,

백산¹²²) 과자에 다식¹²³) 전¹²⁴) 냉면
 화채¹²⁵) 신선로,¹²⁶) 각각 찬수¹²⁷) 약주 빚기,
 수팔련¹²⁸) 봉오림¹²⁹)과
 배상허기¹³⁰) 고임질¹³¹)을,
 일년 삼백육십일에 하로¹³²) 반 때¹³³) 놀지 않고, 품 팔아 모일 적에,
 푼¹³⁴)을 모아 돈¹³⁵)이 되고, 돈 모아 양¹³⁶)을 짓고, 양을 모아서 관
 돈¹³⁷) 되면,
 착실한 데 빛을 주어, 일수¹³⁸) 체계¹³⁹) 장리변¹⁴⁰)으로 실수 없이 받
 아들여,
 춘추시향¹⁴¹)의 봉제사와
 앞 못 보는 가장 공경 시종¹⁴²)이 여일¹⁴³)하니,
 상하춘¹⁴⁴) 사람들이 꺾씨부인 어진 마음 뉘가¹⁴⁵) 아니 칭찬허리.

3. (기자 치성) 꺾씨부인이 자식 낳기를 소원하며 온갖 공 을 다 드리다가, 어느날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꾀다.

[아니리] 이렇듯 지성¹⁴⁶)으로 공대¹⁴⁷)를 허건마는,
 하루는 심봉사 우연히 설음이 발허여¹⁴⁸) 신세자탄¹⁴⁹) 허는 말이,
 “우리 연당사십¹⁵⁰)에 슬하¹⁵¹) 일점혈육¹⁵²) 없어
 선영¹⁵³) 향화¹⁵⁴)를 끊게 되니,
 그 아니 원통허오?
 옛 글을 보드라도, 공자님 어머니도 이구산¹⁵⁵)에 치성¹⁵⁶)하여 공자님
 을 낳으셨다니,
 마누라도 지성으로 공¹⁵⁷)이나 좀 드려보시오.”
 꺾씨부인 이 말 듣고 그날부터 공드릴 제,¹⁵⁸)

a thin candy, a kind of candy, pan-fried food, a noodle,
a flower drink in a bowl, side dishes, and wine.
She prepares lotus flowers and flowery decorations.
She places food on a food table.
She works as a day laborer all the year around without a rest.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and the amount of money
gradually goes up.
She lends money to good people and takes it back along with
interest.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consistently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Everybody in her village and a neighboring village praises her
kind mind.

**3.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she dreams a dream in which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Aniri] As stated above, Mrs. Gwak serves Mr. Sim well.
One day, however, he feels sad abruptly and laments his lot.
“We are in our 40’s now. Yet we don’t have a child.
Nobody will hold a ritual for my ancestors.
Isn’t that regrettable?
An old book says Confucius’s mother conceived Confucius after
praying on a mountain.
Honey, please pray to gods for a baby as she did.”
After hearing his wish, she begins to pray to gods for a child.

[중모레] 품팔아서¹⁵⁹⁾ 모은 재물 원갓 공을 다 드린다.
 명산대찰¹⁶⁰⁾ 영신당¹⁶¹⁾과,
 고묘¹⁶²⁾ 충사¹⁶³⁾ 성황당¹⁶⁴⁾과,
 석불¹⁶⁵⁾ 보살¹⁶⁶⁾ 미륵¹⁶⁷⁾님께 허위허위¹⁶⁸⁾ 다니면서,
 칠성불공¹⁶⁹⁾ 나한불공¹⁷⁰⁾
 백일산제¹⁷¹⁾ 제석불공¹⁷²⁾ 신중맞이¹⁷³⁾
 가사시주¹⁷⁴⁾ 인등시주¹⁷⁵⁾ 창호시주¹⁷⁶⁾
 다리권선¹⁷⁷⁾ 질답기¹⁷⁸⁾와,
 집에 들어 있는 날도
 성주¹⁷⁹⁾ 조왕¹⁸⁰⁾ 당산¹⁸¹⁾ 천룡¹⁸²⁾ 중천군웅¹⁸³⁾에 지신제¹⁸⁴⁾를 지
 극 정성 다 디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¹⁸⁵⁾ 나무가 꺾여지랴.
 갑자¹⁸⁶⁾ 사월 초팔일밤 한 꿈을 얻은지랴.
 천기¹⁸⁷⁾ 명랑¹⁸⁸⁾허고, 서기¹⁸⁹⁾ 반공터니,¹⁹⁰⁾
 선인¹⁹¹⁾ 옥녀¹⁹²⁾ 학을 타고 공중으로¹⁹³⁾ 내려온다.
 몸에는 채단¹⁹⁴⁾이요, 머리에는 화관¹⁹⁵⁾이라.
 월패¹⁹⁶⁾를 느짖¹⁹⁷⁾ 차고, 옥패소리¹⁹⁸⁾가 쟁쟁터니,¹⁹⁹⁾
 계화가지²⁰⁰⁾를 손에 들고
 부인전²⁰¹⁾ 배례²⁰²⁾허며, 곁에 와 앉는 거동²⁰³⁾
 뚜렷한 달정신²⁰⁴⁾이 품안에 떨어진 듯,
 남해 관음²⁰⁵⁾이 해중²⁰⁶⁾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기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호치²⁰⁷⁾를 반개하여²⁰⁸⁾
 쇠옥성²⁰⁹⁾ 맑은 소리로 알연히²¹⁰⁾ 허는 말이,
 “서왕모²¹¹⁾의 양녀²¹²⁾로서
 문창성²¹³⁾과 정혼²¹⁴⁾하여,

[Jungmori] Mrs. Gwak spent the money she earned as a day laborer to pray to gods.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for worshiping gods.
She travels to many places to pray to the statues of Buddha.
She prays to the Ursa Major and a Buddha's disciple.
She prays to a mountain for 100 days, to Buddha, and to a god general.
She donates clothes, lamp oil, and papers to buddhist monks.
She defrays the expense to build a bridge and a road.
Even when she is at home,
she prays to the house god, the kitchen god, the terrace god, the sky god, and the earth god.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he has a dream at night in April.
The weather is great, and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A goddess comes down from heaven on a stork.
She wears silky clothes and a flowery hat.
She wears jade ornaments which make beautiful sound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in her hand.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next to her.
It looks as if a clear energy from the moon fell on her breast, and as i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rose up from the sea.
Mrs. Gwak is in raptures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elegant goddess exposes half of her white teeth.
She speaks with a clear and beautiful voice.
"I am an adopted daughter of a goddess.
I was to marry a god,

미처 행례²¹⁵) 못 하여서,
 문창이 천명²¹⁶) 받아 천하²¹⁷) 창생²¹⁸) 건지기로 인간하강²¹⁹)허옵기로, 따라 내려오옵더니,
 몽은사 부처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바래고²²⁰) 왔사오니,
 어여뻐²²¹) 여기소서.”
 품안으로 안겨들어
 깜짝 놀래 깨달으니, 남가일몽²²²)이 분명쿠나.

4. (심청 출생) 꼭씨부인이 잉태하여 딸을 낳는다.

[아니리] 양주²²³) 몽사²²⁴) 의논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²²⁵)허여,
 그날 밤에 어찌 되었던지
 그 달부터 태기²²⁶) 있을 적에,
 꼭씨부인 착헌 마음 십삭²²⁷)을 꼭 이렇게 채우든 것이었다.
 [중중모리] 석부정부좌²²⁸) 할부정불식²²⁹) 이불청음성²³⁰) 목불시악색²³¹)
 입불피²³²)허며 와불칙²³³)허여,
 십삭이 점점 찬 연후으,²³⁴) 하루는 해복²³⁵) 기미²³⁶)가 있든가 보드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심봉사 거동을 보소.
 일변²³⁷)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어,
 밖으로 우루루 나가면서,
 “아이고, 뒷집 귀덕어머니!
 우리 마누라 해복 기미 있소. 빨리 좀 오시오!”
 귀덕어머니 들어온다.

but I couldn't have a marriage ceremony.
Taking the divine command, I will come down to save people
in the world.
Buddha in Mongeun Temple wanted to send me to your house.
Please take good care of me."
The baby comes to Mrs. Gwak's breast.
She is surprised and wakes up from the dream.

4.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conceives and gives birth to a girl.

[Aniri] The couple talk with each other and learn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They are delighted.
Something happened that night.
She shows the signs of pregnancy from that month.
She, as a good mother, spends the next ten months as follows: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and bad colors.
She doesn't stand obliquely on one leg and doesn't lie on her
side.
After ten months passed, one day she shows the signs of labor.
"Ouch!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Behold Mr. Sim.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runs out of the house.
"Hey neighbor! Mrs. Gwideok!
My wife is about to deliver a baby. Come here quickly."
Mrs. Gwideok comes in.

귀덕어머니가 들어오며, “아이고, 봉사님, 어서 들어가십시오.”
 짚자리²³⁸⁾를 들어 깔고,
 정화수²³⁹⁾를 새 소반²⁴⁰⁾에 받쳐놓고,
 좌불안석²⁴¹⁾ 급헌 마음 순산²⁴²⁾하기를 기다릴 제,
 향취²⁴³⁾가 진동하며, 오색 안개 두르더니,
 혼미중²⁴⁴⁾에 탄생허니 선인²⁴⁵⁾ 옥녀²⁴⁶⁾ 딸이라.

5. (딸 확인) 심봉사가 아이를 더듬어 보고 딸인 것을 확인 하자, 곽씨부인이 섭섭해 한다.

[아니리] 심봉사 그제야²⁴⁷⁾ 숨을 폭 내쉬며,
 “흐유헌! 그것 차라리 내가 낳고 있제, 차마 보겠다고?”
 귀덕어머니는 아이 받아 썸²⁴⁸⁾을 갈라 뉘어놓고,
 첫국밥²⁴⁹⁾ 지으러 나갔었다.
 심봉사 만심환회²⁵⁰⁾허는 차에,
 곽씨부인 정신차려
 “순산²⁵¹⁾은 하였으나, 남녀간에²⁵²⁾ 무엇이요?”
 심봉사 대소²⁵³⁾허며, “기가 맥힐 일이요.
 부인들 욕심이란 저렇단 말여.
 그러나 귀덕어머니가 무엇 낳았단 말도 앓고 나갔으니,
 내가 알 수가 있는가?
 예라, 내 손으로 만져볼밖에 수²⁵⁴⁾가 없다.”
 심봉사 갓난²⁵⁵⁾ 아해²⁵⁶⁾를 아래턱 밑에서 내리²⁵⁷⁾ 더듬는디,
 이런 가관²⁵⁸⁾이 없든 것이었다.
 “가만 있거라. 이것은 명뻘²⁵⁹⁾요,

As she comes in, she says, "Mr. Sim, let's get in right away."
They spread a straw mat on the floor.
They prepare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Mr. Sim feels ill at ease, hoping that she has an easy birth.
Fragrance lingers, and colorful mist drifts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is born as beautiful as a goddess.

5. (The Identification of the Girl) Mr. Sim touches the baby and learns that she is a girl. Mrs. Gwak gets disappointed.

[Aniri] Mr. Sim breathes a sigh of relief.
"Whew! I wish I gave the birth rather than to watch her."
Mrs. Gwideok cuts the placenta off, and lays the baby.
She goes out to prepare soup and rice.
Mr. Sim is satisfied and delighted.
Mrs. Gwak collects herself.
"It was an easy birth, but is the baby a boy or a girl?"
Mr. Sim laughs aloud. "I am stunned.
A woman wants to know too much about that.
Mrs. Gwideok left without telling anything about the baby.
How could I know whether it was a boy or a girl?
Gee, I might as well touch it and find that out myself."
He touches the bottom of the baby's chin and goes down.
This is quite a show.
"Let me see. This is a chest bone.

이것은 배꼽,
 인제²⁶⁰⁾ 이 밑에 가 일이 있다.
 아, 아차, 아이 살²⁶¹⁾을 만져보니
 손에 아무 거리낌새²⁶²⁾ 없이 미끈하고 지내간 것이,
 아매도 마누라같은 사람 낳았나 보오.”²⁶³⁾
 [자진모리] 꺾씨부인 섭섭허여,
 “만득²⁶⁴⁾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허오.”
 심봉사 이른 말이, “마누라, 그 말 마오.
 첫째, 순산허였으니 천천만만²⁶⁵⁾ 다행이요,
 딸자식이 아들만은 못허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선영²⁶⁶⁾허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 두면은 못된 아들 바꾸졌소?”²⁶⁷⁾
 우리 딸 고이²⁶⁸⁾ 길러
 예절 몬저 가르치고, 침선²⁶⁹⁾ 방적²⁷⁰⁾ 다 시켜서,
 요조숙녀²⁷¹⁾ 좋은 배필 군자호구²⁷²⁾ 잘 가려,
 금슬우지²⁷³⁾ 즐거움과
 종사위²⁷⁴⁾ 진진²⁷⁵⁾허면 외손봉사²⁷⁶⁾ 못 허리까?
 그런 말을 허지 마오.”

6.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아니리] 그때으 귀덕어머니는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²⁷⁷⁾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 앞에 좀 빌어보시오.”

This is the navel.
Now, there must be something down there.
Alas, I can feel the groin.
My hand feels no obstacle and just slides down.
It appears you gave birth to a baby like you.”

[Jajinmori] Mrs. Gwak is disappointed.
“The late child is a girl to my chagrin!”
Mr. Sim responds, “Darling, don’t say that.
The first child was an easy birth. How lucky we are!
A son is better than a daughter,
but a bad son can be a disgrace to our family.
A good daughter is better than a bad son.
Let’s raise our daughter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s, needlework, and then weaving.
Let’s choose a successful man as her husband.
Hopefully, she will live happily with him.
If his family gets along with ours, he might hold a ritual for my
ancestors.
So don’t say that.”

6. (Praying to Three Gods of Birth) Mr. Sim prays to the Three Gods of Birth for the happiness of his girl.

[Aniri] Meanwhile, Mrs. Gwideok prepares the soup and rice
quickly.
She places them on a table for the God of Birth.
“Mr. Sim, please pray to the God.”

“거, 내가 어떻게 빈다요?²⁷⁸⁾ 귀덕어머니가 좀 빌어주소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소. 봉사님이 잘 좀 빌시오.”²⁷⁹⁾

“내가 좀 빌어볼까?”

심봉사 의관²⁸⁰⁾을 정제²⁸¹⁾허고

두 손 합장²⁸²⁾ 비는디,

눈 뜬 사람 같거든 명과 복을 많이 태여주시라고²⁸³⁾ 공손히 빌련마는,

봉사라 맹성²⁸⁴⁾이 있어 독성²⁸⁵⁾으로 비는디,

남 듣기에는 삼신님네와 씌²⁸⁶⁾하는 듯이 꼭 빌든 것이었다.

[자진모리] “삼십삼천²⁸⁷⁾ 도술천!²⁸⁸⁾ 삼신 제왕님네,²⁸⁹⁾

화위동심²⁹⁰⁾허여 다 굽어보옵소서!

사십에 점지²⁹¹⁾헌 딸

한 달 두 달 이슬 맺고,

석 달으²⁹²⁾ 피 어리고,²⁹³⁾

넉 달으 인형²⁹⁴⁾ 삼겨,²⁹⁵⁾

다섯 달 오폐²⁹⁶⁾ 받고,

여섯 달으 육정²⁹⁷⁾ 나,²⁹⁸⁾

일곱 달에 칠구²⁹⁹⁾ 삼겨,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에 구구³⁰⁰⁾ 열려,

열 달에 금강문³⁰¹⁾ 하달문³⁰²⁾ 고이³⁰³⁾ 열어

순산허여 주옵시니,

삼신님 넓으신 덕 백골난망³⁰⁴⁾ 잊으리까?

다만 독녀³⁰⁵⁾ 딸이오나,

동방삭³⁰⁶⁾의 명³⁰⁷⁾을 주고,

태임³⁰⁸⁾의 덕행이며,

대순³⁰⁹⁾ 증자³¹⁰⁾ 효행이며,

“Well, how can I pray to them? Please do it on my behalf.”

“Well, I don’t know about that. Please do it yourself.”

“Let me pray to them.”

Mr. Sim puts his clothes in order.

He holds his hands together to pray.

If he were a person with sight, he would ask the gods to bless her in a polite manner.

But being blind, he is ill-tempered and speaks bluntly.

He prays as if he were in a quarrel with God of Birth.

[Jajinmori] “All gods in all heavens!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You assigned a daughter to me, a forty year old man.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got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the head.

In the eighth month, a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came out through the firm door.

It was an easy birth.

I am eternally grateful to God of Birth for he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daughter.

Please help her live long.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a good child!

길량의 처³¹¹) 절행³¹²)이며,
반희³¹³)의 재질³¹⁴)이며,
석승³¹⁵)의 복을 주어,
외 분듯³¹⁶) 달 분듯 잔병³¹⁷)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³¹⁸)허게 허옵소서!”

7. (심봉사 딸을 안고 어름) 심봉사가 딸을 안고 어른다.

[아니리] 빌기를 다 허더니, 더운 국밥 떠다 놓고 산모³¹⁹)를 먹인 후에,
심봉사 기쁜 마음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어 어루는디,³²⁰)

꼭 눈으로 보나³²¹) 다름없이 어루던³²²) 것이었다.

[자진모리]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 둥 두웅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자둥³²³)아, 옥자둥³²⁴)아,

주류천하무쌍둥.³²⁵)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 준들 너를 살까?

둥둥 두웅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삼겨나?³²⁶) 네가 어디서 삼겨 와?

하날³²⁷)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 다기봉터니³²⁸) 구름 속에 싸여 와?

포진강³²⁹) 속향³³⁰)이 네가 되어서 환생?³³¹)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 되어서 내려와?

May she be virtuous!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rich!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7. (Mr. Sim Dandles His Daughter) Mr. Sim dandles his daughter.

[Aniri] After the prayer, Mr. Sim gives the soup and rice to Mrs. Gwak.

He is delighted and lays the baby.

He sit by her and dandles her.

He dandles her as if he were a person with sight.

[Jajinmori] "Oh, m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You are gold. You are jade.

You are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child in the world.

You are more valuable than gold or jade.

Oh, my lovely daughter!

Where did you come from?

Did you fall down from the sky?

Did you spring up from the ground?

Did you come from the heavy summer clouds?

Is the ancient girl, Shu Xiang(淑香), reincarnated into you?

Were you Vega in the Milky Way?

남전북답³³²)을 장만헌들 든든허기가 너같으며,
산호 진주를 얻었은들 반갑기 너 같을거나?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자진모리]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천정³³³)이 광할³³⁴)헌 것이나,
눈썹이 기름³³⁵)헌 것이나,
눈까풀이 삼시불진³³⁶) 것이나,
양미³³⁷) 평퍼지름헌³³⁸) 것이나,
꿇밥³³⁹)이 축 처진³⁴⁰) 것이나,
콧마루 우뚝헌 것이나,
입술이 앵도같이 붉은 거나,
아래턱 도리박금헌³⁴¹) 것이나,
어찌 그리도 잔상잔상³⁴²) 너의 어머니만 닮았느냐?
둥 둥 두우웅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8.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으로 죽게 된 곽씨부인이 유언을 한다.

[아니리] 이렇듯이 즐길 적에,
그때여 곽씨부인은 해복³⁴³)한 초칠일³⁴⁴)이 다 못 되어,
찬물에 빨래허기, 조석취반³⁴⁵) 허느라고
외풍³⁴⁶)을 과히³⁴⁷) 썩아
산후별증³⁴⁸)이 나는데,
만신³⁴⁹)이 두루 붓고
호흡 천촉³⁵⁰)허여,

I feel more secure with you than I would with a lot of lands.
I feel more delighted with you than I would with pearls.
Oh, my lovely daughter!"

[Jajinmori] "Oh, my lovely daughter!
Your forehead is wide.
Your eyebrows are narrow and long.
Your eyelids are double-edged.
The space between your eyebrows are flat.
Your earlobes hang down.
Your nose is high.
Your lips are red.
Your chin is round.
It is marvelous that you took after your lovely mother.
Oh, my lovely daughter!"

**8. (The Last Words of Mrs. Gwak) Mrs. Gwak, having
childbirth complication, says her last words to Mr.
Sim.**

[Aniri] Mr. Sim has fun with the baby.
Seven days haven't yet passed since the childbirth.
Washing clothes in cold water and preparing breakfast and
dinner,
Mrs. Gwak exposes herself to cold wind too much.
She suffers from a childbirth complication.
Her body got swollen.
She is short of breath.

식음³⁵¹을 전폐³⁵²허고 정신없이 앓는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군님!³⁵³ 만신이 아파,
 아매도³⁵⁴ 나는 못 살겠소!”
 심봉사 겁을 내어
 문의³⁵⁵허여 약도 쓰고,
 백 가지로 서둘러도 사병³⁵⁶에 무약³⁵⁷이라.
 죽기로 난 병이니 일본³⁵⁸ 효차³⁵⁹ 있으리오?
 병세 점점 위중³⁶⁰허여,
 꺾씨부인 또한 살지 못하고 죽을 줄을 짐작허고,
 눈물지며 유언³⁶¹을 허는디,
[진양조] 가군의 손길을 부여잡고,³⁶²
 ‘후유’ 한숨을 길게 쉬며,
 “아이고 여보, 가군님!
 내 평생 먹은 마음, 앞 못 보는 가장 일신³⁶³ 해로백년³⁶⁴ 봉양타가
 불행 망세³⁶⁵ 당허오면, 초종장사³⁶⁶헌 연후에³⁶⁷ 뒤를 쫓아 죽겠더니,³⁶⁸
 천명³⁶⁹이 그뿐인지,
 인연이 끊쳤는지
 하릴없이³⁷⁰ 죽게 되니,
 내가 아차 죽게 되면, 사고무친³⁷¹ 혈혈단신³⁷² 의지할 곳 바이없어,³⁷³
 지팡이를 찾아 짚고 때³⁷⁴를 찾아 다니다가
 돌에 채여 넘어지나,
 구렁³⁷⁵에도 떨어져서
 신세자탄³⁷⁶ 우는 양³⁷⁷을
 나 죽은 혼백³⁷⁸인들 차마 어찌 듣고 보며,
 명산대찰³⁷⁹ 신공³⁸⁰ 드려

She is seriously ill, not eating or drinking anything.
“Ouch!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Oh, honey! I feel pain all over my body.
Probably, I am dying!”
Mr. Sim got petrified.
He consults a doctor and uses medicines.
All sorts of medicines don’t work against the deadly disease.
The fatal illness doesn’t improve at all.
The illness gets more serious.
She thinks that she won’t be able to pull through.
She gives her last words in tears.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Whew!’ She sighs heavily.
“Oh, my darling!
I was determined to take good care of my blind husband until
he dies.
If he dies, I wanted to follow his death after I finish the funeral
service.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from dying.
If I die, you will be alone, having no relative and nobody to
depend on.
You will travel around with the help of cane.
You will fall over because of a stone.
You will fall into a pit.
You will cry, lamenting over your fate.
It will be hard for my soul to watch you.
I prayed in buddhist temples on famous mountains.

사십 후에 낳은 자식
 젓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못 보고 원통히 죽게 되니,
 멀고먼 황천길³⁸¹⁾을 앞이 맥혀 어이 가리?
 천행³⁸²⁾으로 저 자식이 죽지 않고 자라나서 제 발로 걷거들랑, 앞세
 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을 찾아와서,
 ‘아아,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분묘³⁸³⁾로다.’
 가르쳐 모녀상봉³⁸⁴⁾ 시켜주오.
 천명을 못 어기어
 앞 못 보신 가장으게 어린 자식을 끼쳐두고,³⁸⁵⁾
 영결³⁸⁶⁾허고 죽어가니,
 가군의 귀허신 몸 애통³⁸⁷⁾허여 상케³⁸⁸⁾ 말고
 천만보중³⁸⁹⁾허읍소서.
 차생³⁹⁰⁾의 미진한³⁹¹⁾을
 후생으나³⁹²⁾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³⁹³⁾
 잡았던 손길을 시름없이 놓더니마는,
 한숨 쉬고 돌아누워
 어린 아해 끌어다려³⁹⁴⁾
 혀도 차고,³⁹⁵⁾ 얼굴³⁹⁶⁾도 문지르며,
 “천지도 무심코 귀신도 야속허다.
 네가 진즉³⁹⁷⁾ 삼졌거나,³⁹⁸⁾
 내가 좀 더 살거나,
 네 낳자 나 죽으니,
 죽난³⁹⁹⁾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의⁴⁰⁰⁾ 무삼⁴⁰¹⁾ 죄냐?
 내 젓 망중⁴⁰²⁾ 많이 먹고
 후사⁴⁰³⁾를 전허여라.”

I had a child after forty.
 I didn't even give her the milk.
 I die without even seeing her face.
 My feet wouldn't move to the distant world of the dead.
 If that child is fortunate to grow up and walk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Dear, this is the tomb of your mom.'
 Let the mother and the daughter meet each other.
 I can't disobey the heavenly command.
 I am leaving a young child to my blind husband.
 I am dying, parting forever with you.
 Don't let grief strike your precious body.
 Take good care of yourself.
 There is something to be desired in our relationship in this
 world.
 Let's meet again in the next world and live without parting."
 Mrs. Gwak releases her husband's hands.
 She takes a deep breath and turns around.
 She hugs her baby.
 She clicks her tongue and rubs her face.
 "Heaven and gods are heartless.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a little more.
 I die upon your birth.
 Why does death separate the dying mother and the living child?
 Take my last milk as much as you can.
 Have a child later."

[중모레] “아차, 내가 잊었내다.⁴⁰⁴⁾
 이 자식 이름일랑 청이라고 하여주오.
 저 주려고 지은 굴레⁴⁰⁵⁾ 오색 비단
 금자⁴⁰⁶⁾ 박아 진주느림⁴⁰⁷⁾ 부전⁴⁰⁸⁾ 달아
 신행함⁴⁰⁹⁾에 들었으니,
 그것도 씌워주고,
 나 찢던⁴¹⁰⁾ 옥지환⁴¹¹⁾이 내 손에 적삼기로⁴¹²⁾
 경대⁴¹³⁾ 안으 두었으니,
 심청이 자라거든 날 본 듯이 찢워주오.⁴¹⁴⁾
 헐 말이 무궁허나
 숨이 가빠⁴¹⁵⁾ 못 허겠소.”
 이렇듯이 유언을 허더니마는
 자는 듯이 숨이 지는구나.

9. (곽씨부인 죽음) 심봉사가 곽씨부인이 죽은 것을 뒤늦게 알고 애통해 한다.

[아니리] 심봉사는 마누라가 죽은지⁴¹⁶⁾ 산지⁴¹⁷⁾ 아무 물색⁴¹⁸⁾을 모르고,
 눈물만 이리 씻고, 저리 씻치면서,⁴¹⁹⁾
 “여보, 마누라. 병든다고 다 죽을까? 그럴 리 없지요.
 내 또 의가⁴²⁰⁾에 가 문의⁴²¹⁾하여 약 지어 올 것이니,
 부디 안심하시오.”
 급급히⁴²²⁾ 약을 지어가지고 와
 얼른 댈여⁴²³⁾ 짜서 들고 들어오며,
 “마누라, 일어나 약 자시오.⁴²⁴⁾
 이 약 먹으면 즉효⁴²⁵⁾헌답디다.

[Jungmori] “Oh, there is one thing I forgot.
Please call this child Cheong.
I made a hat for her with the silk of five colors.
A golden letter is embroidered and a pearl ornament hangs on
it.
It is in a marriage box.
Put the hat on her.
The jade ring I used to wear became small for me.
I kept it in the mirror box.
If Sim Cheong grows up, put it on her as if she were me.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can’t breathe any more.”
She finishes her last words.
She takes the last breath as if she falls asleep.

9. (The Death of Mrs. Gwak) Mr. Sim realizes about Mrs. Gwak’s death later and grieves.

[Aniri] Mr. Sim does not have the slightest idea that his wife
has died.
He wipes out tears to the left and right.
“Hello dear. Not all sick people die. No way.
I will go and get medicine from a doctor.
You will be all right.”
He brings medicine quickly.
He quickly boils and squeezes it to make a drinkable medicine.
“Honey, please sit up and take this medicine,
and it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천만 번 불리본들, 한번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으리오?

홀연히⁴²⁶ 무서운 기운이 들며 찬 바람이 일어나거늘,

약그릇 내려놓고 산모⁴²⁷를 만져보니,

수족⁴²⁸은 뻣뻣하고,

아래턱이 턱 늘어지고,

콧궁기⁴²⁹ 찬 바람이 나는지라.

심봉사가 그제야 마누라 죽은 줄을 알았겠다.

“아이고, 갓구나! 저것 두고 날 버리고 갔네!”

[중중모리] 심봉사 기가 맥혀 뒀다 절컹⁴³⁰ 주삿이며,

“아이고, 마누라! 허허, 우리 마누라 죽었네! 참으로 죽었는가?”

내리둥굴⁴³¹ 치둥굴며⁴³²

목제비질⁴³³을 덜컹⁴³⁴

가삼⁴³⁵을 쿵쿵 치고,

발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마누라! 내 평생의 정한 뜻이 사즉동혈허잖더니,⁴³⁶

황천⁴³⁷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저것 두고 죽단 말이 웬 말인가?

마누라!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야 저 자식을 길러낼 겐,

그대 죽고 내가 산들 저 자식을 어이 키잔⁴³⁸ 말?

동지선달 찬 바람으 무얼 입혀 길러내며,

해 지고 달 없을 때,

어둡침침 빈 방안으 젓 달라 우는 자식

뉘 젓 맥여 길러낼꼬?

아이구,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삼천벽도⁴³⁹ 요지연⁴⁴⁰의 서왕모⁴⁴¹를 보러 간가?

황릉묘⁴⁴² 이비⁴⁴³ 함께 회포말⁴⁴⁴을 허러 가?

Honey! Honey! Honey!"

Would even a thousand calls have the dead person respond?

Suddenly, a scary energy comes up and a cold wind rises up.

He puts the mediation bowl down and touches her.

Her hands and feet are stiff.

The bottom of her chin hangs down.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his wife has died.

"Alas, she has gone. She left me and the baby!"

[Jungjungmori] Mr. Sim is struck speechless and slumps down.

"Oh, my darling. Oh! My wife died! Did you really die?"

He tumbles over, up and down.

His head falls down fast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hits his chests hard with his fists.

He jumps up and down.

"Oh, my dear! It was my lifetime wish to die together with you.

How can you go to the world of the dead, leaving me and the baby behind?

Honey, I should have died instead of you to raise the child.

If you died and I live, how can the baby be raised?

What should I put on her during the cold winter?

When the sun sets and there is no moon,

the baby will cry for milk in the dark empty room.

Whose milk should I give her?

Oh, darling! Where are you going, leaving me behind?

Have you gone to see the goddess having a feast by a pond?

Have you gone to talk for long with the two ancient queens?

월궁⁴⁴⁵⁾ 향아⁴⁴⁶⁾ 짝이 되야 도약허로⁴⁴⁷⁾ 올라간가?
 호사정호천하든⁴⁴⁸⁾ 사씨부인⁴⁴⁹⁾을 보러 간가?
 나는 뉘를 찾아갈꼬?
 마누라!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알려주오.
 청춘작반호환향⁴⁵⁰⁾의 봄을 따라⁴⁵¹⁾ 오라나?
 청천유월래기시⁴⁵²⁾의 달을 띠고 오려나?
 꽃도 졌다 다시 피고,
 달도 졌다가 돌건마는,
 마누라 가는 길은 가면 다시 못 오는가? 아이고, 마누라!”
 밖으로 우루루루루루 나가더니,
 마당에 가 꺼꾸러져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
 속담에 계집 추는⁴⁵³⁾ 놈 미친 녀미라고 허지마는,
 현철⁴⁵⁴⁾하고 얹전한 우리 곱씨가 죽었소!”
 방으로 다시 들어 가
 마누라 목을 덜컥 안고, 코를 빨고 흔들며,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가 이리 될 줄 알었으면, 약방에도 아니 가고,
 마누라 곁에 앉아 극락세계⁴⁵⁵⁾로 가라고 염불⁴⁵⁶⁾이나 허여줄 걸.
 약능활인⁴⁵⁷⁾이라더니
 약이 도리어 모도⁴⁵⁸⁾ 원수로다. 아이고, 마누라!”

Have you gone to be a partner of the goddess on the moon?
 Have you gone to see the heroine in a novel?
 To whom should I go?
 Darling, if you go now, when are you coming back?
 Please tell me when you are coming back.
 Are you coming back when spring comes?
 Are you coming back when the moon rises?
 Flowers fell down and bloomed again.
 The moon set and rose back.
 But my wife has traveled the road of no return. Oh, honey!"
 He runs out of the room.
 He falls over on the yard.
 "Hey villagers!
 A proverb says a man praising his wife is crazy,
 but my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wife has died!"
 He goes back in the room.
 He hugs her neck swiftly, sucks her nose, and shakes her.
 "Alas, honey! If I had known you would die, I shouldn't have
 gone to the doctor.
 I should have been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go to heaven.
 They say medicine can save a person.
 The medication was rather an enemy. Oh, my dear!"

10. (상여소리) 동네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며 상여소리를 한다.

[아니리] 동리⁴⁵⁹ 사람들이 노소없이⁴⁶⁰ 모아 앓어 낙루⁴⁶¹허며 허는 말이,

“현철하신 꺾씨부인 재질⁴⁶²도 기이⁴⁶³허고,

행실도 음전⁴⁶⁴터니 불쌍히 죽었으니,

우리 동리 백여 호⁴⁶⁵에

십시일반⁴⁶⁶ 수렴⁴⁶⁷ 놓아⁴⁶⁸ 감장⁴⁶⁹허여 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다허고 공론⁴⁷⁰이 여출일구⁴⁷¹허여,

불쌍한 꺾씨 시체 의금관곽⁴⁷² 정히⁴⁷³ 허여,

소방신⁴⁷⁴ 대뜰⁴⁷⁵ 우에⁴⁷⁶ 결관⁴⁷⁷허여 내어놓고,

명정⁴⁷⁸ 공포⁴⁷⁹ 삼선⁴⁸⁰ 등물⁴⁸¹ 좌우로 갈라 세우고

발인제⁴⁸²를 지내는데,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중천!”⁴⁸³

발인제를 지낸 후에

열두 낭군⁴⁸⁴이 좌우로 늘어서 생여⁴⁸⁵를 메고 나가는데,

사람 죽어 나가는데⁴⁸⁶ 무슨 신명⁴⁸⁷으로 소리를 허리오마는,

역자이가⁴⁸⁸라, 망노⁴⁸⁹를 허라허고 생여소리⁴⁹⁰를 허며 나가든 것이었다.

[중모리]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어넘차 너화넌. 어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북망산천⁴⁹¹이 어데멘고?⁴⁹²

건너 안산⁴⁹³이 북망이로구나.”

“어너 허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황천수⁴⁹⁴가 머다더니⁴⁹⁵

10.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while carrying the bier.

[Aniri] All the villagers get together, shed tears, and talk with each other.

“Mrs. Gwak was extraordinarily wise, intelligent, and talented. Such a graceful person tragically died.

We have about 100 houses in this village.

Why don’t we collect money from each of us for the funeral?”

Opinions from many mouths are in an agreement.

They enshroud Mrs. Gwak’s poor body and put her in a coffin.

They prepare a bier tied with a string in front of the room.

A banner, a towel, boards, and so forth are displayed.

They hold a ritual.

“The soul is on the bier to a tomb.

We say with respect good-bye for good.”

The ritual is over.

Twelve men on the left and right carry the bier forward.

Because a dead person is carried out, they can’t sing a song joyously,

but as they move forward, they sing the bier song to forget the hard work.

[Jungmori]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Where is the mountain of the dead?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The river of the dead is said to be far,

앞넷물이 황천수로다.”

“어니 어니 어허으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사람이 세상을 공수래공수거⁴⁹⁶허니,

세상사가 모다⁴⁹⁷ 뜯구름⁴⁹⁸이라.”

“어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청경년출⁴⁹⁹ 너울너울,

수양버들 정자 우으⁵⁰⁰ 피꼬리 소리가 더욱 쉼네.”

“어니 어허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화너.”

이 때 심봉사 거동 보소.

어린 아해 강보⁵⁰¹에 싸서 귀덕어멈께 맡겨두고,

한 손으 지팡이를 들고, 생여 뒷채⁵⁰²를 검쳐잡고⁵⁰³

출척없는⁵⁰⁴ 울음으로 그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데 가오?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멀고먼 황천길을 나도 같이 따라가세.”

엎더지며⁵⁰⁵ 자빠지며 천방지축⁵⁰⁶으 따라간다.

“어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산첩첩노망망으⁵⁰⁷

다리가 아퍼서 어이 가며,

일침침운명명으⁵⁰⁸

주막⁵⁰⁹이 없어 어디 가 쉬어 갈까?

부창부수⁵¹⁰ 우리 정리⁵¹¹

나도 같이 따라가세.”

“어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

[중중모리] “어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어니 어허허 넘 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여보소, 동무들 말 듣소.

but it is that river in front of u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We come with empty hands. We also go with empty hands.
Everything is futile in life like a cloud.”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Leaves of vines wave.

A nightingale on a willow pavilion sings a sad song.”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Meanwhile, behold Mr. Sim.

He wraps up the baby in a cloth, and leaves her to Mrs.
Gwideok.

He holds a cane with one hand and the end of the bier with
the other hand.

He is upset and speaks in tears.

“Alas! Alas! Alas! Alas! My darling! Where are you going?

Let me go with you. Let me go to the distant world of the dead.”

He falls over again and again as he frantically follows the bier.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Our legs hurt. How can we go?

The sun sets, and clouds are dark.

There is no tavern. Where can we take a rest?

A man and wife are to live in harmony.

Let’s go together.”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Jungjungmori]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Hey folks! Listen to me.

자네도 죽으면 이 길이요,
 나도 죽으면 이 길이로구나.”
 “어 녀차 너화너 어너 어너 녀차, 어이 가리, 녀차 너화너..”
 “앞에 멘 놈 웅돌쇠야,
 오금⁵¹²을 너무 꺾지 말어라.
 시체 영혼이 요동⁵¹³ 한다.
 불사약⁵¹⁴이 없었으니,
 이 세상의 나온 사람 장생불사⁵¹⁵를 뉘⁵¹⁶ 할손가?”⁵¹⁷
 “어녀차 너화너 어너 어허 녀차, 어이 가리, 녀차 너화너.”
 “어 녀차 너화너. 어 너 어허 녀차, 어이 가리, 녀차 너화너.”
 “관음보살⁵¹⁸ 관음보살.”

11.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 제문을 지어 읽으며 슬피 운다.

[아니리] 향양지지⁵¹⁹ 가리어서
 고히 안장⁵²⁰헌 연후에,⁵²¹
 평토제⁵²²를 지낼 적에,
 심봉사 설운⁵²³ 심정으로 제문⁵²⁴을 지어 읽는다,
 봉사가 어찌 제문을 지어 읽을 수 있으리오마는,
 심봉사는 이십에 안맹⁵²⁵을 허였기로,
 본래 글이 문장⁵²⁶이라
 제문을 지어 읽든 것이었다.
[축문] “차호부인,⁵²⁷ 차호부인,
 요차요조숙녀혜여,⁵²⁸
 행불구혜고인이라.⁵²⁹

If you die, you go this way too.
 If I die, I go this way too.”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Hey man, up there!
 Don’t bend your knee too much,
 you are jolting the body and soul.
 There is no elixir of life.
 Who in the world would live long with dying?”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Goddess of Mercy!”

11. (Burial Ritual) Mr. Sim cries, reading a funeral ode during the burial ritual.

[Aniri] A sunny place is selected.
 The coffin is carefully buried.
 The burial ritual is held.
 Mr. Sim writes and reads a funeral ode in sad feeling.
 It sounds impossible that a blind man writes and reads an ode,
 but Mr. Sim became blind at twenty.
 However, he has been a good writer.
 So, he reads an ode of his own creation.

[Written Prayer]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 were a great person.

기백년이해로터니⁵³⁰⁾
 홀연몰혜언귀오.⁵³¹⁾
 유추자이영세혜여,⁵³²⁾
 이걸 어찌 길러내며,
 귀불귀혜천대혜여,⁵³³⁾
 어느 때나 오라는가?
 탁송추이위가혜여,⁵³⁴⁾
 자는 듯이 누웠이니,
 상음용이적막혜여,⁵³⁵⁾
 보고 듣기 어려워라.
 누산산이침금혜여,⁵³⁶⁾
 젖는 눈물 피가 되고,
 격유현이로수혜여,⁵³⁷⁾
 차생⁵³⁸⁾에는 하릴없네.”⁵³⁹⁾

12. (심봉사 탄식) 심봉사가 곽씨부인 무덤 앞에서 슬피 운다.

[진양조] “주과포혜⁵⁴⁰⁾ 박전⁵⁴¹⁾이나 많이 먹고 돌아가오.”
 무덤을 검쳐안고⁵⁴²⁾ 치등굴⁵⁴³⁾ 내리등굴며,⁵⁴⁴⁾
 가삼⁵⁴⁵⁾ 황황,
 목제비질⁵⁴⁶⁾을 덜컹.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 아니면은 얼어서도 죽을 테요, 끓어서도 죽
 을 테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 둘이 함께 묻혀보세.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How could you come back when you suddenly died?
You left for good, leaving a child behind.
How can I raise her?
You went to the land of no return.
When are you coming back?
The trees around your tomb is your house.
You are on your back as if you are sleeping.
This is a quiet place.
It will be difficult to see or hear a human.
My tears flow down and soak the neckband.
My tears become blood.
The world of the dead and the world of the living are separate.
I can't speak with you in the world of living anymore."

12. (The Wail of Mr. Sim) Mr. Sim wails in front of his wife's grave.

[Jinyangjo] "Please help yourself to the food on the altar."
He hugs the tomb and tumbles up and down.
He hits his chest with his fists.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Oh, honey. Without you, I will freeze or starve to death.
I would rather die and be buried with you.
Honey, where have you gone?"

앞 못 보는 내게다가 어린 자식을 끼쳐두고,⁵⁴⁷⁾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렸는가?⁵⁴⁸⁾
 그리 쉽게 가랴거든⁵⁴⁹⁾
 당초⁵⁵⁰⁾에 나지를⁵⁵¹⁾ 말았거나.
 왔다 가면 함끄나 가지,
 무슨 원수로 혼자만 가오?
 마누라는 나를 잊고 북망산을 찾아와서
 송죽⁵⁵²⁾으로 울⁵⁵³⁾을 삼고, 두견이 벗이 되어
 자는 듯이 누웠으니,
 내 신세를 어찌라고.
 노이무처환부란 계⁵⁵⁴⁾ 사궁⁵⁵⁵⁾ 중의 첫머런디,
 아들 없고, 앞 못 보니
 몇 가지 궁이나 되단 말이오?”
 곧 쓴 묘를 도로 파면서 함께 들기로⁵⁵⁶⁾ 작정을 한다.

13.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래)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아니리] 동리 사람들이 심봉사를 붙들고 위로해야 허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⁵⁵⁷⁾
 봉사님이 아무리 애통⁵⁵⁸⁾허신들 한번 돌아가신 꼭씨부인이 다시 살아오실 리가 있겠소?
 산 자식을 생각하여 고분지통⁵⁵⁹⁾을 진정허요.”
 심봉사 이 말 듣고, “고맙소. 고맙소. 은혜 백골난망⁵⁶⁰⁾이요.”
 심봉사 하릴없이 집으로 돌아갈 제,

I am blind, and you left a young child to me.
How can you go to the world of the dead so easily?
If you had been fated to go that easily,
you should not have been born,
or you should have died with me.
Was I your enemy to go alone?
You came to this tomb, having abandoned me.
Taking pines and bamboos as a fence and a bird as your friend,
you lie down as if you were sleeping.
What becomes of my fate?
Having no wife at an old age is one of the four miseries in life.
I don't have a son and am blind.
How many miseries do I have?"
He digs the newly built grave to go in together.

**13. (Mr. Sim Soothes the Crying Daughter) Mr. Sim
back home laments while soothing the crying
daughter.**

[Aniri] The villagers hold and console Mr. Sim.
"Hey, Mr. Sim. A dead person cannot come back to life.
No matter how much you grieve, Mrs. Gwak is dead and will
not come back.
Think about your living child, and hold down your grief."
Mr. Sim responds, "Thank you. I will never forget your favor."
Mr. Sim reluctantly comes back home.

[중모래] 역군⁵⁶¹⁾들께 썩들려⁵⁶²⁾ 울며불며 들어간다.
 집이라고 들어가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안은 텅 비었구나.
 심봉사 실성발광⁵⁶³⁾ 미치는데,
 얼싸덜싸 춤도 추며, ‘허허’ 웃어도 보고,
 지팽이⁵⁶⁴⁾ 걷터짚고⁵⁶⁵⁾ 더듬더듬 더듬거리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아무 대답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곱어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 여기 있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지라,
 방으로 들어가서 쭈내 향내 피워놓고,
 더진듯이⁵⁶⁶⁾ 홀로 앉아
 통곡으로 우는 말이,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갔소?
 혈혈단신⁵⁶⁷⁾ 이 내 몸이
 뉘게다⁵⁶⁸⁾ 의탁⁵⁶⁹⁾을 허잔 말이오?”
 이렇듯이 설리 울 적, 불쌍헌 심청이는 배가 고파 울음을 운다.
 심봉사 기가 맥혀 우는 아이를 안고 앉아,
 “악아! 찌찌찌찌.⁵⁷⁰⁾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너도 너그⁵⁷¹⁾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너희 모친은 먼 데 갔다.
 낙양동춘⁵⁷²⁾ 이화정의 숙낭자⁵⁷³⁾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⁵⁷⁴⁾ 오신 혼백 이비부인⁵⁷⁵⁾을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있다마는, 오만⁵⁷⁶⁾ 기약은 없었구나.
 악아, 악아, 우지 마라.”

[Jungmori] With the pallbearers' help, Mr. Sim goes into his house in tears.
His house only has a quiet kitchen and an empty room.
He becomes upset and wild.
He dances wildly and laughs loudly.
Using the cane, he manages to arrive at his neighbor's house.
"Hello, my neighbor! Is my wife here?"
Nobody answers.
He comes back home and looks at the kitchen.
"Hey, honey! Are you here?"
No matter how hard he calls her, there is no answer.
He enters the room and burns mugwort incense.
He sits as if he were thrown away.
He bewails in tears.
"My dear! You abandoned me. Where have you gone?
I am alone having nobody to depend on,
Who should I turn to?"
While Mr. Sim sobs sadly, poor Sim Cheong cries for milk.
Mr. Sim is stunned and holds the crying baby in his arms.
"My dear! Tut, tut! Don't cry. My baby!
Are you crying because you know that your mom died?
Are you crying because you are hungry?
Your mom went far away.
She went to see an ancient virtuous woman.
She went to see the souls of two ancient queens.
There is a day of going, but there is no day of coming back.
Don't cry, baby."

아무리 달래어도 아해는 그저, “응아, 응아!”
 심봉사 목이 메어,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배가 고파 운다마는
 강목수생⁵⁷⁷⁾이로구나. 마른 남기⁵⁷⁸⁾ 물이 나겠느냐?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아무리 달래어도 아해는 그저 묻지닷이,⁵⁷⁹⁾ “응아 응아, 응아!”
 심봉사 화가 나서 안었던 아해를 방바닥에다 미다치며,⁵⁸⁰⁾
 “죽어라! 죽어라! 썩 죽어라! 이놈의 새끼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⁵⁸¹⁾ 안에 어미를 잡아 먹고
 이 고생이여? 죽어!”
 아해는 질색⁵⁸²⁾하여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심봉사가 참설음이 터져나오는데,
 아기를 다시 안고,
 “악아! 썩썩썩썩.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너 죽어도 나 못 살고,
 나 죽어도 너 못 살리라.
 너 울음 한 마디면 일촌간장⁵⁸³⁾이 다 녹는다.
 불쌍헌 내 자식아, 우지 마라.
 어서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펌여주마.
 제발덕분에⁵⁸⁴⁾ 우지를 마라.”

14. (젓동냥) 날이 밝자, 심봉사가 우물가를 찾아가 젖을 얻어 먹인 후 좋아한다.

[아니리]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둔 눈은 더욱 침침하고,

No matter how hard he soothes the child, she keeps crying.
He feels choked. "Don't cry, my baby.
You cry because you are hungry,
but how can water come out of a dry tree?
Am I holding milk back from you?"
No matter how hard he soothes her, she retorts with cries.
Mr. Sim gets angry and pushes the baby on the floor.
"Die! Die! Die! Die quickly! You bad girl! Die quickly!
How good your fate is to kill your mom seven days after birth!
Why are you in such a misery? Die!"
The child seems to be petrified but continues trying.
True sorrow bursts from him.
He hugs the baby again.
"Baby! Tut, tut. Don't cry, my child.
I cannot live without you.
You cannot live without me.
Your cry breaks my internal organs into pieces.
Oh, my poor child. Don't cry.
If the day breaks, I will beg some milk for you.
Please don't cry."

**14. (Begging Milk) After the day breaks, Mr. Sim is
delighted, getting milk from women around a
well.**

[Aniri] Mr. Sim stayed up all night, so his blind eyes hurt.

아해는 기진⁵⁸⁵혈 제,
 동방⁵⁸⁶이 회번히⁵⁸⁷ 밝아오니
 우물가에 물 걷는 소리가 들리거늘,
 심봉사 좋아라고,
 “웁지. 인제 날이 밝었구나.”
[중중모리] 우물가 두레박⁵⁸⁸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
 한 품으 아이 안고, 한 손으 지팡이 걷더쥔고,⁵⁸⁹
 더듬더듬 더듬 더듬 더듬더듬으 나간다.
 우물가 찾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뉘신⁵⁹⁰ 줄은 모르오나,
 초칠 안으 어미를 잃고
 젖을 주려서 죽게 되니,
 이 애 젖 쪼끔 멕여 주오.”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⁵⁹¹인들 아니 주며, 도척⁵⁹²인들 아니 주랴?
 젖을 많이 멕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러이 생각 말고, 내일도 안고 오고, 모레도 안고 오면,
 내 자식을 못 멕인들
 차마 그 애를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허오. 수복강녕⁵⁹³허옵소서.”
 젖을 얻어 멕이랴고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으,
 그 때여 심봉사가 젖동냥에 이끌이 나서,⁵⁹⁴
 삼배 질쌔⁵⁹⁵허노라 ‘히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The baby is exhausted.
It gets bright from the east.
He hears women getting water from a well.
He is delighted.
“Okay, the day has broken now.”

[Jungjungmori] Mr. Sim hears the bucket on the well and goes out.
He holds the baby with one hand and a cane with the other hand.
He moves the cane around to find his way.
He arrives at the well.
“Hello, ladies. I don’t know who you are.
She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birth.
She might starve to death.
Please feed this baby with your milk.”
The women around the well would give milk, even if they were a stone or a burglar.
They give a lot of milk.
“Hello, Mr. Sim!
This family has a baby.
That family has a baby too.
Don’t hesitate to com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Their babies might be hungry,
but would they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delighted.
“Thanks a lot.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To beg milk, he visits this and that house.
He is now used to begging milk.
He hears the laughs of women weaving ramie and goes quickly to them.

“이 애 젓 좀 맥여주오.”

오뉴월 피약별⁵⁹⁶⁾에 김매고 쉬는 부인을 더듬더듬으 찾어가,

“이 애 젓 좀 맥여주오.”

백석창탄⁵⁹⁷⁾ 시냇물 빨래허는 부인들께 더듬더듬으 찾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댁에 귀한 아이 먹고 남은 젓 있거들랑, 이 애 젓 조금 맥여주오.”

젓 없는 부인들은 돈돈⁵⁹⁸⁾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되⁵⁹⁹⁾씩 떠주며 맘쌀⁶⁰⁰⁾이나 허라허니,

심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허오. 은혜 백골난망이오.”

젓을 많이 맥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 적,

어덕⁶⁰¹⁾ 밑에 쭈구려 앉어 아기를 어룬다.⁶⁰²⁾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내 딸 배불렀다!

히히, 인제 배가 뽕뽕허다.⁶⁰³⁾

거 날마다 이렇게 불렀으면 오직이나 좋겠느냐?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내 새끼지. 내 새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이 덕이 뉘 덕이나?

동리⁶⁰⁴⁾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허면 부귀다남⁶⁰⁵⁾을 헨다드라.

너도 어서어서 자러나,

너그⁶⁰⁶⁾ 모친 본을 받아 현철하고 암전허여

아비 귀염⁶⁰⁷⁾을 뵈어라.

둥둥 두우웅둥 어둥둥둥, 내 딸이야.”

[자진모리]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내 새끼지야. 내 새끼. 어허 둥둥 내 새끼.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Please give some milk to this baby.”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beautiful stream.

“Hello, ladies! If some milk is left after your precious child is fed, please give some to this baby.”

Women having no milk give some money to him.

Women having no money give some rice to make a soup.

Mr. Sim is happy.

“Thank you. I will never forget your favor.”

After feeding the baby a lot, he comes back home with her in his arms.

He sits down in front of his poor house and dandles the baby.

“Oh, m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Good! My daughter is full.

Wonderful! The belly is tight.

Wouldn't it be good if you are full like this everyday?

Oh, my lovely daughter! My child! My lovely daughter!

To whom do we owe this?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is village.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Please grow up quickly.

Like your mom, please be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Be loved by your father.

Oh, my lovely daughter.”

[Jajinmori] “Oh, m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You are my child. My child! Oh, my lovely child!

눈 비 산천에 꽃봉이,
 새벽바람의 연초록,
 얼음 궁기⁽⁶⁰⁸⁾에 수달이로고나.
 어둥둥 내 새끼.
 땡기 끝에는 준주실,⁽⁶⁰⁹⁾
 옷고름에는 밀화불수,⁽⁶¹⁰⁾
 어덕 밑에 귀넙이⁽⁶¹¹⁾ 왔느냐?
 슬슬 기어라, 어둥둥둥, 내 딸이야.
 쥐얌쥐얌,⁽⁶¹²⁾
 잘깡잘깡,⁽⁶¹³⁾
 엄마, 아빠, 도리도리,⁽⁶¹⁴⁾
 어둥둥둥, 내 새끼.
 아나, 울룰룰룰룰로.⁽⁶¹⁵⁾
 아, 요것이 발써⁽⁶¹⁶⁾ 나를 보고 똥긧똥긧 웃는다.
 허이, 참. 아, 그 웃는 입모습 영락없이⁽⁶¹⁷⁾ 네 어머니다.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서울 가, 서울 가, 밤 한 줌 주워다
 살강⁽⁶¹⁸⁾ 밑에 넣어놔더니마는,
 머리 검은 새앙쥐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밤 하나 남은 것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자.
 어둥둥둥, 내 새끼. 둥둥 두웅둥 어둥둥둥, 내 딸이야.”

You are a flower on a mountain in the snow and rain,
You are a green grass in the early morning wind,
You are a cute otter in the ice hole,
Oh, my lovely child,
A small pearl is at the end of a pigtail ribbon,
A jewel is on the coat string. You are precious like a son,
Toddle slowly. Oh, my daughter!
Open and close your hand.
Let's go to sleep.
Mom, Daddy. Shake your head.
Oh, my lovely child!
Look at me, baby.
Gee, she looks at me, and now smiles at me.
Oh, my god! Your smiling face is surely that of your mom.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I got a handful of chestnuts from Seoul.
I kept them on the shelf in the kitchen.
A mouse with a black head came in and went out.
It ate them all except one.
Let's cook it with sesame oil and eat it together.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15. (심봉사 동냥) 심봉사가 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아니리] 아해 안고 돌아와
포단⁽⁶¹⁹⁾ 덮어 뉘어놓고,
아해 지는 틈을 타서 동냥차로⁽⁶²⁰⁾ 나가는데,
[중중모리] 삼베 전대⁽⁶²¹⁾ 두 동 지어⁽⁶²²⁾
원⁽⁶²³⁾ 어깨 드러메고⁽⁶²⁴⁾ 동냥차로 나간다.
한 편에는 쌀을 받고,
한 편에는 나락 동냥.
어린 아해 맘죽차로⁽⁶²⁵⁾ 감을 사고, 홍합 사
원 어깨 드러메고 허유허유⁽⁶²⁶⁾ 돌아온다.
그 때여 심청이는 하늘의 도움이라 잔병⁽⁶²⁷⁾ 없이 자리날 적,
세월이 여류허여⁽⁶²⁸⁾
육칠 세가 되어가니,
부친의 지팡이 잡고 앞길을 인도허기,
모친의 기제사⁽⁶²⁹⁾와 부친의 봉양사⁽⁶³⁰⁾를 의법이⁽⁶³¹⁾ 허여가니,
무정세월⁽⁶³²⁾이 이 아니냐.

16. (심청 부친 봉양) 심청이 하루는 자신이 밥을 빌어 아버지 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리] 하루는 심청이 부친전⁽⁶³³⁾ 여짜오되,
“아버지, 오늘부터 아무 데도 가지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옵시면,⁽⁶³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⁶³⁵⁾허겠나이다.”

15. (Mr. Sim's 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around.

[Aniri] Mr. Sim comes back with the baby in his arms.

She lays and covers the baby with a small quilt.

While the baby sleeps, he goes out to beg for food.

[Jungjungmori] Mr. Sim divides a ramie bag into two halves.

He carries them on the left shoulder and goes out to beg.

He puts hulled rice into one half of the bag.

He puts unshelled rice into the other half of the bag.

He buys persimmons and sea mussels to make a soup for the baby.

He carries them on his left shoulder and comes back awkwardly.

Sim Cheong grows up without getting sick with the help of heaven.

Time flows like an arrow.

She becomes six and seven years old.

She holds her father's cane and leads the way.

She holds a ritual for her mother, and serves her father well.

How fast time goes!

16.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hat she will beg for food to support her father.

[Aniri] One day, Sim Cheong speaks to her father.

"Father, please don't go anywhere. Stay home from today and on. I will beg for food and serve you meals."

심봉사 깜짝 놀래, “악아, 네 이것이 웬 말이냐?
 네 아무리 궁곤⁽⁶³⁶⁾헌들 예절조차 모를쏘냐?
 네 나이 칠세이기로
 인제는 너를 들어앉히고 나 혼자 밥을 빌라는디,⁽⁶³⁷⁾
 나는 들어앉고 너 혼자 밥을 빌다니?
 아서라. 그런 말 두 번 다시 허지 마라.”
[중모레] “아버지, 듣주시오.⁽⁶³⁸⁾
 자로⁽⁶³⁹⁾는 현인⁽⁶⁴⁰⁾으로 백 리으 부미허고,⁽⁶⁴¹⁾
 순우의⁽⁶⁴²⁾ 딸 제영⁽⁶⁴³⁾이는 낙양⁽⁶⁴⁴⁾ 옥으 갇힌 아비⁽⁶⁴⁵⁾ 몸을 팔어
 속죄⁽⁶⁴⁶⁾허고,
 말 못하는 가마귀⁽⁶⁴⁷⁾도 공립⁽⁶⁴⁸⁾ 저문 날으 반포⁽⁶⁴⁹⁾를 헐 줄 아니,
 하물며 사람 치고⁽⁶⁵⁰⁾ 미물⁽⁶⁵¹⁾만 못허오며,
 칠세 여식⁽⁶⁵²⁾ 내외허자⁽⁶⁵³⁾
 앞 못 보신 아버지가 밥을 빌로 다니시면, 남이 옥도 헐 것이요,
 바람 불고, 날 치운디⁽⁶⁵⁴⁾
 천방지축⁽⁶⁵⁵⁾ 다니시다 병환이 나실까 염려오니,
 그런 말썽을 마옵소서.”
[아니레] 심봉사 그 말 듣고,
 “기특타,⁽⁶⁵⁶⁾ 내 딸이야. 네 그런 말은 다 어디서 배웠느냐?”
 “이동지택⁽⁶⁵⁷⁾ 소저⁽⁶⁵⁸⁾ 글 읽는 걸 대강 들었사온디,
 부자유친⁽⁶⁵⁹⁾은 오류의 으뜸이요,
 남녀칠세부동석⁽⁶⁶⁰⁾은 사소한 예절이라 하옵디다.”
 “아! 그도 꼭 사소한 예절이라고만 허겠느냐마는,
 네 인정이 그럴진대,⁽⁶⁶¹⁾ 한두 집만 잠깐 다녀오너라, 응?”
 “예.”

Mr. Sim is surprised. "Sweetheart, what did you say?
Would I forget moral rules because I am poor?
You are seven years old.
I wanted you to stay home and wanted to beg for food alone.
Do you want me to stay home and want to beg for food alone?
No! Don't say that again."

[Jungmori] "Please hear me out, father.

A virtuous student of Confucius carried a rice bag for hundreds
of miles to feed his father.

An ancient daughter became a slave for the government to
amend for her father's crime.

Even a speechless crow feeds its old parents in an empty grove
at sunset.

How can a human being be worse than an animal?

I am seven and know the moral rules.

If my blind father begs around for food, others will blame me.
It is windy and cold.

I am afraid you might get sick if you travel here and there,
so don't say that."

[Aniri] Mr. Sim responds.

"Good! My daughter!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I heard the daughter of a poor scholar reading a book.

The most important moral rule is that a son should respect his
father.

It is a trivial moral rule that a boy and a girl don't sit together
after seven."

"Oh, that moral rule can't be said to be trivial.

If you insist, travel only to a couple of houses. Okay?"

"Okay."

17.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한다.

[중모리] 심청이 거동⁶⁶² 보아라.

밥을 빌러 나갈 적으,

헌 베 중우⁶⁶³ 다님⁶⁶⁴ 매고,

청목⁶⁶⁵ 휘양⁶⁶⁶ 놀러 쓰고,

말⁶⁶⁷만 남은 헌 초마르⁶⁶⁸

깃⁶⁶⁹ 없는 헌 저고리,

바가지를 옆에 끼고

서리 아침⁶⁷⁰ 치운⁶⁷¹ 날으

바람 맞인⁶⁷² 병신처럼 옆걸음쳐 건너가서,

부엌문전⁶⁷³ 당도하여 애근히⁶⁷⁴ 비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님네.

불쌍허신 우리 부친 구원⁶⁷⁵할 길 바이없어⁶⁷⁶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덜 집숫고⁶⁷⁷ 십시일반⁶⁷⁸ 주옵시면 부친 공양⁶⁷⁹을 허겠내다.”⁶⁸⁰

듣고 보는 부인들이 뉘 아니 슬퍼허리.

그릇밥,⁶⁸¹ 김치, 장⁶⁸²을 애끼얹고 후히 주며,

혹은 먹고 가라허니,

심청이 여짜오되, “기허⁶⁸³허신 우리 부친 나 오기만 기다리시니,

저 혼자 어이 먹사리까?⁶⁸⁴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 모시고 먹겠내다.”⁶⁸⁵

이렇듯 얻은 밥이 한두 집에 족헌지라.⁶⁸⁶

밥을 얻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적,

심청이 나갈 때는 원산⁶⁸⁷의 해가 아니 비쳤더니,

발써⁶⁸⁸ 해가 등실 떠

17.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well by begging around for food.

[Jungmori] Behold Sim Cheong!

She goes out to beg for food.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She jams a blue cotton headgear on.

Only the top of her skirt remains.

The old jacket doesn't have a collar.

She carries a bucket on her flank.

It is cold morning with frost.

She walks on her side as if she were crippled in the wind.

She arrives in front of a kitchen and begs in a pathetic voice.

"Hello, ma'am.

I have no other way to serve my poor father.

I am here to beg for food.

If you eat a little less and give me some, I can serve my father."

After hearing her, who wouldn't take pity on her?

They give her a bowl of rice, kimchi, and source generously,
or they tell her to eat together with them.

Sim Cheong responds, "My weak father looks forward to me.

How can I eat here?

I will go back home right away and eat together with him."

She gets enough food from a couple of neighbors.

She comes back home with food in her hands.

When she left home, the sun was not on the distant mountain.

The sun is already in the sky.

그새⁶⁸⁹⁾ 반일⁶⁹⁰⁾이 되었구나.

[자진모리] 심청이 거동 보아라. 문전에 들어서며,

“아이고, 아버지! 많이 기달렸지요?⁶⁹¹⁾

자연 지체되었내다.⁶⁹²⁾

칩킨들⁶⁹³⁾ 오직허며, 시장킨들⁶⁹⁴⁾ 앓소리까?”⁶⁹⁵⁾

심봉사 반겨라고⁶⁹⁶⁾ 펄쩍 뛰어 내달으며,

“아이고, 내 새끼야. 칩다.⁶⁹⁷⁾ 어서 들오너라.

손 시리다, 불 쪼어라!”

심청의 손을 안어 입에 넣고 후후 불며,

“흐유, 찌찌찌. 내 새끼야. 발인들 오직 시리겠느냐?”

발도 어루만지면서 눈물짓고 허는 말이,

“애닦도다, 너희 모친.

무상헌⁶⁹⁸⁾ 이 내 팔자

널로⁶⁹⁹⁾ 하야 밥을 비니,

이 밥 먹고 살겠느냐?

모진 목심⁷⁰⁰⁾이 죽지도 앓고,

네 고생을 시키는구나.”

심청의 장한⁷⁰¹⁾ 효성 부친을 위로허되,

“아버지, 설어⁷⁰²⁾ 마옵시고 진지 잡수시오.

부모를 봉양⁷⁰³⁾허고, 자식으께⁷⁰⁴⁾ 효 받기는 인사⁷⁰⁵⁾의 당연이오니,

너무 걱정 마옵시고 진지나 잡수시오.

이것은 흰 밥이요,

이것은 팔밥이요,

미역투각⁷⁰⁶⁾

갈치자반,⁷⁰⁷⁾

어머님 친구라고 아부지⁷⁰⁸⁾ 갖다드리라기에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참게⁷⁰⁹⁾ 잡수시오.”

Half of the day is already gone.
[Jajinmori] Behold Sim Cheong! She arrives home.
 “Hello, father. Did you wait for me long?
 Sorry, I am late.
 It is cold here. You must be hungry.”
 Mr. Sim is glad and comes out of the room.
 “Oh, my sweetheart. It is cold. Come in quickly.
 Your hands are cold. Warm them up here.”
 He holds her hands in his mouth and warm them up.
 “Whew! Tut, tut. Oh my child! Your feet must be cold too.”
 He gently touches her feet and shed tears.
 “Woe is your mother!
 My fate constantly changes.
 I live off you.
 How can I eat this food?
 My life is cruel to go on.
 I am only a burden to you.”
 Having great filial piety, she consoles him.
 “Please don’t feel sad. Please eat this food.
 It is a natural moral rule that a child serves her parents.
 Don’t worry. Please eat this food.
 This is pure rice.
 This is rice with red bean.
 This is seaweed.
 This is a hairtail.
 A friend of my mom gave me this food to bring it to you.
 Please help yourself.”

18. (시비 따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부르자,
심청이 시비를 따라 건너간다.

[아니리] 부친을 위로하여 진지를 잡숫게⁷¹⁰⁾ 헌 후,
날마다 얻은 밥이 합쳐노니 오색이라.
흰밥 콩밥 팔밥이며, 보리 기장 수수밥이 갖가지로 다 있으니,
심봉사집은 항상 정월 보름 닥쳤든 것이었다.
그렇저렇 세월을 보내는디,
심청 나이 십오 세가 되니,
얼굴이 점점 일색⁷¹¹⁾이요,
효행⁷¹²⁾이 출천⁷¹³⁾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⁷¹⁴⁾ 낭자터니,⁷¹⁵⁾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⁷¹⁶⁾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시비⁷¹⁷⁾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늘,
심청이 부친전⁷¹⁸⁾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승상댁 마마⁷¹⁹⁾께서 시비를 보내어 저를 불러계시
오니
어찌 하오리까, 아버지?”
심봉사 좋아라고
“그 댁 마님⁷²⁰⁾과 너의 모친과 별친⁷²¹⁾하게 지내셨다.
네가 진즉 가 뵈올 것을,
이제 청하시도록 있었구나.
악아, 네가 가 다녀오되,
인사 여쭙 후에 물으시는 말씀이나 대답하고 공순히⁷²²⁾ 앉았다가
수이⁷²³⁾ 오도록 하여라, 응?”

18. (Following a Maid)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invites Sim Cheong. She follows a maid over to the village.

[Aniri] Sim Cheong consoles her father and he eats food.
She begs everyday, and the food is diverse.
She has white rice, bean rice, red bean rice, barley, and millet.
In Mr. Sim's house it is always January 15th, the day of mixed food.
Somehow, time passes.
Sim Cheong is now fifteen years old.
She gradually became a rare beauty.
She is a good daughter from heaven.
Words about her spread here and there.
One da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ars about Sim Cheong.
She sends a maid to invite Sim Cheong.
Sim Cheong asks her father.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t me a maid to invite me.
What should I do, father?" Mr. Sim is delighted.
"The noble lady was a good friend of your mom.
I should have called on her.
I didn't until she invited you.
Sweetheart, go and see her.
Please bow to her, answer her questions, and sit politely.
And come back quickly. Okay?"

심청이 여짜오되, “만일 가서 더디어도, 잡숫다 남은 진지 탁자 우에
두었으니 시장커든 잡수세요.”

이렇듯 고한 연후에 승상택을 건너갈 제,

[진양조] 심청이 거동 보아라.

시비 따러 건너간다.

이 모룡⁷²⁴⁾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승상택을 당도하여 대문간⁷²⁵⁾을 들어서니,

좌편⁷²⁶⁾은 청송⁷²⁷⁾이요,

우편⁷²⁸⁾은 녹죽⁷²⁹⁾이라.

정하으⁷³⁰⁾ 있는 반송⁷³¹⁾

광풍⁷³²⁾이 건듯⁷³³⁾ 불면 노룡⁷³⁴⁾이 굽니난 듯.⁷³⁵⁾

중문⁷³⁶⁾ 안을 들어서니,

가세⁷³⁷⁾도 웅장허고,

문창⁷³⁸⁾도 찬란헌디,

반백⁷³⁹⁾이 넘은 부인 의상이 단정허고,

피부가 풍양⁷⁴⁰⁾허여 복기⁷⁴¹⁾가 많은지라.

심청을 반겨 맞으며,

“악아, 네가 심청이냐?

듣던 말과 과연 같구나.”

좌⁷⁴²⁾를 주어 앉힌 후어⁷⁴³⁾ 자세히 살펴보니,

별로 단장 없을망정

국색일시⁷⁴⁴⁾ 분명쿠나.

She says, "In case I am late and you feel hungry, please eat alone. The food that you didn't finish is on the table."

After speaking to her father, she goes over to the noble lady's house.

[Jinyangjo] Behold Sim Cheong!

She follows the maid.

She walks around a corner and through a mountain pass.

She arrives at the lady's house and goes through the gate.

On the left are pine trees.

On the right are green bamboos.

A low pine tree grows horizontally below a pavilion.

As a wind rages, it looks like an old dragon rising up.

Sim Cheong goes through the middle gate.

The house looks majestic.

The door and the window are splendid.

A lady over fifty wears elegant clothes.

Her skin looks mature and noble.

The lady welcomes Sim Cheong.

"Hi, are you Sim Cheong?"

They were right about you."

She asks Sim Cheong to sit and takes a close look at her.

She did not use any makeup,

but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country.

19. (장승상택 부인 수양딸 제안) 장승상택 부인이 심청의
자태를 보고 수양딸이 되어 줄 것을 청하지만, 심청은
거절한다.

[중중모리] “염용⁷⁴⁵)허고 앓은 거동,
백석청탄⁷⁴⁶)의 맑은 물 목욕허고 앓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날라
는⁷⁴⁷) 듯,⁷⁴⁸)
황홀한 그 얼굴은 천심으⁷⁴⁹) 돌은 달이 수면으 비치온⁷⁵⁰) 듯,
추파⁷⁵¹)를 흘러 뜨니 새벽빛 맑은 하늘의 경경한⁷⁵²) 새별⁷⁵³)이요,
팔자 청산⁷⁵⁴) 가는 눈썹은 초생편월⁷⁵⁵)의 정신이라.
양협⁷⁵⁶)의 고운 빛은 부용화⁷⁵⁷) 새로 핀 듯,
입을 열어 웃는 양⁷⁵⁸)은 모란화 한 송이가 하로밤⁷⁵⁹) 비 기운으⁷⁶⁰)
피고져 벌이난⁷⁶¹) 듯,
호치⁷⁶²) 열어 말을 허니 농산앵무⁷⁶³)로다.
전신⁷⁶⁴)을 살펴보니 응당히 선녀라.
월궁⁷⁶⁵)으 노든⁷⁶⁶) 선녀 도화동⁷⁶⁷)으 적하⁷⁶⁸)허여
벗 하나를 잃었도다.
무릉으⁷⁶⁹) 내가 있고,
도화동으 네가 나니,
무릉으⁷⁷⁰) 봄이 들어
도화동이 개화⁷⁷¹)로다.
악아, 내 말 들어봐라.
승상 일찍 기세⁷⁷²)허시고,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⁷⁷³) 가 미환⁷⁷⁴)허고,
어린 자식 말벗 없어
적적한 빈 방안으 대하나니 촛불이요, 보는 것이 고서⁷⁷⁵)로다.

19. (The Proposal of the Noble Lady to be Adopted)

After seeing Sim Cheong's beautiful figure, the noble lady asks Sim Cheong to be her adopted daughter, but Sim Cheong declines her proposal.

[Jungjungmori] "You are elegant and graceful.

You look as if a swallow bathed in a beautiful stream, saw a human being, got frightened, and tried to fly up.

Your adorable face looks like the moon in the middle of the sky reflected on the water.

Your beautiful eyes blink like the morning star in the clear sky.

Your narrow eyebrows look like a crescent moon.

Your two shiny cheeks are like fresh lotus flowers.

Your smiling face with the open mouth looks as if a peony blossom bloomed thanks to a rain at night.

When you expose your white teeth to speak, you look like a parrot having fun on a mountain.

Your bodily figure is surely that of a goddess.

A goddess is relegated to Peach Blossom Village from the palace on the moon.

They lost a friend.

I am in Paradise Village.

You were born in Peach Blossom Village.

Spring has come to Paradise Village.

Flowers bloom in Peach Blossom Village.

Please listen, sweetheart.

My husband died a long time ago.

My three sons are in Seoul, unmarried.

I don't have a child to talk with.

In this quiet room, I only see a candlelight and read an old book.

너의 신세 생각허니, 양반의 후예⁷⁷⁶)로서 저렇듯 곤궁허니,
 나의 수양딸⁷⁷⁷)이 되면 여공⁷⁷⁸)도 숭상허고,
 문자⁷⁷⁹)도 교습⁷⁸⁰)허여
 기출⁷⁸¹)같이 성취⁷⁸²)시켜,
 말년 재미 볼까 허니,
 네 마음이 어떠허냐?”
[중모레] 심청이 듣더니 여짜오되, “소녀 팔자⁷⁸³) 기박⁷⁸⁴)허여
 낳은 지 칠일만으 모친 세상버리시고,⁷⁸⁵)
 눈 어두운 아버지가 품안으 저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젓
 얻어 먹여
 게우게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먼 데 가신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웁고,
 궁천지통⁷⁸⁶) 맺힌 원한 꼬칠 날이 없삽더니,⁷⁸⁷)
 오늘날 마마께서 미천함⁷⁸⁸)을 세지⁷⁸⁹) 앓고 딸 삼으려 허옵시니,
 모친을 모시온 듯 감격하고 황송⁷⁹⁰)허오나,
 마님⁷⁹¹) 말썽 좇사오면⁷⁹²) 소녀 몸은 영광이오나,
 안맹허신 우리 부친 조석공양⁷⁹³) 사절⁷⁹⁴) 의복 게 뉘라⁷⁹⁵) 받드리까?
 지중⁷⁹⁶)하신 부모 은덕 사람마다 있건마는
 소녀 더욱 유별⁷⁹⁷)허여,
 부친은 저를 아들 겹 민사웁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겹 민사오니,
 시측⁷⁹⁸)을 일시라도 떠날 길이 없삽내다.”⁷⁹⁹)
 두 눈에 눈물이 빙빙 돌며,
 목이 떼어 말 못 한다.
[아니리] 부인 또한 측은⁸⁰⁰)허여,
 “네 말이 당연허다. 출천지효녀⁸⁰¹)로다.

Speaking of your fate, you are from a high class family, but poor.

If you are adopted to me, you will do the works of a woman,
And you will have an education,
I will support your marriage
and be happy in the twilight of my life.
What do you say?"

[Jungmori] Sim Cheong answers, "My fate is terrible.
My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held me in his arms and begged around for milk
in my village.
He managed to raise me, and I grew up like this.
I don't even know my mother's face.
My ceaseless grief has been as high as the sky.
Today, you kindly disregarded my humble background and want
to take me as your daughter.
I feel honored as if I served my mother.
If I follow your wish, I will live a happy life,
but who will serve my blind father with meals and clothes all
year around?
Everybody is indebted to his parents,
but I am especially indebted to my father.
My father takes me as a son.
I take my father as my mother.
I can't leave my father even for a moment."
Her eyes are full of tears.
She feels choked and can't continue speaking.

[Aniri] The lady feels compassion toward her.
"You are right. What a good daughter from heaven!

노호헌⁸⁰² 내의⁸⁰³ 뜻이 미처 생각 못했구나.”
 그렇저렇⁸⁰⁴ 날 저무니
 심청이 여짜오되, “마님의 높으신 덕을 입사와⁸⁰⁵
 종일토록 모셨으니 영광이 많사오나,
 일력⁸⁰⁶이 다하오니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부인 또한 연연⁸⁰⁷허여,
 채단⁸⁰⁸과 패물⁸⁰⁹이며 양식을 후히⁸¹⁰ 주어
 시비와 함께 보내면서,
 “나는 너를 딸로 아니,
 너도 나를 잊지 말고 모녀지의⁸¹¹를 두자.”
 심청이 여짜오되, “마마님의 어지신 처분 이같이 미치시니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직하고 돌아올 제,

20. (심봉사 물에 빠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 천에 빠진다.

[진양조] 그 때여 심봉사는, 적적헌⁸¹² 빈 방안으 더진듯이⁸¹³ 홀로
 앉어 딸 오기를 기다릴 적,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치워⁸¹⁴ 한기⁸¹⁵ 드는디,
 먼 데 절 쇠북⁸¹⁶을 치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로 탄식한다.
 “우리 딸 청이는 웅당 수이⁸¹⁷ 오련마는,
 어이 이리 못 오는그나?⁸¹⁸

I am older, but I was not as thoughtful as you.”
Somehow, it’s getting dark.
Sim Cheong says to the lady, “Your high virtue reached me.
It wa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ll day long.
It’s getting dark, so I must leave now.”
The lady hesitates to say good-bye to the girl.
She gives her silks, ornaments, and food generously.
She has the maid follow her.
“I will take you as my daughter.
Please remember me and take me as your mother.”
Sim Cheong replies, “You are kindhearted and benevolent to me.
I will uphold your wish.”
She says good-bye and leaves.

20. (Mr. Sim Falls into a Stream) Mr. Sim, worrying about Sim Cheong,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Jinyangjo]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alone in the quiet and empty room.
He is very hungry.
It is cold in the room.
A bell rings from a distant buddhist temple.
He sighs, thinking that it is getting dark.
“It is time for my daughter to come back.
Why isn’t she coming back?”

아이고, 이것이 웬 일인가?

부인으게 붙들렸나?

길에 오다 욱⁸¹⁹)을 보느냐?

풍설⁸²⁰)이 자자허니⁸²¹) 몸이 치워⁸²²) 못 오는가?”

새만 푸르르르르 날아가도 심청인가 불러보고,

낙엽만 퍼썩⁸²³) 호날려도,⁸²⁴)

“악아! 청이 오느냐? 악아! 청아!”

아무리 불러봐도 적막공산⁸²⁵)으 인적⁸²⁶)이 없어지니,

“허허, 내가 속았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찌를 헐꼬나?⁸²⁷)

내가 분명히 속았네그려.”

[자진모리] 심봉사 거동 보소.

속에 울화⁸²⁸)가 벌쩍⁸²⁹) 나서,

단은 방문을 후닥딱!

지팡이 훌어짚고,⁸³⁰)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는데,

그때으⁸³¹) 심봉사가 딸의 덕에⁸³²) 몇 달을 가만히 앓아 먹어노니⁸³³)

도랑출입⁸³⁴)이 서툴구나.

그저 더듬더듬 더듬더듬으 나가면서,

“아이고, 청아! 어찌허여 못 오느냐?

에이? 이게 웬 일이고?”

그저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으 나간다.

급히 다리를 건너다가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길 넘은⁸³⁵) 개천물에 가 밀친 닻이⁸³⁶) “퐁!”

“아푸! 아푸! 아이고, 사람 죽네!”

나올라면 미끄러져 무진무진⁸³⁷) 들어가고,

What is going on?
Is the noble lady holding her?
Did something happen on her way back home?
Do severe winds and snow prevent her from coming back?"
He takes a bird flying away as Sim Cheong and calls to her.
Fallen leaves are moved around by a wind.
"Sweetheart! Is this Cheong? Cheong!"
However hard he calls, no trace of human is seen on the quiet mountain.
"Gosh! It was a false perception!
Alas! What should I do?
It was surely a false perception."

[Jajinmori] Behold Mr. Sim!
He is upset and rises up abruptly.
He opens the closed door fast.
He grabs a cane quickly.
He moves forward gropingly.
He has been staying home for several months thanks to his daughter.
He is now clumsy in crossing a stream.
He moves forward unsteadily.
"Cheong, why aren't you coming back?
Uh? What is going on?"
He only moves forward gropingly.
As he crosses a bridge in a hurry, he takes a false step.
He falls into the deep stream as if he were pushed into it.
"Help! Help! Help!"
If he tries to move up, he slips back down.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니,
 심봉사 겁을 내어,
 두 눈을 회번쩍⁸³⁸⁾ 번쩍 번쩍거리며,
 “어푸,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아이고, 사람 살리소!”
 아무리 소리친들, 일모도궁⁸³⁹⁾허여 인적이 끊겼으니,
 뉘라⁸⁴⁰⁾ 건져주겠느냐?

21. (심봉사 구출) 몽은사 화주승이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낸다.

[아니리] 그때 몽은사 화주승⁸⁴¹⁾이 절을 중창⁸⁴²⁾허라 허고,
 권선문⁸⁴³⁾ 드리메고
 시주집⁸⁴⁴⁾ 다니다가,
 그렁저렁 날 저물어
 절을 찾아 올라갈 제,
 올라가다 심봉사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건져 살렸다고 해야
 이면⁸⁴⁵⁾에 적당할 터인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두고 무슨 소리를 허고 있으리오마는,
 이는 성악가가 허자허니 이야기를 좀더 재미있게 혈 양으로
 잠깐 중타령이라는 소리가 있든 것이었다.

[엇모리]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저 중의 거동 보아라.
 저 중의 호사⁸⁴⁶⁾ 봐.
 세구라죽감투⁸⁴⁷⁾ 호홉뽕⁸⁴⁸⁾ 눌러쓰고,
 백저포⁸⁴⁹⁾ 장삼으⁸⁵⁰⁾ 진홍뿔⁸⁵¹⁾ 뿔고,⁸⁵²⁾
 백팔염주⁸⁵³⁾ 목에 걸고, 단주⁸⁵⁴⁾ 팔에 걸고,

If he tries to swim up, he slides back down.
He is shocked.
His eyes balls move rapidly.
“Gosh! Sim Hak-gyu from Peach Blossom Village is drowning!
Help!”
However hard he shouts, it is dark and the street is empty.
Who would save him?

21. (The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from Mongeun Temple rescues Mr. Sim out of water.

[Aniri] Meanwhile, a buddhist monk from Mongeun Temple was trying to reconstruct his temple.
He carries a sign soliciting donations.
He visits houses for donations.
Somehow, it gets dark.
He heads toward his temple.
On his way to the temple, he spots Mr. Sim drowning and saves him.
The above story would be perfec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sing a song while a man drowns, but the singer sings a song to make the story more interesting.
So, here the monk song briefly interrupts the story.
[Eotmori] A monk goes up. One monk goes up.
Behold the monk!
Behold his luxurious costume!
He wears a hat jammed hard.
He wears a red belt on the white ramie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

구리 백통⁸⁵⁵) 반은장도⁸⁵⁶) 고름⁸⁵⁷)에 느짗⁸⁵⁸) 차고,
 용두⁸⁵⁹) 새긴 구절죽장⁸⁶⁰)
 쇠고리⁸⁶¹) 많이 달아 처절철⁸⁶²) 철철 처절철 툇탁⁸⁶³) 짚고,
 흐늘⁸⁶⁴) 흐늘 흐늘거리고 올라갈 제,
 원산은 암암⁸⁶⁵)허고
 설월⁸⁶⁶)이 돌아오는디,
 백저포⁸⁶⁷) 장삼은 바람결에 펄렁 펄렁.
 염불⁸⁶⁸)하며 올라간다.
 중이라 허는 게 절에 들어도⁸⁶⁹) 염불, 속가⁸⁷⁰)에 나도⁸⁷¹) 염불.
 염불허며 올라갈 적 목탁을 ‘또드락 딱’ 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처실원만.⁸⁷²)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허며 올라갈 적,
 한 곳을 당도허니 어떠한 울음소리가 귀에 얼른⁸⁷³) 들린다.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⁸⁷⁴) 저문 날으 하소대⁸⁷⁵)로 울고 가든 양태진⁸⁷⁶)의 울음이냐?⁸⁷⁷)
 이 울음이 웬 울음?
 호지설곡⁸⁷⁸) 찬바람에 소통국⁸⁷⁹)을 이별허든 소중랑⁸⁸⁰)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여호⁸⁸¹)가 변화허여⁸⁸²) 나를 호리란⁸⁸³) 울음인가?⁸⁸⁴)
 이 울음이 웬 울음?”
 이리 찌웃,⁸⁸⁵) 저리 찌웃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⁸⁸⁶) 물에 떨어져, “어푸! 어푸!”

A silver knife loosely hangs on his coat string.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on his bamboo cane with 9 joints.
 Iron rings dangle from the cane, making sounds as it hits the ground.
 The monk goes up the mountain slowly.
 A distant mountain is dark.
 The moon rises above the snow.
 His white ramie coat flutters in the wind.
 The monk chats a prayer as he goes up.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While going up, the monk chants a prayer and hits a wooden gong.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Oh, oh, oh!
 May Buddha's grace extend to everything in the world!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While chanting a prayer, he goes up.
 He arrives at a place and hears a faint sound of cry.
 The monk is surprised.
 "What is this sound?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Yang Gui Fei(楊貴妃) who died at Mawei(馬嵬) Station at the sunset?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an ancient diplomat parted with his son in Xiongnu(匈奴) Country?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a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He looks here and there.
 At a certain place, he spots a man drowning in a stream.

저 중의 급헌 마음, 저 중의 급헌 마음 굴갓⁸⁸⁷⁾ 장삼 훨훨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⁸⁸⁸⁾ 다님⁸⁸⁹⁾ 끄르고,
 버선을 얼른 벗고,
 고두누비⁸⁹⁰⁾ 바지가래⁸⁹¹⁾를 따달딸딸 걷어 자개미⁸⁹²⁾ 떡 붙치고,
 소매를 훨썬⁸⁹³⁾ 걷고,
 무논⁸⁹⁴⁾에 백로격으로⁸⁹⁵⁾ 징검⁸⁹⁶⁾ 징검 징검거리고 들어가,
 심봉사 꼬드래상투⁸⁹⁷⁾를 에후리쳐⁸⁹⁸⁾ 담쭈 쥐고, 에뚜루미쳐⁸⁹⁹⁾

22. (공양미 시주 약속) 심봉사가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시주 약속을 하고, 중이 떠난 뒤 후회한다.

[아니리] 건져놓고 살려노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심봉사 정신 차려,
 “덜덜덜덜덜. 거 뉘가 날 살렸소? 날 살린 게 뉘기요?”⁹⁰⁰⁾
 “예, 소승⁹⁰¹⁾은 몽은사 화주승이옵더니,
 시주집 내려왔다 절을 찾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원하였나이다.”
 “그렇지! 활인지불⁹⁰²⁾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⁹⁰³⁾이로구만.”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야 하오리카마는,
 소승이 아니었드라면 참 큰일 날 뻔 보았습니다.”
 “큰일이라니?
 물 한 번만 더 먹었으면 여, 영낙없이 나는 오늘 잤지!”
 심봉사를 찌붙들고⁹⁰⁴⁾ 집으로 들어가 젖은 의복 갈아입힌 후,

The monk hurriedly takes off his hat and coat, and throws them around.

He unties his ankle bands.

He takes off his socks quickly.

He pulls up his cotton trousers up to the crook of the knee.

He rolls up the sleeves.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He encircles Mr. Sim's head with his arm and grabs his topknot.

22. (The Promise to Donate Rice) Mr. Sim promises to donate rice in the hope that he opens his eyes, but he regrets after the monk leaves.

[Aniri] The monk pulls Mr. Sim out of the water and learns that it is Mr. Sim.

Mr. Sim comes to himself.

"It is cold. Who saved me? Who are you?"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I was soliciting donations and was on my way back to the temple. Luckily, I saved you."

"I see. It is said that Buddha saves people.

Since you saved me, you have my eternal appreciation."

"It was not a sweat at all.

Anyway, you could have been in big trouble without me."

"It was more than big trouble.

I would have been dead after one more gulp of water!"

The monk helps Mr. Sim walk into his house and change the wet clothes.

물에 빠진 사연을 물으니
 낱낱이 말허거늘,
 “가공현⁹⁰⁵ 말씀이오.
 그러나 좋은 수⁹⁰⁶가 있소마는.”
 “거 좋은 수면 무슨 술꼬?”
 “우리 절 부처님이 영검⁹⁰⁷이 많으시와⁹⁰⁸
 빌면 아니 된 일 없고,
 고하면⁹⁰⁹ 응하오니,⁹¹⁰
 공양미⁹¹¹ 삼백 석⁹¹²만 불전에⁹¹³ 시주⁹¹⁴허면 삼 년 내로 눈을 꼭
 뜨시리다.”
 심봉사 이 말을 듣고 어찌 마음이 기쁘던지,
 후사⁹¹⁵는 생각짚고⁹¹⁶ 대번⁹¹⁷ 일을 저지르는데,
 “여보소, 대사 말이 정녕코 그럴진댄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책에 적어 가소.”
 저 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가세⁹¹⁸를 생각허면
 삼백 석은 고사허고, 서 흙⁹¹⁹ 곡식 없는 이가
 그 어찌 허실라고 적어가라 하시니까?”
 심봉사 화를⁹²⁰ 벌컥 내며,
 “무엇이 어찌?
 이저석?⁹²¹ 사람을 업수이여겨도⁹²² 분수가 있지,
 네가 내 속을 어찌 알고 허는 말이나, 이저석!
 그 어쩐 시러베아들놈이 부처님전 빈 말을 헐까?
 두말 말고 적어 가소.
 아니, 안 적어?”
 “예, 예. 적겠습니다.

The monk asks Mr. Sim how he got into the stream.
 Mr. Sim unfolds the story in detail.
 “How poor!
 But I have a good idea.”
 “What is the good idea?”
 “Buddha in my temple can work out a miracle.
 A prayer can get you anything.
 Any appraisal is responded to.
 If you donate 300 bags of rice to my temple, you will recover
 sight within three years.”
 At the monk’s words, Mr. Sim can’t contain his joy.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he makes a
 commitment.
 “Hello, monk. I am interested in what you said.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your donation roster.”
 The monk is dumfounded.
 “Mr. Sim, look at what you’ve got.
 You don’t have a handful of rice, to say nothing of 300 bags.
 How will you handle the consequence of the commitment?”
 Mr. Sim goes mad.
 “What did you say?
 You villain! How dare you look down on me?
 What makes you think you know about what I have?
 Who dare tell a lie to Buddha?
 Don’t argue with me.
 Don’t you write down?”
 “Okay, I’ll do it.

그러면 내월⁹²³⁾ 십오일 내로 그 삼백 석을 올리겠소?”
 “그러할 터이니 염려 말소!”
 “여보시오, 봉사님! 박절⁹²⁴⁾한 말씀이오나,
 부처님전 허언⁹²⁵⁾하면 도리어 앓은뱅이가 되는 법이니,
 거 부대⁹²⁶⁾ 명심하십시오.”
 “여보게! 불가⁹²⁷⁾ 오계⁹²⁸⁾ 중에 거짓말이 제일 큰 죄인 줄 번연히⁹²⁹⁾
 아는디,
 내가 일구이언⁹³⁰⁾혈까?
 염려 말고 불공이나 착실히 하여 주게.”
 중은 권선책⁹³¹⁾에 기재⁹³²⁾하고 올라갔었다.
 심봉사는 중 보내놓고 혼자 앉아 곰곰 생각더니,
 “이놈이 환장⁹³³⁾헌 놈이 아닌가, 여?
 이놈이 어쩔라고 이렇게 미쳐!
 쌀 삼백 석! 쌀 삼백 석?”
[중모레] “허허, 내가 미쳤구나.
 정녕 내가 사⁹³⁴⁾ 들렸네.
 깊은 개천 물에 빠져 혼미정신⁹³⁵⁾ 뉘을 잃고
 영겁절에⁹³⁶⁾ 이러는거나?⁹³⁷⁾
 무남독녀⁹³⁸⁾ 외딸을 보내어 밥을 빌어다 먹는 놈이
 쌀 삼백 석을 어이 허리?
 가산⁹³⁹⁾을 팔자헌들 단돈 열 냇을 뉘랴⁹⁴⁰⁾ 주며,
 내 몸을 팔자헌들 앞 못 보는 이 병신을 단돈 서푼⁹⁴¹⁾을 뉘랴 주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다는디,
 앞 못 보는 이 병신이 앓인뱅이까지 되거드면⁹⁴²⁾
 꿈짝 달짝 못허고 죽겠구나.
 수중고혼⁹⁴³⁾ 될지라도 차라리 그대로 죽을 것을,

Will you donate 300 bags of rice by the 15th of next month?"
"I'll do it. Don't worry!"
"Hello, Mr. Sim. It might sound cold,
but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Please keep that in mind."
"I know that among the five precepts, telling a lie is the most
immoral thing in Buddhism.
How will I say two words?
Don't worry! Just pray well to Buddha on behalf of me."
The monk records it and goes up the mountain.
After the monk leaves, Mr. Sim reflects on what he did.
"How crazy was I! How stupid!
What was I up to? How stupid!
300 bags of Rice!"

[Jungmori] "Gosh, I was out of my mind.
A bad spirit was in me.
I fell into a deep stream, so I was confused.
I did it without thinking clearly.
I live off my only child, a daughter, who begs around.
How can I get 300 bags of rice?
My properties are worth less than ten dollars.
Even if I sell my body, it is worth less than a few dollars because
I am blind.
If you deceive Buddha, you will be crippled.
I will be crippled when I am already blind.
I will surely die.
I should have died in the stream.

우연한 중을 만나 도리어 걱정이 삼켰구나.⁹⁴⁴⁾

저기 가는 대사!

쌀 없네.

권선에 삼백 석 적은 거 에우고⁹⁴⁵⁾ 가소!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딸이 이 말을 듣고 보면 복통자진⁹⁴⁶⁾을 헐 터이니,

이놈의 노릇을 어쩔꼬나?”

23. (심청의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리] 심청이 바빠 와서

저의 부친 모냥⁹⁴⁷⁾ 보고 깜짝 놀래 발 구르며,

“아이고, 아버지. 아이구, 이게 웬 일리오?

나를 찾아 나오시다 이런 욕을 보셨는가?

이웃집 가시다가 이런 변⁹⁴⁸⁾을 보셨는지?

출근들 오직허며, 분허시근들 오직허오리까?

아부지! 승상댁 마마께서 굳이 잡고 만류허여 어언간⁹⁴⁹⁾ 더디었소.”

승상댁 시비 불러 부엌에 불 지피고,⁹⁵⁰⁾

초마자락⁹⁵¹⁾ 끌어다가 눈물 씻겨드리면서,

“아부지! 설위 말고 진지나 잡수시오.”

[아니리] 심봉사 공연한 일 저질러 놓고

손수 해 내든 것이었다.

“어라,⁹⁵²⁾ 어라! 진지고 무엇이고, 나 아부지 아니다!”

심청이 부친을 위로허며,

I met the monk by chance, and now I am troubled.
Hey, monk there!
I don't have rice.
Erase my name on the donation roster!
Oh God! How sad my fate is!
My daughter will grieve to death to hear this.
What should I do now?"

23. (Sim Cheong Consoles Her Father.) Sim Cheong comes back. She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rushes back home.
She is surprised to look at her father and stamps on the ground.
"Father! What happened?
Did you get into trouble to meet me?
Did you get into trouble visiting a neighbor?
It must have been cold, and you must have been angry.
Father,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She has the maid make a fire in the kitchen.
She wipes out his tears with the bottom of her skirt.
"Father, don't feel sad. Please eat dinner."

[Aniri] Mr. Sim made a stupid promise.
He gets angry at Sim Cheong.
"No, forget the dinner. I am not your father!"
Sim Cheong consoles her father.

“아부지! 어찌 이러세요?

지가⁹⁵³⁾ 더디 왔다허여 이렇듯 노혀서요, 아버지?”

“아니다. 너 알아 쓸데없는 일이다.

그냥 나 혼자 앓다가 나 혼자 죽을란다.”

심청이 듣고 여짜오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소녀만 믿사옵고,

소녀는 아버지만 믿사와 대소사⁹⁵⁴⁾를 의논터니,

오늘날 너 알아 쓸데없다 하시니,

소녀가 도리어 씹사옵니다, 아버지!”

심봉사 그 동안 있던 일을 저저히⁹⁵⁵⁾ 말을 하니,

심청의 장헌⁹⁵⁶⁾ 효성

이 말씀을 반겨⁹⁵⁷⁾ 듣고 부친을 위로허되,

“아부지! 후회하시면 신심⁹⁵⁸⁾이 못된다 허웁니다.

아버지 어두신 눈이 다시 밝어지신다면, 공양미 삼백 석을 아무쪼록

주선⁹⁵⁹⁾하여 몽은사로 바치겠사옵니다, 아버지!”

심봉사 그 말 듣더니, “어허! 글씨, 네가 이렇까 싶어서 내가 말을

진작 못헌 것이여!

네 효성은 그러허나, 그 말이 될 말이나?

아서라! 나 지금 절에 올라갈란다”

“아이고, 아버지!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신다고 이러세요?”

“아니다. 내가 올라가서 중보고 말허고, 적어간 것 이렇게 예워버리라

고⁹⁶⁰⁾ 허고 올란다.”

“아이고, 아버지! 가셔도 내일 밝은 낮에 가세요.”

“어따! 나는 밤에 가나 낮에 가나 일상⁹⁶¹⁾ 일반인캐.”⁹⁶²⁾

가기로 작정을 하니,

[중모레] 심청이 겹을 내어, “아버지, 잠깐 들주소요.”⁹⁶³⁾

“What is wrong, father?
 Are you angry because I got home late, father?”
 “No, you don’t need to know.
 I will brood over the problem and die alone.”
 Sim Cheong asks, “Father, what are you saying?
 You have always trusted in me.
 I always consult family matters with you,
 but today you said I need not know.
 I am disappointed, father!”
 Mr. Sim tells Sim Cheong about what happened in detail.
 She is a good daughter,
 She is glad to hear and consoles her father.
 “Father, regret hurts your body and mind.
 In order to make your blind eyes open, I will try to donate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father.”
 Mr. Sim replies, “I was hesitant to tell the truth because I knew
 you would say so.
 You are a good daughter, but don’t say so.
 No! I am leaving for the temple now.”
 “Oh, father. It is dark outside. How can you go there?”
 “I will go up to the temple and tell the monk to take my name
 off the roster.”
 “Oh, father! If you insist, please, go tomorrow morning when
 it is bright.”
 “Gee! For m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He is determined to go.

[Jungmori] Sim Cheong is worried. “Please hear me out, father.

왕상⁹⁶⁴)은 고빙⁹⁶⁵)허여
 얼음 궁기⁹⁶⁶) 잉어 얻고,
 맹종⁹⁶⁷)은 읍죽⁹⁶⁸)허여
 눈 속의 죽순⁹⁶⁹) 얻어 사친성효⁹⁷⁰) 허였삽고,
 광거⁹⁷¹)라는 옛 사람도 부모 반찬 허여노면⁹⁷²)
 제 자식이 먹는다고,
 산 자식을 묻으랴고 땅을 파다
 금을 얻어 부모 봉양을 허였으니,
 사친지효도⁹⁷³)가 옛 사람만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⁹⁷⁴)이오니
 너무 근심을 마옵소서.”

24. (심청 치성) 심청이 자신을 사갈 사람이 나타나길 빈다.

[아니리] 만단⁹⁷⁵)으로 위로헌 후,
 그날부터 목욕재계⁹⁷⁶) 정히⁹⁷⁷) 허고,
 황토 펴고, 금줄⁹⁷⁸) 치고,
 지극 정성을 드리는데,
 [진양조] 후원⁹⁷⁹)을 단⁹⁸⁰)을 못고,⁹⁸¹)
 복두칠성 자야반⁹⁸²)
 촛불을 돋오⁹⁸³) 키고,⁹⁸⁴)
 새 사발⁹⁸⁵)을 정화수⁹⁸⁵)를 떠서 새 소반⁹⁸⁶) 받쳐놓더니
 분향사배⁹⁸⁷)로 비는구나.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느님전⁹⁸⁸) 비나니다.
 천지지신,⁹⁸⁹)

An ancient man knocked ice,
Two carps came out for his step mother.
Another ancient man cried in a bamboo grove,
Bamboo sprouts rose up in snow for his old mother.
Another ancient man provided food for his parents,
but his child ate it.
He dug the ground to bury his child.
He found gold and supported his parents.
I am not as good as the ancient people,
but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so don't worry."

24.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so that somebody shows up to buy her.

[Aniri] Sim Cheong consoles Mr. Sim numerous times.
From that day on, she cleans her body.
She spreads yellow earth and puts a prohibiting string around.
She prays conscientiously.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lights a candle.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She gives four big bows and prays.
"I pray. I pray. I pray to God. I pray.
All gods in heaven and the earth,

일월성신⁹⁹⁰⁾

화위동심⁹⁹¹⁾허읍소서.

하느님의 일월⁹⁹²⁾ 두심이 사람의 안목이온바,⁹⁹³⁾

일월이 떨어지면 무삼⁹⁹⁴⁾ 분별을 허오리까?

무자생⁹⁹⁵⁾ 소경 아버 이십으 안맹허여⁹⁹⁶⁾ 시물⁹⁹⁷⁾을 못허오니,

아버의 허물은 심청 몸으로 대신허고,

아버의 어둔 눈을 밝게 점지⁹⁹⁸⁾허읍소서.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으⁹⁹⁹⁾ 시주허면 아버의 눈을 뜯다허오나,

가세가 청한¹⁰⁰⁰⁾허여

몸밖에 없사오니,

명천¹⁰⁰¹⁾이 감동허사¹⁰⁰²⁾

내일이라도 이 몸 사갈 사람을 지시허여 주읍소서.”

25. (심청 대신)¹⁰⁰³⁾ 심청이 남경선인들에게 몸을 판 뒤, 행선 날을 기다린다.

[아니리] 이렇듯 밤마다 삼경¹⁰⁰⁴⁾에 시작허여 오경¹⁰⁰⁵⁾이 될 때까지
이레¹⁰⁰⁶⁾ 밤을 빌어갈 제,

하루는 동리에 요란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웨는¹⁰⁰⁷⁾ 소리가 들리거늘,
심청이 가만히 나가서 들어보니,

두서너 명이 목¹⁰⁰⁸⁾ 어울러¹⁰⁰⁹⁾ 쌍으로¹⁰¹⁰⁾ 웨고¹⁰¹¹⁾ 가는디,

[중모리] “우리는 남경¹⁰¹²⁾ 선인일러니,¹⁰¹³⁾

인당수¹⁰¹⁴⁾의 용왕님은 인제수¹⁰¹⁵⁾를 받는 고로,

만신¹⁰¹⁶⁾ 일점 흠파¹⁰¹⁷⁾ 없고,

효열¹⁰¹⁸⁾ 행신¹⁰¹⁹⁾ 가진 몸으,

the sun, the moon, and stars,
please share the same feeling.
God created the sun and the moon so that we can see things.
If they fall down, how can we see things?
My father became blind at twenty and can't see a thing.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Please make his blind eyes open.
If 300 bags of rice are donated to Buddha, my father will open
his eyes,
but I am poor.
All I have is my body.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Please send someone to buy my body as early as tomorrow."

**25. (Sim Cheong Sells Herself)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Chinese and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Aniri] Sim Cheong prays almost all night for seven days.
One day, a dog's barking is heard along with shouts in the
village.
She goes out and listens carefully.
A few people are shouting in a voice as they walk.

[Jungmori]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The dragon king in Indang Water accepts a human sacrifice.
We look for a virgin whose body is flawless,
who is virtuous and behaves well,

십오 세나, 십육 세나 먹은 처녀가 있으면은
 중값¹⁰²⁰을 주고 살 것이니,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시오! 이이 이루어!”
[아니레] “몸 팔릴 처녀 뉘 있습나?”¹⁰²¹
 심청이 이 말을 반겨 듣고,
 “웨고 가는 저 어른들! 이런 몸도 사시켰소?”
 저 사람들 가까이 와 성명, 연세 물은 후에,
 “우리들이 사가기는 십분¹⁰²² 합당허거니와,
 낭자는 무슨 일로 몸을 팔랴¹⁰²³ 하시니까?”¹⁰²⁴
 심청이 대답허되, “안맹 부친 해원¹⁰²⁵키로 이 몸을 팔라허옵니다.”
 “효성 있는 말씀이오.
 그러면 값을 얼마나 드리리까?”
 “더 주셔도 과허옵고,¹⁰²⁶
 덜 주시면 낭패¹⁰²⁷오니,
 백미¹⁰²⁸ 삼백 석만 주옵소서.”
 선인들이 허락허니
 심청이 허는 말이, “쌀일량은 몽은사로 보내시고,
 대사님¹⁰²⁹의 표¹⁰³⁰를 받아 저를 갖다 주옵소서.”
 “그는 염려 없거니와,
 오는 삼월십오일이 우리 행선날¹⁰³¹이오니,
 그날 꼭 떠나주시겠소?”
 “중값 받고 팔린 몸이
 일시¹⁰³²를 가리오며, 내 뜻대로 허오리까?
 그런 염려는 마옵소서.”
 사공들을 보낸 후에,¹⁰³³
 심청이 들어와서

and who is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We will buy her at a high price.
 If there is such a girl, please answer us.”
[Aniri] “Is there a virgin for sell?”
 Sim Cheong is glad to hear that.
 “Hello, shouting gentlemen! How about me?”
 The sailors come up to her and ask her age.
 “You are the right kind of girl we are looking for,
 but why are you selling yourself?”
 Sim Cheong answers, “I sell myself to realize my blind father’s
 wish.”
 “You are a good daughter.
 How much do you want?”
 “Giving too much is bad.
 Giving too little will cause trouble.
 Give me 300 bags of rice.”
 The sailors agree.
 Sim Cheong says, “Please send the rice to Mongeun Temple.
 Please take a receipt from a monk and give it to me.”
 “Don’t worry about that.
 We are leaving this coming 13th of March.”
 Can you go with us, without fail?”
 “I am sold at a high price.
 How could I choose the date or refuse to go?
 Don’t worry about that.”
 She says goodbye to the sailors.
 Sim Cheong gets into the room.

아무리 생각하여도 부친께¹⁰³⁴⁾ 거짓말을 아니할 수 없는지라,
 “아부지!”
 “와야?”¹⁰³⁵⁾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렸으니,
 아무 걱정을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래,
 “여봐라, 청아! 아니, 네가 어떻게 쌀 삼백 석을 올렸단 말이나?”
 심청이 여짜오되, “승상댁 부인마마 전일 배알¹⁰³⁶⁾허올 적으
 소녀를 수양딸¹⁰³⁷⁾로 정허자고 하신 것을
 대답치 못했다가,
 오늘 제가 건너가서 사정을 여쭙오니,
 마마께서 들으시고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면서,
 저를 아조 수양딸로 다려간다허옵디다.”¹⁰³⁸⁾
 심봉사 그 말 듣고, “양반의 자식으로 몸 팔려 간단 말이 외인소시난
 당¹⁰³⁹⁾허나,
 승상댁 부인께로 수양딸로 가는 거야,
 그 어떤 놈이라도 날 딸 팔아먹었다고 정개¹⁰⁴⁰⁾하겠느냐?”
[아니레] “야, 그 일 잘 되었다.
 그러면 어느 날 다려간다 허시드냐?”
 “내월¹⁰⁴¹⁾ 십오일에 다려간다 허옵디다”
 심청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어이 속일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는 속인 것도 또한 효성이라.
 사세부득¹⁰⁴²⁾으로 부친을 속여 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으,

She thinks that she has no choice but to tell a lie to her father.
“Father!”

“Why?”

“I sent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so don’t worry.”

Mr. Sim got surprised.

“Hello, Cheong! Honey, how did you send 300 bags of rice there?”

Sim Cheong replies, “When I met with the noble lady the other day,

she expressed her wish to adopt me as her daughter.

I couldn’t answer at that time.

I have been there today to tell her our situation.

After hearing me, she sent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She will take me to her house as her daughter for good.”

Mr. Sim responds, “It doesn’t look good that a descendent of
a high class will be sold,

but you will be adopted to the nobly lady.

Who will blame me for having sold my daughter?”

[Aniri] “That’s good.”

When is she picking you up?”

“She is taking me on 15th of next month.”

Filial piety would have stopped her from telling a lie to her father,

but she told a lie also out of filial piety.

She can’t help from telling a lie to her father.

She spends time with tears.

26. (심청 하직) 심청이 부친과 이별할 준비를 해놓고 사당에 하직 인사를 한다.

[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부친¹⁰⁴³⁾ 영별¹⁰⁴⁴⁾허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으 나 십오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막막허여 눈물로 지내더니,
“아서라,¹⁰⁴⁵⁾ 이게 웬 일이냐?

내가 하루라도 살았을 적 부친 의복을 지으리라.”
춘추 의복 상침¹⁰⁴⁶⁾ 겹것¹⁰⁴⁷⁾을 박어¹⁰⁴⁸⁾ 지어 농에 넣고,
동절¹⁰⁴⁹⁾ 의복 솜을 두어¹⁰⁵⁰⁾ 보¹⁰⁵¹⁾에 싸서 농에 넣고,
현 겹것 두덕누비¹⁰⁵²⁾ 가지가지 빨아 집고,¹⁰⁵³⁾

현 보신¹⁰⁵⁴⁾ 불¹⁰⁵⁵⁾을 받아¹⁰⁵⁶⁾

단님¹⁰⁵⁷⁾ 접어 목¹⁰⁵⁸⁾ 매 두고,

현 전대¹⁰⁵⁹⁾ 구녕¹⁰⁶⁰⁾ 막어

동냥혈 때 쓰시라고 실경¹⁰⁶¹⁾ 우으 얹어 놓고,

갓 망건¹⁰⁶²⁾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날¹⁰⁶³⁾을 생각허니,

내일이 행선날이로고나.

달 밝은 깊은 밤으¹⁰⁶⁴⁾

매¹⁰⁶⁵⁾ 한 그릇 정히¹⁰⁶⁶⁾ 짓고,

헌주¹⁰⁶⁷⁾를 병에 넣고,

나무새¹⁰⁶⁸⁾ 한 접시로 배석¹⁰⁶⁹⁾ 엮어¹⁰⁷⁰⁾ 받쳐 들고,

모친 분묘¹⁰⁷¹⁾ 찾아가서

계하¹⁰⁷²⁾으 진설¹⁰⁷³⁾허고,

분향사배¹⁰⁷⁴⁾ 우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¹⁰⁷⁵⁾ 청이는

26. (Sim Cheong's Parting) Sim Cheong prepares for parting with her father and bows to the ancestral shrine.

[Jinyangjo] Thinking about parting with her blind old father for good,

and about dying at the age of fifteen,

Sim Cheong feels gloomy and passes time in tears.

"No, what am I doing?

I should make clothes for my father while I am alive."

She sews spring and fall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pads winter clothes with cotton, wraps them with a wrapping cloth, and puts them in the wardrobe.

She washes quilted clothes and sews them.

She pads old socks with a cloth.

She attaches ankle bands on the neck of the socks.

She blocks the hole of a sack.

She puts it on a shelf so that her father can use it for begging.

She puts his hat and headband in a handy place.

She thinks about the departure date.

Tomorrow is the time to leave.

It is late at night with a full moon.

She cooks rice carefully for a ritual.

She pours wine in a bottle.

She holds a dish of vegetables using a cloth.

She goes to her mother's tomb.

She puts them in front of the tomb.

She gives big bows and cries.

"Hello, mother! I am a bad daughter.

부친의 원한 풀어드릴라고
 제수¹⁰⁷⁶)로 몸이 팔려
 내일 죽으러 떠나오니,
 제 손으로 올린 제물¹⁰⁷⁷) 망중¹⁰⁷⁸) 흠향¹⁰⁷⁹)허읍소서.”
[자진모리] 사배¹⁰⁸⁰) 하직¹⁰⁸¹)헌 연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 모르는구나.
 사당으 하직차로¹⁰⁸²) 후원으로 돌아가서,
 사당문¹⁰⁸³)을 가만히 열더니만
 통곡¹⁰⁸⁴) 사배 우는 말이,
 “선대조¹⁰⁸⁵) 할아버지, 선대조 할머니!
 불효여손¹⁰⁸⁶)은
 오늘부터 선영¹⁰⁸⁷) 향화¹⁰⁸⁸)를 꿇게 되오니
 불승영모¹⁰⁸⁹)허읍니다.”
 사당문을 가만히 닫고
 방으로 들어와서,
 부친의 잠을 깼까
 크게 울 수 바이없어¹⁰⁹⁰)
 속으로 느껴¹⁰⁹¹) 울며,
 “아이고, 아버지! 저 볼 밤이 몇 밤이며,
 절¹⁰⁹²) 볼 날이 몇 날이나 되시오?
 제가 철¹⁰⁹³)을 안 연후으 밥 빌기를 놓았더니,
 내일부터 하릴없이¹⁰⁹⁴) 동네 걸인이 될 것이니,
 눈친들 오직허며,
 딸시인들 오직허리?
 아이고, 이를 어쩔끄나!
 몹쓸년의¹⁰⁹⁵) 팔자로다.”

I wanted to fulfill my father's wish.
I was sold to be used as a sacrifice during a ritual.
I am leaving tomorrow to die.
Please help yourself to the last sacrificial food I offered."

[Jajinmori] After giving big bows, Sim Cheong comes back home.

Her father still sleeps without knowing anything.
She goes to the backyard to say goodbye in the ancestral shrine.
She quietly opens the door of the ancestral shrine.
She gives big bows and bursts into tears.
"Grandfathers! Grandmothers!
I am a bad granddaughter.
I can't hold a ritual for you any longer.
I will miss you forever."
She softly closes the door of the shrine
She comes back into the room.
Afraid that her father might wake up,
she can't cry loudly,
so she sobs only in her mind.
"Alas, father! How many nights do we have to be together?
How many days do we have to be together?
After I grew up, I begged around for you.
From tomorrow and on, you will be again the begger of the village.
You will feel timid.
Others will despise you.
What will become of your fate?
How poor my fate is!"

27. (심청 자탄) 심청이 부친과의 이별을 서러워하며 운다.

[중모리] “하랑낙일수운기¹⁰⁹⁶)는 소통국¹⁰⁹⁷)의 모자 이별,¹⁰⁹⁸)

편삽수유소일인¹⁰⁹⁹)은 용산¹¹⁰⁰)의 형제 이별,

서출양관무고인¹¹⁰¹)은 위성¹¹⁰²)의 붕우 이별,¹¹⁰³)

정객관산로기중¹¹⁰⁴)의 오희월녀¹¹⁰⁵)의 부부 이별,

이런 이별 많건마는,

살아 당한 이별이라

소식 들을 날이 있고, 상봉¹¹⁰⁶)할 날이 있건마는,

우리 부녀 이별이야 어느 때나 상봉할까?

오늘밤 오경시¹¹⁰⁷)를 함지¹¹⁰⁸)에 머무르고,

명조¹¹⁰⁹)으 돈는 해를 부상으다가¹¹¹⁰) 댈 양이면,¹¹¹¹)

가련하신 우리 부친을 좀 더 모셔 보련마는,

인력¹¹¹²)으로 어이 허리?”

천지가 사정없어

이윽고 닭이, ‘꼬끼요!’

“닭아,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반야¹¹¹³) 진관¹¹¹⁴)의 맹상군¹¹¹⁵)이 아니로다.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잖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을

어이 잊고 가잔 말이냐?”

27. (The Lamentation of Sim Cheong) The day breaks
while Sim Cheong laments over the parting with
her father.

[Jungmori] “A son parted with his mother on a bridge in the evening.

A man missed his separated brother while looking at flowers.
A man parted with his friend who left for a strange land.
Wives were separated from their husbands in the battlefield.
There were such farewells,

but they were separated while they were alive.

So they had the day to hear from and meet each other,

but when will I meet my father again?

The sun will stay in the Grand Pond tonight.

The sun will rise up over the East Sea tomorrow.

I wish I could serve my poor father more,

but how could I do that?”

Time is ruthless.

A rooster finally cries.

“Rooster, rooster, rooster, please don’t cry.

I am not the ancient man whom your cry once saved at night.

If you cry, the day breaks.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but my father has nobody to turn to.

How can I forget and leave him?”

28. (부녀 이별) 행선날 아침, 심청이 부친께 죽으러 떠나게 된 사실을 고한다.

[아니레] 이렇듯 설리 올 제 동방¹¹¹⁶)은 점점 밝아오는데,
이날인즉 행선날¹¹¹⁷)이라,
발썌¹¹¹⁸) 선인들은 문전에 당도하여
길때¹¹¹⁹)를 재촉하니,
심청이 가만히 나가 선인 보고 허는 말이,
“오늘 응당 갈 줄 아나,
부친을 속였으니,
부친의 조반¹¹²⁰)이나 망중¹¹²¹) 지어드리고 떠나면 어찌하오리까?”
선인들이 허락커늘,
심청이 들어와서 눈물 섞어 밥을 지어
상 들고 들어오며,
“아부지! 일어나 진지 잡수시오!”
심봉사 일어나며,
“얘야! 오늘 아침밥은 어찌 이리 일렀느냐?¹¹²²)
그런디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어디로 가는구나.
그래 내 손수 해몽¹¹²³)했지.
수레라 허는 것은 귀인¹¹²⁴)이 타는 것이라,
아마도 승상택에서 너를 가마 태워 갈 꿈이로구나.
꿈 참 영특¹¹²⁵)하지.”
심청이 들은 후어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부지, 그 꿈 맞습니다.

28. (The Farewell of the Father and the Daughter) On the departure morning, Sim Cheong tells her father the truth that she will leave to die.

[Aniri] While Sim Cheong weeps sadly, it gets brighter in the east.

Today is the departure day.

The sailors are already in front of Sim Cheong's house.

They urge her to hurry.

She goes out quietly and speaks to them.

"I know it is time to leave,

but I told a lie to my father.

Can I leave after making one last breakfast for my father?"

The sailors allow her to do so.

She comes back in the house and makes food in tears.

She enters the room with the meal table.

"Father, please get up and eat this meal."

Mr. Sim gets up.

"Honey, why is the breakfast so early today?"

By the way, I had a dream last night.

You were on a big coach.

You were going somewhere ceaselessly.

I interpreted the dream for myself.

Only a noble person can be on a coach.

The dream means that you will be on a carriage to the noble lady's house.

The dream is foretelling."

Sim Cheong believes that his dream is about her death.

"Father, you are right about the dream.

진지나 잡수세요.”

“이애, 오늘 아침 밥은 반찬이 별로¹¹²⁶⁾ 좋구나.

늬댁에 제사 모셨더냐?”

심청이 더욱 기가 맥혀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지상 물려내고,

담배 붙여 올린 후에 문을 열고 나서보니,

선인들이 늘어서서

물때¹¹²⁷⁾가 늦어간다 재촉이 성화같은지라.¹¹²⁸⁾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부친을 영영 속일 수는 없는 일이라,

[자진모리] 닫은 방문을 펴쩍 열고 부친 앞으로 우루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¹¹²⁹⁾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심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게 웬 일이냐? 허허, 이게 웬 일이여?

애가 회 동했느냐?¹¹³⁰⁾

여봐라, 청아! 이게 웬 일이냐,이?

여, 아침 반찬이 매우 좋더니,

무얼 먹고 체했느냐?

네 소금 좀 먹어봐라.

악아! 악아! 이게 웬 일이냐?

내가 무얼 보고 놀랬느냐?

아니,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정개¹¹³¹⁾하드냐?

어찌 이러느냐?

악아! 갑갑허다, 말허여라!”

심청이 정신 차려,

Help yourself to the food.”
 “Honey, today’s breakfast is outstanding.
 Did a neighbor hold a ritual?”
 She is struck speechless all the more and takes the meal table
 away.
 She lights his tobacco and goes out of the room.
 The sailors stand in rows
 They urge her to hurry, saying the tide will soon fall down.
 She thinks that she can’t deceive her father forever.
[Jajinmori] Sim Cheong opens the door and throws herself to
 her father.
 She hugs his neck. “Oh, father!”
 She calls to her father once.
 She falls on her face.
 She is speechless and passes out.
 Mr. Sim is surprised.
 “What is going on, sweetheart? What is going on?
 What made you upset?
 Hey Cheong! What is going on?
 The breakfast was very good.
 Do you have an attack from indigestion?
 Have some salt.
 Honey, what is going on?
 Did you see a horrifying thing?
 Did anybody despise you because you are a daughter of a blind
 man?
 What is going on?
 Sweetheart, I feel restrained. Talk to me!”
 Sim Choeng collects herself.

“아이고, 아버지! 천하¹¹³²⁾ 몹쓸 불효여식¹¹³³⁾은

아버지를 속였나이다.”

[아니레] 심봉사 이 말 듣고, “아니, 이 자식아.

네가 나를 속였은들,

효성 있는 네 마음에 얼마나 큰 일을 속였을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그냥 깜짝 놀래게 험단 말이냐?

그래. 그래, 무엇을 어쨌단 말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삼백 석이 어디 있어 바치리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제수¹¹³⁴⁾로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이오니

저를 망중 보옵소서!”

심봉사가 천만 의외

이런 눈 빠질 말을 들어노니,

정신이 아득하여 한참 말을 못허다가

실성발광¹¹³⁵⁾ 미치는데,

“아니, 무엇이 어째야?

이것이 다 말이라고 허느냐? 허허!”

29. (심봉사 통곡) 심청의 말을 들은 심봉사가 몸부림치며 통곡한다.

[중중모리] “허허, 이게 웬 말이냐?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여!

여봐라, 청아! 네 이것이 참말이냐?

아버더러 묻도¹¹³⁶⁾ 앓고, 내가 이것이 웬 일이냐?

"Father, I am a bad daughter.

I deceived you."

[Aniri] Mr. Sim responds, "Hey, honey!

Even if you deceived me,

it must be something small because you are a good daughter.

What is it that made you scare me?

So what exactly did you do?

Tell me now."

"Oh, father! How could I get 300 bags of rice?

I was sold as a sacrificial thing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Today is the departure day.

This is my last moment with you."

This is what Mr. Sim least expected.

Her words could take his eyes out.

He feels dizzy and speechless.

He goes out of his mind.

"What! What did you say?

What on earth did you say? Uh?"

29. (The Cry of Mr. Sim) Mr. Sim wails with big motions after listening to Sim Cheong.

[Jungjungmori] "What did you say?

I can't believe what you said!

Hey, Cheong! Is what you said true?

How could you do that without asking me?

자식이 죽으면은 보든¹¹³⁷⁾ 눈도 먼다는디,
 먼 눈을 뜬단 말이냐?
 나 눈 안 뜰란다!
 철모른 이 자식아,
 애비 설음을 네 들어라.
 너희 모친 너 낳고 칠일 안의 죽은 후에,
 눈 어두운 늙은 애비가
 품안에다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짓 얻어 맥여
 이만큼이나 장성키로,¹¹³⁸⁾
 너희 모친 죽은 설음 널로 하야¹¹³⁹⁾ 잊었더니,
 네가 이거 웬 말이냐?
 못 허지야! 눈을 팔아 너를 살디,¹¹⁴⁰⁾
 너를 팔아서 눈을 뜬들 무얼 보랴 눈을 떠야?¹¹⁴¹⁾
 나 눈 안 뜰란다!”
 그때여 선인들은 물때가 늦어간다 성화같이 재촉허니,
 심봉사 그 말 듣고 밖으로 우루루루루루,
 었더지며 자빠지며 것둥거려¹¹⁴²⁾ 나가면서,
 “너 이 무지한 선인놈들아!¹¹⁴³⁾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제하느¹¹⁴⁴⁾ 것 어디서 보았느냐?
 하나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양화¹¹⁴⁵⁾가 없겠느냐?
 눈먼 놈의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것을,
 날 모르게 유인하야 값을 주고 샀단 말이냐?
 돈도 내사¹¹⁴⁶⁾ 싫고, 쌀도 내 다 싫고,

People get blind if they lose their children,
How can I open my eyes?
I don't want to open them,
How immature you are!
Listen to my sorrow,
Your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I was old and blind,
I raised you by holding you in my arms and begging for milk
in the village.
You are this big now,
You enabled me to shake off the grief over your mother's death,
I can't believe what you said,
No way! I w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What would be the point of opening my eyes if I sold you?
I will not open my eyes!"
The sailors presses her hard, saying that the tide goes down,
Mr. Sim hears them and runs to them,
He falls over and runs unsteadily to them,
"Hey, you brutal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but where did you learn sacrificing a human to hold a ritual?
God is merciful and brilliant,
so he will punish you.
She is the only child of a blind man,
She is still a kid,
I can't believe you lured and bought her without asking me,
I don't want money or rice.

눈 뜨기도 내 다 싫다.
 너 이놈, 상놈들아!
 옛 글을 모르느냐?
 칠년대한¹¹⁴⁷⁾ 가물 적으 사람 죽여 빌라허니,
 탕임군¹¹⁴⁸⁾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배는¹¹⁴⁹⁾ 사람을 위험이라.¹¹⁵⁰⁾
 사람 죽여서 빌 양이면¹¹⁵¹⁾ 내 몸으로 대신허리라.’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단발 신영백모¹¹⁵²⁾ 상림뜰¹¹⁵³⁾ 빌었더니,
 대우방수천리¹¹⁵⁴⁾가 풍년이 들었단다.
 차라리 내가 대신 가마!
 동리 방장¹¹⁵⁵⁾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 뒤?”
 내리등굴¹¹⁵⁶⁾ 치등굴며,¹¹⁵⁷⁾
 가삼¹¹⁵⁸⁾을 광광 치고,
 발 동동 구르며,
 머리도 탕탕 부들치고,¹¹⁵⁹⁾
 목제비질¹¹⁶⁰⁾을 덜컹덜컹,¹¹⁶¹⁾
 죽기로 작정허니,
 심청이 기가 맥혀
 우는 부친을 부여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현¹¹⁶²⁾ 부녀천륜¹¹⁶³⁾ 끊고 싶어 끊사오며,
 죽고 싶어 죽사리까?¹¹⁶⁴⁾
 저는 이무¹¹⁶⁵⁾ 죽거니와
 아버지는 눈을 떠 대명천지¹¹⁶⁶⁾ 다 보시고,
 착실한 계모님 구하여
 아들 낳고, 딸을 낳어 후사¹¹⁶⁷⁾를 전케¹¹⁶⁸⁾ 허옵소서.”

I don't want to open my eyes either.
 You villains!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n ancient king said kind words.
 'I pray for the sake of human beings.
 If you want to pray with a human sacrifice, use my body
 instead.'
 He cut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I will go instead of my daughter!
 Hello, villagers.
 Don't leave those villains alone."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chest with his fists.
 He stamps on the ground.
 He hits his head on the ground.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is determined to die.
 Sim Cheong is struck speechless.
 She hugs her crying father.
 "Hello, father!
 I don't break the valuable father-daughter relationship because
 I want to.
 Nor do I die because I want to.
 I am to die no matter what.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Get a good stepmother.
 Have a son and a daughter and continue the family line."

30. (승상부인 공양미 제의) 승상부인이 심청에게 공양미를 대신 주겠다고 하나 심청은 거절한다.

[아니리] 선인들이 이 형상¹¹⁶⁹)을 보더니마는,
영좌¹¹⁷⁰)가 발론¹¹⁷¹)허되,
“심낭자 효성과 심봉사 일생 신세를 생각허여,
봉사 평생 굶지 않고 벗지 않게 꾸며주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허고
백미 백 석, 돈 삼백 냥, 백목¹¹⁷²) 마포¹¹⁷³) 각 한 동¹¹⁷⁴)씩 내어놓고,
동인¹¹⁷⁵) 모아 규별¹¹⁷⁶)하되,
“이것을 연년이 흠어놓아 장리¹¹⁷⁷)로 취리¹¹⁷⁸)허면 전곡¹¹⁷⁹)이 넉넉
할 터이니,
동중¹¹⁸⁰)에서 살피주오.”
이렇듯 규정한 연후에 심낭자를 가자힐 제,
그 때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¹¹⁸¹)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실색¹¹⁸²)허여 시비¹¹⁸³)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장승상댁 마마께서 저를 다녀가라 하셨으니,
잠판¹¹⁸⁴) 다녀오겠습니다.”¹¹⁸⁵)
“웁다,¹¹⁸⁶) 그 댁에는 열 번이라도 다녀오너라!”
선인들께도 말을 허고 시비 따라 건너가니,
[중모리] 승상부인이 밖에 나와 심청을 부어잡더니,
“네 이 천하¹¹⁸⁷) 무상헌¹¹⁸⁸) 사람아!
네가 이게 웬 일이나?
나는 너를 딸로 여기는디,
너는 그리 무정허냐?”

30. (The Proposal of the Noble Lady to Offer 300 Bags of Rice) Sim Cheong rejects the noble lady's proposal to offer 300 of bags of rice on behalf of her.

[Aniri] The sailors have been watching the father and the daughter.

The leader expresses his suggestion.

"In view of Miss Sim's filial piety and Mr. Sim's life, why don't we give him plenty of food and clothes?"

They agree with him.

They give Mr. Sim a lot of money, rice, cotton clothes, and ramie clothes.

They propose a rule to villagers.

"If these are lent and taken back with a high interest, there will be enough money and rice.

Villagers, please manage them well."

After making the rule, they ask Miss Sim to leave with them. Meanwhile,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ars about the situation.

Petrified, she sends a maid to bring Sim Cheong to her.

Sim Cheong says to his father, "The noble lady wants to see me. I will come back soon."

"Okay. You can go there as often as you want."

She talks to the sailors and follows the maid.

[Jungmori] The noble lady waiting outside her house for Sim Cheong and hugs her.

"How heartless you are!

I can't believe what you did.

I took you as my daughter.

How can you be so cruel to me?

효성은 지극허나,
 너의 부친 어이 하리!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이제 줄 터이니,
 선인 불러 내어주고,
 망령¹¹⁸⁹⁾ 의사¹¹⁹⁰⁾를 두지 마라.”
 심청이 여짜오되, “당초¹¹⁹¹⁾ 말씀 못하온 일 후회헌들 무엇허며,
 또한 몸이 위친¹¹⁹²⁾허여 정성을 다혈진댄¹¹⁹³⁾
 무고헌¹¹⁹⁴⁾ 재물을 어이 바라오며,
 삼백 석을 주시온들 선인들도 임시 낭패¹¹⁹⁵⁾ 그도 또한 어렵삽고,¹¹⁹⁶⁾
 한번 몸을 허락허여 값을 받고 팔렸다가, 수삭¹¹⁹⁷⁾이 지낸 후어¹¹⁹⁸⁾
 차마 어찌 낫을 들고 무슨 말을 허오리까?
 은혜는 백골난망이오나
 하릴없는¹¹⁹⁹⁾ 일이오이다.”
 부인이 기가 맥혀 심청을 살펴보니,
 기색¹²⁰⁰⁾이 엄숙허여 다시 권치 못허시고,
 차마 놓기 애석¹²⁰¹⁾하야,
 “네 정녕 그럴진댄
 잠 1202) 지체허여 주면,
 네 얼굴 네 태도를 화공¹²⁰³⁾ 불러 그려 두고
 내 생전으 보겠노라.”

31. (심청 화상) 승상부인은 화공을 불러 심청의 화상을 그리게 한 후, 눈물로 이별한다.

[아니리] 화공을 즉시 불러 족자¹²⁰⁴⁾를 내어주며,

You are a good daughter.
 What will become of your father?
 I will donate 300 bags of rice for you.
 Give them to the sailors.
 Forget about your wrong idea.”
 Sim Cheong answers, “It is useless to regret that I didn’t tell you
 about this.
 I am just doing my best to serve my father.
 I can’t take your properties without reason.
 Even if you give me 300 bags of rice, I can’t ruin the sailors’
 plan.
 I was already sold and paid several months ago.
 I will be humiliated to break the promise.
 I eternally appreciate your offer,
 but I have no choice.”
 Dumfounded, the noble lady takes a close look at Sim Cheong.
 She looks so stern that the noble lady can’t push her anymore.
 The noble lady loathes letting Sim Cheong go.
 “If you insist, I will let you go.
 Please wait for a moment.
 I’ll have an artist draw a picture of you.
 I’ll take a look at it for the rest of my life.”

**31. (Picture of Sim Cheong) The noble lady has an
 artist draw a picture of Sim Cheong and says
 good-bye in tears.**

[Aniri] The noble lady gives an artist a scroll.

“여보아라, 심낭자 생긴 형용¹²⁰⁵ 역력히¹²⁰⁶ 잘 그리면
중상¹²⁰⁷을 줄 터이니,
명심하여 잘 그려라.”

[진양조] 화공이 분부 듣고,
오색 단청¹²⁰⁸ 풀어놓고
심낭자를 이만하고¹²⁰⁹ 보더니마는,
화용월태¹²¹⁰ 고운 얼굴
수심겨워¹²¹¹ 앓인 모양,¹²¹²
난초같이 푸른¹²¹³ 머리 두 귀 밑에 따인¹²¹⁴ 것과
녹의홍상¹²¹⁵ 입은 태도
역력히 그려노니,
심낭자가 둘이로고나.
화제¹²¹⁶ 글을 지었으되,
‘생지사지일몽간으
초록강남인미환이라.’¹²¹⁷
부인이 기가 맥혀
한 손으로 족자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심청을 부여잡더니마는
눈물 감장¹²¹⁸을 못하시며,
“내 딸은 여기 있다마는,
말소리는 언제 다시 들을꼬나?
오늘 마지막 가는 길으¹²¹⁹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 불러 다오.”
심청이 더욱 설음이 복받치어
눈물이 맺거니 듣거니¹²²⁰
울음을 울다,
목이 떼어 허는 말이,

“Artist, draw a picture of Miss Sim clearly and exactly as she looks!

I will give you a big award.
Keep that in mind and draw well.”

[Jinyangjo] The artist gets to work.

He spreads out colors.

He takes a close look at Sim Cheong.

She is as beautiful and elegant as a flower and the moon.

She sits with a sad facial expression.

She has two braids as fresh as an orchid below her ears.

She wears a yellowish green jacket and a red skirt.

A picture is clearly and exactly drawn of her.

There are two Sim Cheongs.

Sim Cheong writes a sentence down on the picture.

‘Birth and death are a dream.

This person went to a place of no return.’

The noble lady is struck speechless.

She holds the scroll with one hand and Sim Cheong with the other hand.

She can’t contain the sad feeling and tears.

“My daughter is in this picture,

but when can I hear her voice again?

You are going on your last journey.

Please call me mother just one time.”

A sad feeling rises up in Sim Cheong all the more.

Tears on her eyes run down.

She cries.

Feeling choked, she speaks.

“길때¹²²¹)가 급하오니
 아주 하직 아뢰오나,
 어느 때나 모시리까? 어머님!
 어머님의 높은 은덕 죽어 황천¹²²²) 돌아가서 결초보은¹²²³)허오리다.”
 부인도 울고,
 심청이도 울고,
 눈물로 하직을 허는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네.

32.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뛰고 궁굴며¹²²⁴) 야단이 났는다
 선인들은 재촉이라.
 동리 사람들에게 부친을 당부하고
 선인들을 따라가는데,
[중모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초마자락¹²²⁵)을 거듬거듬 걷어 안고,
 비같이 흐르난 눈물은 옷깃에 모도¹²²⁶) 사무찬다.¹²²⁷)
 었더지며¹²²⁸) 자빠지며
 천방지축¹²²⁹) 따라갈 적, 건넌집 바라보며,
 “이진사댁¹²³⁰)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날 앵도 따고 노든¹²³¹) 일을 행여 네가 잊었느냐?
 금년 칠월칠석야¹²³²) 함께 결교허겠더니,¹²³³)

“It is time to go now.
Let me say goodbye for good.
I wish I could serve you, mother!
I will repay your great favor in the world of the dead.”
The noble lady cries.
So does Sim Cheong.
They part with each other in tears.
It is hard to watch the scene.

32. (Leaving with the Sailors) Sim Cheong cries sadly as she leaves with the sailors.

[Aniri] Sim Cheong comes back home.
Mr. Sim frantically runs and tumbles.
The sailors press her to leave.
She asks the villagers to take care of her father.
She goes with the sailors.

[Jungmori] Sim Cheong leaves. She leaves.
She leaves with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and soak her clothes.
She falls down and over.
As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she looks at a house.
“The second daughter in Mr. Lee’s house!
Don’t forget we had a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sked me to be your friend on July 7th this year.

이제는 하릴없다.¹²³⁴⁾
 상침질¹²³⁵⁾ 수 놓기를 널과¹²³⁶⁾ 함께 허라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이별허고 죽으러 가는 몸이로다.
 고인자는 지기자라,¹²³⁷⁾
 우리 정리¹²³⁸⁾ 생각허여,
 나 죽은 후에라도 내의 집 자주 와서
 우리 부친 위로허여 다오.”
 동리 남녀노소 없이¹²³⁹⁾ 눈이 붓게 모도 울 적,
 하나님도 아신¹²⁴⁰⁾ 바라,
 백일¹²⁴¹⁾은 어디 가고 음운¹²⁴²⁾이 자욱허여
 청산도 쟁기는¹²⁴³⁾ 듯,
 초목도 눈물진 듯,
 휘늘어져 곱던 꽃 이울고저¹²⁴⁴⁾ 빛을 잃고,
 춘조는¹²⁴⁵⁾ 다정하야 백반제¹²⁴⁶⁾허는 중으,
 “문노라, 저 찢꼬리.
 뉘를 이별허엿간디¹²⁴⁷⁾
 환우성¹²⁴⁸⁾을 지어 울고,
 뜻밖으 두견이는 꽃 떨어진 가지 우으¹²⁴⁹⁾
 ‘귀촉도¹²⁵⁰⁾ 귀촉도 불여귀’¹²⁵¹⁾라
 네 아무리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이 돌아오리?
 춘산¹²⁵²⁾의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라마는,
 사세부득이¹²⁵³⁾ 떨어지니
 수월수구¹²⁵⁴⁾ 어이 허리?”
 질¹²⁵⁵⁾ 걷는 줄을 모르고 강두¹²⁵⁶⁾으 당도허니,

It is futile now.
Whom will you sew and embroider with from now on?
You are fortunate to live with your parents.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True friends understand each other.
Think about our relationship.
Visit my house often after I die.
Please console my father.”
All the villagers weep till their eyes get swollen.
God knows this situation too.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The mountains appear to frown.
Trees and grass appear to shed tears.
Beautiful drooping flowers lose their color.
All spring birds are warmhearted to sing sad song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Unexpectedly, a cuckoo is on a branch whose blossoms fell
down.
'No return. No return.'
You cry hard.
How will I come back when I was sold at a price?
Flowers on spring mountains fade not because they want to
but because they have no choice but to.
I can't blame anybody.”
After walking for a while, they arrive at the ferry.

뱃머리¹²⁵⁷)에다 도판¹²⁵⁸) 놓고
심청을 인도하여 뱃장¹²⁵⁹) 안으 앉힌 후어,¹²⁶⁰)
행선¹²⁶¹)을 재촉하는구나.

33.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 의 경관을 보고 슬퍼한다.

[진양조] 범피중류¹²⁶²) 등덩¹²⁶³) 등덩 떠나간다.
망망헌¹²⁶⁴) 창해¹²⁶⁵)이며,
탕탕헌¹²⁶⁶) 물결이라.
백빈주¹²⁶⁷) 갈매기는 홍요안¹²⁶⁸)으로 날아들고,
삼상¹²⁶⁹)의 기러기는 한수¹²⁷⁰)로 돌아든다.
요량헌¹²⁷¹) 남은 소리
어적¹²⁷²)인가 여겼더니,
곡종인불견으¹²⁷³) 수봉¹²⁷⁴)만 푸르렸네.¹²⁷⁵)
애내성중만고수¹²⁷⁶)난 날로¹²⁷⁷) 두고 이름인가?
장사¹²⁷⁸)를 지내가니
가태부¹²⁷⁹)는 간 곳 없고,
떡라수¹²⁸⁰)를 바라보니
굴삼려¹²⁸¹) 어복충훈¹²⁸²)
무량¹²⁸³)도 허도든가.¹²⁸⁴)
황학루¹²⁸⁵)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쳐시오?
연과강상사인수¹²⁸⁶)는
최호¹²⁸⁷)의 유적¹²⁸⁸)인가?

Sailors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They lead Sim Cheong to a seat inside the boat.
They depart in a hurry.

33. (Drifting Along in the Sea) On the boat to Indang Water Sim Cheong feels sad as she looks around the beautiful scenery.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The waves are strong.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red water
pepper.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A clear sound approaches from a distant pla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sad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A famous ancient official, Jia Yi(賈誼), has gone.
A big river is seen.
A famous ancient poet, Qu Yuan(屈原), became food for fish
there.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Huanhelou(黃鶴樓).
The sun sets.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Is that the trace of the ancient poet, Cui Hao(崔灝)?

봉황대¹²⁸⁹⁾를 다다르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¹²⁹⁰⁾난
 이태백¹²⁹¹⁾이 노든¹²⁹²⁾ 데요,
 심양강¹²⁹³⁾을 돌아드니
 백락천¹²⁹⁴⁾ 일거후으¹²⁹⁵⁾
 비파성¹²⁹⁶⁾도 끊어졌다.
 적벽강¹²⁹⁷⁾을 그저¹²⁹⁸⁾ 가랴?
 소동파¹²⁹⁹⁾ 노던¹³⁰⁰⁾ 풍월¹³⁰¹⁾
 의구히¹³⁰²⁾ 있다마는,
 조맹덕¹³⁰³⁾ 일세지웅¹³⁰⁴⁾ 이금으¹³⁰⁵⁾ 안재재오?¹³⁰⁶⁾
 월락오제¹³⁰⁷⁾ 깊은 밤으
 고소성¹³⁰⁸⁾에 배를 매니,
 한산사¹³⁰⁹⁾ 쇠북소리¹³¹⁰⁾는 객선으¹³¹¹⁾ ‘텅 텅’ 이르는구나.¹³¹²⁾
 진회수¹³¹³⁾를 건너가니,
 격강의¹³¹⁴⁾ 상녀¹³¹⁵⁾들은
 망국한¹³¹⁶⁾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헌디¹³¹⁷⁾
 후정화¹³¹⁸⁾만 부르더라.¹³¹⁹⁾
 소상강¹³²⁰⁾을 들어가니,
 악양루¹³²¹⁾ 높은 집은 호상으¹³²²⁾ 솟았난 듯,
 동남¹³²³⁾을 바라보니 오산¹³²⁴⁾은 첩첩,¹³²⁵⁾ 초수¹³²⁶⁾는 만중¹³²⁷⁾이라.
 반죽¹³²⁸⁾의 젓인¹³²⁹⁾ 눈물 이비한¹³³⁰⁾을 띠어 있고,
 무산¹³³¹⁾의 돛는 달은 동정호¹³³²⁾로 비쳐오니,
 상하천광¹³³³⁾이 거울 속으¹³³⁴⁾ 푸르렀네.
 창오산¹³³⁵⁾의 저문 연기 황룡묘¹³³⁶⁾에 잠겼어라.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Three Mountain's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an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Letian(白樂天),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po(蘇東坡), enjoyed himself here.
 The beautiful scenery has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who was here?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fortress.
 The bell sounds from a buddhist temple reach the travelers' boat.
 The boat gets to a famous canal.
 Bar girl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did not mourn the fall of their country.
 When the thick fog i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bright moon
 is above the white sand,
 they only sing songs.
 The boat now enters another famous river.
 A tower is high as if it soared from a lake.
 To the southeast of the tower are many mountains and rivers.
 The tears on the bamboos signify two ancient queens' grief.
 The moon rising over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The blue sky is reflected on the lake like a mirror.
 Smoke on a mountain covers the shrine for the two queens :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삼협¹³³⁷)의 잔나비¹³³⁸)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천객¹³³⁹) 소인¹³⁴⁰)이 눈물을 몇몇이나 빗었든고?

34. (소상팔경) 심청이 소상팔경을 지나가며 열녀와 충신들 의 원혼을 만난다.

[아니리] 그렇저렇¹³⁴¹) 소상팔경¹³⁴²)을 지내갈 제,
[중모레] 한 곳을 당도허니,
향풍¹³⁴³)이 일어나며,
옥패¹³⁴⁴) 소리가 쟁쟁¹³⁴⁵) 들리더니,
의회현¹³⁴⁶) 죽림¹³⁴⁷) 사이로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¹³⁴⁸)을 정히¹³⁴⁹)
쓰고 신음거려¹³⁵⁰)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¹³⁵¹)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우리 성군¹³⁵²) 유우씨¹³⁵³)가 남순수¹³⁵⁴)하시다가
창오산¹³⁵⁵)으 봉¹³⁵⁶)하시매,
속절없는¹³⁵⁷) 이 두 몸이 소상강 대수풀으 피눈물을 뿌렸더니,
가지마다 아롱이 지고 잎잎이 원혼이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내가떨이라. ¹³⁵⁸)
천추¹³⁵⁹)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지극한 너의 효성 하례¹³⁶⁰)코저 예 왔노라.
요순¹³⁶¹) 후 기천년의¹³⁶²)
지금은 천자 어느 뉘며,¹³⁶³)
오현금¹³⁶⁴) 남풍시¹³⁶⁵)를 이제까지 전하드냐?

The apes of a canyon sadly call their children,
squeezing out tears from the relegated official and poet.

**34. (The Eight Beautiful Site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when
she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Aniri] Somehow, the boat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Jungmori]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A fragrant wind blows.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with divine hats on their heads come, groaning, out
of a faint bamboo grove.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our sad story.

Our great king toured about in the south.

He died on a mountain.

In despair, we spread our bloody tears on the bamboo grove
of a river.

Our griefs remain on each branch of the bamboos.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s will disappear.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We are here to praise your filial piety.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our kings, Yao(堯) and
Shun(舜), died.

Who is the king now?

Were his pentachord and poem inherited?

수로 먼먼 길 조심하여 다녀오느라.”

이난¹³⁶⁶) 님고¹³⁶⁷) 허니 요녀순처¹³⁶⁸) 만고열녀¹³⁶⁹) 이비¹³⁷⁰)로다.

“가신 지 수천 년으 정혼¹³⁷¹)이 남어 있어 사람의 눈에 보일진댄,
내가 죽을 징조로다.”

또 한 곳을 당도허니,

풍랑¹³⁷²)이 대작허며¹³⁷³)

찬 기운이 소삼더니,¹³⁷⁴)

어떠한 일원¹³⁷⁵) 대장이 나오느니,

신장이 구척¹³⁷⁶)이요,

면여거륜¹³⁷⁷)허며,

미간¹³⁷⁸)이 광활헌디,¹³⁷⁹)

요대¹³⁸⁰)가 십위¹³⁸¹)로다.

두 눈을 감고,

가죽으로 몸을 싸고

은은히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나의 말을 듣고 가라.

슬프다,

우리 오왕¹³⁸²) 백비¹³⁸³)의 참소¹³⁸⁴) 듣고,

촉루검¹³⁸⁵) 나를 주어 목 찢러 죽인 후어,¹³⁸⁶)

가죽으로 몸을 싸서 이 물으 던졌노라.

장부의 원통함이, 월병¹³⁸⁷)이 멸오¹³⁸⁸)함을 내 역력히 보라 허고,

일찍이 눈을 빼어 동문상¹³⁸⁹)으 걸었더니,¹³⁹⁰)

과연 내가 보았노라.

그러하나 원통헌 게

몸에 싸인 이 가죽을 어느 뉘라 벗겨주며,

Take care i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They are the two famous princesses and faithful queens of
 ancient time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I just saw the souls of people who died thousands of years ago.
 This is an indication of my death.”
 The boat arrives at another place.
 A strong wind makes large waves.
 A cold energy is felt.
 A certain warrior shows up.
 He is nine feet tall,
 His face is as large as a wheel.
 The space between his eyebrows is wide.
 He wears several belts.
 His eyes are closed.
 His body is wrapped with a leather.
 He comes out slowly.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my story.
 Woe to me!
 My king listened to a false charge by a premier.
 The king gave me a sword to kill myself in the throat.
 My body was wrapped up with a leather and thrown into this
 river.
 I was so resentful that in order to clearly watch the downfall
 of my country.
 I gouged out my eyes and hung them on the east gate.
 As expected, I clearly saw it,
 but there are things I still resent.
 Who will take the leather off my body?

눈 없는 게 한이 된들
 내 눈 뉘가 찾아주리?
 수로 먼먼 길 조심하여 다녀와서,
 귀헌 몸 되시거든 소인¹³⁹¹⁾ 참소 듣지 말라 황제님께 잘 간¹³⁹²⁾하소.”
 이분은 뉘고¹³⁹³⁾ 허니, 오나라 충신 오자서¹³⁹⁴⁾라.

35. (떡라수 탄식) 떡라수에서 굴삼려의 원혼을 만나고, 심청은 신세를 탄식하며 인당수를 향해 간다.

[진양조] 그곳을 점점 지나 떡라수¹³⁹⁵⁾를 당도하니,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색¹³⁹⁶⁾이 초췌¹³⁹⁷⁾하고,
 형용¹³⁹⁸⁾이 고고¹³⁹⁹⁾하며
 글을 읊고 나오면서,
 “슬프다, 심소저야!
 어복충혼¹⁴⁰⁰⁾ 굴삼려¹⁴⁰¹⁾를
 자네 응당 알 터이나,
 낭자는 효성으로 죽으러 가고,
 나는 충성으로 죽었으니,
 충효는 일반이라¹⁴⁰²⁾ 호소코저 예 왔노라.
 후일 귀히 되시는 날,
 황제께 잘 간하여 충신 박대¹⁴⁰³⁾ 말게 하면
 만세유업¹⁴⁰⁴⁾을 누리리라.”
 심청이 기가 맥혀 혼잣말로 탄식한다.

I hold a grudge about not having eyes.
Who will find my eyes for me?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ong journey in the sea.
If you become a nobility, ask the king not to listen to the false charge.”
This is a famous loyal subject of ancient times.

35. (The Lamentation on a River) Sim Cheong comes across the soul of an ancient loyal subject on a river. She laments over her fate and heads toward Indang Water.

[Jinyangjo] They now arrive at a big river.
Another man shows up.
His face is haggard.
His figure is thin.
He reads something as he comes out.
“Woe to me, Miss Sim!
I am the soul of Qu Yuan(屈原) who became food for fish.
You must know me.
You die because you are a good daughter.
I died because I was a loyal subject.
I am here to assert that filial piety and loyalty are the same thing.
When you become a nobility in the future,
if you ask my king not to mistreat his loyal subjects,
he will have an eternal dynasty.”
Sim Cheong is stunned and sighs to herself.

“이것이 웬 일인가?

죽으러 가는 나를 보고 귀한 몸 된다 하며,

조심하여 다녀오라니

정녕코¹⁴⁰⁵⁾ 내가 죽을 징조¹⁴⁰⁶⁾로다.”

[중모레] “물의 날이 몇 날이며,

배의 밤이 몇 밤이고?

어언¹⁴⁰⁷⁾ 사오 삭¹⁴⁰⁸⁾을 물같이 흘러가니,

금풍삼이석기허고

옥우곽이쟁영이라.¹⁴⁰⁹⁾

낙하는 여고목제비허고,

추수난 공장천일색이라.¹⁴¹⁰⁾

강안이 굴농허니 황금이 천편이요,¹⁴¹¹⁾

노화에 풍기허니 백설이 만점이라.¹⁴¹²⁾

신포세류¹⁴¹³⁾ 지는 앞은 만강추풍¹⁴¹⁴⁾ 흐날리고,¹⁴¹⁵⁾

해반청산¹⁴¹⁶⁾은 봉봉이¹⁴¹⁷⁾ 칼날 되어,

돌우나니 수심¹⁴¹⁸⁾이요,

녹는 것이 간장¹⁴¹⁹⁾이라.

일락장사추색원으

부지하처조상군고?¹⁴²⁰⁾

송옥¹⁴²¹⁾의 비추부¹⁴²²⁾가 이어서¹⁴²³⁾ 슬프리오?

지려¹⁴²⁴⁾ 내가 죽자허니 선인들이 낭패 되고,

살어 실려 가자현들 생불여사¹⁴²⁵⁾ 내 신세야.”

외로울사¹⁴²⁶⁾ 선인들은 등불을 돋오¹⁴²⁷⁾ 키고¹⁴²⁸⁾

애내성¹⁴²⁹⁾ 부르면서, “어기야 차 어기야 어기야 차 어기야 차.”

“What did he say?

He said I would become a nobility when I am to die.

He also said to come back in one piece.

This is a sure indication that I will die.”

[Jungmori] “How many days did I spend on the sea?

How many nights did I spend on the boat?

Several months have already passed like an arrow.

The cool fall wind blows in the evening.

The wide sky is bright.

A lonely bird flies along with the falling evening glow.

The clear water and the high sky of autumn are of the same color.

Tangerines on a bank of a river are like numerous pieces of gold.

White flowers are scattered by a wind like snow.

A fall wind disperses the leaves of the willows around a river.

The peaks of a green mountain on the beach are sharp.

What rises up is anxiety.

What melts down are a liver and intestines.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in the fall.

Where should I pay a tribute to the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Would the poem by an ancient poet be more sad than this?

I want to kill myself, but that would be bad to the sailors.

For me, however, being alive is no different from being dead.”

The lonely sailors turn on the lights fully.

They chant a song as they row their boat forward. “Yo-ho.”

36.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한 심청이 제사를 마친 후, 아버지 눈뜨기를 빌면서 물로 뛰어든다.

[옛모래] 한 곳을 당도하니,
이난¹⁴³⁰) 곳 인당수¹⁴³¹)라.
광풍¹⁴³²)이 대작하여,¹⁴³³)
어룡¹⁴³⁴)이 싸우는 듯,
벽력¹⁴³⁵)이 나리는¹⁴³⁶) 듯,
대양바다¹⁴³⁷)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쳐,
안개 뒤섞어 저저진¹⁴³⁸)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점그려져¹⁴³⁹)
천지 적막헌디,
까치늪¹⁴⁴⁰) 떠들어와 뱃전머리¹⁴⁴¹) 탕,
물결이 우르르르르르 출렁 출렁.
도사공¹⁴⁴²) 영좌¹⁴⁴³) 이하 황황급급¹⁴⁴⁴)하야 돛 짓고,¹⁴⁴⁵)
단 놓고, 고사기계¹⁴⁴⁶)를 채린다.
섬쌀¹⁴⁴⁷)로 밥 짓고,
온 소¹⁴⁴⁸) 잡고,
동이술¹⁴⁴⁹) 오색 탕수¹⁴⁵⁰) 삼색 실과¹⁴⁵¹)를 방위¹⁴⁵²) 찾아 갈라놓고,
산 돌¹⁴⁵³) 잡아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 놓고,
심청을 목욕시켜,
의복을 정히¹⁴⁵⁴) 입혀 뱃머리 얹힌 후,
도사공 거동 보소.
의관¹⁴⁵⁵)을 정제¹⁴⁵⁶)허고, 복채를 양손으¹⁴⁵⁷) 쥐고,

**36.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wishing that her father opens his eyes.**

[Eot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is is Indang Water.
A strong wind blows.
It is as if a fish fought with a dragon.
It is as if thunder fell down.
A wind generates waves in the wide sea.
A heavy fog moves around.
They have a long way to go.
It is dark in all four directions.
The sky and the sea are desolate.
Strong currents hit the bow of the boat hard.
Waves run wildly around the boat.
The leader of the sailors and the rest quickly take the sail down.
An altar and things are prepared for a rite.
They cook a bag of rice.
A cow is killed.
A jar of wine, soups of various colors, and diverse fruits are put
in appropriate places.
A live pig is slaughtered.
It is hung on a big knife as if it crawled.
The leader has Sim Cheong take a bath,
put on clean clothes, and sit at the bow of the boat.
Behold the leader of the sailors!
He puts on formal clothes and holds two drumsticks.

[자진모래] 북을 ‘두리둥 둥 두리둥 둥둥둥 둥 두리둥 둥둥 둥둥둥둥둥.’

“칩떠¹⁴⁵⁸) 잡어 삼십삼천,¹⁴⁵⁹)

내립떠¹⁴⁶⁰) 이십팔수,¹⁴⁶¹)

오방신장,¹⁴⁶²)

사해용왕,¹⁴⁶³)

지부¹⁴⁶⁴)의 십대왕님,¹⁴⁶⁵)

서천¹⁴⁶⁶)에 팔만제불¹⁴⁶⁷)

다 굶어 보옵소서.

천생만민에 필수지직,¹⁴⁶⁸) 직업이 다 다르사,¹⁴⁶⁹)

사농공상¹⁴⁷⁰) 네 가지으¹⁴⁷¹) 우리의 배운 직업이 뱃장사¹⁴⁷²)가 직업
이온바,

현원씨¹⁴⁷³) 배를 무어¹⁴⁷⁴) 이제불통¹⁴⁷⁵)헌 연후으,¹⁴⁷⁶)

후생¹⁴⁷⁷)이 이렇게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¹⁴⁷⁸)허니

막대한 공 이 아니며,

하우씨¹⁴⁷⁹) 구년치수¹⁴⁸⁰)

도산도주¹⁴⁸¹)허옵시사 바다를 만드시고,

신농씨¹⁴⁸²) 상고¹⁴⁸³) 마런 교역을 허게 하시니,

우리의 허는 직업 세 인군¹⁴⁸⁴)이 내심이라.

우리 동무 스물네 명 상고로 위업하여 경세우경년으¹⁴⁸⁵) 표박서
남¹⁴⁸⁶)을 다니더니,

인당수 용왕님은 인제수¹⁴⁸⁷)를 받삼기로,

황주 땅 도화동의 금년 십오세 심청 처녀,

인물이 일색¹⁴⁸⁸)이요,

만신¹⁴⁸⁹)에 흠파¹⁴⁹⁰) 없고,

효행이 출천¹⁴⁹¹)키로 증가¹⁴⁹²) 주고 그 몸 사서

목욕재계¹⁴⁹³) 단장¹⁴⁹⁴)시켜

[Jajin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Gods high in the nine heavens,
 gods down on the twenty eight regions,
 five gods of five directions,
 the dragon kings of the four seas,
 ten kings of the dead world,
 and eighty thousand Buddha’s in the west sky,
 please, pay attention to me.
 Heaven gave different vocations to people.
 Of the four major vocations, our vocation is to do business on
 a boat.
 An ancient king made a boat, connecting two separated places.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This is a great accomplishment.
 Another ancient king overcame the nine year drought.
 He crossed mountains and rivers, and made a sea.
 Another ancient king made international trade possible.
 We have jobs thanks to the three kings.
 We, twenty sailors, have been taking business trips to the west
 and south for years.
 We offer a human sacrifice to the dragon king of Indang Water.
 She is a fifteen year old virgin from Peach Blossom Village.
 She is a rare beauty.
 Her body is flawless.
 Because she is a good daughter, we paid a high price.
 We had her take a bath and decorated her well.

제수로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축융이며,
 북해신 웅강¹⁴⁹⁵)이며,
 강한지장¹⁴⁹⁶)과
 천택지군¹⁴⁹⁷)이
 하감¹⁴⁹⁸)히여 주옵시고,
 이물¹⁴⁹⁹)에 대감선왕,
 고물¹⁵⁰⁰)에 장군선왕,
 허릿간¹⁵⁰¹) 화장선왕,
 본당¹⁵⁰²)의 각시선왕¹⁵⁰³)
 동참취포¹⁵⁰⁴)히신 후어,¹⁵⁰⁵)
 비렴¹⁵⁰⁶)으로 바람 주고,
 화락¹⁵⁰⁷)으로 인도히여
 환란¹⁵⁰⁸) 없이 도우시고,
 백천만금¹⁵⁰⁹) 퇴¹⁵¹⁰)를 내어
 뚝대 우에 봉기¹⁵¹¹) 꽃고, 봉기 우에 연화¹⁵¹²) 반게 점지¹⁵¹³)히여 주
 읍소서!"
 북을 '두리둥 둥둥둥 둥둥둥둥.'
 고사¹⁵¹⁴)를 지내더니, "심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하니, 심청이 이 말 듣고, "아이고, 하느님!
 명천¹⁵¹⁵)이 감동허사,
 아버의 허물일랑 심청 몸으로 대신허옵시고,
 아버의 어둔 눈을 밝게 점지허옵소서!
 여보시오, 사공님네! 도화동이 어느 쪽으로 있소?"

We offer her to you as a sacrifice.
 The god of the east sea,
 the god of the west sea,
 the god of the south sea,
 the god of the nor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good care of us.
 The god of the bow,
 the god of the stern,
 the god of the middle,
 and the god of the main shrine,
 please help yourself with this food,
 give us a wind via the god of the wind,
 lead us to peace and happiness,
 protect us from a disaster,
 help us make a lot of profit,
 and help us hang the banner of success and a lotus flower on
 our mast!"

The drum make the sounds: tom-tom, boom-boom.
 After the ritual, they say, "Miss Sim, get into the water!"
 With the command, Sim Cheong says, "Alas! God!
 I wish that all-knowing God moves.
 Please amend my father's fault with my body.
 Please help my father open his eyes.
 Hello, sailors! In which direction is Peach Blossom Village?"

도사공이 북채를 들어,
 “저기 구름 담담한¹⁵¹⁶⁾ 저 밖이 도화동이로소이다.”
 심청이 이 말 듣고, 섰든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이는
 요만큼도¹⁵¹⁷⁾ 생각 말으시고,
 어서 눈을 뜨옵시어 천지만물¹⁵¹⁸⁾ 다 보시고,
 아들 낳고, 딸을 낳어
 후사¹⁵¹⁹⁾를 전케¹⁵²⁰⁾허옵소서!”
 심청의 거동¹⁵²¹⁾ 보아라.
 뱃전¹⁵²²⁾으로 우루루루루,
 새별같은 눈을 감고,
 초마폭¹⁵²³⁾을 무릅쓰더니,
 만경창과¹⁵²⁴⁾ 갈매기격으로¹⁵²⁵⁾ 뗏다 물에 풍!

37. (선인 애통) 심청이 물에 빠진 뒤 선인들이 슬퍼하며 떠나간다.

[중모리] 묘창해지일속¹⁵²⁶⁾이라.
 위리령출령 간 데 없네.
 흐르던 물도 머물렀고,
 유유한¹⁵²⁷⁾ 갈매기도 빠지던 데를 굽어보며, ‘각 까르르르르르’ 울
 어 있고,
 무심헌 기러기도 돛대 우에 높이 떠서 ‘뚜루루 깎룩’ 울어 있고,
 사공¹⁵²⁸⁾들도 목이 메어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¹⁵²⁹⁾

The leader holds up his drumstick.
“Your village is in the direction of the light clouds over there.”
After hearing him, Sim Cheong slumps down on the spot.
“Oh, father!
I am a bad daughter.
Please don’t miss m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have a son and a daughter,
and continue the family line!”
Behold Sim Cheong!
She runs to the edge of the boat.
She closes her beautiful eyes.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She flies into the vast blue water like a seagull.

**37. (The Sailors’ Lamentation) After Sim Cheong jumps
into water, the sailors feel sorry and leave.**

[Jungmori] Sim Cheong’s body is a little grain in the blue sea.
Only waves are seen.
The flowing water stops.
A slow seagull looks down at the spot Sim Cheong jumped into
and cries.
A heartless wild goose sits on the top of the mast and cries.
The sailors feel choked.
Tears run down their eyes.

말 못하고 서 있는데,
 영좌가 울음을 내어,
 “못 보겠구나. 못 보겠네.
 사람의 인정으로는 못 보겠네.
 우리가 연년이 사람을 사다가 이 물으다 제수하니,
 우리 후사¹⁵³⁰ 잘 될쏘냐?
 여보소, 동무네들.
 명년부터는 아사지경¹⁵³¹을 당허드라도 이놈의 노릇을 그만두세.
 닷 감고 노를 저어라.
 참나무 디래따리¹⁵³²를 잡고 돛을 달어라.
 용충줄¹⁵³³ 벌리고 고작¹⁵³⁴을 채워라.”
 “어그야 차! 어그야 차!”

38.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수정궁으로 데려간다.

[진양조] 둥덩 둥덩 떠나간다.
 행화¹⁵³⁵는 풍랑¹⁵³⁶을 쫓고,
 명월¹⁵³⁷은 해문¹⁵³⁸에 잠겼도다.
 이 때에 옥황상제¹⁵³⁹께옵서 남해용왕께 분부¹⁵⁴⁰하시되,
 “금일 오시¹⁵⁴¹ 초에¹⁵⁴² 출천대효¹⁵⁴³ 심낭자 인당수 들 것이니,
 팔선녀¹⁵⁴⁴로 옹위¹⁵⁴⁵허여 수정궁¹⁵⁴⁶에 모셨다가
 인간¹⁵⁴⁷으로 환송¹⁵⁴⁸허되,
 시각을 조끔¹⁵⁴⁹ 어기거나,

They stand in silence.
The leader speaks in tears.
“This is cruel. This is cruel.
This is inhumane.
Every year, we bought human beings and sacrificed them here.
But children won’t be able to prosper because we threw a
human into the water.”
Hey, sailors.
Let’s stop this from next year and on, even if we starve to death.
Pull up the anchor and row the boat.
Hold the rudder and pull up the anchor.
Untie the ropes and the knob.”
“Heave! Heave!”

38.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takes Sim Cheong to the dragon
palace.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cense follows the waves.
The bright moon is below the horizon.
Meanwhile, the King of Heaven giv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Miss Sim, a good daughter from heaven, will jump into Indang
Water around noon today.
Have eight goddesses escort her to the dragon palace.
Reincarnate her back into a human being.
If you don’t meet her on time,

물 한 점을 묻히거나,
 모시기를 잘못하면
 남해용왕은 천벌¹⁵⁵⁰)을 주고, 수국 제신¹⁵⁵¹)은 죄를 면치 못하리라!”
 분부가 지엄¹⁵⁵²)하니, 용왕이 황겁히여¹⁵⁵³)
 수국 충신 별주부¹⁵⁵⁴)와
 백만인갑¹⁵⁵⁵) 제장¹⁵⁵⁶)이며,
 각 궁 시녀로
 용궁 교자¹⁵⁵⁷)를 등대¹⁵⁵⁸)하고
 그 시¹⁵⁵⁹)를 기대릴 적,¹⁵⁶⁰)
 과연 오시오 백옥같은¹⁵⁶¹) 한 소저¹⁵⁶²)가 물에 풍덩 빠져들거늘,
 시녀등이¹⁵⁶³) 고히 맞아 교자 위에 모시는구나.
[아니레] 심청이 정신 차려,
 “나는 진세천인¹⁵⁶⁴)이라
 어찌 감히 용궁 교자를 타오리까?”
 시녀등¹⁵⁶⁵)이 여짜오되, “상제¹⁵⁶⁶)의 분부오니,
 만일 아니 타옵시면 우리 수궁은 죄를 면치 못하나이다.”
 사양타 못하여 교자 우에 올라앉으니,
 시녀등이 모시고 수정궁으로 들어갈 제,

39. (수정궁) 수정궁의 모습이 화려하고 위엄 있다.

[옛모래] 위의¹⁵⁶⁷)도 장혈씨고.¹⁵⁶⁸)
 천상¹⁵⁶⁹) 선관선녀¹⁵⁷⁰)들이 심소저를 보라하고 좌우로 벌였는디,
 태을진¹⁵⁷¹) 학을 타고,
 안기생¹⁵⁷²) 난¹⁵⁷³) 타고,

if she gets wet a little,
or if you do not attend to her well,
you and your subjects will be severely punished by heaven!"
The stern order makes the dragon king horrified.
The royal subject of the sea palace (turtle),
numerous generals (fish),
and court maids of the palace,
prepared a dragon palace carriage,
and wait for the time.
As expected, a beautiful damsel jumps into the water around
noon.
The maids greet and help her to the carriage.

[Aniri] Sim Cheong comes to herself.
"I am a worthless human being.
How dare I sit on the carriage of the dragon palace?"
The maids respond, "The King of Heaven gave an order.
If you don't sit on it, all in the dragon palace will be punished."
Sim Cheong unwillingly gets on the carriage.
The maids take her to the dragon palace.

39. (The Scene of the Dragon Palace) The dragon palace is magnificent and majestic.

[Eotmori] How magnificent and majestic!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are in rows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divine bird.

구름 탄 적송자¹⁵⁷⁴)며,
 사자 탄 갈선웅¹⁵⁷⁵)과
 고래 탄 이적선,¹⁵⁷⁶)
 청의동자¹⁵⁷⁷) 홍의동자¹⁵⁷⁸)가 쌍쌍이 모셔 있고,
 월궁향아¹⁵⁷⁹) 마고선녀¹⁵⁸⁰) 남악부인¹⁵⁸¹)
 팔선녀들이 좌우로 모셨는디,
 수정궁을 들어가며 풍악¹⁵⁸²)을 갖추울¹⁵⁸³) 적,
 왕자 진¹⁵⁸⁴)의 봉피리,¹⁵⁸⁵) 괘처사¹⁵⁸⁶) 죽장고,¹⁵⁸⁷)
 성연자¹⁵⁸⁸) 거문고, 장량¹⁵⁸⁹)의 옥통소,¹⁵⁹⁰)
 해강¹⁵⁹¹)의 해금¹⁵⁹²)이며, 완적¹⁵⁹³)의 휘파람,
 격타고¹⁵⁹⁴) 취용적¹⁵⁹⁵)
 능과사¹⁵⁹⁶) 보허사,¹⁵⁹⁷)
 상영¹⁵⁹⁸)은 비파 타고,¹⁵⁹⁹) 고점리¹⁶⁰⁰) 축¹⁶⁰¹)을 치고,
 우의곡¹⁶⁰²) 채련곡¹⁶⁰³)을 곁들여 노래할 적,
 낭자현¹⁶⁰⁴)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궁궐을 바라보니,
 주궁패궐¹⁶⁰⁵)은
 응천상지삼광¹⁶⁰⁶)이요,
 곤의수상¹⁶⁰⁷)은 비인간지오복¹⁶⁰⁸)이라.
 산호주렴¹⁶⁰⁹)으
 백옥안상¹⁶¹⁰) 광채도 찬란허구나.
 선녀들이 나열¹⁶¹¹)허여 주안¹⁶¹²)을 들이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¹⁶¹³) 호박병¹⁶¹⁴)으 천일주¹⁶¹⁵)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도¹⁶¹⁶)를 덩그렇게¹⁶¹⁷) 괴았네. ¹⁶¹⁸)
 삼일에 소연¹⁶¹⁹) 허고, 오일에 대연¹⁶²⁰) 허여 극진히¹⁶²¹) 봉공¹⁶²²)한다.

Another is on a cloud.
 Another is on a lion.
 Another is on a whale.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The goddess from the moon, a legendary goddess, a goddess
 from a mountain,
 and the eight goddesses are on the left and right.
 Music is played as they enter the palace.
 There are a phoenix-shaped pipe, a brassware-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 dragon pipe,
 a pond song, a divine song,
 a Korean lute, and a thirteen-stringed harp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Look at the palace.
 It is ornamented with all sorts of jewel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king's embroidered clothes are more than humans' five
 blessings.
 A splendid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lustrous chair is made of white jewels.
 Goddesses bring the wine table in order.
 The food is heavenly.
 Glasses and amber bottles are filled with old wine.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able.
 Sim Cheong is served with small and big feasts every several
 days.

[아니리] 옥황상제의 영이어든 거행¹⁶²³)이 오직허리.

사해 용왕이 각각 시녀를 보내어 조석¹⁶²⁴)으로 문안하며 조심이 각
별¹⁶²⁵)할 제,

40. (망사대와 타루비) 승상부인이 심청의 효를 기려 망사 대를 짓고 제사를 지내니, 도화동 사람들도 타루비를 세우고 애도한다.

[중모리] 그 때여 승상부인은 심소저를 이별하시고 애석¹⁶²⁶)함을 못
이기어,

글 지어 쓴 화상죽자¹⁶²⁷)를 침상¹⁶²⁸)으 걸어두고

때때로 증험하시더니,¹⁶²⁹)

일일은 죽자 빛이 홀연히¹⁶³⁰) 검어지며

귀에 물이 흐르거늘,

승상부인 기가 맥혀,

“아이고, 이것 죽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꼬나?”

이렇듯이 탄식할 적, 이윽고 죽자 빛이 완전히¹⁶³¹) 새로우니,

“뉘라서¹⁶³²) 건져내어 목숨이나 살었느냐?

그러하나 창해¹⁶³³) 먼먼 길의 소식이나 알겠느냐?”

[아니리] 생각다 못하여

시비¹⁶³⁴)를 불러 분부하시되, “애야,

오늘은 심낭자가 분명히 죽었나부다.

제물¹⁶³⁵)이나 좀 장만해라.

떠나든 강두¹⁶³⁶)를 찾아가서

[Aniri] Since the order is from the King of Heaven, it is strictly executed.

The kings of dragons in all seas send their maids to Sim Cheong everyday to say hello to her.

40. (Tower and Monument.) The noble lady erects a tower in memory of Sim Cheong and performs a ritual. Villagers build a monument of tears and express condolences for her.

[Jungmori] Meanwhile, the noble lady can't hold down the grief after parting with Sim Choeng.

She puts Sim Cheong's painting with the sentence on her bed.
She often takes a look at it.

One day, it becomes black all of sudden.

Water drips down from its corner.

She is astonished.

"She must be dead now!

Alas! What should I do?"

While she sighs, the painting completely changes its colors.

"Did somebody save you out of the water?"

Even so, could I hear from you far away in the wide sea?"

[Aniri] The noble lady can't sit still.

She calls her maid and says,

"Miss Sim must have died today.

Make some food for a ritual.

I will go to the ferry where she got on the boat.

불쌍헌 영혼을 한 잔 술로 위로허리라.”

그날 밤 삼경시¹⁶³⁷)에,

[진양조] 주안¹⁶³⁸)을 갖추어서,

시비 들려 앞세우고 강두에 당도허여,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슬픈 말로 제지낸다.

“심소저야, 심소저야! 아깝구나, 심소저야!

늙은 부친 눈 어둔 게 평생의 한이 되어

어복¹⁶³⁹)의 혼이 되니,

하나님은 무삼 일로 너를 내어 죽게 하시며,

귀신은 어이허여 죽는 너를 못 살린그나?¹⁶⁴⁰)

무궁헌 나의 애¹⁶⁴¹)를 너는 죽어 모르건만,

나는 죽어¹⁶⁴²) 유한일다.¹⁶⁴³)

유유향혼¹⁶⁴⁴)이여,

오호애재¹⁶⁴⁵)

시향¹⁶⁴⁶)이라.”

제문 읽고 유식¹⁶⁴⁷)혈 적,

하나님은 나짓허여¹⁶⁴⁸) 제문을 들으신 듯,

별과 달이 희미허여 수심을 머금은 듯,

물결이 잔잔허여 어룡¹⁶⁴⁹)이 느끼난¹⁶⁵⁰) 듯,

청산이 적적허여 금조¹⁶⁵¹)가 슬허헌¹⁶⁵²) 듯.

부인이 기가 맥허 심소저를 부르면서,

눈물 감장¹⁶⁵³)을 못하시느구나.

[아니레] 부인이 수백금¹⁶⁵⁴) 돈을 내어 강가에다 망사대¹⁶⁵⁵)를 짓고,

매월 삭망¹⁶⁵⁶)으로 삼 년까지 제지내게 하시는데,

도화동 사람들이 또한 심소저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망사대 앞에다 타루비¹⁶⁵⁷)를 세워놓고

I will console her soul with wine.”

It is late at night.

[Jinyangjo] They prepare food and wine.

The maid carries them and is followed by the noble lady to the ferry.

The noble lady pours wine and performs a ritual with a sad voice.

“Miss Sim! Miss Sim! Alas, Miss Sim!

You felt sorry that your old father was blind.

You became a soul in the belly of fish.

Why is it that you were fated to die like that?

Why is it that a god cannot bring you back to life?

You don't know my sorrow because you are dead.

I can't shake off grief even if I die.

Your soul is a beautiful flower.

How sad!

Please take this food and wine.”

After reading the ode, the noble lady waits for the soul to take the food and wine.

God appears to have listened to her ode.

The moon and stars give off sad faint lights.

The river is placid as if a fish wept.

The mountain is dreary with sad birds.

The noble lady is speechless and calls Miss Sim.

A sad feeling overtakes her.

[Aniri] The noble lady pays a lot of money and constructs a tower.

She announces to hold a ritual twice a month for three years.

The villager also feel sorry for Sim Cheong's death.

They build a monument of tears by the tower.

글 지어 새겼으되,
 ‘지위기친폐쌍안¹⁶⁵⁸)허여
 살신성효행용궁¹⁶⁵⁹)을.
 연파만리상심벽¹⁶⁶⁰)하니,
 방초연년한불궁¹⁶⁶¹)이라,’
 뚜렷이 새겨노니,
 오고가는 행인들이 비문 보고 아니 우는 사람 없는지라.
 그 때으 심소저는 수정궁에 머무를 제,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부인¹⁶⁶²)이 하강¹⁶⁶³)을 허시는데,
 이는 심청의 어머니 괘씨부인이 죽어 광한전¹⁶⁶⁴) 옥진부인이 되셨는데,
 심청이 수궁에 왔단 말을 들으시고 모녀 상봉차¹⁶⁶⁵)로 내려오시겠다.

41. (심청 모친 상봉) 심청이 용궁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중모리] 오색 채운¹⁶⁶⁶)이 벽궁¹⁶⁶⁷)으 어리더니,¹⁶⁶⁸)
 요량현¹⁶⁶⁹) 선악¹⁶⁷⁰) 소리 수궁이 낭자허며,¹⁶⁷¹)
 우편¹⁶⁷²)으 단계화¹⁶⁷³)요,
 좌편으 벽도화¹⁶⁷⁴)라.
 청학 백학 웅위¹⁶⁷⁵)허고,
 공작은 춤을 추며,
 앵무로 전어¹⁶⁷⁶)하야
 천상 선녀 앞을 서고,
 용궁 선녀 뒤를 따라 엄숙히 오는 거동 보든 바 처음이라.
 심청을 반겨 보시고,
 와락 뛰어 달려들어 심청을 부여안고,

On the monument are the following sentences:
 'Sim Cheong felt sorry that her father was blind.
 She killed herself and went to the dragon palace to realize her
 filial piety.
 Fog spreads far over the deep blue water.
 Grass is green every year, but her grief never ends.'
 The sentences are clearly inscribed.
 A passerby never reads the epitaph without tears.
 Meanwhile, Miss Sim stays in the sea palace.
 One day the moon goddess comes down to the earth.
 Sim Cheong's mother, Mrs. Gwak, became the moon goddess
 after she died.
 She is coming down to meet her daughter in the sea palace.

41. (The Mother and the Daughter Meet.) Sim Cheong meets her mother in the dragon palace.

[Jungmori] Colorful clouds appear in the blue sky.
 Clear divine music trembles the dragon palace.
 The tree of the moon is on the right.
 The divine peach blossom is on the left.
 A blue cane and a red cane escort the moon goddess.
 A peacock dances.
 A parrot says something.
 The goddess from heaven leads the way.
 She is solemnly followed by the maids of the dragon palace.
 She gladly sees Sim Cheong.
 She runs to Sim Cheong and hugs her.

“악아, 청아! 내가 나를 모르리라.
 내가 너의 어미로다.
 나도 본시 선녀로서
 적하인간¹⁶⁷⁷ 수십 년으
 너를 낳고 죽은 후으,
 광한전 후토부인¹⁶⁷⁸으로 상제¹⁶⁷⁹의 명을 모아¹⁶⁸⁰ 오늘까지 지내더니,
 내 딸 지극한 효성,
 부친의 눈 뜨시기 위하여 이 수궁으 왔다기로
 모녀상봉허겠더니,¹⁶⁸¹
 오늘 예서¹⁶⁸² 보겠구나.”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는 세상으서 쓰지 못할 저를 낳고
 그 길로 상사¹⁶⁸³ 나서,¹⁶⁸⁴
 근근한¹⁶⁸⁵ 소녀 몸이 부친 덕으 아니 죽고 이만큼 자랐이나,¹⁶⁸⁶
 모친도 못 뵈은 것이 철천지한¹⁶⁸⁷이웁더니,
 오늘 예서 모시오니 저는 한이 없사오나,
 외로우신 아버님은
 어느 뉘가 위로허며,
 뉘를 보고 반기시고,
 뉘게¹⁶⁸⁸ 의지허오리까?”
[중모레] 옥진부인이 이 말 듣고, “기특허구나, 내 딸이야.
 이슬같은 네 목숨이
 동냥젓 얻어먹고 이만큼 자랄 적으,
 앞 못 보신 너의 부친 고생 오직 허셨으랴.
 세상으서 못 먹은 젓 오늘 많이 먹고 가거라.”
 “어머님이 가신 길은 머나먼 황천이요,
 소녀가 죽어 온 곳은 깊고 깊은 수궁이오라,

“Hello Sweetheart. You must not know me.
I am your mother.
I was originally a goddess.
I was relegated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for decades.
I died right after I gave birth to you.
I have been serving as the moon goddess under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You are a good daughter.
I heard you are here at the sea palace to open your father’s eyes.
I am here to see you.
I met you here today.”
“Oh, mother! You gave birth to me, a humble person.
You soon died.
I, a humble person, managed to grow up thanks to my father.
It was my longstanding unfulfilled wish to see you.
Since I met you here today, I desire nothing more,
but what about my father?
Who will console him?
Whom will he gladly see?
Who can he depend on?”

[Jungmori] The goddess responds, “What a great daughter!
Your life was as feeble as dew.
You grew up, begging around for milk.
How painful it must have been for your blind father to raise you!
Help yourself today with the milk you didn’t drink in the world
of human beings.”
“Mother, you died and went to the world of the dead.
I died and came to the deep sea palace.

황천 수궁이 달랠삽기¹⁶⁸⁹⁾
 모친도 못 뵈 줄로 주야장천¹⁶⁹⁰⁾ 한이웁더니,
 어머님의 덕택으로 예 와서 모셨으니,
 부친 이별은 허였사오나
 모친 따라가겠나이다.”¹⁶⁹¹⁾
 “애정은 그러허나,
 내 딸 지극 효성 명천¹⁶⁹²⁾이 감동허사
 환송인간¹⁶⁹³⁾ 할 것이니,
 세상으를 나가거든, 너희 부친 뵈옵는 날 날¹⁶⁹⁴⁾ 본 말을 헛 연후으,
 전생의 미진한¹⁶⁹⁵⁾을 후생으나 만나자고 세세히 아뢰어라.
 유명¹⁶⁹⁶⁾이 다른 고로 사세¹⁶⁹⁷⁾가 부득이라¹⁶⁹⁸⁾
 나는 올라간다마는,
 내 딸 너도 부디 잘 가거라.”
 눈물지며 이별할 적,
 문득 채운¹⁶⁹⁹⁾이 두르더니 공중으로 행허신다.¹⁷⁰⁰⁾

42. (심청 환생) 심청이 환생하여 꽃봉을 타고 인당수로 나오 니, 마침 돌아가던 선인들이 심청을 위해 제를 지낸다.

[아니리] 심청이 기가 맥혀 그 자리에 엎드러지더니,
 “아이고, 어머니! 무슨 험한 팔자로서 부모복도 이리 없는거나?”¹⁷⁰¹⁾
 이렇듯이 탄식허니 시녀등이 위로할 제,
 그 때여 심청이 수정궁에 머무른 지 어언간¹⁷⁰²⁾ 삼 년이라.

The world of the dead and the sea palace are different.
I grieved day and night, thinking that I couldn't meet you.
I met you here thanks to you.
I was separated from my father,
but let me follow you."
"I know what you mean.
Your filial piety moved heaven.
You will be sent back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If you go back there, please tell your father that you met me.
Tell him also that I wish to continue our love in heaven.
Since we live in different worlds, things are inevitable.
I must go up.
My daughter, take care."
They say goodbye in tears.
Colorful clouds surround her, and she moves up into the sky.

42. (Sim Cheong's Reincarnation) Sim Cheong is reincarnated and shows up on Indang Water in a flower. The sailors passing by perform a rite in memory of Sim Cheong.

[Aniri] Sim Cheong is stunned and falls down.
"Oh, mother! What a bad fate I have to receive little love from my parents!"
She sighs, and maids console her.
Now, Sim Cheong has already spent three years in the sea palace.

하루는 옥황상제께옵서 남해용왕을 불러 하교¹⁷⁰³)하시되,
 “심청의 방년¹⁷⁰⁴)이 가까오니
 인당수로 환송하여
 어진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남해용왕 명을 받고
 심청을 치송¹⁷⁰⁵)할 제,
 연봉옥분¹⁷⁰⁶)에 고이¹⁷⁰⁷) 모시고
 두 선녀로 시위¹⁷⁰⁸)하여, 조석 공대¹⁷⁰⁹)
 찬수등물¹⁷¹⁰) 금주보배¹⁷¹¹)를 많이 넣고 인당수로 나오는데,
[진양조] 꿈같이 번뜻 떴다.
 천신의 조화¹⁷¹²)이며,
 용왕의 신덕¹⁷¹³)이라.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요동¹⁷¹⁴)허랴?
 오색 채운이 꽃봉이에 어리어서¹⁷¹⁵)
 주야로 등등 떠 있을 적,
 남경 장사 선인들은 억십만금 퇴¹⁷¹⁶)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올 적,
 인당수 당도하여 용왕전¹⁷¹⁷) 제지내고,
 다시 제물을 정히 채려
 심낭자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제지낸다.
 “심낭자여, 심낭자여.
 출천대효¹⁷¹⁸) 심낭자여.
 우리 남경 선인들은 낭자로 인연하여 장사에 퇴를 내어
 고국으로 가거니와,
 낭자의 방혼¹⁷¹⁹)이야 어느 때나 오시랴오?
 한 잔 술로 위로하옵나니
 많이 흠향¹⁷²⁰)하옵소서.”

One day, the King of Heaven issu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in the south sea.

“Sim Cheong is now old enough to get married.

Send her back to Indang Water.

Don’t let her miss the right time!”

The dragon king takes the order.

He makes preparations for Sim Cheong to leave.

She is carefully helped into a lotus flower on a flowerpot.

She is served by two maids day and night.

She comes out of Indang Water with a lot of food and jewels.

[Jinyangjo] The lotus flower swiftly springs up.

This is the work of god.

This is a miracle by the dragon king.

The flower does not move despite a wind or rain.

Colorful clouds surround it.

It stays on the surface day and night.

Meanwhile, the sailors go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profit.

They arrive at Indang Water and hold a ritual for the dragon
king.

They conscientiously prepare sacrificial offerings.

They invoke Sim Cheong’s soul, and console it with a sad voice.

“Miss Sim. Miss Sim.

You were a good daughter from heaven.

We, sailors, made a lot of profit in business thanks to you.

We are going back home to our country.

When is your beautiful soul going back?

We consol you with this wine.

Please help yourself.”

[아니리] 사공도 울고,
영좌¹⁷²¹)도 울고,
적군¹⁷²²) 화장¹⁷²³)이 모도 울며
제물을 물에 풀 적,

43. (사공이 꽃을 싣고 귀향) 사공이 물 위에 떠 있는 꽃을 발견하여 배에 싣고 돌아온다.

[중중모리] 한 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물 우에 등실 떠 있거늘,
“저 꽃이 웬 꽃이냐?”
“금장취병화중부귀¹⁷²⁴) 모란환가 허나니다.”
영좌 듣고 허는 말이, “아니, 그 꽃이 아니로다.
죽림수면¹⁷²⁵)이 아니거든
무슨 모란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저 꽃이 웬 꽃이오?”
창파해상¹⁷²⁶)으 등실 떴으니 해당환 듯허웁니다.”
“아니, 그 꽃도 아니로다.
명사십리¹⁷²⁷)가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있겠는가?
옛 일을 생각허니,
왕소군¹⁷²⁸)이 고국 생각 죽어서 청초¹⁷²⁹) 되고,
우미인¹⁷³⁰) 만고유한¹⁷³¹) 죽어 풀이 되었으니,
심낭자의 출천효행¹⁷³²) 죽어 꽃이 됐나보다.”
도사공 허는 말이, “그 말이 장히¹⁷³³) 좋다.

[Aniri] Rowers weep.
The leader sobs.
A seaman, the cook, and everybody else whimper.
They throw sacrificial offerings on the water.

43. (The Sailors Come Back Home with a lotus flower.)
The sailors spot a lotus flower on the sea and go
back home with the flower.

[Jungjungmori] They look at a certain place.
Out of the blue, a flower floats on the sea.
“What flower is that?”
“It must be a peony blossom representing nobility and wealth.”
The leader replies, “No, it is not a peony blossom.
This is not the water under Buddha’s school.
How can that be a peony blossom?”
“Then, what flower is it?”
It must be a sweetbrier, for it is on the blue sea.”
“No, it is not a sweetbrier either.
This is not the long white sand beach.
How can that be a sweetbrier?
There are old stories.
A court lady died and became green grass, missing her country.
Another court lady died and became grass, longing for her king.
Miss Sim, a good daughter, must have become that flower after
dying.”
The leader responds, “That is right.

충신화¹⁷³⁴) 군자화¹⁷³⁵)

은일화¹⁷³⁶) 한사화.¹⁷³⁷⁾

사람의 행습¹⁷³⁸) 보아 꽃 이름을 지었나니,

저 꽃은 정녕코 심낭자 녀이니,

효녀화가 분명쿠나.”

그 말이 옳다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세상의 없는 꽃이라.

건져 놓고 살펴보니,

향취¹⁷³⁹)가 진동하며,

크기가 수레 같다.

고이¹⁷⁴⁰) 실코¹⁷⁴¹) 돌아올 제,

순풍¹⁷⁴²)이 절로¹⁷⁴³) 일어,

사오 삭¹⁷⁴⁴)에 다니는 길을

삼사 일에 득달¹⁷⁴⁵)하니,

이 또한 신명¹⁷⁴⁶)의 조환지라.¹⁷⁴⁷⁾

**44.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여기저기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
친다.**

[아니리] 고국에 돌아와

수다히¹⁷⁴⁸) 남은 재물 다 각기 짓대를¹⁷⁴⁹) 나눌 적에,

도선주¹⁷⁵⁰)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제 집 후원 정한¹⁷⁵¹) 곳에 단¹⁷⁵²)을 못고¹⁷⁵³)

a loyal subject flower, a virtuous man flower,
 a reclusive scholar flower, and a poor scholar flower.
 Some flowers are named after human behavior.
 That flower is surely Miss Sim's soul.
 So it must be a good daughter flower."
 The rest of the sailors agree and approach the flower.
 It is not a flower of this world.
 They pull it out and take a look.
 It gives off a pleasant smell.
 It is as large as a coach.
 They carry it carefully back home.
 A favorable wind pushes them from behind.
 It normally takes several months to their home,
 but this time it took only a few days.
 God must be behind this miracle.

**44. (Flower Song) The emperor, loving flowers, plants
 flowers here and there and enjoys watching them.
 The owner of the boat offer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Aniri] The sailors are back home.
 They divide their profit in accordance with their duty titles.
 Somehow, the owner of the boat declines all property.
 He only takes the flower.
 He makes an altar in a clean place of his backyard.

두었으나,
 오색 채운이 항상 꽃봉이에 어렸것다.
 이 때는 어느 땀고 허니
 임오년 삼월이라.
 그때 송 천자께옵서 황후 봉¹⁷⁵⁴허신 후 간택¹⁷⁵⁵을 아니하시고,
 각색 화초를 구하시어
 상림원¹⁷⁵⁶을 다 채우고,
 황극전¹⁷⁵⁷ 뜰 앞으로 여기 저기 심어두고
 주야로 구경허실 적으,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부용으군자용¹⁷⁵⁸
 만당추수홍련화. ¹⁷⁵⁹
 암향부동월황혼¹⁷⁶⁰의 소식 전튼¹⁷⁶¹ 한매화. ¹⁷⁶²
 진시유랑거후재¹⁷⁶³라 붉어 있는 홍도화. ¹⁷⁶⁴
 월중천향단계자¹⁷⁶⁵ 향문십리¹⁷⁶⁶의 계화꽃. ¹⁷⁶⁷
 요염섬섬옥지갑¹⁷⁶⁸의 금분야도¹⁷⁶⁹ 봉선화.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신 국화꽃. ¹⁷⁷⁰
 공자왕손방수하¹⁷⁷¹의 부귀할손¹⁷⁷² 모란화.
 이화만지불개문¹⁷⁷³의 장신궁중¹⁷⁷⁴의 배꽃이요,
 칠십 제자¹⁷⁷⁵ 강론¹⁷⁷⁶허니 향단춘풍¹⁷⁷⁷의 살구꽃.
 천태산¹⁷⁷⁸ 들어가니 양변개작약¹⁷⁷⁹이며,
 축국한¹⁷⁸⁰을 못 이기어 제혈¹⁷⁸¹허던 두견화. ¹⁷⁸²
 원정부지이별¹⁷⁸³허니 옥창옥련의 앵도화. ¹⁷⁸⁴
 요화¹⁷⁸⁵ 노화¹⁷⁸⁶ 계관화¹⁷⁸⁷
 이화¹⁷⁸⁸ 계화¹⁷⁸⁹ 서경화¹⁷⁹⁰
 홍국¹⁷⁹¹ 백국¹⁷⁹² 시월 국화¹⁷⁹³

He puts the flower on it.
 Colorful and glowing clouds always hang on the top of it.
 What month is it now?
 It is March.
 Meanwhile, the emperor remains unmarried after the queen died.
 He collects all sorts of flowers.
 He fills the imperial garden with flowers.
 He plants flowers on the garden in front of his office.
 He enjoys watching them day and night.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n autumn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ll the peach blossoms were planted by an ancient poet.
 Red cinnamon blossoms give off fragrance to a distance place.
 A touch-me-not looks like a pretty face with golden powder.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A peony blossom means wealth and nobility.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Apricot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seventy students.
 There were peony blossoms on both sides of a road on a mountain.
 An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from a window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Water-pepper flower, reed flower, cockscomb,
 plum flower, vegetable flower, Chinese rose,
 red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chrysanthemum,

교화¹⁷⁹⁴) 난화¹⁷⁹⁵) 동백
 해당화 장미화 목련화
 설토화¹⁷⁹⁶) 수선화 능소화¹⁷⁹⁷)
 백일홍 동매¹⁷⁹⁸) 춘매¹⁷⁹⁹)
 영산홍 자산홍¹⁸⁰⁰) 왜철쭉 진달화¹⁸⁰¹)
 난초 지초¹⁸⁰²) 파초¹⁸⁰³)
 유자 석류 비파¹⁸⁰⁴) 향매¹⁸⁰⁵)
 은행 자도¹⁸⁰⁶) 오미자
 치자¹⁸⁰⁷) 감자¹⁸⁰⁸) 대초¹⁸⁰⁹)
 머루 다래 여름넉출¹⁸¹⁰)
 원갓 화초 갓인¹⁸¹¹) 과목¹⁸¹²) 층층이 심었넌디,
 향풍¹⁸¹³)이 건뎃¹⁸¹⁴) 불면,
 벌, 나비, 새짐생들¹⁸¹⁵)이 춤을 추며 넘논다.¹⁸¹⁶)
[아니레 천자님 홍¹⁸¹⁷)을 붙여 날마다 보시더니,
 그 때으 남경 갔던 도선주¹⁸¹⁸) 율내¹⁸¹⁹)의 소식 듣고,
 인당수에 얻은 꽃을 옥분¹⁸²⁰)채 잘 모시고
 대궐 밖에 당도허여
 제 뜻을 주달¹⁸²¹)허니,
 황제 반기시사,¹⁸²²)
 “선인으로 정성이 기특헌 일이로다.”
 특히 상을 내리신 후
 꽃을 덜여다¹⁸²³) 황극전에 놓고 보시니,
 크기가 거륜¹⁸²⁴) 같고,
 꽃빛이 찬란하며,
 향취¹⁸²⁵)가 특이하여 세상 꽃이 아닌지라.
 월중단계화¹⁸²⁶)도 아니요,

buckwheat flower, iris flower, camellia flower,
wild rose, rose, magnolia blossom,
guelder rose, daffodil, trumpet creeper,
winter apricot blossom, spring apricot blossom,
royal azalea blossom, azalea blossom,
orchid, gromwell, plantain,
citron, pomegranate, loquat, fragrant apricot,
gingko tree, plum, Maximowiczia chinensis,
gardenia, jujube tree,
wild grape tree, Actinidia arguta tree, and clematis vine.
All sorts of flowers and fruit trees are densely planted.
When a gentle breeze blows,
bees, butterflies, and birds dance up and down.

[Aniri] The emperor enjoys watching flowers everyday.
Meanwhile, the owner of the boat hears the news from the palace.
He carefully carries the flower and the flowerpot from Indang Water.
He arrives at the front of the palace.
He conveys his wish to the emperor.
The emperor is delighted.
“Sailor, how praiseworthy you are!”
He gives him a prize.
The emperor takes the flower to his office.
Its size is that of a large wheel.
Its color is splendid.
Its fragrance is so unique that it is not a flower of this world.
It is not a cinnamon blossom from the moon.

요지연¹⁸²⁷의 벽도화¹⁸²⁸를 동방삭¹⁸²⁹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다
 못 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서천서역¹⁸³⁰에서 해상으로 떠 왔는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¹⁸³¹라 지으시고,
 화계¹⁸³²에다 옮겨노니,
 붉은 안개 어려 있고
 서기¹⁸³³가 영룡¹⁸³⁴이라.

45. (황제 심청 발견) 천자가 꽃 속에서 심청을 발견하고 제신들과 의논하니 가례를 행할 것을 권한다.

[진양조] 일일은 황제께서 심신이 산란¹⁸³⁵허시고,
 잠을 이룰 길이 없어 화계으 배회터니,
 명월은 만정¹⁸³⁶허고,
 미풍¹⁸³⁷이 부동¹⁸³⁸헌디,
 강선화 꽃봉이가 완연히¹⁸³⁹ 요동¹⁸⁴⁰허며,
 사람소리가 두런두런.
 천자님이 고이¹⁸⁴¹ 여겨 동정¹⁸⁴²을 살펴보시니,
 뚜렷한 선인옥녀¹⁸⁴³ 꽃봉¹⁸⁴⁴을 반만 열고
 얼굴을 들어 엿보다가,
 인적 있음을 짐작허고,
 경각으¹⁸⁴⁵ 몸을 움쳐¹⁸⁴⁶ 꽃봉을 단디니마는,
 다시는 동정이 없는지라.

Three thousand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n ancient man
picked up a divine peach blossom from a pond.
So the flower must not be a divine peach blossom.
Did it co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emperor names it God Descending Flower.
He puts the flower in a flower bed.
A reddish fog surrounds it.
Favorable energy is emitted brilliantly.

**45. (The Emperor Discovers Sim Cheong.) The emperor
spots Sim Cheong in the flower. He discusses the
matter with his subjects. They recommend that he
marry her.**

[Jinyangjo] One day, the emperor feels uneasy.
He can't sleep at all, so he roams the garden.
The moon is bright.
A breeze blows gently.
God Descending Flower clearly shakes.
A human sound comes out of it.
Thinking it mysterious, the emperor takes a close look at it.
A maid clearly opens the flower a little bit.
She pulls up her face and looks around.
She learns that there is somebody around.
Surprised, she pulls herself down and closes the flower.
The flower does not move from then on.

[아니리] 황제 보시고 심신이 황홀하여 무한히 주저하시다,
 가까이 들어가서 꽃봉을 열고 보시니
 일위¹⁸⁴⁷⁾ 소저¹⁸⁴⁸⁾와 양개¹⁸⁴⁹⁾ 시녀라.
 “너희가 귀신이다,¹⁸⁵⁰⁾ 사람이다?”¹⁸⁵¹⁾
 시녀등이 내려와 복지¹⁸⁵²⁾하여 여짜오되,
[중모리] “남해 용궁 시비로서,
 낭자를 모시옵고 해상으 나왔다가
 황극전에 범¹⁸⁵³⁾했사오니
 극히 황송하여이다.”¹⁸⁵⁴⁾
 천자님 내님¹⁸⁵⁵⁾으 ‘옥황상제께서 좋은 인연을 보내심이라.’
 시녀등을 명하사,¹⁸⁵⁶⁾
 “내궐¹⁸⁵⁷⁾에 옮겨 두고
 모든 궁녀로 시위¹⁸⁵⁸⁾허되,
 만일 꽃봉을 열고 보면 죽기를 면치 못허리라.”
 날이 밝아 다시 보시니,
 낭자 부끄러¹⁸⁵⁹⁾ 아미¹⁸⁶⁰⁾를 숙이고 앉았거늘,
 보고 다시 살펴보시니,
 만고의¹⁸⁶¹⁾ 처음 보는 짝이 없는 인물¹⁸⁶²⁾이라.
 황제 더욱 기뻐하사,¹⁸⁶³⁾
 조회¹⁸⁶⁴⁾를 께¹⁸⁶⁵⁾허신 후 제신¹⁸⁶⁶⁾으게 의논헌즉,
 제신이 복지주왈,¹⁸⁶⁷⁾
 “국모¹⁸⁶⁸⁾ 없으심을 상제께서 알으시고 좋은 인연을 보냈사오니,
 종사¹⁸⁶⁹⁾의 주부¹⁸⁷⁰⁾시요, 조정의 모후¹⁸⁷¹⁾시라,
 응천순민¹⁸⁷²⁾허옵시와
 가례¹⁸⁷³⁾를 행케 허옵소서.”
[아니리] 황제 율게 여기시사¹⁸⁷⁴⁾

[Aniri] The emperor is enraptured and hesitant to move.
He approaches and opens the flower.
A young lady and two maids are inside.
“Are you ghosts or human beings?”
The maids come out, kneel down, and speak.

[Jungmori] “We are maids for the dragon king in the south sea.
We attended Miss Sim out of the sea.
We ended up in this palace.
We are very sorry.”
The emperor thinks the King of Heaven sent him his future wife.
He gives an order to the maids.
“Take the flower to a deep place in this palace.
Have all the court ladies protect it.
Anybody opening the flower will be severely punished.”
The day breaks, and the emperor glimpses inside again.
A shy girl is seated with her face down.
He takes a close look at her.
He has never seen such a beautiful girl in the world.
The emperor is all the more delighted.
He discusses the matter with his subjects after a meeting.
All the subjects say in a respectful manner.
“The King of Heaven sent her to you because we don’t have
an empress.
She is to be your wife and the mother of this country.
Please accept the wish of the people.
Please have a wedding ceremony with her.”

[Aniri] The emperor thinks that is right.

태사관¹⁸⁷⁵)으게 택일하니,
오월오일 갑자일이 음양무적¹⁸⁷⁶)이라 허였것다.
길일¹⁸⁷⁷)이 당도커늘,

46. (심청 황후 책봉) 심청은 황제와 화려한 혼인 의식을 치르고 황후가 된다.

[자진모리] 궐내에서 행례¹⁸⁷⁸)할 적,
조정의 만조백관¹⁸⁷⁹)은 황제를 시위¹⁸⁸⁰)하고,
육궁¹⁸⁸¹)의 비빈¹⁸⁸²)들은 선녀를 옹위하여,
용봉관¹⁸⁸³) 수단의상¹⁸⁸⁴) 찬란 황홀허거니와,
좌우에 파초선¹⁸⁸⁵)이며,
양산¹⁸⁸⁶) 일산¹⁸⁸⁷)
청·홍·흑개¹⁸⁸⁸)
기 번¹⁸⁸⁹) 보¹⁸⁹⁰) 독¹⁸⁹¹)으
봉미선,¹⁸⁹²) 용기¹⁸⁹³) 봉기¹⁸⁹⁴)
호미창¹⁸⁹⁵) 자개창¹⁸⁹⁶) 삼지창¹⁸⁹⁷)
언월도¹⁸⁹⁸) 향오¹⁸⁹⁹)를 벌였고,
황금갑주¹⁹⁰⁰) 운검¹⁹⁰¹)에다가 수륙제군¹⁹⁰²)에 도독¹⁹⁰³)이며,
찬옥사¹⁹⁰⁴) 남명관¹⁹⁰⁵)은 포신¹⁹⁰⁶) 아장¹⁹⁰⁷) 벌였는디,
일대¹⁹⁰⁸) 이대¹⁹⁰⁹) 전후대장¹⁹¹⁰)
갓인¹⁹¹¹) 융복¹⁹¹²) 섭수¹⁹¹³)에다가 대대충충¹⁹¹⁴) 늘어서서,
엄신갑¹⁹¹⁵) 앵무전포¹⁹¹⁶) 일광¹⁹¹⁷)을 희롱하고,
청일산¹⁹¹⁸) 순시영기¹⁹¹⁹) 위풍¹⁹²⁰)이 늠름하고,
위의¹⁹²¹)가 충천¹⁹²²)헌디,

He has his subjects choose a lucky date.
They pick a good date for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The favorable date approaches.

**46. (Sim Cheong Becomes an Empress) Sim Cheong
becomes an empress after a magnificent wedding
ceremony.**

[Jajinmori] The wedding ceremony is held in the palace.
All the high officials escort the emperor.
Court maids serve the goddess, Sim Cheong.
Her hats and clothes are gorgeous and splendid.
On the left and right are two big leaf fans.
A high parasol, a golden parasol,
a blue parasol, a red parasol, and a black parasol,
a wide banner, an axe-shaped banner, a commanding banner,
a phoenix tail-shaped banner, a large banner, a phoenix-
embroidered banner,
a tiger tail-shaped spear, a red-handled spear, a three-pronged
spear,
and a large sword are displayed in rows.
Generals of the army and the navy wear golden armors and
helmets, and hold ritual swords.
Officers display signs and mantles.
Commanders lead two units.
Soldiers wearing all sort of formal dresses stand in layers.
Chest armor and yellow attire are shiny in the sunshine.
Their parasols and banners are majestic and stately.
Their majesty rises to the sky.

정양문¹⁹²³) 바라보고 국궁¹⁹²⁴)하온 예를 차려,
 구름채일¹⁹²⁵) 높이 치고,
 화문석¹⁹²⁶) 모란석¹⁹²⁷)이며 화조¹⁹²⁸) 문채¹⁹²⁹) 벌였는데,
 금병¹⁹³⁰)의 녹주화¹⁹³¹)는 피는 듯이 마주 놓고,
 오도자¹⁹³²) 채화금병¹⁹³³) 쌍쌍이 벌였네.
 지평관¹⁹³⁴)은 한림¹⁹³⁵)이요, 대사헌¹⁹³⁶) 어영대장¹⁹³⁷) 좌우 빈객¹⁹³⁸)
 거느렸다.
 예부상서 함¹⁹³⁹)을 지고 봉채¹⁹⁴⁰) 납채¹⁹⁴¹)헌 연후,
 금덩¹⁹⁴²)에다 선녀 모셔 내전¹⁹⁴³)으로 드옵실 제,
 어전풍악¹⁹⁴⁴) 요란헌디,
 주상궁¹⁹⁴⁵) 표모상궁¹⁹⁴⁶) 제비상궁¹⁹⁴⁷) 옹위¹⁹⁴⁸)하고, 삼천 궁녀 모
 션네.
 가례를 행하신 후 황후를 책봉¹⁹⁴⁹)하시니,
 만조백관 자사¹⁹⁵⁰) 태수¹⁹⁵¹)는 산호만제¹⁹⁵²)를 부르고,
 역조창생¹⁹⁵³)들은 화봉삼축¹⁹⁵⁴)을 허는구나.

47. (추월만정) 심황후가 부친을 그리워하며 수심에 잠긴다.

[아니래] 심황후 덕이 많으시사,
 당년¹⁹⁵⁵)부터 연풍¹⁹⁵⁶)허여
 요순천지¹⁹⁵⁷)가 다시 되었것다.
 황후 부귀영화 극진허나,
 심중에¹⁹⁵⁸) 숨은 근심 다만 부친 생각이라.
 일일은 수심¹⁹⁵⁹)을 못 이기어,

They face the south gate, and salute the emperor.
 A canvas is unfolded high to block the sunshine.
 Figures of flowers and birds are brilliantly embroidered on
 carpets.
 Bamboo blossoms face each other in a golden vase.
 Vases having beautiful pictures are exhibited in pairs.
 High officials are together with noble guests on the left and
 right.
 A formal letter of marriage is delivered to the bride.
 The goddess is carried on a carriage to an empress's residence.
 The palace rocks with music.
 The bride is escorted by three thousands court ladies.
 After a formality, the emperor gives the title of empress to her.
 High and low officials give cheers to the couple.
 The common people pray for their happiness.

**47. (The Garden with the Bright Fall Moon) Empress
 Sim longs for her father and is absorbed in
 thoughts about him.**

[Aniri] Empress Sim is virtuous.
 Years of abundance continue.
 The country becomes a paradise.
 The empress lives the life of wealth, nobility, fame, and
 prosperity.
 Deep in her mind, however, she worries about her father.
 One day, apprehension overtakes her.

시종¹⁹⁶⁰)을 물리시고¹⁹⁶¹)
 옥난간¹⁹⁶²)으 빗기어¹⁹⁶³) 계실 적으,
[진양조] 추월¹⁹⁶⁴)은 만정¹⁹⁶⁵)허여
 산호 주렴으¹⁹⁶⁶) 비치어 들고,
 실술¹⁹⁶⁷)은 슬피 울어 나유원에¹⁹⁶⁸) 흘러들 적,
 청천¹⁹⁶⁹)의 외기러기는 월하으¹⁹⁷⁰)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 깎룩’ 울음을 울고 오니,
 심황후 기가 맥혀 기러기 불리 말을 한다.
 “울고 오는 저 기력아!
 너 무삼¹⁹⁷¹) 설음 있어
 저리 슬피 울고 오느냐?
 짝을 잃고 너 우느냐?
 도화동 우리 부친 슬픈 소식 전하자고 나를 불리 너 우느냐?
 이 몸은 불효막심¹⁹⁷²)이라 일장¹⁹⁷³) 음신¹⁹⁷⁴) 못 올리나,
 부처님의 영검¹⁹⁷⁵)으로 감은 눈을 뜨셨으며,
 도화동 백성들이 옛 언약¹⁹⁷⁶)을 아니 잊고 시랑¹⁹⁷⁷)이나 이우더냐?¹⁹⁷⁸)
 눈 못 뜨고, 배가 고파 문전걸식¹⁹⁷⁹) 눈치를 받고,
 나를 부르고 다니면서 아사지경¹⁹⁸⁰)이 되셨드냐?
 고생이 그러셔도
 살어나 계시오면 천행만행¹⁹⁸¹) 되련마는,
 만일 불행 병환 들어 적막공방¹⁹⁸²) 누워 계시면,
 약 한 첩, 물 한 모금을 어느 뉘가 줄 것이며,
 혼자 기진¹⁹⁸³) 굶기신들¹⁹⁸⁴)
 뉘가¹⁹⁸⁵) 염습¹⁹⁸⁶) 안장¹⁹⁸⁷)헐까?”
 이렇듯이 울음을 울다 창공¹⁹⁸⁸)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She has her maids leave,
 and stands obliquely on the terrace.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al blinds.
 Sad cricket chirps hit a thin silky curtain.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as it comes.
 Empress Sim is dumfounded and speaks to the wild goose.
 "Hey, wild goose, coming over there!
 What sorrow do you have?
 Why are you crying so sadly?
 Did you lose your spouse?
 Are you crying because you have sad news about my father?
 I am a bad daughter, so I can't send a letter to him.
 I wonder if he opened his eyes thanks to Buddha.
 Do the villagers give him wood and food for without forgetting
 the promise?
 I am afraid that he might still beg around, blind and hungry.
 Is he calling me around, starving to death?
 His life might be painful,
 but it would be fortunate only if he is alive.
 He might be sick and lie down alone in his empty room.
 Who will give him medicine and water?
 He might die alone, exhausted.
 Who will wash his body and bury him?"
 While crying, Empress Sim looks up to the blue sky.
 The wild goose is gone.

별과 달만 밝았구나.

심황후 기가 맥혀,

“야, 이 무심한 저 기력아!

내외¹⁹⁸⁹⁾ 헌 말 들었거든, 불쌍허신 부친전으¹⁹⁹⁰⁾ 세세히¹⁹⁹¹⁾ 아뢰어
다오.”

[중모레] 찾아가서 뵈자헌들,

구중궁궐¹⁹⁹²⁾ 깊은 곳에 지척¹⁹⁹³⁾을 알 수 없고,

황제께 주달¹⁹⁹⁴⁾허여 칙사¹⁹⁹⁵⁾ 보내 모셔오면 그 수¹⁹⁹⁶⁾가 좋을 테나,

생사도 알 수 없고,

만일 발설¹⁹⁹⁷⁾허였다가 종적¹⁹⁹⁸⁾도 못 찾으면,

선녀로 아는 터에 치졸¹⁹⁹⁹⁾허게만 될 것이니,

부친을 뵈은 후으 발설함이 옳다허고,

이리 걱정, 저리 생각 수심으로 앓았을 적,

48. (심황후 맹인잔치 제안) 심황후는 천자께 맹인잔치를 열 것을 제안한다.

[아니리] 황제 내전²⁰⁰⁰⁾에 들시와²⁰⁰¹⁾

황후를 살펴보시니,

미간²⁰⁰²⁾에 수색²⁰⁰³⁾이요,

화용²⁰⁰⁴⁾으 눈물 흔적이라.

고이히²⁰⁰⁵⁾ 여겨 물으시되,

“귀위황후²⁰⁰⁶⁾허시고, 부유사해²⁰⁰⁷⁾허시며,

금슬지우²⁰⁰⁸⁾ 종고지락²⁰⁰⁹⁾이 있사온디,

황후는 무삼 일로 옥면²⁰¹⁰⁾ 수색이 있나이까.”

Only the bright moon and stars are there,
She is dumfounded.
“Hey, you cruel wild goose!
If you heard what I said, speak to my poor father in detail.”

[Jungmori] The empress wants to visit her father,
but she doesn't know where she is in the deep place of the
palace.
It might be good to ask the emperor to send a messenger to
her father,
but she does not even know if he is alive.
If she announces the truth and he is not found,
she will be embarrassed to people who believe she is a goddess.
She decides to reveal the truth after she finds him.
She is immersed in worries and thoughts.

48. (The Empress Asks for a Banquet for the Blind.) **The empress asks the emperor to hold a banquet** **for the blind.**

[Aniri] The emperor enters the empress's residence.
He sees the empress.
Anxiety is between the two eyebrows.
There is a trace of tear on her beautiful face.
He takes that strange and asks.
“You live the life of wealth and nobility.
We enjoy the harmonious relationship.
What created the anxiety on your beautiful face?”

황후 나직이²⁰¹¹⁾ 여짜오되,
 “폐하를 모시올 때 수색이 나타나서 황송무지²⁰¹²⁾허옵거니와,
 [중모레] “주나라 때 태임²⁰¹³⁾ 태사²⁰¹⁴⁾ 이남덕화²⁰¹⁵⁾ 장허시고,²⁰¹⁶⁾
 우리나라 선대²⁰¹⁷⁾ 황후 여중요순²⁰¹⁸⁾ 송덕²⁰¹⁹⁾이오나,
 신첩²⁰²⁰⁾은 무슨 덕으로 만민국모²⁰²¹⁾ 되었는지,
 부끄러운 주야 근심 천려일득²⁰²²⁾허였사오나,
 아뢰옵기 황송하와 섭유불발²⁰²³⁾허옵더니,
 하교²⁰²⁴⁾가 계시오니 감히 앙달²⁰²⁵⁾허옵나이다.
 주 문왕²⁰²⁶⁾은 첫 정사²⁰²⁷⁾가 노자²⁰²⁸⁾ 안무²⁰²⁹⁾허시웁고,
 한 무제²⁰³⁰⁾는 방춘화시²⁰³¹⁾ 가궁²⁰³²⁾헌 환과고독²⁰³³⁾ 사궁²⁰³⁴⁾을
 진홀²⁰³⁵⁾허셨으니,
 백성 중으 불쌍헌 게 나이 많은 병신이요,
 병신 중으 불쌍헌 게 앞 못 보는 맹인이라
 공부자²⁰³⁶⁾도 일렸으니,
 천하 맹인 다 모아서 주효²⁰³⁷⁾를 맥인 후으,
 그 중의 유식 맹인은 좌우에 모시어서 성경²⁰³⁸⁾을 읽게 허시고,
 늙고 병든 맹인이며, 자식도 없는 맹인들은 황성²⁰³⁹⁾에다 집을 주어,
 한 데 모도²⁰⁴⁰⁾ 모아 두고, 요²⁰⁴¹⁾를 주어 먹이오면,
 무고한²⁰⁴²⁾ 그 목숨이 전학지환²⁰⁴³⁾ 면혈 테요,
 덕화만방²⁰⁴⁴⁾ 미칠 테니
 깊이 통촉²⁰⁴⁵⁾을 허옵소서.”
 황제 듣고 기뻐허사,
 “장허도다,²⁰⁴⁶⁾ 국모²⁰⁴⁷⁾ 말씀.
 과인²⁰⁴⁸⁾이 생각 못헌 바를 황후가 도우시니
 만복²⁰⁴⁹⁾의 근원이라.
 소회²⁰⁵⁰⁾대로 허오리다.”

The empress answers in a soft voice.
 "I am sorry that anxiety showed up when I am with you."
[Jungmori] "In ancient China, there was virtuous empress.
 In our country, there were virtuous empresses too.
 I wonder what I am doing as an empress.
 Feeling ashamed day and night, I hit upon a good idea.
 I was hesitant to share the idea with you,
 but since you ask, let me tell you what it is.
 The first thing an ancient king did was to take care of the old.
 When a spring wind blows, another ancient king looked after
 orphans and poor old people of various sorts.
 The most miserable of the people are the old disabled.
 The most miserable of the disabled are the blind.
 So said Confucius.
 Please call together and feed all the blind people in this country.
 Let the learned blind read classic books for you on the left and
 right.
 Please build houses for the old sick childless blind around this
 palace.
 If we get them together and give them money and food,
 the innocent lives will avoid dying alone,
 and our virtuous act will move the world.
 Please feel sympathy to my idea."
 The emperor agrees with the empress.
 "Bravo! You are the great mother of this country.
 You came up with an idea I couldn't.
 A virtuous act is the root of all fortunes.
 I will do as you wish."

49. (맹인잔치를 베풀) 천자가 맹인잔치를 연다고 하자, 각 고을의 맹인들이 황성으로 올라간다.

[아니리] 이렇듯 황후를 칭찬하시고,
이튿날 즉시 하교허사,
“천하²⁰⁵¹)에 있는 맹인 궐내²⁰⁵²)에서 백일잔치²⁰⁵³)를 허되,
방방곡곡²⁰⁵⁴) 지시문에 국경연²⁰⁵⁵)으로 기송²⁰⁵⁶)하라.”
이렇듯 어명²⁰⁵⁷)이 나리시니,²⁰⁵⁸) 각 성으로 사자²⁰⁵⁹)를 보내는디,
[자진모리] 그 서문²⁰⁶⁰)에 허였으되,
‘국태민안²⁰⁶¹)
시화연풍,²⁰⁶²)
황후의 경연²⁰⁶³)이라.
무론남녀노소²⁰⁶⁴)허고, 맹인이어든²⁰⁶⁵) 거주 성명 직업 유무²⁰⁶⁶)식과
생년월일시 처자²⁰⁶⁷) 유무를 명백히 기록하여 차례로 호송²⁰⁶⁸)허되,
만일으 한 명이라도 지휘를 잘못하여 잔치 불참자 있으면,
그 골²⁰⁶⁹) 수령²⁰⁷⁰)은 죄를 면치 못허리라.’
각 성의 차사²⁰⁷¹)들은 각처²⁰⁷²) 각읍²⁰⁷³)에 통문²⁰⁷⁴)하야 성화같이
재촉이라.
각읍 수령이 황겁²⁰⁷⁵)하야, 상하 남녀노소 맹인을 황성으로 호송할 적,
병들어 못 간 맹인은 약을 멕여 조리²⁰⁷⁶)시켜,
노자²⁰⁷⁷) 주어서 보내기와,
그 중의 요부²⁰⁷⁸)헌 자 좌청우측²⁰⁷⁹) 빠지랴다가
영문²⁰⁸⁰)에 잡혀가서 볼기 맞고 올라가기.
무수한 맹인들이 일시에 황성을 가는구나.

**49. (The Banquet for the Blind) Hearing the news that
a banquet will be held for the blind, the blind go
to the capital city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iri] The emperor praises the empress.

On the next morning, he gives an order to his subjects.

“We will hold a banquet for 100 days in the palace for the blind.
Send this royal message to every part of this country.”

By the royal order, messengers are sent to provincial offices.

[Jajinmori] The emperor’s memo reads:

‘The country is peaceful.

The people are happy.

The empress is holding a banquet.

The blind are to be sent to the palace with notes of their
addresses, names, occupations, educations, dates of birth, and
family members.

If any blind person misses the banquet,
a relevant provincial governor will be punished.’

Governors’ offices send the memo to magistrates in towns and
urge them to hurry.

Magistrates of towns rush to send the blind to the capital city.

They provide the sick blind with medicine and cure them.

They are sent to the capital city with some travel money.

The rich blind hesitate to join the banquet.

They are arrested to provincial offices, whipped, and sent to the
capital city.

Numerous blind people go to the capital city at a time.

50. (심봉사 딸 생각) 한편, 심봉사는 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아니리] 각설,²⁰⁸¹⁾ 이 때 심봉사는 도화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주 지경²⁰⁸²⁾에서 지내다가
황성 잔치예를 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형주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든 것이었다.
[진양조] 그 때여 심봉사는 출천대효²⁰⁸³⁾ 딸만 잃고,
모진 목심²⁰⁸⁴⁾ 죽지도 못하고 근근부지²⁰⁸⁵⁾로 지낼 적으,
봄이 가고
녹음²⁰⁸⁶⁾이 되니 녹음방초²⁰⁸⁷⁾ 시절이로고나.
산천은 적적헌디²⁰⁸⁸⁾ 물소리만 처량허네.
딸과 같이 노던²⁰⁸⁹⁾ 처녀들은 종종²⁰⁹⁰⁾ 와서 인사를 허니,
딸 생각이 더욱 간절허구나.
심봉사 마음이 산란허여,
지팽막대²⁰⁹¹⁾를 검쳐잡고²⁰⁹²⁾ 망사대²⁰⁹³⁾를 찾아가서,
비석을 안고 울음 운다.
“악아! 청아! 인간의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죽엄²⁰⁹⁴⁾을 당허였구나.
아비를 생각커든 어서 나를 다려가거라.²⁰⁹⁵⁾
눈 뜨기도 나는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허다.”
타루비²⁰⁹⁶⁾ 앞에 가
꺼꾸러져서 치둥굴²⁰⁹⁷⁾ 내리둥굴,²⁰⁹⁸⁾
머리도 직끈,²⁰⁹⁹⁾ 가삼²¹⁰⁰⁾ 황황,
두 발을 굴러 망지소지²¹⁰¹⁾로 울음을 운다.

**50. (Mr. Sim Misses His Daughter.) Meanwhile, Mr.
Sim does not spend a day without tears after losing
his daughter.**

[Aniri] Meanwhile, Mr. Sim is not in Peach Blossom Village.
He lives in a new place.
He leaves for the banquet in the palace.
Here is the story of how he came to live in the new place.

[Jinyangjo] Mr. Sim lost his daughter, a good girl from heaven,
but he managed to get along without ending his cruel life.
The spring is over.
It is now summer with green grass and trees.
Mountains are quiet, and streams make sad sounds.
His daughter's old friends often visit and say hello to him.
He misses her all the more.
Mr. Sim feels uneasy.
Using a cane, he visits the tower built in memory of Sim
Cheong.
He hugs the monument and weeps.
"Alas, Cheong! You died unfairly because you had bad parents.
If you think about me, please take me ther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I don't want to live any longer."
Mr. Sim walks to a monument of tears.
He falls over and tumbles up and down.
He hits his head and chest with his fists.
He stamps his legs in grief and cries.

51. (뽕덕이네) 뽕덕이네는 얼굴이 아주 못 생겼는데, 심봉사에게 자원 출가를 한다.

[아니리] 낮이면 강두²¹⁰²)에 가 울고,
밤이면 집에 들어 울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디,
그때 마침 그 근촌²¹⁰³) 사는 아주 흉악한 홀어미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뽕덕이네요,
별호²¹⁰⁴)는 뽕과라.
얼굴이 천고일색일런지²¹⁰⁵) 만고박색일런지²¹⁰⁶) 몰라도,
꼭 생긴 모냥²¹⁰⁷)이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자진모리] 생긴 모냥 불작시면²¹⁰⁸)
말총²¹⁰⁹)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리키고,
뒷박이마²¹¹⁰)에
혜눈썹²¹¹¹)과
우명눈²¹¹²)
주먹코요,
메주볼²¹¹³)
송곳턱²¹¹⁴)에,
입은 크고,
입술 두터²¹¹⁵)
큰 궤문²¹¹⁶)을 열어논 듯.
썩레이²¹¹⁷) 드문드문,
서²¹¹⁸)는 늘어진 짚신짝이요,
두 어깨는 떡 벌어져 치²¹¹⁹)를 꺼꾸로 세워논 듯.
손길²¹²⁰) 생긴 뽕²¹²¹)은 솔뚜껑을 얹어논 듯.

51. (Bbaengdeok) Bbaengdeok is very ugly and voluntarily marries Mr. Sim.

[Aniri] Mr. Sim cries on the bank of river during the day.
He cries in his house at night.
He spends days and nights crying.
Meanwhile, there lives a bad widow in the neighboring village.
Her name is Bbaengdeok.
Her nickname is Bbaengpa.
It is not clear whether she is a rare beauty or ugly,
but she looks exactly as follows.

[Jajinmori] Let's take a close look at Bbaengdeok.
Her hair looks like a horse tail.
It is upright to the sky.
Her forehead looks like a gourd.
Her eyebrows are straight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Her eyes are caved in.
Her nose is stumpy.
Her cheeks are rough.
Her chin looks like drill.
Her mouth is huge.
Her lips are thick.
Overall, her mouth looks like a large open box.
Her teeth look like a harrow.
Her tongue hangs down like a straw shoe.
Her shoulder is so wide it looks as if a winnowing tool stood upside down.
Her hand looks like an upside down cover of a big iron pot.

허리는 쪼뚝²¹²²⁾ 같고,
 배는 폐문²¹²³⁾ 북통 같고,
 엉덩이는 부자집에 떡치는 안반²¹²⁴⁾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곳은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짐작이요,
 수통다리²¹²⁵⁾에
 흑각발톱,²¹²⁶⁾
 발맻시는 어찌 됐던,
 신발은 침척²¹²⁷⁾으로 자²¹²⁸⁾ 가웃²¹²⁹⁾이 넉넉해야 계우²¹³⁰⁾ 신게 되
 는구나.

[아니리] 생긴 모양이 이래노니,
 눈 있는 사램이야 거들떠볼 이나 뉘 있으리오?
 천상²¹³¹⁾ 차지²¹³²⁾는 눈으로 못 보는 봉사님 차지인디,
 꼭 봉사만 한 서넛 판²¹³³⁾을 내고 아직 서방 구경 못허고 있다가,
 심봉사 전곡²¹³⁴⁾ 넉넉허단²¹³⁵⁾ 말을 듣고는,
 ‘옳다, 내가 그 작자²¹³⁶⁾한테로 시집을 갔으면 한 때 떡 살구는 원없
 이²¹³⁷⁾ 먹겠다’ 싶어,
 동네 사람도 모르게 살짝 시집을 갔겠다.
 심봉사는 뺨덕이네에게 탁정²¹³⁸⁾이 딱 되아가지고,
 설운 마음도 간 데 없고,
 딸 생각도 다 잊어빠리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디,

52. (뺨덕이네 행실) 뺨덕이네는 못된 행실로 심봉사 재산을 탕진한다.

[아니리] 뺨덕이네 이 몸쓸 녀은

Her waist is thick like a bundle of straw.
Her belly swells outwards like a drum.
Her hips are wide like a plank used for squashing cooked rice.
Since she wears underwear, we cannot see it,
but we can guess how it looks from her mouth.
Her legs are bloated.
Her toenails are black like those of a buffalo.
Forget about how her feet look.
Normal shoes need to be widened to make them barely fit her
large feet.

[Aniri] Bbaengdeok looks terrible.
So who would turn his eyes upon her?
Only a blind man would be interested in her.
She remains unmarried ever since divorcing three blind men.
She hears that Mr. Sim has some properties.
'Oh, yeah! If I marry this man, I will be able to eat as much
as I wish.'
She gets married to Mr. Sim unbeknownst even to the villagers.
Mr. Sim is emotionally attached to her.
His sorrow goes away.
He forgets his daughter and spends happy days.

52. (Bbaengdeok's Behavior) Bbaengdeok, a bad woman, squanders Mr. Sim's properties.

[Aniri] Baengdeok is a bad woman.

심봉사 그 불쌍한 전곡,²¹³⁹⁾
 심청이가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앞 못 보신 늙은 부친 노래에²¹⁴⁰⁾ 굶지 말고, 벗지 말라고 끼쳐주고²¹⁴¹⁾
 간 불쌍한 전곡을 꼭 먹성질²¹⁴²⁾로 조저대는디,²¹⁴³⁾
 뽕덕이네 행동거지²¹⁴⁴⁾와 먹성²¹⁴⁵⁾ 속은 이 사람 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든 것이었다.

[자진모리] 밤이면은 마을 돌고,²¹⁴⁶⁾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사 먹고,
 벼 퍼주고 엇 사 먹고,
 의복 잼혀²¹⁴⁷⁾ 술 먹기와
 빈 담뱃대 손에 들고 오고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난²¹⁴⁸⁾허기,
 머슴 잡고 어린양²¹⁴⁹⁾에
 젊은 중놈 유인허기.
 동인²¹⁵⁰⁾ 걸어서 욕설하고,
 초군²¹⁵¹⁾들과 싸움하고,
 여자 보면 내외²¹⁵²⁾허고,
 남자 보면은 쌍긋²¹⁵³⁾ 웃고,
 코 큰 총각 술 사주기.
 잠자면서 이 갈기와 배 꿸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울음 울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기.
 삐죽허면 삐죽허고, 삐죽허면 삐죽허고, 힐끗허면 헬끗하고, 헬끗허
 면 힐끗허고,
 술 퍼먹고 활딱²¹⁵⁴⁾ 벗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Mr. Sim's gain and money are pathetic.
 When Sim Cheong left to die,
 she left them to his blind father so that he does not go hungry
 and naked.
 Bbaengdeok's large appetite destroys the pathetic gain and
 money.
 Her bad behavior and eating habit are precisely described as
 follows:
[Jajinmori] At night, she walks around in the village.
 During the day, she takes a nap.
 She sells hulled rice and buys rice cakes.
 She sells unhulled rice and buys rice candies.
 She drinks in pawn of her clothes.
 She threatens passersby with an empty pipe to give her a
 tobacco.
 She behaves like a child in front of a male servant.
 She seduces a young buddhist monk.
 She speaks curse words to villagers.
 She fights with herdboys.
 She avoids women.
 She smiles at men.
 She buys a drink for men with big noses.
 When sleeping, she grates her teeth, and her bowels rumble.
 She shakes her legs.
 She cries in the middle of night.
 She farts under a blanket.
 She always teases others with peculiar facial expressions
 opposite to those of others.
 She drinks a lot and takes a nap completely naked on a pavilion.

남의 내외 잠자는 디²¹⁵⁵)
 가만가만 가만가만 가만가만 찾아가서
 봉창문²¹⁵⁶)에다 입을 대고, “불이야!”
 이년 행사²¹⁵⁷)가 이러허여,
 심봉사 불쌍한 전곡을 모두 다 빨어먹은 연후에는,
 이삼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도망을 헐 작정으로,
 오뉴월 가마귀 곤²¹⁵⁸) 수박 파먹듯 밤낮없이 파먹는구나.

53. (심봉사 가산 탕진) 뽕덕이네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한 심봉사는 형주지경으로 이사해 근근히 살다가 뽕인잔 치 소식을 듣는다.

[아니리] 하루는 심봉사 궤²¹⁵⁹) 속을 더듬아본즉
 엽전 한 푼이 없는지라,
 “아, 여, 뽕덕이네! 여, 뽕파!”
 “예?”
 “내가 이 근방에서 실없이²¹⁶⁰) 소문 없는 졸부자²¹⁶¹) 말을 듣는 터인디,
 궤 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원 이게 어찌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 디린다고²¹⁶²)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담배 사오고, 떡 사오
 고 한 돈이
 다 그 돈이제 무슨 돈이요?”
 심봉사 기가 맥혀,
 “흥, 많이 사다주데.

When a couple sleep,
she approaches them furtively,
and shouts through a small window. "Fire!"
She does such bad things.
After she eats away all of Mr. Sim's pathetic grain and money
save some that can last for a couple of days,
she intends to run away from him.
She ceaselessly eats into his properties as if a crow pecked into
a rotten watermelon.

**53. (Mr. Sim Exhausts his Fortune.) Deceived by Bbaengdeok,
Mr. Sim runs through his fortune, moves to the border
of Hyeongju, manages to get along there, and hears
about the banquet for the blind.**

[Aniri] One day, Mr. Sim fumbles in the money box.
There is not even a coin.
"Hello, Bbaengdeok! Hey, Bbaengdeok!"
"Yes."
"I am regarded in this town as having suddenly become rich.
Why is it that there is not even a coin in the money box?"
"Oh, honey!
Do you remember I bought you drinks, meat, tobacco, and rice
cakes?
I used up the money for you."
Mr. Sim is struck speechless.
"God, how much were they?"

고만두소.²¹⁶³⁾

여편네 먹은 것 쥐 먹은 것이라고,

그거 다 고만두고, 재 너메²¹⁶⁴⁾ 김동지택²¹⁶⁵⁾에 맡긴 돈 백 냥 찾아오소.
가용²¹⁶⁶⁾이나 쓰게.”

“아이고, 영감도! 아, 그 돈 벌써 찾아다가

꽃살네 집에 해장²¹⁶⁷⁾값 주고,

김순장택²¹⁶⁸⁾에 맡긴 돈 일백오십 냥 찾아다가

불뚱이 할미집에 떡국값 주고, 엿값 주고, 단술²¹⁶⁹⁾값 주고,

이진사택에 맡긴 돈 삼백 냥 찾아다가

복성²¹⁷⁰⁾값 주고, 능금값 주고, 앵두값 주고, 자두값 주고, 살구값 주
고, 머?”

심봉사 어이없어,

“잘 먹었다!”

심봉사가 그놈의 전곡 말만 들먹거리면²¹⁷¹⁾ 딸의 생각으²¹⁷²⁾ 빼가
저린지라,

심봉사 이 말 듣고 먼 눈에 눈물이 들거니 맺거니,²¹⁷³⁾

[중중모리]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냐!

네 이 몫쓸 뺱덕이네야!

이년아, 몫쓸 년아!

내가 이것이 웬 일이여?

출천대호 내 딸 심청 인당수 죽으러 갈 때,

앞 못 보는 늙은 애비 사후에 신세라도 의탁²¹⁷⁴⁾허라고 주고 간 돈,
네 년이 무엇이라고 그 전곡을 없앴느냐?”

여광여취²¹⁷⁵⁾ 뛰어나가

지팡이 찾아 짚고,

심청이 가던 길로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거리고 나가다가,

I'll not argue with you.
I shall just assume a rat ate what you ate.
By the way, I lent one hundred dollars to Mr. Kim in the
neighboring village.
Use it for our life expense."
"Oh, honey! I already took the money back from him.
I spent it to drink at a bar.
I took five hundred dollars back from Official Kim.
With the money I paid for rice soup, rice candy, and rice drink.
I took three hundred dollars back from Mr. Lee.
With the money, I paid for peaches, apples, cherries, plums, and
apricots."
Mr. Sim is upset.
"Outstanding!"
Words about the grain and money remind him of his daughter,
making his bones painful.
After hearing her, his eyes get wet with tears.

[Jungjungmori] "Alas! What did you say?
What an evil woman!
You are a bad woman!
I can't believe what you did.
When my good daughter from heaven went to Indang Water
to die,
she gave the money for her blind old father to use after she
died.
Who are you to spend the money?"
Mr. Sim goes wild and runs out.
He gropes for his cane and grabs it.
He moves forward unsteadily to the road Sim Cheong left on.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더니마는,
 “악아, 청아! 이 자식, 무상헌²¹⁷⁶⁾ 자식아!
 어디 가고 못 오느냐?
 애비 신세를 어찌라고 어디 가고 못 오느냐?
 너는 죽어 모르건마는,
 애비는 살어 고생일다.²¹⁷⁷⁾
 내 자식아!
 너 죽어 황천 가서 너의 모친 뵈았거든,²¹⁷⁸⁾
 모녀간 혼이라도 나를 어서 다려가거라.²¹⁷⁹⁾
 눈 뜨기도 나는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허다.
 날 다려가거라! 나를 다려가거라.”
[아니레] 이렇듯 울음을 우니, 뽕덕이네 살망²¹⁸⁰⁾을 한번 피우는데,
 “아이고, 영감!
 어떤 일인지 저지난달부터 몸구실²¹⁸¹⁾을 딱 걸르더니,²¹⁸²⁾
 밥맛은 도모지 없고
 신것만 꼭 구미²¹⁸³⁾에 당겨 살구 좀 사먹은 것이,
 먹기사²¹⁸⁴⁾ 얼마나 먹었대요?
 살구씨 일곱 섬!”
 물색²¹⁸⁵⁾ 모른 심봉사,
 “아 아니, 여 여보게, 저 빼 뽕파!
 저지난달보탐이여?²¹⁸⁶⁾
 그러면 거, 태기 있을라나베.²¹⁸⁷⁾
 해! 남녀간에 무엇이 되었거나
 수²¹⁸⁸⁾ 눈 먼 딸자식이래도 하나 낳기만 허게.
 그러나 그것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He flops down on the spot.
“Oh, sweetheart. You are a heartless daughter!
Why aren’t you coming back?
What happens to my fate if you don’t return?
You don’t know because you are dead,
but I am going through this misery.
My daughter!
If you met your mother in the world of the dead,
please come back with her and take me ther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I don’t want to live any more.
Please take me there. Take me.”

[Aniri] Mr. Sim’s cry provokes Bbaengdeok to tease him.
“Hey honey!
For the past two months, I didn’t have my periods.
I didn’t have an appetite to eat.
I only wanted to eat sour things, so I ate apricots.
Do you know how much I ate?
Seven bags of apricot seeds were piled up!”
Mr. Sim does not know the situation.
“What did you say, Bbaengdeok?
For the past two months?
Then, you must be pregnant.
Good! I don’t care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I would be happy even if the baby is a blind girl.
I don’t know whether the baby will be a son or a daughter,

원 살구씨가 일곱 섬이라니,
 신것을 그렇게 많이 쳐먹고,
 그놈의 자식 낳드라도 그것 신등머러져서²¹⁸⁹⁾ 쓸까 몰라?”
 이리 되어
 그 고장에서는 남부끄러워 얻어먹을 수도 없다고,
 남부여대²¹⁹⁰⁾ 길을 떠나 정처 없이 다니다가,
 형주²¹⁹¹⁾ 지경²¹⁹²⁾ 당도하여
 다 쓰러져간 빈 집 하나 얻어 그곳에서 지내는데,
 하로²¹⁹³⁾는 형주자사²¹⁹⁴⁾가 부르시더니 분부하시되,
 “지금 황제께옵서 맹인 잔치를 배설²¹⁹⁵⁾하셨습니다,
 만일 잔치에 불참²¹⁹⁶⁾하면 중벌²¹⁹⁷⁾을 면치 못할 터이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이리 되어 노자까지 얻어가지고
 뺨덕이네를 다리고²¹⁹⁸⁾ 황성을 올라가다가,

54. (뺨덕이네 도망) 황성 가는 길에 뺨덕어미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 심봉사를 버리고 도망해 버린다.

[중모리] 주막에 들어 잠잘 적으,
 뺨덕이네 몫쓸 년은
 아까 쉬인사²¹⁹⁹⁾허든 봉사 중의
 제일 젊은 황봉사를 발췌²²⁰⁰⁾ 꼭 찢러 약조²²⁰¹⁾하여,
 주막 땀 방으 두었다가,
 심봉사 잠든 연후어²²⁰²⁾
 둘이 손길²²⁰³⁾을 마주잡고 밤중으 도망을 허였구나.

but seven bags of apricot seeds were produced.
You ate too many sour things.
I am afraid that you will have a naughty child, even if you have one.”
Things turned out as stated above.
The couple were ashamed to beg around in the village.
They wondered around in search of a new place to live in.
They arrive in the border of Hyeongju.
They get an old empty house and live there.
One day, an official calls and speaks to them.
“The emperor holds a banquet for the blind.
If you miss the banquet, you will be severely punished.
Go there in a hurry!”
Mr. Sim is provided with some travel money.
He goes to the capital city with Bbaengdeok.

54. (Bbaengdeok Runs Away.)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elopes with Mr. Hwang, another blind man, deserting Mr. Sim.

[Jungmori] Mr. Sim and Bbaengdeok sleep at an inn.
She is a bad woman.
She said hello to a few blind men a minute ago.
She made a secret promise with the youngest blind man, Mr. Hwang.
She told him to stand by in another room.
After Mr. Sim went to sleep,
they held hands together and ran away at night.

그때여 심봉사는 초저녁잠 훨씬²²⁰⁴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 봐도 뽕파가 없는지라,
 “아니, 뽕덕이네! 여, 뽕파!
 이거 어디 갔나?”
 이 구석, 저 구석을 더듬는구나.
[아니리] 심봉사가 이렇게 더듬고 다닐 적에,
 그때 마침 쥐 한 마리가 들어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니
 뽕덕이네가 장난하는 줄만 알었겠다.
 “폐히히히! 저것 저리 간다.
 날다려²²⁰⁵ 그리 찾아오라고?”
[중중모리] 심봉사 거동 봐.
 뽕덕이네를 찾는다.
 “여보소, 뽕파,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허허이! 이리 오래도 그래!
 여보소! 뽕덕이네! 여봐라, 뽕파야!
 눈먼 가장²²⁰⁶과 변양²²⁰⁷을 허면,
 여편네의 수신제도²²⁰⁸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 옳지,
 한밤중으 장난을 이렇게,
 남이 보면은 부끄럽지 않나?
 이리 오느라, 뽕덕이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아니리] “요것 여그 있지!”
 이렇게 와락 덮쳐놓은 것이
 쥐란 놈 깜짝 놀래 ‘ 짹’ 소리를 하며

Mr. Sim had a sound sleep that nigh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He fumbles for Bbaengdeok in vain.
“Hello, Bbaengdeok! Bbaengdeok!
Where are you?”
He fumbles for her here and there.

[Aniri] Mr. Sim gropes for Bbaengdeok here and there.
At that moment, a mouse comes in and moves around.
He thinks Bbaengdeok plays with him.
“Hahaha! I feel you are there.
Do you want me to follow you?”

[Jungjungmori] Behold Mr. Sim!
He gropes for his wife.
“Hello, Bbaengdeok. Come here.
I told you to come here!
Hey! I told you to come here,
Hello, Bbaengdeok! Hey, Bbaengdeok!
If your blind husband tries to go to sleep,
it is natural that his wife tries to go to sleep too.
How can you tease me at night?
Don’t you feel ashamed?
Come here, Bbaengdeok!
I told you to come here!”

[Aniri] “Oh, I got you!”
He swoops down on the mouse.
The mouse screams, surprised.

후닥딱 문틈으로 나가버리니,

심봉사 광겨가지고,²²⁰⁹⁾

“허허, 내가 속았구나.

여보, 주인! 주인!”

“예!”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오!”

“그러면 여기서 자든 우리 마누라가 없으니,

어찌 된 일이여?

주인이 찾아내야지.”

“아니, 같이 자던 그 여인네 어떤 봉사와 새벽질친다고²²¹⁰⁾ 발써 떠나
든데요?”

“무엇이 어찌?

아, 이 저석아!

그러면 진직 말을 헐 일이지,

오백팔십 리 간 다음에 거,

인제야 그런 말을 혀?”

“아, 그 둘이 가기에 그 내외간²²¹¹⁾인 줄만 알었지요.”

“아이고, 이년 갔구나!”

55. (심봉사 탄식) 뒤늦게 뽕덕어미가 도망해 버린 것을 알고, 심봉사가 탄식한다.

[진양조] 심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일을 어쩔꼬나?

허허, 뽕덕이네가 갔네그러!

It swiftly goes out through the crevice in the door.
Mr. Sim is exhausted.
“Oh, my god! I was fooled.
Hey, landlord! Landlord!”
“Yes!”
“Is my wife in your room?”
“No!”
“She was sleeping by me, but I don’t see her now.
What happened to her?
Find her for me.”
“The woman you were sleeping with ran away with another
blind man early in the morning.”
“What did you say?
How stupid you are!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She must be far away now.
What is the point of saying that now?”
“They left together, so I thought they were husband and wife.”
“Alas! She is gone!”

**55. (Mr. Sim Laments.) Mr. Sim laments after he learns
that Bbaengdeok ran away from him.**

[Jinyangjo] Mr. Sim is upset.
“Alas! What should I do now?
Bbaengdeok deserted me.

예기, 천하²²¹²) 의리 없고 사정없는 요년아!
 당초에²²¹³) 네가 바릴²²¹⁴) 떤면 있던 테서나 마다 허지,
 수백 리 타향에 와서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겼느냐, 요년아!
 예기, 천하 몹쓸 년아!
 뺱덕어멈아, 잘 가거라.
 앞 못 보는 이 병신이
 황성 천 리 먼먼 길을
 막지소향²²¹⁵) 어이를 갈끄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순인군²²¹⁶)은 성인이라 눈에 동자²²¹⁷)가 너이시고,²²¹⁸)
 부처님은 무슨 도술로 눈이 천이나²²¹⁹) 되시는데,
 나는 어이 무슨 죄가 지중허여
 눈 하나도 못 보는그나?²²²⁰)
 몹쓸 놈의 팔자로구나.”
[아니리] “예이,²²²¹) 순 호랭이가 바싹²²²²) 깨밀어²²²³) 갈 년!
 어라,²²²⁴) 어라, 어라, 어라.
 현철²²²⁵)하고 얌전한 우리 꺾부인 죽는 양²²²⁶)도 보고 살았고,
 출천대호 내 딸 심청 생이별²²²⁷)도 허고 살았는데,
 네만한 년을 생각허는 내가 도리어 농관²²²⁸)이지.
 내가 네년을 다시 또 생각을 하면 인사불성²²²⁹)의 쇠아들놈이다, 이년!”
 막담²²³⁰)을 덜컹²²³¹) 지어놓고,
[중모리] 날이 차차 밝어오니
 주인을 불러서 하례²²³²) 닦고,
 행장²²³³)을 챙겨 지고 황성 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마는, 그래도 생각이 나서

What a thankless and heartless woman!
 If she planned to forsake me, she should have done it at home.
 You abandoned me far from home.
 You will not be happy at all, bad woman!
 What a bad woman!
 Goodbye, Bbaengdeok.
 Blind, I can see nothing.
 The capital city is far.
 I don't know how to get there.
 Alas! Woe to me!
 An ancient king had four eyes because he was a saint.
 Buddha has thousands of eyes because he can work out a miracle.
 What did I do wrong?
 I don't even have one eye.
 How bad my fate is!"

[Aniri] "Oh!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Shoot! Shoot! Shoot!
 I survived the death of my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wife,
 Mrs. Gwak.
 I also survive the separation from Sim Cheong, a good daughter
 from heaven.
 It is ridiculous that I think about you.
 If I think about her again, I would be a son of a cow knowing
 nothing."
 He says a final word to her.

[Jungmori] The sun rises little by little.
 Mr. Sim says goodbye to the landlord.
 He packs up his belongings and leaves for the capital city.
 Getting out of the inn, he thinks about Bbaengdeok again.

맹세헌 말 간 데 없고 뽕덕이네를 부르는데,
 그 자리으 퍼썩²²³⁴⁾ 주저앉아,
 “뽕덕이네야! 뽕덕이네.
 에기, 천하²²³⁵⁾ 몹쓸 년아!
 네 그럴 줄을 내 몰랐다.
 황성 천 리 먼먼 길을 어이 찾아가잔 말이나?
 내가 눈이 있거드면,²²³⁶⁾
 앞에는 무슨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느니²²³⁷⁾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척²²³⁸⁾ 분별을 못하는 병신이
 어이 찾아서 가잔 말이나?”
 새만 푸르르르르르 날아가도
 뽕덕이넨가 의심을 허고,
 바람만 우루루루루루 불어도
 뽕덕이넨가 부르는구나.
 “뽕덕이네야! 모지고도 야속헌 년!
 눈 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 할 텐디,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 될쏘냐?
 새 서방 다리고 잘 살어라.”

56.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도둑맞는다.

[중중모리] 더듬 더듬 올라갈 적,
 이 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한더위²²³⁹⁾라.

He forgot his pledge and calls Bbaengdeok.
He flops down on the ground.
“Bbaengdeok! Bbaengdeok!
What a bad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which is too far?
If I had eyes,
I would know what mountains are ahead of me and where roads
go.
I can’t see anything in front of me.
How can I get there by myself?”
A bird makes a sound as it flies over.
He takes the sound to be Bbaengdeok’s.
The wind blows, making a sound.
He also takes the sound to be Bbaengdeok’s.
“Bbaengdeok! You are cruel and cold-hearted.
It is inhumane even to desert a husband with eyes,
but you gave up on a husband without eyes.
How can you be happy?
Have a wonderful life with your new husband.”

**56. (Mr. Sim Takes a Bath) Mr. Sim takes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and gets his clothes stolen.**

[Jungjungmori] Mr. Sim walks slowly to the capital city.
What time of the year is it now?
It is hot summer now.

태양은 불같은디,
 비지땀²²⁴⁰⁾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백석청탄²²⁴¹⁾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심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얼씨구나, 반갑다!
 유월 염천²²⁴²⁾ 더운 날 청파유수²²⁴³⁾에 목욕을 하면
 설은 마음도 없을 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터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의관²²⁴⁴⁾ 의복을 벗어놓고
 물에 가 풍덩 들어서,
 “에, 시원하고 장히²²⁴⁵⁾ 좋다.”
 물 한 주먹을 덥벽²²⁴⁶⁾ 쥐어 양치질도 하여보고,
 또 한 주먹 덥벽²²⁴⁷⁾ 집어다 가삼²²⁴⁸⁾도 훑훑²²⁴⁹⁾ 문지르며,
 “에,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²²⁵⁰⁾ 올라선들 이어서²²⁵¹⁾ 시원하며,
 동해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거냐?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툼병툼병²²⁵²⁾으 다닌다.
[아니레] 이렇듯 목욕을 할 제,
 심봉사보담²²⁵³⁾ 훨씬 더 시장한 도적놈이 의관 의복을 죄주다²²⁵⁴⁾
 집어가지고 도망을 하였었다.
 심봉사는 누가 농담허는 줄만 알고,
 “여, 뉘가 나하고 농혈랴고²²⁵⁵⁾ 옷을 감춘 게로구나.
 거 뉘기여?²²⁵⁶⁾
 이리 가져와.
 내가 암만 눈이 어두워도 거 다 짐작이 있구만.

The sun is really hot.
Sweating a lot, Mr. Sim arrives at a certain place.
He hears the sound of a beautiful stream.
He is delighted to hear the sound of water.
“I am glad to meet you!
If I take a bath in the stream in such a hot summer,
I will shake off my grief and think clearly.
I am glad to come across the stream!”
Mr. Sim takes off his hat and clothes.
He jumps into the stream.
“Oh, cool! It feels so good.”
He holds up a handful of water and cleans his teeth.
He picks up another and cleans his chest with big motions.
“Cool! It feels so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place than this one.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Hurrah! Good! Hurray!”
He walks around, splashing water.

[Aniri] While Mr. Sim takes a bath in the stream,
a thief, poorer than Mr. Sim, picked up all of his clothes and
runs away.
Mr. Sim thinks that someone just teases him.
“Hey, somebody must be teasing me to hide my clothes.
Who is there?
Bring my clothes here.
I am blind, but I know what you are doing.

허허, 이리 가져오래도!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예이, 시러배아들놈²²⁵⁷⁾의 인사저석걸으니!²²⁵⁸⁾
 농도 분수가 있지,
 그 봉사하고 농혀?
 고안놈의²²⁵⁹⁾ 인사저석이로고!²²⁶⁰⁾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아무리 소리헌들 대답힐 이가²²⁶¹⁾ 뉘 있으리!
 심봉사 그제야 도적맞은 줄 짐작하고,

57.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심봉사가 탄식하다가 무릉태수를 만나 의복과 노자를 얻는다.

[중모리] “허허, 이제는 죽었구나!
 정녕 나는 꼭 죽었네.
 옷을 훨썬²²⁶²⁾ 벗었으니 굵어서도 죽을 테요,
 불꽃같은 이 더우²²⁶³⁾에 데어서도 나는 죽겠구나.
 네 이 좀도적놈들아! 내 옷 가져오느라!
 쓰고, 먹고, 입고 남은 재물도 많을 텐디,
 눈 어둔 내 것을 가져가니
 그게 차마 헐 일이냐?
 네 이놈들아!
 봉사 것 도둑질하면 열두 대 줄봉사²²⁶⁴⁾ 난단다!
 내 옷 가져오너라!”

I told you to bring my clothes here.
Don't you bring them here?
What a bad boy you are!
There is a limit in joking.
How can you do such a thing to a blind man?
What a bastard you are!
Won't you bring my clothes here?"
No matter how hard he shouts, nobody answers.
He now thinks that he got his clothes stolen.

57. (Asking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for Clothes) While lamenting, Mr. Sim comes across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and gets clothes and some travel money from him.

[Jungmori] "Alas! I will die now!
I will certainly die!
Since I am naked, I will starve to death,
Or I will be scorched to death in this hot weather.
You petty thieves! Bring my clothes here!
There must be extra food, clothes, and other properties in other places.
You stole from a blind man.
Is that what a human being should do?
You villains!
Your family will be blind for 12 generations for stealing from a blind man.
Bring me my clothes."

죽어도 양반이라 체면을 아는 고로,²²⁶⁵⁾
 한 손으로 앞을 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지내거던 다 돌아서서 가시오!
 내 어찌다가 벗었소!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천지 인간 병신 중의 날같은 이가 뉘 있으리?
 일월이 밝았어도 동서 분별을 내 못허니,
 살어 있는 내 팔자야!
 모진 목심²²⁶⁶⁾ 죽지도 못허고,
 내가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이리 앓어 울음을 울 적,
 그 때 마침 무릉태수²²⁶⁷⁾가 황성 갔다 오는 길인데,
 벽제²²⁶⁸⁾ 소리가 들리거늘,
 심봉사 듣고 좋아라고,
 ‘옳다. 여, 어디 관장²²⁶⁹⁾이 지내가시는 모냥이로구나.
 인제는 살었다.
 내가 저 관장으게 때를 한 번 써 보리라.
 때를 한번 쓰면, 관은 민지부모라니²²⁷⁰⁾
 설마 이대로 내버리고 가시든 안허실 터이제.’
 행차²²⁷¹⁾가 점점 당도커늘,
 심봉사 거동²²⁷²⁾ 보소.
 별거벗은 알봉사²²⁷³⁾가 한 손으로 앞을 가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엉금엉금 들어가며,
 “아뢰어라! 급창²²⁷⁴⁾아, 아뢰어라!
 황성 가는 맹인인데,

Being once a high class person, he respects his honor.
He covers his private place with one of his hands.
“If there is a woman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I somehow got naked.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Who would be more stupid and miserable than I?
I can’t see anything even if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What a bad fate I have!
I wish I were dead.
Why did this trouble fall on me?”
He cries.
Meanwhile,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is on his way back
from the capital city.
The sounds of a procession are heard.
Mr. Sim is delighted.
‘Oh, yes! A governor must be passing by.
I am out of trouble now.
I will importune the governor for clothes.
An official is a parent of the people.
I trust he will not leave me here as I am now.’
The procession approaches him.
Behold Mr. Sim!
The naked blind man covers the front part with one of his hand,
holds the cane with the other,
and walks unsteadily forward.
“Servant, report to your master!
I am a blind man going to the capital city.

배알차로²²⁷⁵) 아뢰어라!”

행차가 길을 머물더니마는,
“어이! 나는 무릉태수어니와
어데 사는 소경인디,
어찌 옷은 벗었으며,
무슨 말을 허려는다?”²²⁷⁶)

“아뢰어라!”

“예, 소맹²²⁷⁷)이 아뢰리다.

소맹은 황주 도화동 사웁더니,
황성 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더웁기로 이 물에서 목욕을 허다
의관 의복을 잃었사오니, 진소위주출지망량²²⁷⁸)이요, 진퇴유곡²²⁷⁹)
이 되었으니
찾어주고 가시던지, 한 벌 무좌주고²²⁸⁰) 가시든지
별반처분²²⁸¹)허웁소서.
적선지가으 필유여경이라²²⁸²) 허였으니,
태수장²²⁸³) 덕택으²²⁸⁴) 살려주오.”

[아니레] 태수 들으시고 가공히²²⁸⁵) 여기서²²⁸⁶) 통인²²⁸⁷) 불러 분부
허시되,

“네 저 의룡²²⁸⁸) 열고 의복 일습²²⁸⁹) 내어 소경 주어라.

급창은 병거지²²⁹⁰) 씨도 탈 없으니

갓 벗어 소경 주고,

교군꾼²²⁹¹)은 수건 씨도 탈 없으니

망근²²⁹²) 벗어 소경 주라.”

마부 불러 신 한 켤레와

수배²²⁹³) 불러 노자²²⁹⁴)까지 내어주시니,

Tell your master I want to see him.”
The whole procession stops.
“Hi, I am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Where do you live?
Why are you naked?
What do you want to say?”
“Report to the governor!”
“Okay. Let me speak to you, sir.
I live in Peach Blossom Village in Hwangju.
I was on the way to the banquet.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in the stream.
I got my clothes stolen, got into this absurd trouble, and am
in a dilemma.
Please find the clothes for me, or get me new clothes.
Please do me a special favor.
A fortune will befall a good family.
Governor, please help me.”

[Aniri] After listening to Mr. Sim, the governor feels sorry for him and calls his servant.
“Open that clothes box and give the blind man a pair of clothes.
Servant, you can put on a fur hat.
So, take the cylindrical hat off and give it to the blind man.
Carrier, you can put on a towel.
So take your inner hat off and give it to the blind man.”
He has a coachman give Mr. Sim a pair of shoes.
He orders a junior official to give Mr. Sim some travel money.

심봉사 받아 쓰고, 입고, 신더니마는,
 “황송한 말씀이오나, 그 무상한²²⁹⁵ 뉘이 담뱃대까지 다 가져갔소.”
 태수 듣더니,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그걸 다 날다려²²⁹⁶ 어찌란 말인
 고?”
 “아니올시다. 황송하옵게 무좌주시란 말씀이 아니오라,
 이를테면 그렇단 말씀이오.”
 태수 대소²²⁹⁷허시고,
 하인 불러 대²²⁹⁸와 담배까지 내어주시니,
 심봉사 좋아라고,
 “은혜 백골난망²²⁹⁹이오.
 황성 갔다 오는 길에 태수장 꼭 찾아뵈옵지요.”

58. (방아찰는 여인들과 수작) 심봉사가 황성길에 방아 찰 는 여인들을 만나 수작한다.

[자진모리] 백배사례²³⁰⁰ 하직허고
 황성 길을 올라간다.
 낙수교²³⁰¹를 열른 건너, 녹수정²³⁰²을 지내갈 제,
 일력²³⁰³은 점점 황혼인디,
 사람 자취 끊어져
 물을 곳 바이없고,²³⁰⁴
 근처 인가²³⁰⁵는 없는 모냥.
 혼자 걱정으로 허둥지둥 가노라니,
 어데서 방아소리가 열른열른²³⁰⁶ 들리거늘,
 “옳제, 저기 동리²³⁰⁷가 있구나.
 찾아가는 수밖에 도리 없지.”

Mr. Sim takes and puts them all on.
“Sorry to tell you, but the bad thief even took my tobacco pipe.”
The governor responds, “Hahaha!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Well, I dare not ask for a tobacco pipe from you.
I am just telling you what happened.”
The governor laughs.
He gives Mr. Sim a tobacco pipe and tobacco via a servant.
Mr. Sim is delighted.
“I will eternally appreciate it.
I will drop by your office on my way back from the capital city.”

58. (Flirting with Milling Women) Mr. Sim flirts milling women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Jajinmori] Mr. Sim bows repeatedly to the governor.
He heads to the capital city.
He passes a bridge and a pavilion in a minute.
The sun sets little by little.
There is no one on the street.
Mr. Sim can't ask anybody for directions.
There is no house around either.
Concerned, he walks by himself for a while.
He hears a faint milling sound from somewhere.
“Good. There must be a village over there.
I can't help from going there.”

논틀²³⁰⁸)로, 밭틀²³⁰⁹)로 더듬 더듬 더듬으 들어가
 부지불각²³¹⁰) 들어서며,
 숨결도 가쁜 김에 독성²³¹¹)으로 허는 말이,
 “말 조금 물읍시다!”
 그 중에 왈패²³¹²) 여인이 하나 씩 나서면서
 책망²³¹³)인지, 욕설인지 호령을 내놓는다,
 “아니, 남녀유별²³¹⁴)허단 말은 삼척동자²³¹⁵)도 다 아는데,
 여인네만 있는 곳에
 의관²³¹⁶)을 헌 자식이 불문곡직²³¹⁷) 달려드니,
 그 제기불을²³¹⁸) 손²³¹⁹)을 눈망울을 쑥 집어내라!”
[아니레] 심봉사가 가만히 들어본즉,
 말하는 그 여인네가 말 성음²³²⁰)부터 원체 싸나울 뿐 아니라,
 밥 굶은 밤손님이 거센 체해도 안 될 성싶어,
 턱 늦귀서²³²¹) 허는 말이,
 “황성 근처 아씨들이 눈망울을 잘 뺏다기에,
 나는 눈망울을 아주 빼서 우리집에 두고 왔제.”
 그 여인 허는 말이, “네 그 손 눈 없는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불 켜 들고 와 보더니,
 여러 여인 대소허며,
 “아이가!²³²²) 정말 이 손님 눈 없네!”
 왈패 여인 허는 말이, “눈망울도 없는 것이
 어찌 밤에 찾아왔어?
 기왕 온 것이니, 방애²³²³)나 좀 찢어 주지.”
 심봉사도 농담으로 슬쩍 대답을 허는데,
 “제기, 참! 공연히 방애를 찢어 쥐?
 방애 찢어 주면 무엇이나 좀 줄라간디?”²³²⁴)

He staggers along a rice patty and a field.
He enters a place without knowing.
He is short of breath and speaks bluntly.
“Let me ask you something.”
A tough woman moves forward.
She scolds him with curses.
“God, even a child knows men and women are different.
Only women are here.
How can a formally dressed man come in without knocking?
Let me take your eyeballs out in a motion.”

[Aniri] Mr. Sim carefully listened to her.
Her loud voice tells him that the woman is very boisterous.
He thinks that a hungry night guest should not be arrogant.
He takes a modest attitude.
“I heard women near the capital city are good at taking eyes out.
So I took my eyes out myself and left them at home.”
The tough woman says, “Check him out if he has eyes.”
Another woman holds up a lamp and takes a look.
Women laugh loudly.
“Oh, god! This guest really does not have eyes.”
The tough woman says, “You are blind.
How did you come here at night?
Anyway, please help us with milling.”
Mr. Sim responds half in joke.
“Gee! Would I mill for you for free?
What do you have for me in return for my milling?”

“아따,²³²⁵⁾ 그것 의뭉허다.²³²⁶⁾

주기는 뭘 줘?

밥 주고, 술 주고, 고기 주고, 담배 주면 고만이지.”

밥 주고, 술 주고, 고기 준다는 통에²³²⁷⁾

방아를 한번 쥘어보는디,

59. (방아타령) 심봉사와 여인네들이 방아타령을 하며 방아를 쥘는다.

[중중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얼크덩 땡땡, 잘 쥘는다. 어유아 방아요.”

“만첩청산²³²⁸⁾을 들어가, 이 나무 저 나무 베어다가
이 방아를 만들었나?”

“어유아 방아요.”

“태고라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하시니,²³²⁹⁾

이런 나무로 왕을 허셨든가?”

“어유아 방아요.”

“유소씨²³³⁰⁾ 구목위소,²³³¹⁾ 이런 나무로 집 지시며,²³³²⁾

신농씨²³³³⁾ 유목위뢰,²³³⁴⁾ 이런 나무로 따부²³³⁵⁾ 허셨든가?”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오고대부²³³⁶⁾ 죽은 후으 방아소리도 꿇쳤더니,

우리 성상²³³⁷⁾ 즉위허사²³³⁸⁾ 국태민안²³³⁹⁾허옵신디,

하물며 맹인잔치 고금의²³⁴⁰⁾ 처음이라,

우리도 태평성대²³⁴¹⁾ 방아타령을 허여보세.”

“어유아 방아요.”

[자진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Gosh, you are a beast.
What do you want?
We will only give you food, wine, meat, and tobacco.”
He is delighted to hear about food, wine, and meat.
He begins to mills joyfully.

59. (The Mill Song) Mr. Sim and women sing the mill song while milling.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On deep mountains, trees were cut down,
Was this mill made of those trees?”
“Here goes a mill.”
“An ancient king became a king thanks to a tree anergy.
Did he become a king thanks to this kind of king?”
“Here goes a mill.”
“Did another ancient king build a house with this kind of wood?
Did another ancient king make a plow with this kind of wood?”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After a great ancient politician died, the milling sound stopped.
Since the present king came to the throne, the people were happy.
In addition, a banquet for the blind is unprecedented.
Let’s sing the mill song for the peaceful world.”
“Here goes a mill.”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얼크덩 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이 방아가 뉘 방아?

강태공²³⁴²) 조작이로다.”²³⁴³)

“어유아 방아요.”

“들로 가면 말방아²³⁴⁴)요,

강을 끼면은 물방아²³⁴⁵)로다.”

“어유아 방아요.”

“혼자 찢는 절구방아,²³⁴⁶)

이 방아는 디딜방아²³⁴⁷)라.”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방아 만든 제작²³⁴⁸)을 보니,

사람을 비양턴가,²³⁴⁹)

두 다리를 짝 벌렸네.”

“어유아 방아요.”

“옥빈홍안²³⁵⁰)의 비널른가,²³⁵¹)

가는 허리에 가 잠²³⁵²)이 찢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초왕궁인²³⁵³)의 맵술런가.”²³⁵⁴)

“어유아 방아요.

얼크덩 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머리를 들어 오르는 양은

창해 노룡²³⁵⁵)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머리를 숙여 내리는 양은

주문왕의 돈술런가.”²³⁵⁶)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Whose mill is this?
 This mill is made by an ancient politician."
 "Here goes a mill."
 "This is a horse mill in a field.
 This is a water mill by the river."
 "Here goes a mill."
 "This is a mortar mill, a mill for one miller.
 This is a treadmill."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Let me look at the shape of this mill.
 It looks like a human body.
 It has two legs spread wide."
 "Here goes a mill."
 Is this a beautiful young woman's hairpin?
 It pierces through the thin waist of the mill."
 "Here goes a mill."
 "The thin long waist is like that of an ancient court lady."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The mill pulls up its head.
 It looks as if an old dragon lost its temper in a wide blue sea."
 "Here goes a mill."
 "The mill pulls down its head.
 It looks as if an ancient king bowed."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얼크덩 덩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사철 찢는 쌀 방아요,
명절 때면은 떡방아로다.”

“어유아 방아요.”

“지글지글 보리 방아,
찢기 좋은 나락 방아.”

“어유아 방아요.”

“미끌미끌 기장²³⁵⁷ 방아,
사박사박의²³⁵⁸ 울미²³⁵⁹ 방아.”

“어유아 방아요.”

“호호 맵다, 고추 방아.

구수룸허구나,²³⁶⁰ 깨묵²³⁶¹ 방아.”

“어유아 방아요.”

심봉사 방아소리를 농을 청하며 메기는구나.²³⁶²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황성 천리 가는 길에 신명²³⁶³나기는 처음이로구나.”

“어유아 방아요.”

“저그²³⁶⁴ 저 부인 넓적다리는 암만 보아도 심²³⁶⁵도 시구나”.²³⁶⁶

“어유아 방아요.”

“각시들도 똥²³⁶⁷ 잘 꾸더라.

구린내 바람에 콧잔등 부러진다.”

“어유아 방아요.”

“이 방아를 어서 찢어 보리쌀 뜨물에 호박국 끓여라.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We mill rice every year-round.
 We mill rice cake on special holidays.”
 “Here goes a mill.”
 “A barley mill makes distinctive sounds.
 A rice mill is easy.”
 “Here goes a mill.”
 “A millet mill is slippery.
 A adlay mill makes crunching sounds.”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smells hot.
 A sesame mill smells fragrant.”
 “Here goes a mill.”
 Mr. Sim adds his own joke to the mill song.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is is the first time to have fun on my long way to the capital
 city.”
 “Here goes a mill.”
 “That lady’s thighs look strong however hard I look at it.”
 “Here goes a mill.”
 “Ladies fart often too.
 The bad smell breaks my nose.”
 “Here goes a mill.”
 “With this mill, make pumpkin soup with barley for me.

우리 방애꾼들²³⁶⁸ 배충복²³⁶⁹하자.”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오르락 내리락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빠구빠구²³⁷⁰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중중모리] “얼크덩 땡 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60. (안씨 맹인) 심봉사가 황성 근처에서 안씨맹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아니레] 이렇듯 방애 찢고,

밥 얻어먹고, 사랑방에서 편히 잔 연후에,

아침밥까지 잘 얻어먹고 다시 황성을 올라갈 제,

또 석양을 당허여

한 모룻이²³⁷¹ 돌아드니

어떠한 여인인지, “저기 가시는 게 심봉사시오?”

“거 뉘기오?”²³⁷²

“심봉사시면²³⁷³ 이리 좀 오십시오.”

심봉사 혼자말로,

‘이 곳에서 나를 알 사람이 없는데, 괴이현²³⁷⁴ 일이로다.’

따러가니, 외당²³⁷⁵에 앉히고

저녁을 잘 대접헌 후에,²³⁷⁶

여인이 다시 나와,

“봉사님, 내당²³⁷⁷으로 들어가사이다.”

We, milling people, are happy with any food."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up and down."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making creaking sounds."

"Here goes a mill."

[Jungjungmori] "The mill works well, making grating sounds.
Here goes a mill."

60. (Mrs. An, A Blind Woman) Mr. Sim marries a blind woman near the capital city.

[Aniri] Mr. Sim mills for the women.

He is provided with food, and sleeps soundly in a room.

The next morning, he is given a breakfast, and leaves for the capital city.

The sun sets again.

He turns around a corner.

A woman says, "Hi there, Mr. Sim!"

"Who is this?"

"If you are Mr. Sim, please come here."

He talks to himself.

'Nobody should know me here. This is strange.'

Mr. Sim follows her and is led to a guesthouse.

He is treated to a fantastic dinner.

The woman moves forward again.

"Mr. Sim, let's get into the main room."

“여보시오. 아, 이 댁 주인 유무는 모르지만,

그 어찌 내당으로 들어간단 말ियो?

아니, 이 댁에 혹시 무슨 우환²³⁷⁸ 있소?

나는 봉사만 되었지,

점도 못 치고,

독경²³⁷⁹도 못 하오.”

“아니오. 다른 걱정 말으시고

나를 따라가옵시다.”

심봉사 마지못해 따라가며,

“이것 내가 보쌈²³⁸⁰해 들어간 것 아니라고?

암만해도 여 위첩다.”²³⁸¹

[자진모리] 내당으로 들어가니,

내당의 어떤 부인 시비²³⁸²를 부르더니 좌²³⁸³를 주어 앉힌 후으,

그 부인 허는 말이, “당신이 심봉사지요?”

“그 어찌 아십니까?”

“아는 도리가 있습니다.”²³⁸⁴

내 성은 안 가웁고,

십 세 전 안맹²³⁸⁵하야

점치는 법을 대강 배웠삽기,²³⁸⁶

삼십오 세 금년이라야

방년²³⁸⁷인 줄 내 이미 알었으나,

간밤의 꿈을 꾸니,

일월이 떨어져서 물에 가 잠긴 것을

첩이 선뜻 건져내어 품에다 안었으니,

천상의 일월이란 사람의 안목²³⁸⁸이라,

내의 배필²³⁸⁹ 날과²³⁹⁰ 같은 맹인인 줄 알었으며,

“Hello, I don’t know who the landlady of this house is,
but how can I get into the main room?
By the way, is there any trouble in this house?
I am just a blind man,
I can’t tell your fortune.
I can’t read a holy book either.”
“No.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Please come with me.”
He reluctantly follows her.
“It might be that I am kidnapped into this place.
I must be in danger.”

[Jajinmori] They enter the main room.
A lady in the room has her maid provide a seat to Mr. Sim.
She says, “You must be Mr. Sim. Right?”
“How did you know that?”
“Well, I can know that.
My last name is An.
I got blind before I was ten.
I learned how to do fortune-telling.
I am thirty five years old this year.
I already knew I was old enough to get married.
I had a dream last night.
The sun and the moon fell down into the water.
I pulled them out and hugged them.
The sun and the moon in heaven are the eyes for the human.
I knew my spouse would be blind like me.

물에 가 잠겼기로 심 씨인 줄 짐작하와²³⁹¹⁾
 감히 청했사오니,
 첩이 비록 용렬²³⁹²⁾하오나,
 바리지²³⁹³⁾ 앓으시면 평생 한이 없겠내다.”²³⁹⁴⁾
[아니레] 심봉사 속으로 어찌 좋던지
 두부자루²³⁹⁵⁾ 터진 듯이 웃든 것이었다.
 “과흐, 말이사 좋은 말이지마는,
 거 거 그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
 심봉사와 안씨맹인과 그날 밤에 지낸 일이야 뉘가 알 수 있으리오?
 동방화촉²³⁹⁶⁾에 호접몽²³⁹⁷⁾을 꾸었것다.
 모든 근심 다 잊어빠리고 잠시라도 즐기더니,
 그날 밤 몽사²³⁹⁸⁾가 괴이헌지라,
 이튿날 일어²³⁹⁹⁾ 앓어 심봉사 걱정수심으로 한숨쉬고 앓었거늘,
 안씨맹인 묻는 말이, “우리가 백년가약²⁴⁰⁰⁾을 맺은 후
 첩은 평생 소원을 이뤘는가 허옵는디,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첩이 도리어 불안하오이다.”

61. (심봉사 꿈) 안씨 맹인은 심봉사가 꾸 꿈이 자식상봉할 꿈이라고 해몽해 주고 함께 맹인잔치 길에 오른다.

[중모레] 심봉사 듣더니 허는 말이, “이 내 팔자 기박²⁴⁰¹⁾허여
 평생을 두고 증험²⁴⁰²⁾허되, 호사다마²⁴⁰³⁾요, 흥진비래²⁴⁰⁴⁾를 날로 두
 고 이름인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악한 일이 삼기는다,²⁴⁰⁵⁾

Since they were in the water, his last name must be Sim.
So I invited you here.
I am not a perfect woman,
but if you take me, I will be happy forever.”

[Aniri] Mr. Sim is so happy in his heart
that he bursts into a loud laughter as if a dam exploded.
“What you said sounds terrific,
but can things happen that easily?”
Who would know what Mr. Sim and Mrs. An did together that
night?
Mr. Sim has a good time with Mrs. An.
He shakes off all of his worries and enjoys himself for a while.
He has a strange dream that night.
On the following morning, Mr. Sim sits up and sighs in trouble.
Mrs. An asks, “We promised to be a couple.
I think my longstanding wish is fulfilled.
What worries you?
I feel rather uncomfortable.”

**61. (Mr. Sim’s Dream.) Mrs. An interprets Mr. Sim’s
dream as saying that he will meet his child. They
leave together for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Jungmori] Mr. Sim responds, “My life has been unfortunate.
My whole life is a proof for the saying that a sad day invariably
follows a happy day.
A good thing occurs, and then a bad thing follows.

간밤으 꿈을 꾸니

내 몸이 불 속으 들어 보이고,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²⁴⁰⁶ 쳐 보이고,

나무잎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나 죽을 꿈인가 허나니다.”

안씨맹인이 이 말 듣고 묵묵히 앉았더니,

“그 꿈 장히²⁴⁰⁷ 좋사이다.²⁴⁰⁸

해몽²⁴⁰⁹을 이르게 들으시오.

신함화중²⁴¹⁰허니 회복²⁴¹¹을 가지²⁴¹²라,

몸이 불 속에 들었으니 옛 일이 회복될 대몽²⁴¹³이요,

거피작고²⁴¹⁴허니 입궁지상²⁴¹⁵이라,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쳐 보이니,

고성²⁴¹⁶은 궁성²⁴¹⁷이라,

몸이 궁궐으 들²⁴¹⁸ 꿈이요,

낙엽이 귀근²⁴¹⁹허니 자손을 가봉²⁴²⁰이라,

나뭇잎 떨어져 뿌리를 덮었으니, 자녀를 상봉할 대몽²⁴²¹이요.

이런 대몽은 고금에 드문지라,

경사 있으리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아니레] 심봉사 이 말 듣고 탄식하여 허는 말이,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²⁴²²이요,

만불성설²⁴²³이요.

무남독녀²⁴²⁴ 외딸 하나 인당수에 죽었는데,

어느 자식이 있어 상봉현단 말이오?”

[중모레] 안씨맹인 허는 말이,

“지금은 내 말을 허망히²⁴²⁵ 알으시나,

I had a dream last night.
My body appeared to be in fire.
My skin was taken off and was made into a drum.
Leaves fell down from a tree and covered its roots.
The dream indicates that I will die.”
Mrs. An has been listening to him in silence.
“What a favorable dream!
Let me tell you what the dream means.
Your body’s entering fire indicates recovery.
Since your body was in fire, you will recover past things.
Your skin’s becoming a drum means you will enter a palace.
Your skin was taken off and the drum was hit.
The drum sound is the palace sound.
The dream means your body will enter a palace.
Leaves’ returning to the root indicates meeting a child.
Since the leaves cover the root, you will meet your child.
This is really a favorable dream.
A great event is ahead of you.
So don’t worry.”

[Aniri] Mr. Sim responds in sigh.
“That must not be true of me.
That doesn’t make sense.
I had a child, but she died in the Indang Water.
How can I meet my child?”

[Jungmori] Mrs. An speaks.
“What I say sounds absurd to you,

장차 두고 보옵소서.”

만단으로²⁴²⁶ 위로하고

조반²⁴²⁷을 마친 후으, 그날 함께 길을 떠나 황성을 당도허니,

소경이 어찌 모였던지 소경 냄새 진동허고,

지팡이 서로 다친²⁴²⁸ 소리 ‘따그락 딱 딱 딱 딱 딱 딱’

깨를 부는 소리 같은지라.

그 때으 소경들이 잔치 참례²⁴²⁹허라 웨는²⁴³⁰ 소리가 들리는데,

봉명사령²⁴³¹이 영기²⁴³²를 메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각 성, 각 읍 소경님네!

오늘이 맹인잔치 망중²⁴³³이니

급히 와서 참례허오!”

이렇듯 웨는 소리 원근산천²⁴³⁴이 땡그렇게²⁴³⁵ 들린다.

62.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아니리] 심봉사 안씨맹인과 주점²⁴³⁶에서 쉬다가 걸음을

바빠 걸어 궁궐을 찾아갈 제,

그 때여 황후께서는 날마다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을 받아보되,

부친 성명은 없는지라,

[진양조] 심황후 기가 막혀 혼잣말로 탄식한다.

“이 잔치를 배설²⁴³⁷키는 부친을 위험인디,

어이 이리 못 오신고?

내가 정녕²⁴³⁸ 죽은 줄 알으시고 애통²⁴³⁹허시다 굿기셨나?²⁴⁴⁰

부처님의 영감²⁴⁴¹으로 완연히²⁴⁴² 눈을 떠서 소경 죽으²⁴⁴³ 빠지신가?

but you will see later.”

She consoles him by all means.

After eating breakfast, they leave for and arrive at the capital city.
There are so many blind people that unpleasant smells are everywhere.

Canes collide with each other, making tapping sounds.

They are like those of parching sesames.

At that moment, there is a shout asking the blind to attend the banquet.

A messenger from the emperor moves around with a banner.
“Blind people from various towns!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Please hurry up to the party!”

The loud shout reaches distant and close mountains and streams.

62. (The Empress’s Sigh) Empress Sim sighs, waiting for her father.

[Aniri] Mr. Sim and Mrs. An take a break in a tavern.

They go to the palace in a hurry.

Meanwhile, the empress checks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blind everyday.

She can’t find her father’s name.

[Jinyangjo] Disappointed, Empress Sim sighs to herself.

“I am throwing this party for my father.

Why isn’t he coming?

Did he die, grieving over my death and believing I really died?

Is he classified as non-blind because he opened his eyes with Buddha’s miracle?

당년²⁴⁴⁴ 칠십 노환²⁴⁴⁵으로 병환이 들어서 못 오신가?
 오시다 노중²⁴⁴⁶으서 무슨 낭패²⁴⁴⁷를 당허신가?
 잔치 오날이²⁴⁴⁸ 망중²⁴⁴⁹인디,
 어이 이리 못 오신그나?”
 혼자 자진복통으²⁴⁵⁰ 울음을 운다.

63. (심황후 부친 발견) 심황후는 봉사들의 기록을 읽다가 심봉사를 찾아낸다.

[아니리] 이렇듯 애탄²⁴⁵¹을 허실 적에,
 이날도 대궐문을 훨쩍²⁴⁵² 열어제쳐²⁴⁵³ 놓고 각 영문²⁴⁵⁴ 군졸들은
 봉사들을 인도하고,
 내관²⁴⁵⁵은 지필²⁴⁵⁶ 들고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이며, 연세 직업 자녀유무와 가세빈부²⁴⁵⁷ 유무
 식²⁴⁵⁸을 일일이²⁴⁵⁹ 기록하여
 황후전에²⁴⁶⁰ 올렸것다.
 황후 받아보실 적에,
 [자진모리] 각기 직업이 달르구나.
 경²⁴⁶¹을 읽어 사는 봉사,
 신수²⁴⁶² 재수²⁴⁶³ 혼인궁합²⁴⁶⁴ 사주²⁴⁶⁵
 해몽 실물²⁴⁶⁶ 심인²⁴⁶⁷ 점을 쳐 사는 봉사,
 계집으게 얻어먹고 내주장²⁴⁶⁸으로 사는 봉사.
 무남독녀 외딸에게 의지하고 사는 봉사,
 아들이 효성 있어 혼정신정²⁴⁶⁹ 편한 봉사,
 집집이 개 짓키고²⁴⁷⁰ 결식²⁴⁷¹으로 사는 봉사,
 목만 쉬지 않는다면 대목장²⁴⁷²에는 수²⁴⁷³가 난다 풍각쟁이²⁴⁷⁴로
 사는 봉사.

Given he is seventy this year, isn't he coming because he is ill?
Did he get into trouble on his way here?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Why isn't he coming?"
She bursts into sad tears.

63. (The Empress Spots Mr. Sim) The empress finds Mr. Sim's name in the record.

[Aniri] While Empress Sim laments,
soldiers open the gate of the palace widely as usual, and escort
the blind.

A civil servant holds a paper and a brush.
He writes down the address, name, age, occupation, children,
economic status, and education of the coming blind people.
He gives the record to the empress.
She checks it carefully.

[Jajinmori] The blind have diverse occupations.
Some do fortune-telling.
They foretell the fates of individuals and couples.
They also interpret dreams and locate things and people.
Some live off their wives, the heads of their families.
Some depend on their daughter, their only child.
Some are served by their good sons.
Some live by begging around, provoking dogs to bark in houses.
Some make their living by playing musical instruments in a
market.

자식이 앓은뱅이라 지가²⁴⁷⁵⁾ 벌어다 멕이는 봉사.
 그 중의 어떤 봉사 도화동 심학균디,
 연세는 육십오 세,
 직업은 밥만 먹고 다만 잠자는 것뿐이요,
 아들은 못 낳아 보고
 딸만 하나 낳았다가
 제수²⁴⁷⁶⁾로 팔아먹고,
 출천대호 딸자식이
 마지막 떠날 적으 앞 못 보신 늙은 부친 말년 신세 의탁허라고 주고
 간 전곡²⁴⁷⁷⁾으로
 가세²⁴⁷⁸⁾는 유여²⁴⁷⁹⁾터니,
 뺨덕이네란 계집년이 모두 다 털어먹고,
 유무식 기록에는 이십²⁴⁸⁰⁾ 안맹허였기로
 사서삼경²⁴⁸¹⁾ 다 읽었다 뚜렷이 기록이 되었구나.

64.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아니리] 심황후 날날이 읽어가실 적에
 오직이나 반가웠으며, 그 얼마나 기뻐으리오마는,
 그러나 혼적 안허시고 내관 불러 분부허사,
 맹인 성책²⁴⁸²⁾ 내어주시며,
 “이 중에 심맹인을 이 별전²⁴⁸³⁾으로 모시어라.”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규씨! 심맹인 나오시오! 심맹인!”
 심봉사 듣더니,

Some support their crippled children,
One of the blind is Mr. Sim from Peach Blossom Village.
He is sixty five years old,
His job is only to eat and sleep.
He did not have a son,
He only had a daughter.
He sold her as a sacrifice for a ritual.
His daughter was a good child from heaven.
On the last day with her blind old father, she left some money
and food to him for future use.
So he was a little rich,
but a woman called Bbaengdeok wasted them all.
It is clearly written that he became blind at twenty,
and that he read all the classics.

**64.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Aniri] Empress Sim reads the record carefully.
She is extremely delighted to read the record about her father,
but without expressing her feeling, she calls a servant.
She shows the record book to him.
“Of the blind, bring Mr. Sim to my place.”
The servant goes out with the order.
“Mr. Sim! Please come out. Mr. Sim!”
Mr. Sim hears the shouting.

“심맹인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겠구마는!

거 술이나 어서 한 잔 주지.”

“글쎄,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집도 주고 헐 터이니,
얼른 이리 나오시오.”

“거 실없이²⁴⁸⁴ 여러 가지 것 준다마는,
거 그런디 그, 어찌 꼭 나만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우에서 심맹인을 불러오라 하셨으니,
빨리 들어갑시다.”

심봉사 깜짝 놀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내가 진찰한²⁴⁸⁵ 잔치에 왔지.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날 잡아 죽일라고 이 잔치를 배설한 것이로구나.

내가 더 살아 무엇하리!

갑시다.”

주렴²⁴⁸⁶ 앞에 당도하여,

“심맹인 대령²⁴⁸⁷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풍신²⁴⁸⁸ 늙은 형용²⁴⁸⁹

슬픈 근심 가득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체중²⁴⁹⁰허시고, 아무리 진중²⁴⁹¹허신들

부녀천륜²⁴⁹²을 어찌 허리?

[자진모리] 심황후 거동²⁴⁹³ 보아라.

“Who is calling me?
 I am hungry!
 Bring me some wine.”
 “Well, I will give you wine, food, money, and a house.
 Come out quickly.”
 “You are giving various things without a reason.
 Anyway, of all the blind, why do you pick me?”
 “I don’t know whether you will be rewarded or punished.
 I was ordered to take you there.
 So please come with me.”
 Mr. Sim is surprised. “I knew this was coming.
 Rewarded or punished?
 I didn’t have to come to this banquet.
 I am guilty of selling my daughter.
 They are throwing this party to kill me.
 What would be the use of me to live more?
 Let’s go.”
 They arrive at the bead blind.
 “I brought Mr. Sim here.”
 The empress takes a close look.
 He looks old with the white hair.
 He is full of sadness.
 He is clearly her father.
 She is an empress, a person with dignity and seriousness,
 but can anything change the father-daughter relation?

[Jajinmori] Behold the Empress Sim.

산호 주렴을 걷혀버리고²⁴⁹⁴⁾

우루루루 달려나와,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 허는구나.

심봉사 부지불각²⁴⁹⁵⁾ 이 말을 들어노니,

황후인지, 궁녀인지, 굿²⁴⁹⁶⁾ 보는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먼눈을 회번쩍²⁴⁹⁷⁾ 회번쩍 번쩍거리며,

“아이고, 아버지라니?

날다려²⁴⁹⁸⁾ 누가 아버지여, 예?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²⁴⁹⁹⁾ 수삼 년²⁵⁰⁰⁾이 되었는데,

누가 달다려 아버지여?”

황후 옥루²⁵⁰¹⁾ 만면²⁵⁰²⁾허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여식²⁵⁰³⁾ 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심봉사 이 말 듣더니,

“에이? 이거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여? 심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나?

내가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웬 말이여?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어오다니

웬 말이나?

She pulls away the bead blind.
She runs to her father and hugs his neck.
“Oh, father!”
After calling him once, she can’t talk any longer.
Mr. Sim faintly hears her word.
He doesn’t know whether she is the empress, a maid, or a bystander.
He moves his blind eyeballs, showing the white spots irregularly.
“What? Father?
Who is calling me father?
I have neither a son nor a daughter.
I had a daughter, the only child,
but she drowned to death a few years ago.
Who is calling me father?”
The empress’s face is wet with tears.
“Alas,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Your bad daughter, Cheong, came back alive from Indang Water.”
Mr. Sim is surprised.
“Uh?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Sim Cheong?
Are you her soul?
Was I brought dead to the dragon palace?
Am I dreaming now?
What did you say?
My daughter, Sim Cheong, is dead.
How can she be here alive?
What did you say?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눈이 있어야 보제!²⁵⁰⁴⁾
 아이고, 답답하여라!”
 심황후 더욱 슬퍼,
 “아이구, 아버지! 제 효성이 부족하여,
 제 몸은 살아나고, 아부의²⁵⁰⁵⁾ 눈을 못 뗐으니,
 이 몸이 또 죽어서 옥황님전 호소하여 부친 눈을 띄우리다.”
 심봉사 질색하여,
 “또 죽다니?
 소름끼친 죽는단 말
 애비 있는 디 또 허느냐?
 내 딸이 살었다니, 눈 못 떠도 한이 없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제발 덕분에 죽지 마라.”
 이때의 용궁 시녀 용왕의 분부인지, 심봉사 어둔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에 청학²⁵⁰⁶⁾ 백학이 황극전²⁵⁰⁷⁾에 왕래하고,
 오색채운²⁵⁰⁸⁾이 두르더니,
 심봉사 눈을 뜨는디,
 “아이고, 이 어찌 눈이,
 눈이 이렇게 근질 근질허는고?
 어따, 이놈의 눈 좀 있으면 내 딸 좀 보세!
 우리 딸 좀 보자! 아!”

If you are my daughter, let me see you.
 Oh, but I don't have eyes!
 I feel suffocated!"

Empress Sim is all the more sad.
 "Alas, father! My filial piety was insufficient.
 I am alive, but you haven't yet opened your eyes.
 I will die again to appeal to the King of Heaven to open your eyes."

Mr. Sim is surprised.
 "Die again?
 I was chilled at your word of death.
 How can you say that again to your father?
 Since you are alive, I am happy even if I don't open my eyes.
 Don't die. Don't die!
 Please don't die."

At that moment, a maid from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of the dragon king spreads a medicine over his blind eyes.
 Suddenly, a blue crane and a white crane come to the palace.
 Colorful clouds surround it.
 Mr. Sim opens his eyes.
 "Oh, strange! My eyes!
 Why do my eyes feel itchy?
 If I have eyes, I could see my daughter!
 Let me see my daughter!"

65. (모든 맹인 개안) 심봉사가 눈을 뜨자, 천하 맹인들도 일시에 눈을 뜬다.

[아니리] “아니, 여기가 어디여?”

심봉사 눈 뜬 바람²⁵⁰⁹)에

만좌²⁵¹⁰) 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 맹인들이 모다 일시에 눈을 뜨는디,

심봉사는 약이나 뿌려 눈을 떴지마는,

다른 맹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는고 하니,

이 약은 약 냄새만 맡어도 눈을 뜨는 약이라,

약 냄새에 모다²⁵¹¹) 눈을 떠버렸것다.

또 그 당시에 있던 맹인들은 약 냄새나 맡고 눈을 떴지마는,

각처에 있는 맹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면,

이 약은 용궁 조화²⁵¹²)가 붙은 약이라,

약 기운이 별전 앞에서 짹 피져논 것이,

이 약 냄새가 꼭 맹인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눈을 모다²⁵¹³) 띄이는디,²⁵¹⁴)

[자진모리] 만좌 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 맹인이 눈을 뜰 제, 전라도 순창 담양 새 갈모²⁵¹⁵) 띄는²⁵¹⁶) 소리라.

‘ 짹 짹 짹짹’허더니마는 모다 눈을 떠버리는데,

석달열흘 큰 잔치으 먼저 와서 참례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의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²⁵¹⁷)되야 부득이²⁵¹⁸) 못 온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헌 맹인도 노중²⁵¹⁹)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 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휘모리] 가다 뜨고,

**65.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Once Mr.
Sim opens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Aniri] “Where am I?”

Once Mr. Sim opens his eyes,
all the blind in the seats and around the world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Mr. Sim opened his eyes because the medicine was spread over
him,

but the rest of the blind opened their eyes as follows:

Even the smell of the medicine can open blind eyes.

All the blind open their eyes thanks to the smell.

The blind in the palace open their eyes due to the smell,

but the blind in other places open their eyes as follows:

The medicine is miraculous because it is from the dragon palace.

Medicinal power spreads from the palace.

The medicinal smell travels only to the places where there are
blind people.

It opens all of their eyes.

[Jajinmori] All the blind in the banquet open their eyes.

When that happens, their eyes make sounds as if corks are
pulled out from bottles.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The blind who joined the long banquet earlier open their eyes
back in their homes.

The ill blind who had to stay home open their eyes in their
homes.

The blind who haven't yet arrived open their eyes on the streets.

All the blind open their eyes instantaneously.

[Whimori] Some open their eyes while going.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어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내다가²⁵²⁰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일허다가 뜨고,
 앉어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뜻 뜨고,
 눈을 끔적거리보다가도²⁵²¹ 뜨고,
 눈을 부벼보다가도 뜨고,
 지어비금주수²⁵²²라도 눈먼 김생²⁵²³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심청전 이 대문²⁵²⁴ 소리히는 것만 들어도
 명씨²⁵²⁵ 백여²⁵²⁶ 백태²⁵²⁷ 끼고, 다래끼 석 서는 디,²⁵²⁸ 핏대 서고,
 눈썹 끼고,
 원시 근시 궂인 눈²⁵²⁹도 모도 다 시원하게 낮는다고 허드라.

Some open, while coming.
Some open, standing.
Some open, sitting.
Some open without reason.
Some open unexpectedly.
Some open, venting anger.
Some open, getting angry.
Some open, crying.
Some open, laughing.
Some open, using strength.
Some open with great efforts.
Some open, trying to open.
Some open with ease.
Some open, while working.
Some open, playing on chairs.
Some open, waking up.
Some open, drowsing.
Some open, blinking their eyes.
Some open, rubbing their eyes.
Even blind animals open their eyes instantaneously.
The world becomes bright for them.
After that, once this part of Sim Cheong story is heard,
various eye diseases, such as sties, bloody, and gummy eyes,
are cured.
Far-sighted, near-sighted, and bad-looking eyes are corrected
too.

66. (맹인들 송축) 심봉사가 여러 맹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심생원도 그제야 정신 차려
좌우를 살펴보니,
칠모 금관²⁵³⁰) 황홀허신 어떠하신 부인 한 분이 옆에가²⁵³¹) 앉었거늘,
깜짝 놀래 내외한다고²⁵³²)
선뜻 돌아앉어 허는 말이,
“내가 이거 암만해도 나 꿈을 꾸는 것 아닌가?”
황후 부친을 붙들고,
“아버님. 제가 죽었든 청이옵니다.
살아서 황후가 되었나이다.”
심생원 깜짝 놀래,
“에이? 아이고, 황후마마!
군신지의²⁵³³)가 지중²⁵³⁴)허온디
황송무비²⁵³⁵)허옵니다.
어서 저 전상²⁵³⁶)으로 납시옵소서.”²⁵³⁷)
심생원이 말소리 듣고 전후 모습을 잠깐 보더니마는,
[중모래] “옳제, 인제 알겼구나. 내가 인제야 알겼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을 보지 못했으나,
인제 보니 알겼구나.
갑자 사월 초파일밤²⁵³⁸) 꿈속의 보든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죽었던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²⁵³⁹)허였는가?
내가 죽어서 따라왔나?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시²⁵⁴⁰)냐?”

**66. (The Blind Get Joyous.) Mr. Sim dances with the
blind in joy.**

[Aniri] Mr. Sim collects himself.

He looks around.

A fascinating lady with a jeweled hat is seated by him.

Surprised, he feels shy to face a woman.

He turns around and speaks.

“This can’t be real. I must be dreaming.”

The empress holds her father.

“Father, I am Cheong who once died.

I revived and became an empress.”

Mr. Sim is surprised.

“Oh, Your Highness!

There is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a king and a subject.

I am awe-stricken.

Please move to the honored place.”

Mr. Sim listens to and takes a close look at the empress.

[Jungmori] “Yes! I see now. I now realize.

I couldn’t see my daughter before because I was blind.

I now realize since I can see her.

I saw my daughter in the dream I had before you were born.

I see my daughter again who once died.

Were you reincarnated?

Did I follow you to the world of the dead?

Is this a dream?

Is this real?

꿈과 생시 분별을 못 허겼네.
 얼씨구나 좋을시고.
 절씨고나 좋을시고.
 아까까지 내가 맹인이라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나,
 인제부터 새 세상이 되니
 지팡이도 작별허자.
 너도 날 만나 고생 많이 했다.
 너 갈 데로 잘 가거라.”
 피르르르르 내던지며,
 “얼씨구나 좋을씨고.”
[중중모리] “얼씨구나 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네. 절씨구나 좋을시고.
 어둡던 눈을 뜨고 보니 황성 궁궐이 장엄허고,
 궁 안을 살펴보니,
 창해 만 리²⁵⁴¹) 먼먼 길 인당수 죽은 몸이
 환세상의²⁵⁴²) 황후 되기 천천만만²⁵⁴³)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고.
 어둡침침 빈 방안으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²⁵⁴⁴)으 자룻²⁵⁴⁵) 본 듯이 반갑네.
 ‘홍진비래²⁵⁴⁶)
 고진감래’²⁵⁴⁷)
 날로²⁵⁴⁸) 두고 이름이요,
 ‘부중생남중생녀’²⁵⁴⁹)
 날로 두고 이름이로구나.
 얼씨구나 좋을시고.”
 여러 봉사들도 눈을 뜨고,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ream and reality.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I have used a cane because I was blind,
but I entered a new world.
Let me say good-bye to it.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because you met me.
Go anywhere you want."
He throws his cane away.
"Yippee! Whoopee!"

[Jungjungmori]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Oh, boy!
I now see the palace in the capital city is magnificent.
Let me look inside the palace.
I thought my daughter died in Indang Water in the wide blue
see.
I didn't imagine she came back and became an empress.
Hurrah! Hurray!
I am glad as if a lamp brightens a dark empty room.
I feel good as if I see backup when surrounded by enemies.
'Sad days are followed by happy days.
Sweetness comes after bitterness.'
These sayings apply to me.
'A daughter is better than a son.'
That saying applies to me too.
Yippee! Whoopee!"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춤을 추며 송덕²⁵⁵⁰을 허는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고.
 이 덕이 뉘 덕이냐?
 황후 폐하의 성덕²⁵⁵¹이라.
 일월이 밝어 중화²⁵⁵²허니,
 요순 천지²⁵⁵³가 되었네.
 태고적²⁵⁵⁴ 시절 이래로 봉사 눈 뵈단 말 처음 들었네.
 얼씨구나 절씨고.
 덕점삼황²⁵⁵⁵으 공과오제²⁵⁵⁶ 황제 폐하도 만만세.²⁵⁵⁷
 태임²⁵⁵⁸ 태사²⁵⁵⁹같은 여중요순²⁵⁶⁰이라 황후 폐하도 만만세.
 천천만만세²⁵⁶¹ 성수무강²⁵⁶²허옵소서.
 얼씨구나 절씨구.
 심생원은 천신이 도와서 어둔 눈을 다시 뜬 연후으,
 죽었든 따님을 만나보신 것도 고금의²⁵⁶³ 처음 난 일이요,
 우리 맹인들도 잔치에 왔다가 열좌맹인²⁵⁶⁴이 눈을 뵈으니,
 춤출 무 자²⁵⁶⁵가 장관²⁵⁶⁶이로다.
 얼씨구나 절씨고. 얼씨고 절씨고 기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67. (황봉사 뉘우침) 황봉사는 눈을 못 뜨다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한쪽 눈만 뜬다.

[아니리] 여러 맹인들도 눈을 뜨고 심생원 함께 춤을 추고 노는데,
 그 중에 눈 못 뜬 맹인 한나²⁵⁶⁷가
 아무 물색²⁵⁶⁸도 모르고 함부로 뛰고 놀다가,

They dance in joy and praise Empress Sim.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Oh, boy!
 Hurrah! Hurray!
 Who is to take the credit for this?
 The empress is to take the credit.
 The sun and the moon shine on this country.
 It became a paradise.
 This is the first time a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Yippee! Whoopee!
 Hurrah for the emperor who is more virtuous than ancient kings!
 Hurrah for the empress who is more virtuous than ancient queens!
 May the emperor and the empress live long!
 Hurrah! Hurray!
 Mr. Sim opened his blind eyes with the help of God.
 It is an unprecedented event to see a dead daughter again.
 We, the blind people, opened our eyes in a banquet together.
 We should dance about this spectacular event.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Oh, boy!
 Can there be more delightful event than this?”

**67. (Mr. Hwang Repents.) Mr. Hwang makes a confession
of his wrong behavior and opens only one eye.**

[Aniri] Mr. Sim and other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nd
 dance in joy,
 but one blind person hasn't opened his eyes.
 He dances wildly without knowing anything.

여러 맹인들 눈 떴단 말을 듣더니마는
 한편에 펍씩 주저앉어 방성통곡²⁵⁶⁹으로 우는지라.
 심황후 보시고 분부하시되,
 “다른 봉사는 다 눈을 떴는디,
 저 봉사는 무슨 죄가 지중하여 홀로 눈을 못 떴는지
 사실²⁵⁷⁰하야 아뢰어라!”
 “아뢰어라!”
 황봉사가 복지하여²⁵⁷¹ 아뢰는디,
 [중모레] “예, 소맹²⁵⁷²이 아뢰리다.
 예! 예! 예! 예! 소맹이 아로리다.²⁵⁷³
 소맹의 죄상²⁵⁷⁴을 아뢰리다.
 심부원군²⁵⁷⁵ 행차시²⁵⁷⁶으,
 뽕덕이네라 허는 여인을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서 유숙²⁵⁷⁷을 하시는디,
 밤중으 유인하여 함께 도망을 허였더니,
 그날 밤 오경시²⁵⁷⁸으 심부원군 울음소리 구천으²⁵⁷⁹ 사무쳐서,²⁵⁸⁰
 명천²⁵⁸¹이 죄를 아신 배라,²⁵⁸²
 눈도 뜨지 못했으니,
 이런 천하²⁵⁸³ 몸쓸 놈을
 살려두어 무엇허오리까?
 비수검²⁵⁸⁴ 드는 칼로 당장으 이 목을 베어주오.”
 [아니레] “죄상을 생각허면 죽여 마땅허거니와,
 제 죄를 지가²⁵⁸⁵ 아는 고로²⁵⁸⁶
 개과천선²⁵⁸⁷할 싹이 있는지라,
 특히 약을 주는 것이니
 눈을 한번 떠보라!”

He hears that others have opened their eyes.
He sits down heavily in a corner and cries loudly.
The empress watches him and gives an order.
“All the other blind people have opened their eyes,
but that blind person must have done something wrong not to
open his eyes.
Investigate and report to me!”
“Tell me the truth!”
Mr. Hwang kneels down and reports.
[Jungmori] “Let me report to you, Your Highness.
Yes, yes, yes, yes! Let me speak to Your Highness.
Let me confess my wrongdoing.
Mr. Sim was on his way here.
He was with a woman called Bbaengdeok.
They stayed in an inn.
I enticed her at night and eloped with her.
I heard Mr. Sim’s sad cry early in the morning.
Heaven knows about my wrongdoing.
So I am still blind.
I am really a useless man.
What would be the use of letting me live?
Please kill me with a sharp sword right away.”

[Aniri] In view of your wrongdoing, you deserve to die,
but you repent of your wrongdoing.
You have the potential to improve.
I will give you this medicine.
You will open your eye.”

용궁 시녀 약 갖다가 황봉사 눈에 발라주니,
 황봉사가 한참 눈을 끔적끔적 야단을 허더니마는,
 한 눈만 계우²⁵⁸⁸) 딱 떠는 것이
 총 놓기²⁵⁸⁹) 좋게 되었었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²⁵⁹⁰)에 필유여경²⁵⁹¹)이요,
 적약지가²⁵⁹²)에 필유여양²⁵⁹³)이라.
 어이 천도²⁵⁹⁴)가 없다 헐 것이뇨?²⁵⁹⁵)

68. (후일담) 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린다.

[엇중모리] 그 때으 천자께서 심생원을 입시²⁵⁹⁶)시켜
 부원군을 봉허시고,²⁵⁹⁷)
 광씨부인 영위²⁵⁹⁸)에는 부부인²⁵⁹⁹) 가자²⁶⁰⁰) 추증,²⁶⁰¹)
 치산²⁶⁰²)과 석물²⁶⁰³) 범절²⁶⁰⁴) 국릉²⁶⁰⁵)과 같이 허고,
 안씨맹인 교지²⁶⁰⁶)를 내려 정렬부인²⁶⁰⁷) 봉허시고,
 무릉촌 장승상부인은 별급상사²⁶⁰⁸)허신 후으,
 그 아들은 직품²⁶⁰⁹)을 돈우와²⁶¹⁰) 예부상서 시키시고,
 젓 맥이던 귀덕어머니는 천금상²⁶¹¹)을 내리시고,
 화주승²⁶¹²)을 불러 올려 당상²⁶¹³)을 시키시고,
 꽃 바친 도선주²⁶¹⁴)는 본성 태수²⁶¹⁵) 제수²⁶¹⁶)허고,
 새로 눈 뜬 사람 중으 유식자²⁶¹⁷) 벼슬 주고,
 무식자²⁶¹⁸) 직업 주어 각기 돌려보내시고,
 무릉태수 형주자사는 내직²⁶¹⁹)으로 입시허고,

The maid from the dragon palace applies the medicine to his eyes.

Mr. Hwang moves his eyeballs around for a while.

He manages to open only one eye.

He is perfect for shooting a gun.

In view of this, a remaining fortune follows repeated good deeds.

A remaining misfortune follows repeated bad deeds.

This is the way the world is.

68. (Subsequent Story) The emperor gives government positions and rewards to many people.

[Eotjungmori] The emperor calls Mr. Sim to see him.

He officially declares him the father of the empress.

He grants an honorary post to Mrs. Gwak's soul.

He orders to rebuild her tomb to make it a royal one.

A government position is given to Mrs. An.

A reward is granted to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r son is promoted to a higher government position.

A lot of money is given to Mrs. Gwideok who gave Sim Cheong milk.

A government position is secured for the buddhist monk.

A governor position is granted to the owner of the boat who donated the flower.

Government jobs are assigned to the educated blind who just opened their eyes.

Jobs are given to the uneducated blind.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is transferred to a posi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²⁶²⁰)을 없애시니,
천천만만세²⁶²¹)를 부르더라.
언재무궁²⁶²²)이나
고수 팔도 아플 것이요,
소리꾼 목도 아플 지경이니,
어질더질.²⁶²³)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 from taxes,
So, everybody wishes a long life to the emperor.
There are more things to say,
but the drummer must be tired in his arms,
and the singer's throat must be dried.

-
- 1) 元豐.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2) 末年. 어느 기간의 마지막 몇 해 동안.
 - 3) 黃州 桃花洞. 중국의 지명.
 - 4) 눈이 멀거나 어두워 못 보는 사람. 장님.
 - 5) 累代. 여러 세대에 걸치는 기간.
 - 6) 簪纓之族.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의 자손. '잠영'은 관원이 쓰는 관에 꽂는 비녀와 갓끈이라는 뜻인데, 바뀌어 '양반'을 뜻함.
 - 7) 文名. 글을 잘하여 드러난 이름.
 - 8) 藉藉터니. 자자하더니. (퍼진 소문 따위가) 왁자하더니.
 - 9) 家運. 집안의 운수.
 - 10) 零替. 세력이나 살림이 차차 아주 보잘 것 없이 구차하게 됨.
 - 11) 眼盲하니. 눈이 머니.
 - 12) 洛水靑雲에 발자취 끊어지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낙수청운'은 벼슬길을 이르는 말.
 - 13) 金章紫綬. 재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황금으로 된 인(印)과 이를 몸에 차기 위한 자줏빛으로 된 끈. 따라서 '금장자수'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나타냄. '인'은 벼슬자리에 임명될 때 임금으로부터 받는, 신분이나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관인(官印).
 - 14) 功名. 공을 세워 드러난 이름.
 - 15) 鄉曲. 시골구석.
 - 16) 困한. 어려운.
 - 17) 強近한. 촌수가 매우 가까운.
 - 18) 眼盲. 눈이 멀. 눈이 보이지 않음.
 - 19) 누가.
 - 20) 아내.
 - 21) 賢哲히여. 어질고 총명하여.
 - 22) 任姒.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과, 문왕(文王)의 비(妃)며, 무왕(武王)의 어머니인 태사(太姒)를 함께 일컫는 말.
 - 23) 莊姜. 중국 춘추시대의 위나라 장공(莊公)의 아내로 얼굴이 매우 예뻐다고 함.
 - 24) 木蘭. 중국의 장편 서사시 <목란사(木蘭辭)>에 나오는 주인공. 양(梁)나라 때, 여자의 몸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자 복장을 하고, 멀리 북쪽 국경까지 가서 12년간이나 싸움을 하고 돌아왔다고 함.
 - 25) 節行. 절개 있는 행동.
 - 26) 禮記. 예의 이론과 실재를 기록한 책으로, 유교 경전의 하나.
 - 27) 家禮. 《주자가례(朱子家禮)》. 명나라 때 구준(丘濬)이 가례(집안에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준하여 행하는 예법)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 28) 內則篇. 《예기》의 편명(篇名).
 - 29) 周南. 《시경》 <국풍>의 첫 편 이름.
 - 30) 召南. 《시경》의 편명

- 31) 關雎詩. 《시경》 〈국풍〉의 첫 시 이름. 주나라 문왕과 그 후비(后妃)의 성덕을 읊은 시임.
- 32) 전혀 없고.
- 33)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제사를 지냄.
- 34) 接賓客. 손님을 접대하는 일.
- 35) 家長. 집안의 어른. 남편.
- 36) 治産凡節. 살림살이를 하고 예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태도.
- 37)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38) 夷齊. 백이(白夷)와 숙제(叔齊)를 아울러 일컫는 말. 백이와 숙제는 중국 은(殷)나라의 처사로서,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렸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했다.
- 39) 清廉. 마음이 깨끗하고 재물을 탐내지 않음.
- 40) 顏淵. 안자(顔子).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으나 요절하였다.
- 41) 버려. 잘 간수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면서.
- 42)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 43) 품삯을 받고 해주는 바느질.
- 44)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킴.
- 45) 道服. 도사가 입는 옷.
- 46) 行衣. 소매가 넓고 검정색 천으로 가를 꾸민, 선비의 옷.
- 47) 弊衣. 소매가 넓고 뒷술기가 갈라진 옷.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던 옷.
- 48) 直衿. 무관이 입던 옷의 하나.
- 49) 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을 넣고 뒷술기를 길게 켜 군복.
- 50) 快子. 등술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
- 51)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폭으로 된 남자의 옷.
- 52) 작은 바늘로 가늘게 누비는 바느질.
- 53)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겉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54) 바느질의 한 종류인 듯하나 불명.
- 55) 단 하나의 울로 뜯은 망건이나 탕건.
- 56) ‘괴불’인 듯. 괴불은 괴불주머니로, 어린 아이들이 주머니 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형겹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남.
- 57) ‘곤추누비’의 잘못.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58) 솔오리기. 옷 솔기를 오리는 일. ‘솔기’는 옷이나 이부자리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
- 59) 망건(網巾). ‘망건’은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60) 櫛子. 거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조끼와 비슷한데, 주머니와 소매가 없고, 양 옆구리의 귀가 겨드랑이 밑까지 터졌음.
- 61) 토시.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 쪽은 넓고, 한 쪽은 좁음.
- 62)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장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63) 布帶. 베로 만든 띠.
- 64) 대님.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줄라매는 좁다란 끈.
- 65) 주머니.
- 66) 담배 또는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기름종이·형겔·가죽 따위로 만들.
- 67) 염낭(髻囊). 두루주머니.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끈 두 개를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된 주머니. 끈을 줄라매면 전체가 거의 둥글게 됨.
- 68) 筆囊. 붓을 넣어 두는 주머니.
- 69) ‘휘항(揮項)’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70) 불개.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겔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멤.
- 71)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겔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댐.
- 72) 풍차(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 토끼·여우·수달·곰 같은 것의 모피로 만들며, 앞은 이마까지 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임. 남녀의 것이 조금 다름.
- 73) 처네.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74) 周衣. 두루마기.
- 75) 온갖.
- 76) 衾枕. 이불과 베개.
- 77) 베갯모.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꾸밈새. 조그마한 널조각에 수를 놓은 형겔을 덮어 끼거나, 화각(畵角)을 대는데, 대개 남자의 것은 네모지게 만들고, 여자의 것은 둥글게 만들. ‘화각’은 목기나 세공품을 곱게 구미는 꾸밈새의 한 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쇠뿔을 얹게 오래 덧붙임.
- 78) 雙鴛鴦. 암수 한 쌍의 원앙새.
- 79) 花冠. 꽃이나 칠보로 꾸민 여자들의 머리쓰개의 한 가지.
- 80) 圓衫. 여자의 예복의 한 가지로,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아 짓는다.
- 81)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내려 써, 온 몸을 가리던 옷. 초록색 바탕에 흰 끝등을 달았으며, 두루마기와 비슷함. 좀 낮은 계급에서 쓰는데, 젊으면 청, 녹, 황색을 많이 쓰고, 늙으면 흰색을 씀. ‘장의(長衣)’라고도 함.
- 82) 文武百官. 문반과 무반의 모든 관리.

- 83) 胸背. 조선 시대에, 문무관(文武官)이 입는 관복의 가슴과 등에 학이나 범을 수놓아 붙이던 사각형의 표장(表章).
- 84) 외鶴. 한 마리의 학. 문관의 종삼품 이하 관원의 흉배에는 한 마리의 학을 수놓았음.
- 85) 雙鶴. 두 마리의 학. 문관의 정삼품 이상 관원의 흉배에는 두 마리의 학을 수놓았음.
- 86) 호랑이. 무관의 흉배에는 호랑이를 수놓았는데, 정삼품 이상의 관원은 두 마리의 호랑이를, 종삼품 이하의 관원은 한 마리의 호랑이를 수놓았음.
- 87) 여기서는 ‘수놓기’라는 뜻임.
- 88) 冥帽. 죽은 사람의 머리를 싸는 형묘.
- 89) 握手. 죽은 사람의 손을 싸는 형묘.
- 90) 祭服. 의식 때에 입는 옷.
- 91) 論之하면. 따져서 말하면.
- 92) 宮綃. 비단의 한 가지. 넓고 무늬가 둥근데, 흔히 땀깃감으로 씀.
- 93) 貢緞.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 94) 水紬. ‘수화주(水禾紬)’나 ‘수아주’의 준말. 품질이 아주 좋은 비단.
- 95)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96)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97) 甲紗. 품질이 좋은 성글게 짠 비단.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98) 雲紋 ‘운문단(雲紋緞)’인 듯. ‘운문단’은 구름무늬를 수놓은 비단.
- 99) 吐紬. 두껍고 누르스름한 명주.
- 100) 甲紬. 품질 좋은 명주.
- 101) 盆紬. 황해도·평안도에서 나는 명주.
- 102) 縹紬. 오색 빛 명주.
- 103) 明紬.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베.
- 104) 生絹. 생사로 얇게 짠 비단. ‘생사’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명주실.
- 105) 通絹. 싹 성글고 얇게 짠 비단.
- 106) 造布. 함경북도에서 나는 베의 한 가지. 너비가 좁고 두꺼우며 촘촘하게 짠.
- 107) 北布. 함경북도에서 나던, 울이 가늘고 고운 삼베.
- 108) 黃紵布. ‘계추리’를 말하는데, ‘계추리’는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 109) 春布. 강원도에서 나던 베.
- 110) 門布. 삼베의 한 가지로, 중국 책문(柵門) 지방에서 남.
- 111) 계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 112) 白苧. 잿물에 삶아서 물에 빨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모시. 눈모시. 흰모시.
- 113) 極上細木. 아주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 114) 沈香. 황갈색.
- 115) 五色. 다섯 가지 색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을 이른다.
- 116) 喪服.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예복. 성긴 삼베로 만들되, 그냥 대강 꿰매거나, 재단만 하고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음.

- 117) 婚大事. 혼인 등 큰 일.
- 118) 熟政. 음식을 만드는 일.
- 119) 떡의 한 가지. 멥쌀가루에 막걸리를 탄 더운 물을 붓고 질척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하룻밤쯤 부풀리어 틀에 담아 붓고, 밤·대추·잣 등을 얹어서 찜.
- 120) 중계(中桂). 유밀과의 한 가지.
- 121) 藥果. 과줄. 유밀과의 한 가지. 밀가루를 꿀물 또는 설탕물과 기름에 섞어 반죽을 한 뒤에, 과줄판에 박아서 속까지 검은 빛이 나도록 기름에 지지어 익힌 것.
- 122) 박산(薄楸). 유밀과의 한 종류. 산자의 몸이나 혹은 엿을 얹고 반듯하게 베고,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 쪽에 붙임.
- 123) 茶食. 녹말·콩·송화·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음식.
- 124) 煎. (재료를 얇파하게 썰어서 밀가루를 묻히어) 기름에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25) 花菜. 꿀이나 설탕을 탄 오미자국에 과실을 썰어 넣거나 꽃잎을 넣고 잣을 띄운 음료.
- 126) 상 위에 놓고 열구자탕을 끓이는 그릇. 구리·놋쇠·은 따위로 만든 대접처럼 생긴 그릇인데, 가운데 솥불을 넣는 통이 있고, 통 주위에 음식을 넣어 끓이며, 밑 부분엔 굽이 있음.
- 127) 饌需. 반찬거리.
- 128) 수파련(水波蓮). 잔치 때에 차례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 129) 잔치 때 차례로 쓰는 꽃 따위의 여러 가지 형상을 오려서 만드는 일.
- 130) 排床하기. 상 놓기. 상차리기.
- 131) 꿰질. 떡·과자·과일같은 것을 접시 따위에 높이 담아 올리는 일.
- 132) 하루.
- 133) 아주 짧은 시간.
- 134) 옛날 엽전의 단위로, 한 돈의 10분의 1.
- 135)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136) 냥. 엽전을 셀 때 열 돈에 해당하는 단위.
- 137) 貫돈.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138) 日收. 본전에 이자를 얹어서 일정한 날짜에 나누어 날마다 얼마씩 갚아나가는 일, 또는 그 빚.
- 139) 遞計. 장체계(場遞計).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주고 장날마다 본전에 이자를 얹어 받아들이는 일.
- 140) 長利邊. 장리로 받는 이자. '장리'는 곡식이나 돈을 꾸어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에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일.
- 141) 春秋時享. 봄, 가을에 가묘(家廟)나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묘사.
- 142) 始終. 처음과 끝.
- 143) 如一. 한결같음.
- 144) 上下村. 위아래 동네.
- 145) 누가.
- 146) 至誠. 지극한 정성.

- 147) 恭待.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48) 發하여. 생겨서. 일어나서.
- 149)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150) 年當四十. 나이가 사십이 됨.
- 151) 膝下. 아버지의 곁.
- 152)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153)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154) 香火. 향불. 제사를 올릴 때 피우는 향불.
- 155) 尼丘山.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 이름.
- 156) 致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신이나 부처에게 정성을 드림.
- 157) 供. 신이나 부처에게 음식이나 재물, 기도 등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 158) 때.
- 159) 샅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어서.
- 160)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161)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162) 古廟. 오래 된 사당.
- 163)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164) 城隍堂. '서낭당'의 원말. '서낭당'은 서낭신을 모신 집.
- 165) 石佛. 돌부처.
- 166) 菩薩. 부처의 다음 가는 성인. 고승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
- 167) 彌勒. 돌부처를 널리 이르는 말.
- 168) 허우적거리는 모양.
- 169)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 170)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 171) 百日山祭. 백일 동안 산에 제사 드리는 일.
- 172) 帝釋佛供. 부처님께 드리는 불공.
- 173) 신중(神衆)맞이. 여러 신장(神將)에게 드리는 공.
- 174) 袈裟시주. 중이 입는 옷인 가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대는 일.
- 175) 引燈시주.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 데 쓰는 기름을 사서 바치는 일.
- 176) 窓糊시주. 절에 있는 방의 문에 문종이를 발라주는 일.
- 177) 다리권선(勸善). 다리를 놓는 데 비용을 대는 일
- 178) 길닦기. 길을 만들어 착한 일을 함.
- 179) '성조(成造)'라고도 함.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180) 竈王에다가. '조왕'은 조왕신(竈王神). 부엌을 지킨다는 신(神).
- 181) 堂山. 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곳.
- 182) 天龍. 민속에서 장독대를 담당한다는 신.

- 183) 中天群雄. 하늘에 있는 군웅신. ‘군웅신’은 무속의 신의 하나.
 184) 地神祭. 땅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185) 힘든. 힘들여 심은.
 186) 갑자년(甲子年). 육십갑자의 첫째 해.
 187) 天氣. 날씨.
 188) 明朗. (어두운 기운이 없이) 밝고 환함.
 189) 瑞氣. 상서로운 기운.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기운.
 190) 반공(蟠空)하더니. 공중에 서리더니.
 191) 仙人. 신선.
 192) 玉女. 선녀.
 193) 空中으로. 공중에서.
 194) 綵緞. 온갖 비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
 195) 花冠. 꽃이나 철보로 꾸민 여자들의 머리쓰개의 한 가지.
 196) 月佩. 가슴이나 허리에 차는 달 모양의 옥으로 된 장신구.
 197) 느긋이. 조금 느슨하게.
 198) 玉佩소리. 옥으로 만든 패물이 부딪쳐서 나는 소리.
 199) 琤琤하더니. 맑은 소리가 들리더니. ‘쟁쟁’은 옥이 울리는 맑은 소리.
 200) 桂花가지. 계수나무의 가지.
 201) 夫人前. 부인께.
 202) 拜禮. 절을 하는 예.
 203)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204) 달의 정기(精氣).
 205) 觀音. 관세음보살.
 206) 海中에. 바다 가운데. 여기서는 ‘해중으로부터’라고 해야 할 듯함.
 207) 皓齒. 흰 이빨.
 208) 半開하여. 반만 열어.
 209) 碎玉聲. ‘옥을 깨뜨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르는 말.
 210) 晏然히. 맑고 아름답게.
 211)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212) 養女. 수양딸.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213) 文昌星. 북두칠성의 첫째 별. 여기서는 신선의 이름임.
 214) 定婚. 혼인하기로 정함.
 215) 行禮. 의식을 치름.
 216) 天命. 하늘의 명.
 217) 天下. 온 세상.
 218) 蒼生. 백성.

- 219) 人間下降.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옴.
- 220) 바라고.
- 221) 어여쁘게. 예쁘게.
- 222) 南柯一夢. 중국 당나라 때의 이공좌(李公佐)가 지은 소설 <남가기(南柯記)>에서 유래된 말로 '덧없이 지나간 한 때의 부귀와 영화가 꿈과 같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223)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224) 夢事. 꿈에 관한 일.
- 225) 喜樂. 기쁘고 즐거움.
- 226) 胎氣. 아이를 뱃 기미.
- 227) 十朔. 열 달.
- 228)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29)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30)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31)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232) 立不蹕(立不蹕). 한 쪽 발로 비스듬히 서지 않음.
- 233) 臥不側. 옆으로 눕지 않음.
- 234) 然後(然後)에.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 235) 解腹. 해산(解產). 출산.
- 236) 機微. 어떤 일의 조짐.
- 237) 一邊. 한 편.
- 238) 벋짚을 깔아 만든 자리. 예전에는 벋짚을 깔고 출산을 했음.
- 239) 井華水. 첫 새벽에 길은 우물물. 정성을 들이는 일이나 약 달이는 데에 쓴다.
- 240) 小盤. 자그마한 밥상.
- 241) 坐不安席(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함.
- 242) 順產.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음.
- 243) 香臭. 향기로운 냄새.
- 244)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 245) 仙人. 신선.
- 246) 玉女. ① 선녀. ② 남의 딸을 높여 이르는 말. ③ 마음과 몸이 옥같이 깨끗한 여자.
- 247) 그때야. 그때서야.
- 248) '삼'의 잘못, 태아를 싹 막과 태반(胎盤).
- 249) 출산 후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국과 밥. 주로 미역국과 쌀밥을 먹음.
- 250) 滿心歡喜. 마음에 만족하도록 흐뭇한 기쁨.
- 251) 順產. 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
- 252) 男女間에. 남자와 여자 중에. 아들과 딸 중에.

- 253) 大笑. 크게 웃음.
 254)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255) 갓 낳은. 금방 낳은.
 256) 兒孩. 아이.
 257) 내려가면서.
 258) 可觀. 볼 만함. 구경거리로 될 만함.
 259) 명치뼈. 가슴뼈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내민 뼈.
 260) 이제.
 261) 사타구니.
 262)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방해가 되는 모양.
 263) 낳았는가보오.
 264) 晚得. 늦게 얻음.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음.
 265) 千千萬萬. ‘천만’을 강조한 말.
 266)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267) 바꾸겠소?
 268) 곱게.
 269) 針線. 바느질.
 270) 紡績. 길쌈.
 271) 窈窕淑女. 마음씨가 착하고 자태가 아름다운 여자.
 272) 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배필. ‘군자’는德行과 학식이 있는 남자를 가리키나, 조선조 때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로도 썼음.
 273) 부부가 사이 좋게 지냄. ‘금슬우지’는 《시경》〈주남(周南)〉〈관저(關雎)〉에서 나온 말.
 274) 宗사위. 아들 대신 대를 이어줄 사위.
 275) 秦晉. ‘진진지의(秦晉之誼)’의 준말. 새로 혼인한 양 집안의 사이가 좋음을 뜻함.
 276) 外孫奉祀. 외손자가 제사를 받들어 모심.
 277)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278) 뵈니까?
 279) 비시오.
 280)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281) 整齊.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함.
 282) 合掌. 두 손을 모음.
 283) 태워주시라고. 타게 해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284) ‘장님으로서의 성품, 혹은 성질’이라는 의미인 듯.
 285) 똑성. 화를 낸 음성.
 286) 싸움.
 287) 불교 용어로,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慾界) 여섯, 색계(色界) 열여덟, 무색계(無色界) 아홉 하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
 288) 忉率天. 불교의 욕계(慾界) 육천(六天)의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

- 은 미륵보살이 살면서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 장소라고 함.
- 289) 帝王님네. 여러 신들.
- 290)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291)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 292) 달에.
- 293) 엉기고. 묶은 것이 목처럼 되직하여지고.
- 294) 人形. 인간의 형체.
- 295) 생겨.
- 296)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신장, 폐장, 비장.
- 297) 六情. 사람의 여섯 가지 감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 298) 생겨나. 생겨.
- 299) 칠구(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구멍이라고도 함.
- 300) 九竅. 칠구에다 똥, 오줌 구멍을 합한 아홉 개의 구멍.
- 301)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陰門).
- 302)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陰門).
- 303) 축내거나 다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 304)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305) 獨女.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 306)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307) 命. 수명.
- 308)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309) 大舜. 중국의 순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어리석은 아버지와 악독한 계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계모가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겼음.
- 310) 曾子. 이름은 삼(參). 공자의 제자 일흔두 명 가운데 특히 중자와 민손(閔損)을 효자로 꼽는다. 일찍이 외밭을 가꾸다가, 외 덩굴을 다치게 했다고 꾸짖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부른 일로 공자에게 꾸중을 들은 후에는 효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다. 《효경(孝經)》과 《대학(大學)》을 지었다.
- 311) ‘기량식(杞梁殖)의 처(妻)’의 잘못. 기량식은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의 장공(莊公)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의 처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이나 울자 마침내 성이 무너졌다. 기량식의 처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치수(淄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 312) 節行. 절개 있는 행동.
- 313) 班姬. 반첩여(班婕妤). 중국 한나라의 여류시인. 반황(班況)의 딸. 성제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중드는 동안 서글픈 마음을 시로 읊었는데,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314) 才質. 재주와 기질.

- 315) 石崇,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락(幸樂)을 누렸다 함. 땔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316) 불어나듯.
- 317) 자주 앓는 자질구레한 병.
- 318)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진보하거나 자라남.
- 319) 產母.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 출산한 여자.
- 320) 어른는데.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 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데.
- 321) 보는 것이나.
- 322) 어른던. '어르다'는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 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다.
- 323) 金子童. 금자동이. 어린아이를 금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324) 玉子童. 옥자동이. 어린아이를 옥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325) 주유천하무쌍둥(周遊天下無雙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아도 둘도 없는 귀한 아이.
- 326) 생겨나? 생겨났나?
- 327) 하늘.
- 328)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峯)하더니. 여름 구름이 뭉게뭉게 떠올라 하늘에 기이한 산 봉우리를 많이 이루더니.
- 329) '표진강'의 잘못. 《숙향전(淑香傳)》의 주인공 숙향이 빠져 죽으려다가 항아의 도움으로 살아난 강 의 이름.
- 330) 고전 소설 《숙향전(淑香傳)》의 주인공.
- 331) 幻生. 형상을 바꾸어 다시 생겨남.
- 332) 南田北畵. '남쪽에 있는 밭과 북쪽에 있는 논'이라는 뜻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논과 밭을 이룸.
- 333) 天庭. 두 눈썹 사이 또는 이마를 이르는 말.
- 334) 廣闊. 몹시 넓음.
- 335) 좀 길게 생김.
- 336) 쌍꺼풀진.
- 337) 양미간(兩眉間). 두 눈썹 사이.
- 338) 편편한.
- 339) 컷볼. 컷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
- 340) 위에서 아래로 늘어진.
- 341) 동그스름한.
- 342)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게.

- 343) 解腹. 아이를 낳음. 해산(解産).
- 344) 初七日. 처음 칠일. 첫 이레. 태어난 지 칠일이 되는 날.
- 345) 朝夕炊飯.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음.
- 346) 外風. 바깥바람.
- 347) 過히. 지나치게 많이.
- 348) 産後別症. 아이를 낳은 후에 조섭을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증세.
- 349) 滿身. 온 몸. 온 몸에 차서 가득함.
- 350) 喘促. 가쁘게 숨을 쉬면서 헐떡거림.
- 351) 食飲. 먹고 마시는 일.
- 352) 全廢. 전혀 하지 않음.
- 353) 家君님.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일컫는 말.
- 354) 아마도.
- 355) 問醫. 의원에게 물어봄.
- 356) 死病. 살 가망이 없는 중한 병.
- 357) 無藥. 약이 없음.
- 358) 一分. 사소한 부분이나 작은 양.
- 359) 效差. 좋은 효과.
- 360)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361) 遺言. 죽음에 임하여 가족이나 사회에 남기는 말.
- 362) 부등키어 붙들어 잡고.
- 363) 一身. 한 몸.
- 364)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부부가 함께 늙음.
- 365) 忘世. 죽음.
- 366) 初終葬事. 초상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곧 사람이 죽은 때부터 장례를 다 마치기까지의 일. '졸곡'은 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 367) 然後에. 뒤에.
- 368) 죽자고 하였더니.
- 369) 天命. 타고난 수명.
- 370) 어찌할 수 없이.
- 371) 四顧無親. 사망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 372) 孑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373) 전혀 없어.
- 374) 알맞거나 좋은 기회.
- 375) 땅이 움푹 패어 들어간 곳.
- 376)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377) 모양.
- 378) 魂魄. 넋.
- 379)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380)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드리는 공.
 381) 黃泉길.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
 382) 天幸. 하늘이 준 행운.
 383) 墳墓. 무덤.
 384) 母女相逢.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남.
 385) 남겨두고.
 386) 永訣.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387) 哀痛. 몹시 슬퍼함.
 388) 傷하게. 다치게.
 389) 千萬保重. 매우 몸을 아끼어 건강에 주의하고 온전하게 유지함.
 390) 此生. 이승.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391) 未盡恨. 다하지 못한 한.
 392) 後生애나. 죽어서 저승에서 사는 삶에서나.
 393) 사십시다.
 394) 끌어당겨.
 395)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어내면서 소리를 내고.
 396) 얼굴.
 397) 진작. 좀 더 일찍이.
 398) 생겼거나. 태어났거나.
 399) 죽는.
 400) 生死間에. 죽든지 살든지 간에. 죽거나 살거나 모두.
 401) 무슨.
 402) 亡終. 마지막.
 403) 後嗣. 대를 이을 자식.
 404) 잊었나이다. 잊었습니다.
 405) 어린 아이의 머리에 씌우는 수놓은 모자의 한 가지.
 406) 金字. 금실로 수놓은 글자.
 407) 진주로 만든 느낌. '느낌'은 장막같은 데 꾸밈새로 늘어뜨린 좁은 형꼴이나 줄 따위.
 408) 여자아이들의 노리개의 한 가지. 고운 색 형꼴을 등글거나 혹은 병 모양같이 만들어서 두 쪽을 맞대고 수를 놓기도 하며, 다른 색깔의 형꼴으로 알록달록하게 바르기도 하여 끈을 매어 참.
 409) 新行函. 혼인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함.
 410) 끼었던.
 411) 玉指環. 옥으로 만든 반지.
 412) 작으옴기로. 작기 때문에.
 413) 鏡臺. 거울을 버티어 놓고 그 아래에 화장품 같은 것을 넣도록 만들어 꾸민 가구.
 414) 끼워주오.
 415) 숨이 몹시 차서.
 416) 죽었는지.

- 417) 살았는지.
 418) 物色. 까닭이나 형편.
 419) 찢으면서.
 420) 醫家. 의술에 능한 사람.
 421) 問醫.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봄.
 422) 急急히. 매우 급하게.
 423) 달여. 끓여서 진하게 만들어.
 424) 잡수시오.
 425)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426) 忽然히. 뜻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
 427) 產母. 아이를 갓 낳은 여자.
 428) 手足. 팔과 다리.
 429) 쿡구멍.
 430)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431)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덩굴.
 432) 윗 쪽으로 올라가며 덩굴.
 433) 목젖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434)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달아) 세게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435) 가슴.
 436) 死則同穴하겠더니. 죽어서 같이 묻히고자 하였더니. ‘사죽동혈’은 부부가 죽어서 한 무덤에 묻힘.
 437) 黃泉. 저승.
 438) 키우자는.
 439)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신선 세계에 있다는 복숭아.
 440) 瑤池宴.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요지 연못에서 신선들이 벌이는 잔치.
 441) 西王母. 옛 중국의 신녀. 이름은 양회(楊回). 〈목천자전(穆天子傳)〉에 보면, 주나라 목임금이 서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서왕모를 만나 그가 배운 요지의 잔치에서 놀았다고 함.
 442)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
 443) 二妃. 요임금의 두 딸이면서,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444) 懷抱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445) 月宮. 선녀인 항아(姮娥)가 살고 있다는 달 속의 궁전.
 446) 姮娥. 달 속에 있다는 선녀의 이름.
 447) 도약(搗藥)하러. ‘도약’은 ‘환약 재료를 골고루 섞어 반죽을 하여 찢어 부드럽게 함.’
 448) ‘회사정 호천(呼天)하던’인 듯. 회사정에서 하늘을 부르던. 회사정은 《사씨남정기》에서 교씨로부터 죽임을 피하고자 남쪽으로 도망하던 중, 나무에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글귀를 새겨놓고 죽으려고 했던 곳.
 449) 謝氏夫人. 《사씨남정기》의 주인공을 가리킴.

- 450) 青春作伴好還鄉. 청춘을 벗 삼아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리라.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의 시 <문관군수하남하북(聞官軍收河南河北)>에 있는 귀절.
- 451) 따라.
- 452) 青天有月來幾時. 푸른 하늘에 달 있는 지 그 몇 해던가. 이백의 시 <파주문월(把酒問月)>의 첫 귀절.
- 453) 짐짓 추어올려 칭찬하는.
- 454) 賢哲. 어질고 슬기로움.
- 455) 極樂世界.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로서, 아미타불이 늘 설법하고 있으며 근심과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
- 456) 念佛. 불경을 외는 일.
- 457) 藥能活人. 약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
- 458) 모두.
- 459) 洞里. 마을. 동네.
- 460) 老少없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 461) 落淚. 눈물을 흘림.
- 462) 才質. 재주와 기질.
- 463) 奇異. 기묘하고 이상함. 여기서는 뛰어나다는 말.
- 464)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함. 또는 안전하고 점잖음.
- 465) 戶. 집의 수효를 나타내는 말.
- 466) 十匙一飯. 열 손가락이면 한 끼의 식사가 됨.
- 467) 收斂. (돈이나 물건 따위를) 여러 사람이 얼마씩 나누어 모아 거둠.
- 468) 베풀어.
- 469) 勸葬. 장사를 지내는 일을 끝냄.
- 470) 公論. 여럿이 모여 하는 의논.
- 471) 如出一口. 마치 한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음. 의견이 같음.
- 472) 衣衾棺槨.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과 관을 함께 이르는 말.
- 473) 淨히. 정성들여 깨끗하고 온전하게.
- 474) 소방상(小方牀). (본래는 대방상을 쓰는 법인데) 대방상을 쓰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 쓰던 상여.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에 썼음. '대방상(大方牀)'은 큰 상여로서, 높은 벼슬아치만 쓸 수 있었음.
- 475) 뗏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돌. '뗏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둘러가며 놓은 돌.
- 476) 위에.
- 477) 結棺. 종이나 베 따위로 관을 찬 뒤에 삼줄 따위로 묶는 일.
- 478) 銘旌. 긴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본관·성씨 따위를 적어,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 들고 갔다가 관 위에 함께 묻는 깃발.
- 479) 功布. 삼베를 다섯 자 내지 여섯 자로 잘라서, 상여 앞에 명정과 함께 들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 관을 덮는 데 쓰는 수건.
- 480) 髮扇. 운불삼(雲鬢髮). 운삼과 불삼. 모두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뒤에 세우고 가는

- 것들인데, ‘운삽’은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며, ‘불삽’은 쏘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임.
- 481) 等物. 등등의 물건.
- 482) 發鞠祭.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 상여 앞에서 지내는 제사.
- 483) 靈輜既駕 往卽幽宅 載陣遺禮 永訣終天. 혼백이 상여에 이미 올려졌으니, 이제 가면 무덤이웁니다. 보내는 예를 모두 갖추어 배운 뒤에 아주 헤어집니다. 상여가 떠날 적에 음식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외는 축문(祝文).
- 484) 상여꾼을 이르는 말.
- 485) 상여(喪輿).
- 486) 나가는데.
- 487) 흥겨운 신과 멋.
- 488) 役者而歌.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은 (힘든 것을 잊으려고) 노래를 함.
- 489) 忘勞. 힘든 것을 잊어버림.
- 490) 상여소리.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 491) 北邙山川. 묘지가 있는 곳. 사람이 죽어 가는 곳을 이르는 말.
- 492) 어디메이고. 어디쯤이고.
- 493)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뒤편의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킴.
- 494) 黃泉水. 저승으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강물.
- 495) 멀다더니. 멀다고 하더니.
- 496) 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감.
- 497) 모두.
- 498)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덧없는 세상일을 비유하는 말.
- 499) 청경덩굴. ‘청경덩굴’은 땡땡이덩굴을 가리킨 듯. ‘땡땡이덩굴’은 여러해살이 덩굴풀로, 산 기슭 양지나 들에 저절로 나는데, 줄기는 목질(木質)에 가깝고 다른 물체에 감기어 받음.
- 500) 위에.
- 501) 襁褓. 포대기. 어린아이를 덮어주거나 깔기도 하며, 업을 때에 둘러 대기도 하는 작은 이불.
- 502) 가마나 상여 들것 따위의 뒷부분으로, 사람이 메거나 들게 된 부분.
- 503) 거머쥐어 잡고.
- 504) 怵惕없는. 두려워서 조심하는 마음이 없는.
- 505) 엎드러지며. ‘엎드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506)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 507) 山疊疊路茫茫에. 산은 겹겹이 둘러 있고, 길은 아득히 먼니.
- 508) 日沈沈雲暝暝에. 해는 넘어가고, 구름은 어두우니.
- 509) 酒幕. 시골의 길거리에서 밥이나 술을 팔며, 나그네들이 묵어갈 수도 있는 집.
- 510) 夫唱婦隨. 남편이 노래를 하면 부인은 따라 함. 부부의 화목함을 나타내는 말.
- 511) 情理. 인정과 도리.
- 512) 무릎의 구부리는 안쪽.

- 513) 搖動. 흔들려 움직임.
 514)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515) 長生不死.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삶.
 516) 누가.
 517) 하겠는가.
 518)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받들어 모시는 보살.
 519) 向陽之地. 남쪽을 향해 별이 잘 드는 땅.
 520) 安葬. 편안히 장사 지냄.
 521) 然後에. 한 후에.
 522)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523) 서러운.
 524) 祭文. 죽은 사람을 조상하는 글. 제사를 지낼 때 신령에게 고하는 글.
 525) 眼盲. 눈이 멀어 보이지 않게 됨.
 526) 文章. 문장가. 글을 뛰어난게 잘 짓는 사람.
 527) 嗟乎夫人. 슬프도다, 부인이여.
 528) 邀此窈窕淑女兮여. 이처럼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도다.
 529) 行不苟兮古人이라. 행실이 옛 사람에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는도다.
 530) 期百年而偕老터니.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하였더니.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531) 忽然歿兮焉歸오? 갑자기 죽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532) '유치자이영서혜(遺稚子而永逝兮)'의 잘못.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영원히 가버렸도다.
 533) 歸不歸兮泉臺兮여. 가서 다시 오지 못하는 천대로 돌아가버렸구나. '천대'는 죽은 뒤에 뉘이 돌아간다는 곳.
 534) 托松楸而爲家兮여. 무덤을 둘러 심은 나무를 집으로 삼았구나.
 535) 像音容而寂寞兮여. 모습과 음성이 모두 적막하구나.
 536) 淚散散而沾襟兮여. 눈물이 가득 흘러 옷깃을 적시는구나.
 537) 隔幽顯而路殊兮여. 이승과 저승이 갈리어 길이 다르구나.
 538) 此生. 이승.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
 539) 어찌할 수 없네.
 540)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사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541) 薄奠. 변변치 못한 제사.
 542) 거머쥐어 안고.
 543) 윗 쪽으로 올라가며 뒹굴.
 544)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뒹굴며.
 545) 가슴.
 546) 목젖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547) 뒤에 남겨두고.
 548) 가려고 하였던가?
 549) 가려고 하였거든.

- 550) 當初. 일의 맨 처음. 애초.
 551) 태어나지름.
 552)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553) 울타리.
 554) 老而無妻鰥夫라는 것이.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부(홀아비)라고 하는 것이.
 555) 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556) 들어가기로.
 557) 死者는 不可復生이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558) 哀痛, 슬퍼하고 가슴아파함.
 559) 鼓盆之痛. 아내가 죽은 슬픔.
 560) 백골난망(白骨難忘) : 죽어서 흰 뼈만 남아도 잊지 못함. 절대 잊지 못함.
 561) 役軍. 공사터에서 샅일을 하는 사람. 여기서는 장례에 참여하여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킴.
 562) 꺼붙들려. 껴안아 붙들려. 남의 팔 따위를 거드랑이 밀으로 엇걸거나 넣어 붙들림을 당하여.
 563)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564) 지팡이.
 565) 걷어들여 짚고. 거두어서 손에 들어 짚고.
 566) 던져놓은 듯이.
 567) 孑孑單身. 의지할 데가 없이 외로운 홀몸.
 568) 누구에게다.
 569) 依託. 남에게 의지함.
 570)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내는 소리.
 571) 너희. 네.
 572) 洛陽東村. 중국 낙양성의 동쪽 마을.
 573)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함.
 574) 竹上之淚. 대나무 위의 눈물.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쫓아와 슬피 울다 죽었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 반죽(알록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575) 二妃夫人.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576) 오마는. 온다고 하는.
 577) 剛木水生.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남. 곧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578) 나무.
 579) ‘묻혀주듯이’인 듯. 따져 묻듯이.
 580) 밀어다붙이며. 밀어붙이며.
 581)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582) 窒塞. (숨이 꽉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583) 一寸肝腸. (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에서) 애가 탈 때의 마음의 비유.
 584) 제발.

- 585) 氣盡. 기운과 힘이 풀려서 다함.
- 586) 東方. 동쪽.
- 587) 동이 트며 밝은 기운이 조금 비치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약간 흰하게.
- 588) 줄을 길게 매어 물을 끄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로 만들.
- 589) 건어들어 쪼고. 거두어서 손에 들어 쪼고.
- 590) 누구이신.
- 591) 鐵石. 쇠나 돌처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92) 盜跖.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도적질과 살인을 일삼던 유척(柳跖)을 가리킴. 도적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도(盜) 자를 붙여, 도척이라고 함.
- 593) 壽福康寧. 명이 길고, 복이 많고, 건강함.
- 594) 길이 들어서 몸에 폭 뻗 버릇이 생겨서.
- 595) 길쌈.
- 596) 심하게 내리찍는 여름의 뜨거운 별.
- 597)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 598) 몇 돈 되는 돈. '돈'은 한 냥(兩)의 십분의 일.
- 599) 몇 되 되는 쌀.
- 600) 맘죽 끓일 쌀. '맘죽'은 '암죽'의 방언. '암죽'은 어린 아이에게 젓 대신 먹이려고 곡식이 나 밤 가루로 물게 끓인 죽.
- 601) 언덕.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602)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준다.
- 603) 뽕뽕하구나. 꺾 차서 불룩하구나.
- 604) 洞里. 동네. 마을.
- 605) 富貴多男. 부유하고 신분이 높으며, 아들을 많이 낳음.
- 606) 너희.
- 607) 귀여움.
- 608) 구멍.
- 609) 불명. '진주(珍珠)씨'라고 하기도 한다. '진주씨'는 작은 진주를 가리킨 듯.
- 610) 密花佛手. 보석의 일종인 밀화로 부처 손같이 만든 패물.
- 611) 귀남(貴男)이. 옛날에 아들 못지않게 잘 크라는 뜻으로 여자 아이에게 곧잘 붙여주던 이름.
- 612) 어린 아이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 613)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 614) 어린 아이에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 615) 아이를 어르는 소리.
- 616) 별씨.
- 617) 틀림없이. 꼭.
- 618) 부엌의 벽 중턱에 가로 드린 선반. 그릇 따위를 얹어 놓는 데 씀.
- 619) 포대기.

- 620) 동냥차로. 동냥을 할 요량으로.
- 621) 纏帶. 무명이나 베 형식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놓고, 가운데는 막았는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함.
- 622) 굵게 묶어서 두 덩이로 만들어.
- 623) 왼쪽.
- 624) 둘러메고.
- 625) 맘죽을 끓이려고. 암죽을 끓이려고.
- 626) ‘허위허위’의 방언.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627) 자주 앓는 자질구래한 병.
- 628) 歲月이 如流하여.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흘러.
- 629) 忌祭祀. 삼년상이 끝난 후,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 630) 供養事. 웃어른을 모시면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 631) 依法이. 법도에 맞게.
- 632) 無情歲月. 덧없이 흘러가는 빠른 세월.
- 633) 父親前. 부친께. 아버지께.
- 634) 계시오면.
- 635) 朝夕供養. 웃어른을 모시면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 636) 窮困.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 637) 빌려고 하는데.
- 638) 들어 주십시오.
- 639) 子路.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임. ‘자로’는 그의 자(字).
- 640) 賢人.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 641) 백 리(百里)를 부미(負米)하고. 자료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 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가리킴.
- 642) 淳于意.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간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643) 酈榮.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순우의의 딸. 그의 아버지 순우의가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간혀 죽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644) 洛陽. 고대 중국의 수도.
- 645)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 646) 贖罪. (물질적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저지른 죄나 과오를 씻음.
- 647) 까마귀.
- 648) 空林. 빈 숲. 거울 숲.
- 649) 反哺. 새 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 새에게 밥을 물어다 은혜를 갚는 일.
- 650) ‘그 전체가 예의 없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부정을 뜻하는 말이 뒤따른다.
- 651) 微物.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
- 652) 女息. 딸자식. 딸.
- 653) 內外하자. ‘내외’는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차리느라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서로 피함.

- 654) 추운데.
- 655)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 656) 기특하다.
- 657) 李同知宅. 이씨 성을 가진 동지 벼슬을 한 집, 혹은 이씨 성을 가진 벼슬을 하지 않은 노인의 집. '동지'는 동지중추부사, 또는 벼슬을 하지 않은 노인을 일컫는 말.
- 658) 小姐.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
- 659) 父子有親. 오류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
- 660) 男女七歲不同席. 남녀가 일곱 살이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음. 곧 일곱 살이 되면 남녀의 분별을 지켜야 한다는 말.
- 661) 그러다면.
- 662)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행동이나 태도.
- 663) 바지.
- 664) 대님. 한복 바지를 입은 후에 바지 가랑이 끝을 매는 끈.
- 665)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666) '휘항(揮項)'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667)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댄 부분.
- 668) 치마에.
- 669) 깃. 옷깃.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
- 670) 서리가 내린 아침.
- 671) 추운.
- 672) 바람 맞은. 바람을 켜.
- 673) 부엌門前. 부엌문 앞.
- 674) 애궁(哀矜)히. 불쌍하게.
- 675) 구환(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676) 전혀 없어.
- 677) 잡수시고.
- 678) 十匙一飯. 열 손가락이면 한 끼의 식사가 됨.
- 679) 供養. 받들어 봉양함.
- 680)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 681) 그릇에 담은 밥, 혹은 그릇에 담은 만큼의 밥.
- 682) 醬.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틀어 일컫는 말.
- 683) 氣虛. 기운이 약함.
- 684) 먹사오리카. 먹겠습니다까.
- 685) 먹겠나이다. 먹겠습니다.
- 686) 못한지라. 충분한지라. 충분하다.
- 687) 遠山. 먼 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 688) 별써.
- 689) 그 사이에.

- 690) 半日. 반 나절.
- 691) 기다렸지요?
- 692) 遲滯되었나이다. 지체되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 693) 출근들.
- 694) 시장하긴들. 배가 고프기인들.
- 695) 암사오리까. 암겠습니까.
- 696) 반가워하느라고.
- 697) 출다.
- 698) 無常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 699) 너로.
- 700) 목숨.
- 701) 壯한.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한.
- 702) 서러워.
- 703) 奉養.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심.
- 704) 자식에게.
- 705) 人事.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 706) 미역튀각. 미역을 말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일종.
- 707) 갈치로 만든 자반. '자반'은 ①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감. ②나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에 간장이나 참싹풀을 발라 말린 다음, 굽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
- 708) 아버지.
- 709) 시장하지 않게.
- 710) 잡수시게.
- 711) 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 712) 孝行. 효성스런 행동.
- 713)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난.
- 714) 遠近에. 멀고 가까운 곳에. 곧 널리 여기저기에.
- 715) 狼藉하더니.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니.
- 716) 張丞相宅. 장씨 성을 지닌 승상 벼슬을 하거나 했던 집. '승상'은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 717) 侍婢.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시중드는 여자 종.
- 718) 父親前. 아버지께.
- 719) 媽媽. 임금과 그 가족의 호칭 뒤에 쓰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러므로 여기서는 잘못 쓰인 것이다. '마님'이라고 해야 옳다.
- 720) 지체가 높은 집안의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말.
- 721) 別親. 특별히 친함.
- 722) 恭順히. 공손하고 온순하게.
- 723) 쉬. 빨리.
- 724) 모통이.

- 725) 大門間. 대문 안쪽으로 있는 빈 공간.
 726) 左便. 왼쪽.
 727) 青松. 푸른 소나무.
 728) 右便. 오른쪽.
 729) 綠竹. 푸른 대나무.
 730) 亭下에. 정자 아래에.
 731)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732) 狂風. 미친 바람. 거센 바람.
 733)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734) 老龍. 늙은 용.
 735) 굽니는 듯. 굽이치며 일어나는 듯.
 736) 中門. 대문 안에 거둑 세워 안으로 드나드는 문.
 737)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형편.
 738) 門窓. 문과 창문.
 739) 半百. 백 살의 절반, 곧 쉰.
 740) 豐穰. 얼굴이나 사람 됨됨이가 원숙하여 뛰어남.
 741) 福氣. 복이 있는 기운.
 742) 座. 앉을 자리.
 743) 後에. 후에.
 744) 國色일시. 한 나라에서 제일가는 미인인 것이.
 745) 斂容. 자숙하여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함.
 746)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747) 날려는. 날아가려는.
 748) 날아가려고 하는 듯.
 749) 天心에. 하늘의 한 가운데에.
 750) 비친.
 751) 秋波. ‘아름답고 맑은 미녀의 눈길’의 비유.
 752) 耿耿한. 불빛이 깜박깜박하는.
 753) 새벽.
 754) 八字青山. 여덟 팔(八)자 모양의 푸른 산. ‘청산’은 눈썹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755) 初生片月. 초승에 뜨는 조각달.
 756) 兩頰. 두 뺨.
 757) 芙蓉花. 연꽃.
 758) 樣. 모양. 모습.
 759) 하룻밤.
 760) 비 기운에.
 761) 벌어지는.
 762) 皓齒. 흰 이빨.

- 763) 弄山鸚鵡. 산에서 즐겁게 노는 앵무새.
 764) 全身. 온 몸.
 765) 月宮. 달 속에 있다는 상상의 궁전. 달.
 766) 놀던.
 767) 桃花洞. ‘복사꽃이 핀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심청이가 사는 동네 이름.
 768) 謫下. (신선 세계에서) 귀양으로 내려옴.
 769) 武陵에.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무릉도원’은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
 770) 무릉에.
 771) 開花. 꽃이 폼.
 772) 棄世. 세상을 버림, 곧 죽음.
 773)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774) 未還. 돌아오지 않음.
 775) 古書. 오래된 책. 옛날 책.
 776) 後裔. 핏줄을 이은 후손.
 777)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778) 女工.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
 779) 文字. 글자.
 780) 教習. 배우고 익힘.
 781) 己出. 자기가 낳은 자식.
 782) 成娶. 장가를 들. 여기서는 ‘혼인’의 의미로 썼음.
 783) 八字. 타고난 운수.
 784) 奇薄. 이상하게 일이 빚나가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785) 돌아가시고.
 786) 窮天之痛.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지극한 아픔.
 787) 없사옵더니.
 788) 微賤함. 보잘 것 없고 천함.
 789) 헤아리지. 생각하지.
 790) 惶悚. 분에 넘쳐 고맙고도 미안함.
 791) 지체가 높은 이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792) 따르오면.
 793) 朝夕供養. 웃어른을 모시면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794) 四節. 네 계절. 사철.
 795) 그 누가.
 796) 至重. 매우 무거움.
 797) 有別. 다른 것과 달리 뚜렷함.
 798) 侍側. 곁에 있으면서 웃어른을 가까이 모심.
 799) 없사옵나이다. 없습니다.

- 800) 惻隱. 가엾고 애처로움. 불쌍하게 여김.
 801) 出天之孝女. 하늘이 낸 아주 훌륭한 효녀.
 802) ‘노쇠(老衰)한’의 잘못. 늙고 쇠약한.
 803) 나의.
 804) 그럭저럭.
 805) 입어.
 806) 日力. 하루의 해가 질 때까지의 남아 있는 동안.
 807) 戀戀. 안타깝게 그리움.
 808) 綵緞. 온갖 비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
 809) 佩物. 사람의 몸에 차는 장식물.
 810) 厚히. 많고 풍곤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게.
 811) 母女之誼. 어머니와 딸 사이의 두터운 정.
 812) 寂寂한. 조용하고 쓸쓸한.
 813) 던져놓은 듯이.
 814) 추워.
 815)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816) 종(鐘).
 817) 빨리.
 818) 오는가?
 819)辱. 수고롭고 고생스런 일.
 820) 風雪. 바람과 눈.
 821) 藉藉하니. 왁자하니. 여기서는 ‘어지럽게 휘날리니’ 정도의 의미.
 822) 추워.
 823) 마른 검불이나 부스러기 따위가 놀리어 서로 달아서 나는 것과 같은 소리.
 824) 훑날려도.
 825) 寂寞空山. 고요한 깊은 산.
 826) 人跡. 사람의 자취.
 827) 어찌할까?
 828) 鬱火. 마음이 피이지 않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心火).
 829) 버쩍. 거침없이 갑자기 줄기차게 앞으로 나아가거나 늘거나 주는 모양.
 830) 아무렇게나 함부로 쥔고.
 831) 그 때에.
 832) 덕택에.
 833) 먹어 놓으니.
 834) 도량出入. 도량을 드나드는 일. ‘도량’은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길게 판) 작은 개울.
 835) 길 넘는. 한 길이 넘는. ‘길’은 사람의 키만한 길이.
 836) 밀친 듯이. 힘주어 밀어버린 듯이.
 837) 無盡無盡. 끝없이.

- 838) 회번덕.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를 굴려 번득거리는 모양.
 839) 日暮途窮.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힘.
 840) 뉘라서. 누가.
 841)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842) 重棚. (낡은 건물을)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지음.
 843) 勸善文.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재물을 내주기를 청하는 글.
 844) 施主집. 중이나 절에 재물을 내는 사람의 집.
 845) 裏面.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846)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847) 머리에 쓰는 쓰개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848) 흠뻑. 정도에 충분히 차게.
 849) 白苧布. 흰 모시베.
 850) 長衫에. '장삼'은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851) 眞紅띠. 진한 붉은 색 허리띠.
 852) 띠고.
 853) 百八念珠.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어서 그 끝을 맞맨 염주.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서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854)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855) 백동(白銅). 주석이 많이 들어 있는 청동.
 856) 半銀粧刀. 은을 전체 쇠붙이 양의 반쯤이 되게 넣어 만든 은장도.
 857) 옷고름.
 858) 느직이. 조금 느슨하게.
 859) 龍頭. 용의 머리.
 860) 九節竹杖. 중이 짚는 마디가 아홉인 대나무 지팡이.
 861) 쇠로 만든 고리.
 862) 쇠고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863) 탄탄한 물건이 서로 부딪칠 때에 나는 것과 같은 소리.
 864)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함.
 865) 暗暗. 몹시 어두움.
 866) 雪月. 눈 쌓인 위로 뜨는 달.
 867) 白苧布. 흰 모시베.
 868) 念佛. 불경을 외는 일.
 869) 들어가도. 들어가 있어도.
 870) 俗家. 속세 사람들의 집.
 871) 나가도.
 872)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千悉圓滿. 옛부터 닦아온 공덕은 바다처럼 넓으니, 이를 다른

- 사람에게 돌리어, 자타가 공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길 바랍.
- 873) 언뜻. 어떤 물체가 잠깐 동안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 874) 馬嵬驛. 중국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태종이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
를 죽인 곳.
- 875)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 876) 楊太眞. 양귀비(楊貴妃, 719-756). 당나라 현종의 비. 이름은 옥환(玉環) 또는 태진. 재주
와 미색을 겸비하고 가무음곡에 뛰어나, 현종이 매혹되어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함.
- 877) 울음인가.
- 878) 胡地雪谷. 오랑캐 땅의 눈 쌓인 골짜기.
- 879) 蘇通國. 한나라 무제(武帝)의 신하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열아홉 해 동안이나
잡혀 있던 소무(蘇武, 벼슬이 중랑장이었기 때문에, '소중랑'이라고도 함.)가 그 곳에서
낳은 아들. 소무가 돌아올 때 어미는 놓아두고, 아들만 데리고 왔음.
- 880) 소중랑장(蘇中郎將). '소중랑장'은 한나라 때의 소무(蘇武)로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
음. 소무가 흉노에게 사신을 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 발에 매어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서 19년 만에 돌아온
일을 가리킴.
- 881) 여우.
- 882) 變化하여.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여.
- 883) 호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는.
- 884) 울음인가?
- 885) 끼웃.
- 886) 하수도 물이 흘러가도록 길게 판 내.
- 887) 벼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둥글게 되었음.
- 888) 行纏. 바지를 입을 때 가드하게 하기 위해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베 조각.
- 889) 대님. 한복 바지를 입을 후에 바지가랑이를 매는 끈.
- 890) 누비의 한 종류인 듯. '누비'는 피륙을 안팎을 맞추어서, 그 사이에 솜을 두고, 줄이
죽죽지게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홈질.
- 891) 바지가랑이.
- 892) 자개미에. '자개미'는 거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893) 정도 이상으로 많거나 적게.
- 894) 물이 괴어 있는 논.
- 895) 白鷺格으로. 백로처럼.
- 896)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897) 고드름처럼 생긴 상투.
- 898) '에둘러서'의 옛말. 팔을 돌려 얼싸안아.
- 899) 돌돌 감아 또아리쳐.
- 900) 누구요.
- 901) 小僧.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902) 活人之佛.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
- 903)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영원히 잊지 못함.
- 904) 꺾안아 붙들고. 남의 팔 따위를 거드랑이 밀으로 엇걸거나 넣어 붙들고.
- 905) 可矜한. 불쌍한.
- 906) 수완이나 방법.
- 907) 영험(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영묘한 효과.
- 908) 많으시어.
- 909) 告하면. 알리면. 사뢰어 알리면.
- 910) 應하오니. 응하니. (물음이나 부름, 요구 따위의 사실에) 맞추어 대하거나 들어주니.
- 911)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 912) 石.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 913) 佛前에. 부처님께.
- 914)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 915) 後事. 뒷일. 나중 일.
- 916) 생각하지 않고.
- 917) 서슴지 않고 단숨에. 갑자기.
- 918)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경제적 형편.
- 919) 부피의 단위. ‘되’의 십분의 일이 홑임.
- 920) 화를.
- 921) 이녀석.
- 922) 업신여겨도.
- 923) 來月. 다음달.
- 924) 迫切. 인정이 없고 매몰스러움.
- 925) 虛言. 빈 말. 거짓말.
- 926) 부디.
- 927) 佛家. 불교를 믿는 사람, 또는 그들의 사회.
- 928) 五戒. 속세에 있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중생을 죽이지 말 것, 훔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등임.
- 929) 뻔히.
- 930) 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이랬다 저랬다 상반되게 하는 말을 이룸.
- 931) 勸善冊. 시주(施主)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
- 932) 記載. 적어 올림. 적어 놓음.
- 933) 換腸.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 934) 邪.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
- 935) 昏迷精神. 혼미한 정신. 미혹하여 사리에 어두운 정신.
- 936) 엉겁결에.
- 937) 이렇게 하는 것인가?

- 938) 無男獨女. 아들 없이 단 하나 있는 딸.
 939) 家産. 집안의 재산.
 940) 뉘라서. 누가.
 941) 옛날 엽전의 단위로, 한 돈의 10분의 1.
 942) 된다면.
 943) 水中孤魂. 물 속에 빠져 죽은 외로운 영혼.
 944) 생겼구나.
 945) 지우고.
 946) 腹痛自盡. 배에 사무치게 원통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됨.
 947) 모양.
 948) 變. 갑자기 생긴 이상한 일이나 사고.
 949) 於焉間. 어느새.
 950) (아궁이나 화덕 따위에 땔나무를 넣어 불을) 붙이고.
 951) 치맛자락.
 952)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953) 제가.
 954) 大小事. 크고 작은 일.
 955) 這這히. 있는 사실 그대로 낱낱이 모두.
 956) 壯.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한.
 957) 반겨. 반가워하여.
 958) 信心. 종교를 믿는 마음. 옳다고 꼭 믿는 마음.
 959) 周旋.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씀.
 960) 지워버리라고.
 961) 日常. 늘. 항상. 언제나.
 962) 一般인께. 일반이니까. 다른 점이 없이 마찬가지로니까.
 963) 들어주십시오.
 964) 王祥. 서진(西晉) 시대에 태보(太保) 벼슬을 지낸 효자. 그의 계모가 한겨울에 산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자, 그 구멍에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와, 이것을 갓다 드렸다고 함.
 965) 叩氷. 얼음을 두드림.
 966) 구멍.
 967) 孟宗.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으로 효자.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겨울임에도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므로, 구할 길이 없어 대숲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밤이 깊어진 뒤에 보니 죽순이 두어 줄기 솟아나와 이를 어머니께 갓다 드렸다고 함.
 968) 泣竹. 대숲에서 울.
 969) 竹筍. 대나무의 땅속 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
 970) 事親誠孝. 진실한 효로 아버이를 섬김.
 971) 郭巨. 후한(後漢)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가난하였다.
 972)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 973) 事親之孝道. 아버이를 섬기는 효도.
 974)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킴.
 975)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976)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977) 淨히. 맑게. 깨끗이.
 978) 사람이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로 매어놓은 줄.
 979) 후원에. 뒤뜰에.
 980) 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터.
 981) 쌓아올리고. 축조하고.
 982) 子夜半에. 한밤중에.
 983) 돌우어.
 984) 켜고.
 985)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986) 小盤에. 자그마한 밥상에.
 987) 焚香四拜. 향불을 피우고 네 번 절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함.
 988) 하느님前에. 하느님께.
 989) 天地之神.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
 990) 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
 991) 和爲同心.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992) 日月. 해와 달.
 993) 眼目이온바. 눈인데.
 994) 무슨.
 995) 戊子生. 육십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996) 眼盲하여. 눈이 멀어.
 997) 視物. 사물을 봄.
 998)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999) 佛前에. 부처님께.
 1000) 清寒. 성품이 깨끗하고 가난함.
 1001)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1002) 感動하사. 감동하시어.
 1003) 賣身. 몸을 팔음.
 1004) 三更. 옛적에 하루 저녁을 다섯으로 나눈 세 번째 시각. 밤 11시에서 1시 사이.
 1005) 五更. 옛적에 하루 저녁을 다섯으로 나눈 그 다섯 번째 시각. 아침 3시에서 5시 사이.
 1006) 7일.
 1007) 외치는.
 1008) 목소리.
 1009) 여럿이 한 덩어리나 한 판을 이루어.

- 1010) 雙으로. 둘이 함께.
 1011) 외치고.
 1012) 南京. 중국 강소성의 성도. 옛부터 여러 번 도읍지가 되었으므로 유적이 많음. 옛 이름은 금릉.
 1013) 船人인데. 뱃사람인데.
 1014)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1015)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1016) 滿身. 온 몸.
 1017) 欠破. 온전하지 못한 곳.
 1018) 孝烈. 효행과 절개 있는 행동.
 1019) 行身. 처신.
 1020) 重값. 많은 돈.
 1021) 있습니까?
 1022) 十分.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1023) 팔려고.
 1024) 하십니까.
 1025) 解冤. 억울한 일을 풀어줌.
 1026) 過하옴고. 지나치옴고. 너무 많고.
 1027)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1028) 白米. 흰 쌀.
 1029) 大師님. '남자 중'을 높이어 일컫는 말.
 1030) 票. 무엇을 적은 증거가 될 만한 쪽지.
 1031)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1032) 日時. 날짜와 시간.
 1033) 후에
 1034) 父親께. 아버지께.
 1035) '왜 그러느냐'는 의미로 대답하는 말.
 1036) 拜謁.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
 1037)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1038) 데려간다허옴다. 데려간다고 하였습니다.
 1039) 外人所視難當. 다른 사람 보기에 감당하기가 어려움. 좋지 않은 일로 남의 눈에 띄어 감당하기 어려움.
 1040) 정가. 지난 허물이나 결함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1041) 來月. 다음달.
 1042) 事勢不得. 일의 되어가는 형편이 어쩔 수 없음.
 1043) 白髮父親. 머리가 허연 늙으신 아버지.
 1044) 永別. 영원히 이별함.
 1045)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1046) 上針.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 궤매는 일.
- 1047) 겹옷. 솜을 넣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서 지은 옷.
- 1048) 박아. 촘촘히 눌러 궤매어.
- 1049) 冬節. 겨울철.
- 1050) (무엇을 꾸밀 때 속에 솜이나 새털 따위를) 퍼서 넣어.
- 1051) 裾. 보자기.
- 1052) 누덕누덕 누빈 것. ‘누비’는 피륙을 안팎을 맞추어서, 그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지게 바느질을 촘촘히 하여 궤매는 일.
- 1053) 깃고.
- 1054) 버선.
- 1055) 버선볼. 버선의 바닥 또는 버선 앞뒤의 바닥에 덧대어 깃는 형겼 조각.
- 1056) 버선볼을 대어.
- 1057) 대님.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1058) 어떤 사물에서 목에 해당하는 부분. 버선에서는 발목 부분의 굽어진 곳을 가리킴.
- 1059) 纏帶. 무명이나 베 형겼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놓고, 가운데는 막았는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함.
- 1060) 구멍.
- 1061) 시렁.
- 1062) 網巾.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1063)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 1064) 밤에.
- 1065) 제사 때 올리는 밥.
- 1066) 淨히. 깨끗이.
- 1067) 獻酒. 제사에 바치는 술.
- 1068) 남새. 심어서 가꾸는 채소.
- 1069) 拜席. 어떤 의식 때에 절하는 곳에 까는 자리. 여기서는 ‘음식 밑에 까는 형겼’을 가리킨 듯.
- 1070) 었어.
- 1071) 墳墓. 묘.
- 1072) 階下. 계단 아래.
- 1073) 陳設. 잔치나 제사 때에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 위에 벌여 놓음.
- 1074) 焚香四拜. 향을 피우고 네 번 절을 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함.
- 1075) 不孝女息. 불효하는 딸.
- 1076)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재료.
- 1077)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 1078) 亡終. 마지막.

- 1079) 歆饗. 신령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1080) 四拜. 네 번 절함.
 1081) 下直. 먼 길을 떠날 때 윗사람에게 작별을 아뢰м.
 1082) 下直次로.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향 셈으로.
 1083) 祠堂門. 사당의 문.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1084) 痛哭. 매우 슬프게 울음.
 1085) 先代祖. 앞 세대의 조상님.
 1086) 不孝女孫. 불효한 손녀딸.
 1087)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1088) 香火. 향불. 제사에는 언제나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제사를 가리킴.
 1089) 不勝永慕. 영원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함.
 1090) 전혀 없어.
 1091) 서러움이 북받쳐서 쉽게 목매어 울어.
 1092) 저를.
 1093)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아는 힘.
 1094) 어찌할 수 없어.
 1095) 몹쓸너르.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1096) 河梁落日愁雲起. 하수의 다리 위에 해가 지니, 슬픔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1097) 蘇通國. 한나라 무제(武帝)의 신하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열아홉 해 동안이나 잡혀 있던 소무가 그 곳에서 낳은 아들. 소무(蘇武)가 돌아올 때 어미는 놓아두고, 아들만 데리고 왔음.
 1098) 母子 離別. 어미와 자식 간의 이별. 소통국과 그의 어미의 이별을 말함.
 1099) 遍插茱萸少一人. 수유꽃을 둘러 꽃고 보니 한 사람이 모자란다. 당나라 풍속에 9월 9일이 되면 온 가족이 산에 올라 종일 즐겨 노는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모자란다'는 말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없다는 말.
 1100) 龍山. 중국의 지명.
 1101)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도 없네. '양관'은 중국 감숙성 돈황현에 있는 지명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국경의 요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지안서(送元二使安西)〉의 마지막 구절.
 1102) 渭城. 중국 협서성 함양의 동쪽에 있는 성.
 1103) 朋友 離別. 친구 사이의 이별.
 1104) 征客關山路幾重. 출정한 남편으로부터 고향까지의 길은 얼마나 멀까.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채련곡(採蓮曲)〉의 한 구절.
 1105) 吳姬越女. 오나라와 월나라의 여인들. 여기서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옛 오나라와 월나라 땅의 여인들을 가리킴.
 1106) 相逢. 서로 만남.
 1107) 五更時. 하루 저녁을 다섯으로 나눈 다섯 번째 시각.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1108) 咸池. 해가 진다고 하는 큰 연못.
 1109) 明朝. 내일 아침.

- 1110) 扶桑에다가. '부상'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중국 전설에서, 동쪽 바다 속의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나무, 또는 그곳.
- 1111) 뭇 것 같으면. 맨다고 하면.
- 1112) 人力. 사람의 힘.
- 1113) 半夜. 한밤중.
- 1114)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 1115) 孟嘗君.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찍이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 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 1116) 東方. 동쪽.
- 1117)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 1118) 벌써.
- 1119) 길 떠날 시각.
- 1120) 朝飯. 아침밥.
- 1121) 亡終. 마지막.
- 1122)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빨랐느냐?
- 1123) 解夢. 꿈속에 나타난 일의 좋고 나쁨을 풀어 판단함.
- 1124) 貴人. 귀한 사람.
- 1125) 남달리 뛰어나고 훌륭함.
- 1126) 別로. 보통 때와 다르게.
- 1127) 아침저녁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
- 1128) 星火같은지라. 몹시 심하고 급한지라.
- 1129) 잘못하여 없어지게 되어서.
- 1130) '회 동하다'는 '구미가 당기거나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는 뜻.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회충이 움직였느냐?'라는 의미인 듯.
- 1131) 정가. 지난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 1132) 天下.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드문.
- 1133)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 1134)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재료.
- 1135)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1136) 묻지도. 물어보지도.
- 1137) 보던.
- 1138) 長成키로. 자라서 커졌기로. 자라서 커졌기 때문에.
- 1139) 너로 해서. 너로 인하여.
- 1140) 살 것인데.
- 1141) 뜨겠느냐?

- 1142) 경둥거려. 긴 걸음으로 가볍게 계속 내뛰어.
- 1143) 船人놈들아. 뱃놈들아.
- 1144) 祭하는. 제사하는.
- 1145) 殃禍. 지은 죄의 양값음으로 받는 재앙.
- 1146) 나는.
- 1147) 七年大旱.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 때에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가뭄.
- 1148)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 1149) 바는.
- 1150) 위함이라.
- 1151) 빌 것 같으면. 빌려면.
- 1152)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을 흰 띠폭로 묶음.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 1153) 상림(桑林) 들에서.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 1154)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 1155) 坊長. 방의 우두머리. '방'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지금의 면과 비슷하나 조금 작음.
- 1156)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뒹굴.
- 1157) 위쪽으로 올라가며 뒹굴며.
- 1158) 가슴.
- 1159) 부딪치고.
- 1160) 목접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1161) 자꾸 덜컹거리는 소리. '덜컹'은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1162) 至重한. 매우 무거운.
- 1163) 父女天倫. 아버지와 딸 사이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져 있는 관계.
- 1164) 죽사오리카. 죽겠습니까.
- 1165) 이미.
- 1166) 大明天地. 밝은 천지.
- 1167) 後嗣. 대를 이을 자식.
- 1168) 傳하게. 전하게.
- 1169) 形狀. 모습. 물건의 생긴 형체와 모양.
- 1170) 領座.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 1171) 發論. 제안(提案) 또는 의논거리 따위를 말하여 드러냄.
- 1172) 白木. 무명배.
- 1173) 麻布. 삼베.
- 1174) '묶음'을 세는 단위로, 피륙은 50필을 말함.
- 1175) 洞人. 동네 사람.
- 1176) 規別. 특별히 규칙으로 정함..
- 1177) 長利.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 받는 이자.
- 1178) 取利.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음.
- 1179) 錢穀. 돈과 곡식.
- 1180) 洞中. 한 동네 전부.
- 1181) 그때야. 그때가 되어서야.
- 1182) 大驚失色.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 1183) 侍婢. 몸 가까이서 모시는 여자 종.
- 1184) 잠깐.
- 1185) 다녀오겠나이다. 다녀오겠습니다.
- 1186) 어따. 마음에 못마땅할 때 조금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 1187) 天下.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드문.
- 1188) 無常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 1189) 妄靈. 늑거나 정신이 흐려서 보통에 어그러진 상태.
- 1190) 意思. 생각.
- 1191) 當初. 일의 맨 처음. 애초.
- 1192) 爲親. 아버이를 위함.
- 1193) 다한다면.
- 1194) 無故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 1195)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 1196) 어렵사웁고. 어렵고.
- 1197) 數朔. 여러 달.
- 1198) 後에.
- 1199) 어찌할 수 없는.
- 1200) 氣色. (희로애락 따위)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 1201) 哀惜. 슬프고 아까움.
- 1202) 잠깐.
- 1203) 畫工. 화가.
- 1204) 簇子.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하여 만든 것으로, 기둥이나 벽에 걸기도 하고, 말아두기도 함.
- 1205) 形容. 생긴 모양.
- 1206) 歷歷히. (자취나 형상, 기억 등이) 환하게 알 수 있게 또렷이.
- 1207) 重賞. 큰 상.
- 1208) 五色丹青.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
- 1209) 정신없이 물끄러미.
- 1210) 花容月態. 꽃같이 고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
- 1211) 愁心겨워. 근심스런 생각이 북받쳐 참기 어려워하면서.
- 1212) 모양.
- 1213) 젊고 싱싱한.

- 1214) 땅아진. 셋 이상의 가닥으로 넓고 길게 엮어진.
- 1215) 綠衣紅裳.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인의 복장.
- 1216) 畫題. 그림 위에 쓰는 시나 글.
- 1217) 生之死一夢間에 草綠江南人未還이라. 나고 죽는 것이 한 바탕의 꿈인데, 푸른 강남에 한번 가서 오지 않는 사람이라네.
- 1218)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 꾸려 감. 스스로의 힘으로 억제함.
- 1219) 길에.
- 1220) 맺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함.
- 1221) 길 떠날 시각.
- 1222) 黃泉. 저승.
- 1223) 結草報恩. 죽어 혼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위무자(魏武子)의 아들 과(顓)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서모를 개가시켜 순사(殉死.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 따라 죽음)하지 않게 하였더니, 후에 위과가 전장에 나갔을 때, 서모의 아버지의 혼령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 매어놓아, 적군의 발이 걸려 쓰러지게 함으로써 적을 잡게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 1224) 덩굴며.
- 1225) 치맛자락.
- 1226) 모두.
- 1227) ‘사뭇 젖는다’인 듯.
- 1228) 엎드러지며. ‘엎드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1229)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 1230) 李進士宅. 이씨 성을 가진 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집. ‘진사’는 조선 시대에,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小科)의 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
- 1231) 놀던.
- 1232) 七月七夕夜에. 칠월 칠석날 밤에.
- 1233) 結交하자고 했더니. ‘결교’는 서로 사귀.
- 1234) 어쩔 수 없다.
- 1235) 上針질. 바느질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1236) 누구와.
- 1237) 故人者는 知己者라. 친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
- 1238) 情理. 인정과 도리.
- 1239) 男女老少없이. 남자와 여자,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 1240) 아시는. 알고 계시는.
- 1241) 白日. 밝은 해.
- 1242) 陰雲.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
- 1243) 쟁그리는.
- 1244) 시들고자. 시들려고 하여.
- 1245) 春鳥. 봄철의 새.

- 1246) ‘백만제송(百般啼送)’인 듯. 온갖 것이 모두 울면서 보냄.
 1247) 이별하였기에.
 1248) 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1249) 위에.
 1250) 歸蜀道.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촉나라로 돌아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1251) 不如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1252) 春山. 봄철의 산.
 1253) 事勢不得已. 일의 되어가는 형편이 어쩔 수 없이.
 1254)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리오.
 1255) 길.
 1256)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1257) 배의 앞 끝.
 1258) ‘족판(足板)’의 잘못. ‘족판’은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1259)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1260) 後에. 후에.
 1261) 行船. 배가 떠남.
 1262)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 있음.
 1263) 어떤 물건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모양.
 1264) 茫茫한. 아득하게 넓은.
 1265) 滄海. 넓고 큰 바다.
 1266)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1267)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1268)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1269) ‘삼강(三江)’의 잘못. ‘삼강’은 오나라의 송강·전당강·포양강의 세 강.
 1270)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1271)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1272)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1273) 曲終人不見에. 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1274) 數峯. 몇몇 산봉우리.
 1275) 푸르렀네.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원문은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다)’임.
 1276)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1277) 나로. 나를.
 1278) 長沙.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1279)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닮을

-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1280)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감.
- 1281)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뚝라수에 빠져 죽었다.
- 1282)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1283) 무恙(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 1284) 하듯던가? 하였던가?
- 1285)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의 서쪽 황학산에 있는 누각.
- 1286)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효의 〈황학루(黃鶴樓)〉의 끝 구절.
- 1287)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하남성 개봉 사람으로, 벼슬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노후의 시가 좋았다.
- 1288) 遺蹟. 옛 자취.
- 1289)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1290) 三山은 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 1291) 李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青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 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1292) 놀던.
- 1293)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1294)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작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1295) 一去後에. 한 번 간 후에. 한 번 죽은 후에.
- 1296)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1297)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를 짓고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298) 그냥.
- 1299) 蘇東坡. 이름은 식(軾)이고, 호가 동파인 북송의 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널리 알려짐.
- 1300) 놀던.
- 1301) 風月. 청풍명월(淸風明月).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1302) 依舊히. 옛과 같이.
- 1303)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인.
- 1304)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 1305) 而今에. 지금에. 지금은.
- 1306) 安在哉오. 어디에 있는가?
- 1307)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1308) 姑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309)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310) 종소리.
- 1311)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1312)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딴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魚火對愁眼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鍾聲到客船(달은 지고 까마귀 우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313)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314) 隔江의. 강 건너편의.
- 1315) 商女. 술파는 여인.
- 1316)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1317)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 1318)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1319)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딴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헌'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1320) 瀟湘江.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 부근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소상팔경(瀟湘八景)이 있음.
- 1321)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 1322) 湖上에. 호수 위에.
- 1323) 東南. 동남쪽.
- 1324) 吳山. 옛 오나라 땅(지금의 강소성 일대)의 산들.
- 1325) 疊疊. 겹겹이 쌓임.

- 1326) 楚水. 옛 초나라 땅(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의 강물.
- 1327) 萬重. (만 겹이라는 뜻으로) 썩 많은 여러 겹.
- 1328) 斑竹. 알록무늬가 있는 대. 소상강 부근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를 '소상반죽'이라고 함. 순임금이 죽자,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흘린 피눈물이 상강의 대밭에 떨어져서 생겼다고 함.
- 1329) 젓은.
- 1330) 二妃恨. 두 왕비의 한. 여기서는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킴.
- 1331)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된 명산.
- 1332)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 1333)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 빛.
- 1334) 거울 속에. 여기서는 맑은 동정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1335)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 1336)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모신 사당.
- 1337)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중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 1338) 원숭이.
- 1339)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1340) 騷人. 시인 또는 문사(文士).
- 1341) 그럭저럭.
- 1342) 瀟湘八景.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와 상강이 모이는 곳에 있는 여덟 가지의 아름다운 경치. 평사낙안(平沙落雁) · 원포귀범(遠浦歸帆) · 산시청담(山市晴嵐) · 강천모설(江天暮雪) · 동정추월(洞庭秋月) · 소상야우(瀟湘夜雨) · 연사만종(煙寺晚鐘) · 어촌석조(漁村夕照).
- 1343)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344) 玉佩. (여자들이 지니는) 옥으로 만든 패물.
- 1345) 琤琤. 옥이 울리는 맑은 소리.
- 1346) 依稀. 어렵듯이 희미한.
- 1347) 竹林. 대나무 숲.
- 1348) 仙冠. 신선이 쓰는 모자.
- 1349) 正히. 바르게.
- 1350) 呻吟. 신음을 하면서.
- 1351)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 1352) 聖君. 훌륭한 임금.
- 1353) 有虞氏. 중국 고대의 임금인 순(舜)임금. 순임금의 선조가 '우(虞)'라는 곳에 있었으므로 유우(有虞)라고 한 것으로, '유'에는 뜻이 없음.
- 1354) 南巡狩. 남쪽 지방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봄.
- 1355)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 1356) 崩. 붕어(崩御). 임금의 세상을 떠남.
- 1357) 아무리 하여도 단념할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 1358) 蒼梧山崩湘水絶이라야 竹上之淚乃可滅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359) 千秋. 오래고 긴 세월.
- 1360) 賀禮. 축하하는 인사.
- 1361) 堯舜. 요임금과 순임금.
- 1362) 幾千年에. 수천 년에.
- 1363) 누구이며.
- 1364)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 줄로 된 악기.
- 1365)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 1366) 이는.
- 1367) 누구인고.
- 1368) 堯女舜妻.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
- 1369) 萬古烈女. 아주 오랜 세월에도 걸쳐 이름이 빛날 열녀.
- 1370)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 1371) 精魂. 정령(精靈). 죽은 사람의 넋.
- 1372) 風浪.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물결.
- 1373) 大作하며. 크게 일어나며.
- 1374) 蕭颯더니. 소飒하더니. 쓸쓸하더니.
- 1375) 一員. 한 사람.
- 1376) 九尺. 아홉 자. 약 270cm.
- 1377) 面如巨輪. 얼굴이 큰 수레바퀴와 같이 큼.
- 1378) 眉間. 두 눈썹 사이.
- 1379) 광활(廣闊)한데. 흰하게 넓은데.
- 1380) 腰帶. 허리띠.
- 1381) 十圍. 여러 번을 두름.
- 1382) 吳王. 오나라 왕. 여기서는 부차(夫差)를 가리킴.
- 1383) 伯嚭. 오나라 재상.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백주리의 손자로, 백주리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에 와서 재상이 되었으나, 오자서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
- 1384) 讒訴. (간사하고 못된 말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꾸며 고해바침.
- 1385) ‘속루검(屬鏤劍)’의 잘못.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내린 칼.
- 1386) 후에.
- 1387) 越兵. 월나라 군사.
- 1388) 滅吳. 오나라를 멸망시킴.
- 1389) 東門上. 동쪽 문 위.

- 1390) 참소로 죽게 된 오자서가 죽을 때, 월나라에 의해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죽은 뒤에 두 눈을 빼어 동문(東門)에다 걸어놓으라고 한 고사를 이룸.
- 1391) 小人. 간사하고 생각하는 바가 좁은 사람.
- 1392) 諫. (윗사람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함.
- 1393) 누구인고.
- 1394) 伍子胥. 초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한 후 장군이 되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간신 백비(伯嚭)의 참소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가족 부대에 담겨져 강물에 버려졌다. 자서는 그의 자(字)이며, 이름은 원(原)이다.
- 1395)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 1396) 顏色. 얼굴빛.
- 1397) 憔悴. 고생이나 병으로 인하여 몸이 파리하고 해쓱함.
- 1398) 形容. 생긴 모양.
- 1399) 枯槁. 야위어서 파리함.
- 1400)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1401)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뚝 라수에 빠져 죽었다.
- 1402) 一般이라. 다른 점이 없이 마찬가지로.
- 1403) 薄待. 푸대접. 인정 없이 함부로 대함.
- 1404) 萬歲遺業.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물려줄 재산과 사업. 여기서는 왕조, 혹은 나라를 가리킴.
- 1405) 丁寧코. 틀림없이.
- 1406) 徵兆.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미리 보이는 조짐.
- 1407) 於焉. 어느덧.
- 1408) 四五朔. 사오 개월. 너댓 달.
- 1409) 金風颯而夕起하고 屋隅廓而崢嶸이라. 가을바람이 저녁에 쌀쌀하게 일어나고, 넓은 하늘이 말쑥하게 빛난다. 조선조 때 김인후(金仁厚)가 쓴 시 〈칠석부(七夕賦)〉의 한 구절.
- 1410) 落霞는 與孤鶩齊飛하고 秋水는 共長天一色이라. 떨어지는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 오기가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높은 하늘과 같은 빛깔이라.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 647-674)의 시 〈등왕각서(滕王閣序)〉의 한 구절.
- 1411) 江岸에 橘濃하니 黃金이 千片이요. 강 언덕에 굴빛이 질어지니 마치 수많은 황금 조각 같고.
- 1412) 蘆花에 風起하니 白雪이 滿颺이라. 갈꽃에 바람이 부니 (갈꽃이 바람에 날려) 모두 흰 눈이 가득하게 흩날리는 것과 같다.
- 1413) '심포세류(深蒲細柳)'의 잘못. 냇버들과 가는 버들.
- 1414) 滿江秋風. 강에 가득한 가을바람.
- 1415) 흩날리고.

- 1416) 海畔青山. 바닷가의 푸른 산.
 1417) 峯峯이. 봉우리마다.
 1418) 愁心. 근심어린 생각.
 1419) 肝腸. '간과 창자'를 가리키는 말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1420) 日落長沙秋色遠한데 不知何處弔湘君고? 장사에 해는 지고 가을은 깊어가는데, 어디
 가서 상군을 조문할지 모르겠구나.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
 의 마지막 두 구절. '장사'는 동정호 곁에 있는 지명이며,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킴.
 1421) 宋玉.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굴원(屈原)의 제자. 사(辭)와 부(賦)에 능하여
 〈구변(九辯)〉, 〈초훈(招魂)〉, 〈풍부(風賦)〉, 〈고당부(高唐賦)〉 등의 작품을 남겼다.
 1422) 悲秋賦. 《초사(楚辭)》의 〈구변(九辯)〉을 가리킴.
 1423) 이에서. 이보다.
 1424) 지레.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1425) 生不如死.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함.
 1426) 외로운.
 1427) 돌아서.
 1428) 켜고.
 1429) 欸乃聲. 배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
 1430) 이는.
 1431)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1432) 狂風. 세차게 부는 바람.
 1433) 大作하여. 크게 일어나서.
 1434) 魚龍.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1435) 霹靂. 벼락.
 1436) 내리는. 내려치는.
 1437) 大洋바다. 크고 넓은 바다.
 1438) 자욱하게 낀.
 1439) 저물어져.
 1440) '까치늪누리'인 듯. 사나운 물살.
 1441) 뱃전머리. 뱃전의 앞부분. '뱃전'은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
 1442) 都沙工. 뱃사공 중의 우두머리.
 1443)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1444) 遑遑急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1445) 돛을 달아 올리고.
 1446) 告祠器械.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1447) 한 섬이나 되는 쌀.
 1448) 온전한 소. 한 마리 통째의 소.
 1449) 동이에 담은 술.
 1450) 五色湯需.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탕국.

- 1451) 三色實果. 세 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
- 1452) 方位. 위치.
- 1453) 돼지.
- 1454) 淨히. 깨끗이.
- 1455)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 1456) 整齊.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함.
- 1457) 양손에. 두 손에.
- 1458) 몸을 힘차게 솟구치어 높이 떠올라.
- 1459) 불교 용어로,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육계(慾界) 여섯, 색계(色界) 열여덟, 무색계(無色界) 아홉 하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460) 눈을 아래로 뜨고 노려보아.
- 1461) 二十八宿. 해나 달이나 다른 항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를 스물여덟로 나눈 것.
- 1462) 五方神將. 다섯 방위를 지키는 다섯 신. 동쪽의 청제(靑帝), 서쪽의 백제(白帝), 남쪽의 적제(赤帝), 북쪽의 흑제(黑帝), 중앙의 황제(黃帝)이다.
- 1463) 四海용왕. 네 바다의 용왕.
- 1464) 地府. 저승.
- 1465) 十大王. 시왕(十王).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열 명의 대왕.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 전륜대왕이다. 죽은 날부터 49일까지는 7일마다, 그 뒤에는 백일·소상(小祥)·대상(大祥) 때에 차례로 이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 1466) 西天. 서쪽 하늘.
- 1467) 八萬諸佛. 팔만이나 되는 여러 부처님.
- 1468) 天生萬民에 必授之職. 하늘이 모든 사람을 낼 때에 반드시 그 직업을 줌.
- 1469) 다르시어.
- 1470) 土農工商. 예전에,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기술자, 장사꾼을 이르던 말이다.
- 1471) 네 가지에. 네 가지 중에.
- 1472)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장사.
- 1473)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474) 만들어.
- 1475)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476) 然後에. 후에.
- 1477)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1478)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479) ‘하후씨(夏后氏)’의 잘못.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夏)나라를 세운 우(禹)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舜)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 1480) 九年治水.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일어났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를 다스린 일.

- 우는 이때의 공로로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세웠음.
- 1481) '도산도수(渡山渡水)'의 잘못. 산을 넘고 물을 건넌.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평지를 갈 때는 수레를 타고, 강을 건널 때에는 배를 타고, 진흙길에는 진흙썰매를 타고, 산에 올라갈 때에는 나무로 만들어 미끄러지지 않게 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조사했다는 말에서 딴 것임.
- 1482)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1483) 商賈. 장사.
- 1484) 임금.
- 1485) 經世又經年에.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록. 곧 여러 해가 지나도록.
- 1486) 漂泊西南. 서쪽 남쪽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 1487)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1488) 一色.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뛰어난 미인.
- 1489) 滿身. 온 몸.
- 1490) 欠破. 흠이나 다친 데.
- 1491) 出天. 하늘이 냄. 아주 뛰어난.
- 1492) 重價. 비싼 값.
- 1493) 沐浴齋戒. 부정(不淨)을 타지 않도록 깨끗이 목욕하고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 1494) 丹粧.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
- 1495) 아명, 거승, 축융, 웅강 모두 무속에서 말하는 바다의 신 이름.
- 1496)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497)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1498) 下瞰. 위에서 내려다봄. 위에서 내려다보며 보살피 줌.
- 1499) 배의 머리. 배의 앞부분.
- 1500) 배의 뒷부분.
- 1501) 고물간. 배의 고물 쪽 칸.
- 1502) 本堂. 무속에서 제일 높은 신으로 섬기는 신을 모신 곳.
- 1503) 대감선왕, 장군선왕, 화강선왕, 각시선왕 등은 무도 무속의 신.
- 1504) 同參醉飽. 함께 참석하여 취하고 배부르게 먹음.
- 1505) 후에.
- 1506)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드는 신.
- 1507) 和樂. 화평하고 즐거움.
- 1508)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 1509) 百千萬金. 수많은 돈.
- 1510) 이익.

- 1511) 鳳旗. 봉이 그려진 깃발.
 1512) 蓮花. 연꽃.
 1513)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1514) 告祀. 액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
 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1515)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1516) 淡淡한. (물이나 달빛 등이) 옅고 맑은.
 1517) 이만큼도. 조금도.
 1518) 天地萬物. 온 세상의 모든 사물.
 1519) 後嗣. 대를 잇는 자식.
 1520) 傳게. 전하게.
 1521) 舉動.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1522)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
 1523) 치마폭.
 1524) 萬頃蒼波.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1525) 갈매기格으로. 갈매기에 어울리는 품위나 분수로. 갈매기처럼.
 1526) 渺滄海之一粟. 푸른 바다 속의 곡식 한 알과 같이 작음.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
 의 한 구절.
 1527) 悠悠한. 태도가 느릿느릿하고 한가한.
 1528) 沙工. 배를 저어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뱃사공.
 1529) 떨어지기도 하고 맺히기도 하면서.
 1530) 後事. 뒷일.
 1531) 餓死之境. 굶어서 죽을 지경.
 1532) '따리'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기구인 키의 물속에 잠기는 아랫부분에 달린 넓적한
 나무판'이므로, '디레따리'는 키의 손잡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됨.
 1533) 돛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매어놓은 줄.
 1534) 불명.
 1535) 향화(香火). 향불이나 그 연기.
 1536) 風浪.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결.
 1537) 明月. 맑은 달.
 1538) 海門. 두 육지 사이의 바다나 그 사이에 보이는 수평선.
 1539) 玉皇上帝. 도교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1540) 分付.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림.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
 1541) 午時. 하루를 열두 시로 나눈 일곱 번째 시. 낮 11시에서 1시 사이.
 1542) 初에. 첫 부분에.
 1543)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1544) 八仙女. 여덟 명의 선녀.
 1545)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1546) 水晶宮. 물속에 있는 상상 속의 궁전 이름.

- 1547) 人間. 사람이 사는 세상.
 1548) 還送. 돌려보냄.
 1549) 조금.
 1550) 天罰. 하느님이 내리는 벌.
 1551) 水國諸臣. 수국의 모든 신하.
 1552) 至嚴. 매우 엄함.
 1553) 惶怯하여. 겁을 먹고 얼떨떨해 하여.
 1554) 鼈主簿. 주부 벼슬을 하는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1555) 百萬鱗甲. 수많은 비늘 갑옷을 입은 것들. 곧 수많은 물고기들을 의인화한 표현.
 1556) 諸將. 여러 장수.
 1557) 轎子.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앞뒤로 2명씩 네 명이 메는 가마.
 1558) 等待. 미리 갖추어 두고 기다림.
 1559) 時. 때. 시기.
 1560) 기다릴 적. 기다릴 때.
 1561) 白玉같은. 흰 옥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1562) 小姐. 아가씨.
 1563) 侍女等이. 시녀들이.
 1564) 塵世賤人. 더러운 세상의 천한 인간.
 1565) 侍女等. 시녀들.
 1566) 上帝. 옥황상제. 하느님.
 1567) 威儀. 위엄 있는 거동.
 1568) 壯할싸고.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하구나.
 1569) 天上. 하늘.
 1570) 仙官仙女. 신선과 선녀.
 1571)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1572)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1573) 鸞. 봉황의 한 가지인 신령스러운 새.
 1574) 赤松子. 중국 신농씨(神農氏)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1575) 葛仙翁.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1576) 李謫仙. ‘이씨 성을 가진 귀양 온 신선’이란 뜻으로,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가리킴.
 1577) 青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1578) 紅衣童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1579) 月宮姮娥. 달 속에 있다는 선녀.
 1580)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
 1581)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1582)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1583) 갓출.

- 1584) 王子 卽. 중국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 1585) 鳳피리.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1586)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괘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함.
- 1587) '질장구'의 잘못.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588) 成連子.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함.
- 1589) 張良. 이름은 양(良)이며, 자방(子房)은 그의 자(字).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음. 특히 해하의 싸움에서 옥통소를 구슬뜨게 불어 항우의 군사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흠어지게 하여 크게 이긴 것으로 유명함.
- 1590) 玉통소. 옥으로 만든 통소.
- 1591)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
- 1592) 奚琴. 꺾꺾이라고도 하는 현악기의 일종.
- 1593)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 1594) 擊鼗鼓. 악어가죽으로 만든 북을 침.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595) 吹龍笛. 용의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분다.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596) 凌波詞. 당나라 현종(玄宗)이 꿈에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이 깬 후에 지었다는 노래.
- 1597)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598) 湘靈. 상수(湘水, 중국 광서성 홍안현에서 동정호로 흘러드는 양자강의 지류.)의 혼령. 곧 요임금의 두 딸이자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이름.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아황과 여영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상수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 1599) 당나라 때의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에서 따온 말인 듯. '상영고슬'은 '소상강의 영혼이 비파를 타다'라는 뜻임.
- 1600) 高漸離. 중국 전국시대의 악사.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형가의 친구로, 형가가 진시황의 암살에 실패한 후 숨어살다가 나중에 진시황에게 붙러갔는데, 진시황이 그의 재능을 이갑게 여겨 살려주는 대신 눈을 멀게 하였다. 고점리는 악기 속에 납을 넣어 무겁게 한 다음 악기로 진시황을 쳐서 살해하려다가 실패하고, 진시황에게 죽었다.
- 1601) 筑. 옛 중국 악기의 하나. 비파와 비슷하며 열세 줄의 현악기이다.
- 1602) 羽衣曲. 당나라 현종(玄宗)이 지은 노래.
- 1603) 採蓮曲. 양(梁)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롱(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604) 狼藉한.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 1605) 珠宮貝闕. 온갖 보배로 꾸민 호화스런 궁궐.

- 1606)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함.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607) 袞衣繡裳. 곤룡의(임금의 옷)와 수를 놓은 옷.
- 1608) 備人間之五福.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음.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609) 珊瑚珠簾. 산호 구슬로 만든 발.
- 1610) 白玉案上. 백옥으로 만든 책상.
- 1611) 羅列. 가지런히 벌이어 놓음.
- 1612) 酒案. 술상.
- 1613)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1614) 琥珀瓶. 호박 구슬로 만든 술병.
- 161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이 되었을 때 먹는 좋은 술.
- 1616)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개씩 연다는 신선 세계의 푸른 복숭아.
- 1617)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 1618) 괴었네. (과일이나 음식) 높이 쌓아올렸네.
- 1619) 小宴. 작은 잔치.
- 1620) 大宴. 큰 잔치.
- 1621) 極盡히. 그 이상 더 할 수 없이 마음을 쓰는 정성으로.
- 1622) 奉供. 받들어 베풀.
- 1623) 舉行. 명령에 따라 시행함.
- 1624) 朝夕. 아침저녁.
- 1625) 各別. 유달리 특별함.
- 1626) 哀惜. 매우 아깝게 여김. 슬프고 아까움.
- 1627) 畫像簇子. 초상화를 그려 벽에 걸어두는 족자.
- 1628) 寢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게 만든 평상. 침대.
- 1629) 證驗하시더니. 증거로 시험하시더니.
- 1630) 忽然히. 갑자기.
- 1631) 宛然히. 마치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 1632) 누가.
- 1633) 滄海. 넓고 큰 바다.
- 1634) 侍婢.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시종드는 여자 종.
- 1635)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
- 1636) 江頭. 강나루 근처.
- 1637) 三更時. 하루 저녁을 다섯으로 나눈 세 번째 시각.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1638) 酒案. 술상.
- 1639) 魚腹. 물고기의 배속.
- 1640) 살리는가?
- 1641) 근심으로 초조한 마음.
- 1642) '살아'의 잘못.

- 1643) 遺恨이로구나. 한을 남기게 되었구나.
- 1644) 悠悠香魂. 생각할수록 아득한 꽃다운 혼백.
- 1645) 嗚呼哀哉. 아아, 슬프다.
- 1646) 是饗. 흠향하시옵소서.
- 1647) 侑食. 제사 지낼 때 술과 음식을 올리고, 문밖에서 십 분 가량 기다리며 혼백이 흠향하
시도록 하는 일.
- 1648) 나지막하여.
- 1649) 魚龍. 모든 물고기.
- 1650) 흐느끼는.
- 1651) 禽鳥. 새들.
- 1652) 슬퍼한. 슬퍼하는.
- 1653)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 꾸려감. 스스로의 힘으로 억제함.
- 1654) 數百金. 수많은 돈.
- 1655)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넋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 1656) 朔望. 초하루와 보름.
- 1657)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호북성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여기서는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슬픈
눈물을 짓게 하는 비’ 정도의 의미.
- 1658) 至爲其親廢雙眼. 아버지의 두 눈이 없는 것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 1659) 殺身成孝行龍宮. 자신을 죽여 효를 이루고자 용궁으로 갔네(물에 빠져 죽었네).
- 1660) 煙波萬里常深碧. 멀고 먼 안개 낀 물이 늘 깊고 푸름.
- 1661) 芳草年年恨不窮. 꽃다운 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심청의 죽은) 한은 끝이 없구나.
- 1662) 玉眞夫人. 달 속에 산다는 선녀.
- 1663) 下降.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옴.
- 1664) 廣寒殿. 달 속의 선녀인 항아(姮娥)가 산다는 전각.
- 1665) 相逢次. 서로 만나보려고.
- 1666) 五色彩雲.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 1667) 碧空. 푸른 하늘.
- 1668) (어떤 기운이나 현상이) 일정한 곳에 특히 나타나더니.
- 1669)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1670) 仙樂. 신선의 음악.
- 1671) 狼藉하며.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지며.
- 1672) 右便. 오른쪽.
- 1673) 丹桂花. 달 속에 있다는 계수나무의 꽃.
- 1674)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 1675)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1676) 傳語. 말을 전함.
 1677) 謫下人間.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감.
 1678) 后土夫人. 토지의 신.
 1679) 上帝. 옥황상제(玉皇上帝). 흔히 도가(道家)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1680) 모셔. 받들어.
 1681) 母女相逢하겠더니.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나려고 했더니.
 1682) 여기서.
 1683) 喪事. 초상이 나는 일. 사람이 죽는 일.
 1684) 생겨서.
 1685) 僅僅한. 보잘 것 없는.
 1686) 자랐으나.
 1687) 徹天之恨. 하늘에 사무치는 크나큰 원한.
 1688) 누구에게.
 1689) 다르웁기에. 다르기 때문에.
 1690) 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않고 늘.
 1691) 따라가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1692)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1693) 還送人間.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되돌려 보냄.
 1694) 나를.
 1695) 未盡恨. 다하지 못한 한.
 1696) 幽明. 이승과 저승.
 1697) 事勢. 일이 되어가는 형편.
 1698) 不得已라. 어찌할 수 없어.
 1699) 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1700) 行하신다. 가신다.
 1701) 없는 것인가?
 1702) 於焉間. 어느새.
 1703) 下教. 임금이 내리는 명령.
 1704) 芳年. 꽃다운 젊은 나이. 여기서는 ‘혼인할 나이’로 쓰였음.
 1705) 治送. 길 떠날 차비를 하여 길을 떠나보냄.
 1706) 蓮蓬玉盆. 연꽃 꽃봉오리를 담은 좋은 화분.
 1707) 조용하고 편안히.
 1708) 侍衛. 곁에서 모시어 호위함.
 1709) 朝夕恭待. 아침저녁으로 공경하여 받들어 모심.
 1710) 饌需等物. 반찬거리들.
 1711) 金珠보배. 황금과 구슬, 보배.
 1712)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 1713) 神德. 신령스런 덕.
 1714) 搖動. (물체가) 흔들려 움직임.
 1715) 빛이나 그림자, 모습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어서.
 1716) 이익.
 1717) 龍王前. 용왕께.
 1718)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1719) 芳魂. 아름다운 영혼.
 1720) 歆饗.神明(神明)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1721) 領座.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722) '격군(格軍)'의 잘못. 조선 시대에, 사공(沙工)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
 1723) 火匠. 밥 짓는 일을 맡은 선원.
 1724) 金帳翠屏花中富貴. 황금 장막을 드리운 비취로 만든 병풍에 그리는, 꽃 중에서 부귀를 상징하는 꽃.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함.
 1725) 竹林水面. 죽림의 물 위. '죽림'은 죽림정사(竹林精舍). '죽림정사'는 석가가 도를 이룬 초년에 대발 속에 세운 정사(학문을 가르치려고 마련한 집. 불도를 닦는 곳.)로서, 왕사성(王舍城) 남쪽 가란다(迦蘭陀)에 있었으며, 석가는 가끔 이곳에 와서 설법을 하였음. 연꽃이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 붙인 듯함.
 1726) 滄海上. 푸른 바다 물결 위.
 1727) 明沙十里. 흰 모래가 십 리나 되게 깔려 있는 해변.
 1728) 王昭君. 기원 전 1세기 무렵 중국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의 공녀. 이름은 장(嬙). 소군은 자(字). 한나라의 친화정책 때문에 흉노의 우두머리에게 시집갔음.
 1729) 靑草. 푸른 풀.
 1730) 虞美人. 중국 초왕(楚王) 항우(項羽)의 애첩. 늘 항우를 따라다녔는데,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함.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자 자결하였음.
 1731) 萬古遺恨. 오랜 세월에도 걸쳐 사라지지 않을 한.
 1732) 出天孝行. 하늘이 낸 뛰어난 효성 있는 행동.
 1733) 壯히. 매우
 1734) 忠臣花. '충성스런 신하'라는 의미로 지어 붙인 꽃 이름.
 1735) 君子花.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꽃 이름.
 1736) 隱逸花. '벼슬하지 않고 숨은 학자'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꽃 이름.
 1737) 寒士花. '가난한 선비'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꽃 이름.
 1738) 行習. 몸에 젖은 버릇.
 1739) 香臭. 향기로운 냄새.
 1740) 조용하고 편안히.
 1741) 신고.
 1742) 順風. 순조로운 바람.
 1743) 저절로.
 1744) 四五朔. 너댓 달. 사오 개월
 1745) 得達. 도달함.

- 1746) 神明. 하늘과 땅의 신령.
 1747) 造化인지라. 조화이다.
 1748) 數多히. 많이.
 1749) 직(職)대로. 말은 바 직책에 따라.
 1750) 都船主. 배의 주인.
 1751) 淨한 깨끗한.
 1752) 壇. 강의, 의식, 행사 따위를 관람하기 위하여 주변보다 높게 만들어 놓은 자리.
 1753) 쌓고. 만들고.
 1754) 崩. 붕어(崩御). 임금이 세상을 떠남.
 1755) 揀擇. 임금이나 왕자, 공주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
 1756) 上林苑. 원래는 중국 장안의 서쪽에 있던 한나라의 정원. 진시황이 만들고 한무제가 확장 수리한 것인데, 여기서는 화초를 가꾸는 정원의 이름으로 썼음.
 1757)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아가 앉던 전각.
 1758) 八月芙蓉의 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와 같은 모습.
 1759) 萬塘秋水紅蓮花. 가을 연못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1760)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돈다. 송나라 때 시인 임포의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1761) 전(傳)하던.
 1762) 寒梅花. 추운 가운데 피는 매화.
 1763)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랑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시. 〈자랑주지경희증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랑은 유우석을 가리킴.
 1764) 紅桃花. 붉은 복숭아꽃.
 1765) 月中天香丹桂子. 달 가운데 붉은 계수나무 향기.
 1766) 香聞十里. 향기가 십 리 밖까지 풍긴다.
 1767) 桂花꽃. 계수나무꽃.
 1768) 妖艷纖纖玉紙匣. 요염한 자태와 가냘프고 고운 손으로 종이를 꼬아 예쁘게 만든 함.
 1769) ‘금분아용(金粉冶容)’의 잘못. 금분으로 단장한 고운 얼굴.
 1770) 九月九日龍山吟 笑逐臣 국화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가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웃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九月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1771) 公子王孫芳樹下. 공자와 왕손들이 꽃다운 나무 밑에 모여 논다.
 1772) 富貴할손. ‘부귀한’을 강조한 말.
 1773) 梨花滿地不開門.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1774) 長信宮中. 장신궁 속.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成帝)의 궁녀인 반녀(班女)가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가 있던 태후의 궁. 반녀는 쫓겨 가 있던 동안에 〈원가행(怨歌行)〉을 썼음.

- 1775) 七十 弟子. 칠십 명의 제자.
- 1776)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 1777) '행단춘풍(杏壇春風)'의 잘못. 행단의 봄바람.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북송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 1778)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 1779) 兩邊開芍藥.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 1780)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컫는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781) 啼血. 피를 토함.
- 1782) 杜鵑花. 진달래꽃의 다른 이름.
- 1783) 怨征夫之離別.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함.
- 1784) '옥창오견(玉窓五見)의 櫻桃花'의 잘못.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하면서)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를 다섯 번 본다. 곧 이별한 지가 5년이 되었다.
- 1785) 蓼花. 여뀌의 꽃.
- 1786) 蘆花. 갈대꽃.
- 1787) 鷄冠花. 맨드라미.
- 1788) 李花. 오얏꽃. 자두꽃.
- 1789) 桂花. 계수나무의 꽃.
- 1790) 西京花. 꽃 이름인 듯하나 불명.
- 1791) 紅菊. 붉은 색 국화.
- 1792) 白菊. 흰 색 국화.
- 1793) 十月 菊花. 시월에 피는 국화.
- 1794) 籬花. 메밀꽃.
- 1795) 蘭花. 난초의 꽃.
- 1796) 雪吐花. 불두화(佛頭花). 까마귀밥나무의 꽃. 승두화(僧頭花)라고도 함.
- 1797) 凌霄花. 갈잎 덩굴나무. 키는 약 10m. 여름에 불그스름한 큰 꽃이 줄기 끝에 뿜.
- 1798) 冬梅. 겨울에 피는 매화.
- 1799) 春梅. 봄에 꽃이 피는 매화.
- 1800) 紫山紅. 자주색 꽃이 피는 영산홍.
- 1801) 진달래.
- 1802)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1803)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가꿈.
- 1804) 枇杷. 비파나무. 장미과에 딸린 늘푸른키나무. 높이 10m 가량. 늦가을에 향기롭고 누르스름한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서양 배, 또는 약기 비파 모양으로 노랗게 익음.
- 1805) 香梅. 향기로운 매화.

- 1806) 자두.
- 1807) 梔子. 치자나무.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떨기나무. 높이 2-3m. 7월에 희고 큰 꽃이 가지 끝에 핀. 열매는 이노제, 또는 노랑 물감으로 쓰임.
- 1808) 柑子. 귤과 비슷하나 신 맛이 적고, 담백한 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는, 운향과의 늘푸른 나무. 다섯 잎으로 된 흰 꽃이 6월에 핀.
- 1809) 대추.
- 1810) 으름덩굴. 으름나무의 덩굴.
- 1811) 갯은.
- 1812) 果木. 과일나무.
- 1813)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814)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 1815) 새짐승들. 새들.
- 1816) 새나 나비 따위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날다.
- 1817) 興. 재미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
- 1818) 都船主. 배의 주인.
- 1819) 闕內. 대궐 안.
- 1820) 玉盆. 아주 좋은 화분.
- 1821) 奏達. 임금에게 아뢰.
- 1822) 반기시어. 반가와 하시어.
- 1823) 들어다.
- 1824) 巨輪. 큰 바퀴.
- 1825) 香臭. 향기로운 냄새.
- 1826) 月中丹桂花. 달 가운데 있다는 계수나무의 꽃.
- 1827) 瑤池宴.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요지 연못에서 신선들이 벌이는 잔치.
- 1828)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 1829)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830)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 1831)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 1832) 花階. 화단.
- 1833) 瑞氣. 상서로운 기운.
- 1834) 玲瓏. 눈부시게 찬란함.
- 1835) 散亂. 어수선하고 뒤숭숭함.
- 1836) 滿庭. 뜰에 가득함.
- 1837) 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 1838) 浮動. 붙박혀 있지 않고 떠서 움직임.
- 1839) 宛然히. 마치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 1840) 搖動. 흔들리어 움직임.
- 1841) 괴이(怪異)하게. 이상아릇하게.

- 1842) 動靜. 사람의 일, 행동 따위가 벌어져 나가는 김새.
 1843) 仙人玉女. 선녀.
 1844) 꽃봉오리.
 1845) 頃刻에. 순식간에.
 1846) 움츠려.
 1847) 一位. 한 사람. ‘위’는 신주 또는 위패에 모신 신의 수를 세는 단위.
 1848) 小姐. 아가씨.
 1849) 兩個. 두 개. 두 사람.
 1850) 鬼神인가.
 1851) 사람인가.
 1852) 伏地. 땅바닥에 엎드림.
 1853) 犯. 침범.
 1854) 惶悚합니다. 분에 넘쳐 고맙고도 미안합니다.
 1855) 內念. 속마음.
 1856) 命하시어. 명령하시어.
 1857) 內闕. 대궐의 깊숙한 곳.
 1858) 侍衛. 곁에서 모시어 호위함.
 1859) 부끄러워하여.
 1860) 蛾眉. 미인의 눈썹.
 1861) 萬古의.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1862) 人物. 뛰어난 사람.
 1863) 기빠하사. 기빠하시어.
 1864) 朝會.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1865) 罷. 끝냄.
 1866) 諸臣. 여러 신하.
 1867)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
 1868) 國母. 왕비.
 1869) 宗嗣. 종가 계통의 후손. ‘종가(宗家)’는 한 집안의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1870) 主婦. 한 집안의 주인의 아내. 안주인.
 1871) 母后. 황제의 비.
 1872) 應天順民.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뜻에 따름.
 1873) 嘉禮. 임금의 혼인, 즉위 또는 왕세자, 왕세손의 탄생, 혼인, 책봉, 하례 등의 예식.
 경사스러운 예식.
 1874) 여기시어.
 1875) 太史官. 천문과 측후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리.
 1876) 陰陽無敵. 음은 신부, 양은 신랑을 뜻하는데, 무적(적이 없음)이라 하였으니, 모두에게 좋다는 뜻.
 1877) 吉日. 좋은 날.
 1878) 行禮. 예식을 행함.

- 1879) 滿朝百官. 조정에 가득한 모든 벼슬아치.
- 1880) 侍衛. 곁에서 모시어 호위함.
- 1881) 六宮. 중국 궁중의 황후의 여섯 궁전. 정침(正寢.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주로 일을 보는 곳으로 쓰는 몸채의 방.) 하나와 연침(燕寢. 왕이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하던 궁전.) 다섯을 이룸.
- 1882) 妃嬪. 비와 빈.
- 1883) 龍鳳冠. 용과 봉을 새긴 관.
- 1884) 繡緞衣裳. 수놓은 것처럼 돋보이게 짠 좋은 비단으로 만든 옷.
- 1885) 芭蕉扇. 파초 잎 모양으로 만든 큰 부채.
- 1886) 陽傘.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일산(日傘) 모양과 비슷하나 가로 둘러 꾸민 형질이 늘어지고 자루가 길게 되어 있음. 청양산·홍양산·황양산 따위가 있음.
- 1887) 日傘. 의장의 하나. 자루가 긴 큰 양산으로 황제는 황금색, 황태자는 붉은색, 왕세자는 검은색의 비단으로 만들.
- 1888) 靑·紅·黑蓋.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개. '개'는 의장의 한 가지로, 양산 모양으로 생겼으며, 얇은 비단으로 만들.
- 1889) 旛. 깃발을 가로 길게 하여 늘어뜨린 기.
- 1890) 黼. 반은 검은색, 반은 흰색의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을 수놓은 기.
- 1891) 纛. 임금이 수레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던 대장기.
- 1892) 鳳尾扇. 봉황새의 꼬리 모양으로 만든 큰 부채.
- 1893) 龍旗. 교룡기(蛟龍旗). 임금이 거동할 때 독 다음에 서는 큰 기. 임금이 친히 열병할 때 각 부대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화염을 상징하는 붉은 형질이 달렸음.
- 1894) 鳳旗. 봉을 새긴 깃발.
- 1895) 虎尾槍. 날이 호랑이 꼬리 모양으로 생긴 창.
- 1896) 紫介槍. 자루가 붉은 빛깔의 나무로 된 창.
- 1897) 三枝槍.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
- 1898) 偃月刀.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옛날 군대에서 쓰던 긴 칼. 칼날이 끝이 넓고 뒤로 젖혀져 초승달 모양임.
- 1899) 行伍. 향오. 군사를 편성한 대오. 한 줄에 다섯 명을 세우는데 이를 오(伍)라 하고, 그 다섯 줄의 25명을 향(行)이라고 한다.
- 1900) 黃金甲冑. 황금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
- 1901) 雲劍. 임금을 호위할 때 차던 칼로, 칼집은 물고기 껍질로 싸 주홍색으로 칠하며, 장식은 은을 씀. 여기서는 '별운검(別雲劍)'을 가리킴. '별운검'은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던 임시 벼슬.
- 1902) 水陸諸軍. 물과 육지의 여러 군대.
- 1903) 都督. 군대의 장.
- 1904) 벼슬 이름인 듯.
- 1905) 벼슬 이름인 듯.
- 1906) '표신(標信)'인 듯. '표신'은 조선조 때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 문을 드나들 적에

사용하던 표식.

- 1907) 牙帳. 군대의 장막. 옛적에 군문에 세우는 기를 상아로 꾸몄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긴.
- 1908) 一隊. 첫 번째 부대.
- 1909) 二隊. 두 번째 부대.
- 1910) 前後隊長. 앞 뒤 부대의 우두머리.
- 1911) 갓은. 온갖.
- 1912) 皮服. 예전 군복의 한 가지. 철릭과 주립(朱笠)으로 되었음. 철릭은 길이가 길고 허리에 주름을 잡았으며, 주립은 호박, 마노, 수정 등으로 장식하였음.
- 1913) ‘협수(夾袖)의 잘못.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을 넣고 뒷술기를 길게 켜 군복.
- 1914) 隊隊層層. 부대별로 층층이.
- 1915) ‘엄심갑(掩心甲)’의 잘못. 가슴을 가리는 갑옷.
- 1916) 鸚鵡戰袍. 앵무새의 빛깔처럼 노랗고 아름다운 전포. ‘전포’는 장수가 입던 옷.
- 1917) 日光. 햇빛.
- 1918) 靑日傘. 푸른색 일산. ‘일산(日傘)’은 의장의 하나로, 자루가 긴 큰 양산인데, 황제는 황금색, 황태자는 붉은색, 왕세자는 검은색의 비단으로 만들.
- 1919) 巡視令旗. 순시기와 영기. ‘순시기’는 군대 안에서 군인들의 행동을 순찰하여 죄지는 자를 잡아올 때나,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기로, 영기와 비슷한데, ‘巡視’라고 새겼음. ‘영기’는 조선조 때 군중에서 군대의 명령을 전할 때 쓰던 기.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으로 ‘令’ 자를 썼음.
- 1920) 威風. 위엄 있는 풍채.
- 1921) 威儀. 위엄 있는 거동.
- 1922) 衝天. 하늘을 찌를 듯함.
- 1923) 正陽門. 북경성의 정남쪽 문. 여기서는 정남쪽에 있는 문을 가리킴.
- 1924) 鞠躬.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힘.
- 1925) 구름차일. 구름같은 차일(遮日). 햇볕을 가리려고 치는 장막.
- 1926) 花紋席. 꽃무늬를 새겨 놓은 돗자리.
- 1927) 牡丹席. 모란꽃 무늬를 새겨 놓은 돗자리.
- 1928) 花鳥. 꽃과 새를 그린 그림.
- 1929) 文彩. 아름다운 광채.
- 1930) 金瓶. 금으로 만든 화병.
- 1931) ‘녹죽화(綠竹花)’의 잘못. 푸른 대나무의 꽃.
- 1932) 吳道子. 오도현(吳道玄)을 이룸. 중국 당나라 때의 화가인데, 자(字)가 도자(道子). 불화, 산수화, 인물화 등에서 당대 제일이라 일컬어졌으며, 묘선운필법(描線運筆法)에 의한 준법(皴法. 산을 주름지게 그리는 방법)을 고안하여 중국 회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
- 1933) 彩畫金瓶. 채색의 그림을 그려 놓은 꽃병.
- 1934) 持平官. 조선조 때 사헌부의 정5품 벼슬.

- 1935) 翰林. 예문관 검열의 다른 이름.
- 1936) 大司憲. 사헌부(司憲府)의 으뜸 벼슬. 종2품. 문무 백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함.
- 1937) 御營大將. 삼군문(三軍門)의 하나인 어영청의 대장. 종2품 벼슬.
- 1938) 賓客. 손님.
- 1939) 函. 혼례 때 신랑 측에서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서 신부 측에 보내는 나무 껍질.
- 1940) 封采. 혼인 전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채단과 예장을 보내는 일, 또는 그 물건.
- 1941) 納采.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례.
- 1942) 金甕. 황금으로 장식한 덩. ‘덩’은 공주나 왕자가 타던 가마.
- 1943) 內殿. 황후, 왕후가 거처하던 전각.
- 1944) 御前風樂. 궁중의 음악.
- 1945) 主尙宮. 여러 상궁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상궁.
- 1946) 漂母尙宮. 의복을 담당하는 상궁.
- 1947) 諸妣尙宮.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은 상궁.
- 1948)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 1949) 冊封. 왕세자, 세손, 후(后), 비, 빈들의 작위를 봉함.
- 1950) 刺史. 중국의 지방 관리의 하나.
- 1951) 太守. 중국의 지방 관리의 하나.
- 1952) 山呼萬歲.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을 축수하려고 신하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외치던 ‘만세나 ‘천세’ 따위의 말. 한나라 무제(武帝)가 화산(華山)에서 산제(山祭)를 베풀 때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던 데서 비롯된 말로, 옛날에는 하늘에 가까운 산에서 주로 제사를 지냈으므로, ‘산꼭대기의 만세 합성’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
- 1953)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954) 華封三祝. 성대하게 세 번 축수를 함.
- 1955) 當年. 그 해.
- 1956) 年豐. 풍년이 들.
- 1957)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세상, 곧 태평성대.
- 1958) 心中에, 마음속에.
- 1959) 愁心. 걱정되는 마음.
- 1960) 侍從.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 1961) 물러가게 하시고.
- 1962)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963) 비스듬히 기대어.
- 1964) 秋月. 가을 달. 가을 달빛.
- 1965) 滿庭. 뜰에 가득함.
- 1966) 珠簾에. 구슬을 엮어 만든 발.
- 1967) 蟋蟀. 귀뚜라미.
- 1968) ‘나유(羅維) 안에’의 잘못인 듯. 얇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 안에.
- 1969) 晴天. 맑은 하늘.

- 1970) 月下에. 달 아래.
 1971) 무슨.
 1972) 不孝莫甚. 불효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음.
 1973) 一張. 한 장.
 1974) 音信. (먼 곳에서 전하는) 소식이나 편지.
 1975)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징험.
 1976) 言約. 말로 한 약속.
 1977) 柴糧. 땔나무와 양식.
 1978) 잇더냐.
 1979) 門前乞食.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음.
 1980) 餓死之境. 굶어서 죽을 지경.
 1981) 天幸萬行. 천만다행. 아주 다행함.
 1982) 寂寞空房. 적막한 빈 방. 아무도 없는 빈 방.
 1983) 氣盡. 기운이 다함.
 1984) 돌아가신들.
 1985) 누가.
 1986) 殮襲. 죽은 사람을 씻긴 다음, 옷을 입히고 염포(殮布. 염습할 때 시체를 묶는 베)로 묶는 일.
 1987) 安葬. 편안히 장사를 지냄.
 1988) 蒼空. 푸른 하늘.
 1989) 나의. 내가.
 1990) 父親前에. 부친께.
 1991) 細細히. 매우 자세하게.
 1992) 九重宮闕.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궁궐.
 1993)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1994) 奏達. 임금에게 아뢰.
 1995) 勅使.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신하.
 1996)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좋은 방안이나 도리.
 1997) 發說. 입 밖으로 말을 냄.
 1998)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1999) 稚拙. 유치하고 서툴러 남만 못함.
 2000) 內殿. 왕비가 거처하던 전각.
 2001) 들어오시어.
 2002) 眉間. 두 눈썹 사이.
 2003) 愁色. 근심을 띤 기색.
 2004) 花容.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2005) 괴이(怪異)하게. 이상아름하게.
 2006) 귀하기로는 황후가 됨.

- 2007) 富有四海. 부유하기로는 온 세상을 가졌음.
- 2008) 琴瑟之友. 거문고와 비파처럼 사이가 좋음. 부부간의 애정을 뜻하는 말.
- 2009) 鐘鼓之樂. ('음악의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화목한 정.
- 2010) 玉面. 옥과 같이 아름다운 얼굴.
- 2011) 나직하게. 조금 낮게.
- 2012) 惶悚無地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지위나 위엄에 눌리어 무섭고 두려움.
- 2013)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어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014) 太姒. 주(周)나라 문왕의 아내. 주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과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어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015) 二南德化. 이남 지방을 덕행으로 감화시킨 일. '이남'은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가리키는데, 주나라 무왕의 두 아우인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제후가 되어 다스리던 섬서성 이남 지방임.
- 2016) 壯하시고. 씩 훌륭하시고.
- 2017) 先代. 앞선 세대.
- 2018) 女中堯舜. 여자 중의 요순같이 훌륭한 왕비. 여자로서 섭정을 맡아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어진 정사를 베푼 송나라 철종 때의 선인황후(宣仁皇后)를 가리킴.
- 2019) 頌德. 덕을 칭송함.
- 2020) 臣妾. 왕비가 왕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021) 萬民國母. 모든 백성의 어머니, 곧 왕비.
- 2022) 千慮一得. 천 번 생각하여 좋은 생각 하나를 얻음. 어리석은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2023) 囁嚅不發. 말을 머뭇거리 미처 못하고 입만 움직임.
- 2024) 下教. 임금이 내리는 명령.
- 2025) 仰達. 우러러보고 아뢰.
- 2026) 文王. 이름이 회창(姬昌)이고, 생물연대는 미상이다.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 때 서백(西伯: 서방 제후의 장)에 책봉되었으며, 주나라 건설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50년간 주족(周族)의 장을 지낸 후 97세에 병으로 죽었다. 장지는 필원(畢原: 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서북 18리 지점)에 있다.
- 2027) 政事.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관계되는 일.
- 2028) 老者. 늙은 사람.
- 2029) 按撫. 사정을 살펴 어루만져 위로함.
- 2030) 漢武帝. 중국 전한(前漢)의 7대 왕.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사상 통일을 꾀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했음.
- 2031) 方春和時. 봄바람에 화창한 때.
- 2032) 可矜. 가엾고 불쌍함.
- 2033) 鰥寡孤獨.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 2034) 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2035) 賑恤. 흉년에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줌.
 2036)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2037) 酒肴. 술과 안주.
 2038) 聖經. 후세에 길이 모범이 될만한 책. 성인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2039) 皇城. 황제가 거처하는 성.
 2040) 모두.
 2041) 料. 급료. 아전이나 하인에게 주는 급료.
 2042) 無辜한.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
 2043) 顛壑之患. 구렁에 빠지는 환. 보살피 주는 사람 없이 아무데서나 죽는 재난.
 2044) 德化萬邦. 온 세상을 덕 있는 행동으로 감화시킴.
 2045) 洞燭.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2046) 壯하도다. 씩 훌륭하도다.
 2047) 國母. 나라의 어머니. 곧 왕후를 이르는 말.
 2048) 寡人. 임금의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
 2049) 萬福. 모든 복.
 2050) 所懷. 품은 바 생각.
 2051) 天下. 온 세상.
 2052) 闕內. 대궐 안.
 2053) 百日잔치. 백일 동안 벌이는 잔치.
 2054) 坊坊曲曲.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갈 수 있는 모든 곳. 도처.
 2055) 國慶宴. 나라의 경사에 베푸는 잔치.
 2056) 寄送. 물건이나 편지 등을 사람 편에 부쳐 보냄.
 2057) 御命. 임금의 명령.
 2058) 내리시니.
 2059) 使者.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2060) 序文. 머리말. 본문의 앞에 쓰는 글.
 2061) 國泰民安. 국가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
 2062) 時和年豐. 시절이 조화롭고 풍년이 듭.
 2063) 慶宴. 경사스런 잔치.
 2064) 毋論男女老少. 남녀노소가 다 말할 것 없이.
 2065) 盲人이거든. 맹인이라면.
 2066) 有無識. 유식과 무식.
 2067) 妻子. 아내와 자식.
 2068) 護送. 보호하여 목적지로 보냄.
 2069) 고을.
 2070) 守領. 고을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2071) 差使. 중요한 임무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 관리.

- 2072) 各處. 모든 곳.
 2073) 各邑. 각 고을.
 2074) 通文. 여러 사람이 돌려 보는 통지문.
 2075) 惶怯. 겁을 먹고 얼떨떨해 함.
 2076) 調理. 몸을 보살피고 병을 낫게 함.
 2077) 路資. 여행에 드는 비용.
 2078) 饒富. 살림살이가 넉넉함.
 2079) 左請右囑. 이리저리 부탁함.
 2080) 營門. 감영(監營). 감사가 일을 보던 관아.
 2081) 却說. 화제를 돌려 딴 말을 꺼낼 때 첫머리에 쓰는 말.
 2082) 地境. 땅의 경계.
 2083)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2084) 묵숨.
 2085) 僅僅扶持. 겨우 건디어 나감.
 2086) 綠陰. 푸른 나무 그늘.
 2087) 綠陰芳草. 푸른 나무 그늘과 꽃같이 향기로운 풀.
 2088) 寂寂한데. 아주 고요한데.
 2089) 놀던.
 2090) 가꿈가꿈. 자주.
 2091) 지팡이 막대기.
 2092) 거머쥐어 잡고.
 2093)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넋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2094) 생죽음. (잘못되거나 잘못하여)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
 2095) 데려가거라.
 2096)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호복성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여기서는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슬픈 눈물을 짓게 하는 비' 정도의 의미.
 2097) 위로 올라가며 텅텅.
 2098) 아래로 내려가면서 텅텅.
 2099) 단단한 물건이 별안간 깨지거나 부딪치는 소리.
 2100) 가습.
 2101) '망지소조(罔知所措)'의 잘못.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름.
 2102) 江頭. 강가의 나무 근처.
 2103) 近村. 가까운 동네.
 2104) 別號. 별명.

- 2105) 千古一色일는지. 아주 뛰어난 미인일지.
 2106) 萬古薄色일는지. 아주 못생긴 여자일지.
 2107) 모양.
 2108) 본다고 하면. 보면.
 2109) 말의 갈기와 꼬리의 털.
 2110) 되 대신으로 쓰는 바가지처럼 못생긴 이마.
 2111) 햇대처럼 반듯하게 생긴 눈썹. ‘햇대’는 대나 나무의 두 끝에 끈을 매어 벽에 달아매 두고, 옷을 걸 수 있도록 만든 물건.
 2112) 우명한 눈. 쑥 들어가 있는 눈.
 2113) 메주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한 볼.
 2114)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턱.
 2115) 두터워.
 2116) 櫃門. 궤의 문. ‘궤’는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직육면체 꼴로 뚜껑이나 문짝이 있게 나무로 짠 물건.
 2117) 썩레처럼 드문드문 박힌 이빨. ‘썩레’는 모를 심기 위하여 논을 고를 때 사용하는 농기구.
 2118) 혀.
 2119) 키. 대조각 등으로 만들어 곡식을 까부르는 데 쓰는 기구.
 2120) 손바닥을 펴고 늘어뜨린 손.
 2121) 모양새.
 2122) 짚 묶음. 짚단.
 2123) 閉門. 고을의 폐문루(閉門樓) 위에 달린 시간을 알리는 북.
 2124) 떡을 치는 데 쓰는 넓고 두꺼운 나무판.
 2125) ‘수중(水腫)다리’의 잘못. 병으로 통통하게 부은 다리.
 2126) 黑角발톱. 물소의 뿔처럼 검은 발톱.
 2127) 針尺. 바느질할 때 쓰는 자.
 2128) 한 자(尺).
 2129) 가웃. 되나 자 등에서 수를 셀 때 남는 반절.
 2130) 겨우.
 2131) 꼭. 틀림없이.
 2132) (일부 명사나 대명사 뒤에 와서) 그 소유로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
 2133) 끝장.
 2134) 錢穀. 돈과 곡식.
 2135) 넉넉하다고 하는.
 2136) 남을 업신여겨 홀대해서 이르는 말.
 2137) 願없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2138) 託情. 정을 붙임.
 2139) 錢穀. 돈과 곡식.
 2140) 老來에. 늙어서.

- 2141) 뒤에 남겨주고.
- 2142) 음식을 먹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 2143) 조저대는데. 물건이나 돈 등을 함부로 낭비하여 거덜냄.
- 2144) 行動舉止. 몸을 움직이어 하는 모든 짓.
- 2145) 음식을 종류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 2146) 이웃집에 놀러 다니고.
- 2147) 잡혀. 담보로 맡겨. '담보'는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 2148) 詰難.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 2149) 어리광. (어른에게 귀염을 받으려고, 또는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리고 예쁜 태도로 버릇없이 구는 짓.
- 2150) 洞人. 마을 사람.
- 2151) 樵軍. 나무꾼.
- 2152) 内外.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차리느라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서로 피함.
- 2153)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
- 2154) 흘딱. 흘랑.
- 2155) 데. 곳에.
- 2156) 封窓門. 봉창의 문. '봉창'은 벽을 뚫어서 조그만 구멍만 내고, 창틀이나 창짝이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아주 봉한 작은 창.
- 2157) 行使. 행동이나 하는 짓.
- 2158) 굶어버린.
- 2159) 櫃.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
- 2160) 싯답지 않게. '싯답다'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다.
- 2161) 猝富者. 벼락부자. 갑자기 된 부자.
- 2162) 드린다고.
- 2163) 그만두소.
- 2164) 너머에.
- 2165) 金同知宅. 김씨 성을 가진 동지 벼슬을 한 집, 혹은 김씨 성을 가진 벼슬을 하지 않은 노인의 집. '동지'는 동지중추부사, 또는 벼슬을 하지 않은 노인을 일컫는 말.
- 2166) 家用. 집안 살림살이의 비용.
- 2167) 아침밥을 먹기 전에 술 속을 풀기 위하여 조금 먹는 술.
- 2168) 金巡將宅. 김씨 성을 가진 순장 벼슬을 한 집. '순장'은 조선조 때 순청(巡廳)의 벼슬. 정3품 문무관으로, 밤에 서울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 보았음.
- 2169) 엿기름과 밥을 식혜처럼 담가서 술에 넣고 달인 음식.
- 2170) 복숭아.
- 2171) 자꾸 들먹이면. 남을 들추어내어 자꾸 입에 올리면.
- 2172) 생각에.
- 2173) 떨어지기도 하고 맺히기도 함.
- 2174) 依託. 의지하여 맡김.

- 2175) 如狂如醉. 미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2176) 無常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2177) 고생이로다.
 2178) 뵈었거든. 보았다면.
 2179) 데려가거라.
 2180) 산망. 하는 짓이 까불까불하고 경솔함.
 2181) 생리. 월경.
 2182) 거르더니. 차례대로 나아가다가 중간에 어느 순서나 자리를 빼고 넘기더니.
 2183) 口味. 입맛.
 2184) 먹기는.
 2185) 物色. 일의 돌아가는 형편.
 2186) 저지난달부터야?
 2187) 있으려나 보네.
 2188) 數. 몇몇. 약간의.
 2189) 신통부러져서. 정도에 지나치게 주제넘어서.
 2190) 男負女戴. 남자는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
 2191) 荊州. 중국 호북성 남부에 있는 강릉현의 옛 이름.
 2192) 地境. 나라나 지역 따위의 구간을 가르는 경계.
 2193) 하루.
 2194) 荊州刺史. 형주 지방의 자사. ‘자사’는 중국 한나라 때에 각 주에 둔 감찰관. 당나라 · 송나라를 거쳐 명나라 때 없었다.
 2195) 排設. 의식이나 연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차려 놓음.
 2196) 不參. 참석하지 않음.
 2197) 重罰. 아주 무거운 벌.
 2198) 다리고 : 데리고.
 2199) 修人事. 인사를 차림.
 2200) 벌써.
 2201) 約條. 조건을 붙여서 약속함.
 2202) 然後에. ~한 뒤에.
 2203) 손바닥을 펴 내민 손.
 2204) 충분히.
 2205) 나더러. 나에게.
 2206) 家長. 집안의 어른. 남편.
 2207) 變樣. 모양을 바꿈. 양상이 바뀜.
 2208) 修身制度.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는 법.
 2209) 지쳐가지고.
 2210) 새벽길친다고. ‘치다’가 ‘달아나거나 빨리 움직이다.’라는 뜻이므로, ‘새벽에 길을 빨리 간다고’라는 의미.

- 2211) 内外間. 부부 사이.
 2212) 天下.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드문.
 2213) 當初에. 일의 맨 처음에. 애초에.
 2214) 버릴.
 2215) 莫知所向. 갈 바를 알지 못함.
 2216) 舜(舜)임금.
 2217) 瞳子. 눈동자.
 2218) 넷이시고. 네 개이시고.
 2219) 千이나. 천 개나.
 2220) 보는가?
 2221) 안타깝거나 비난하는 의미의 감탄사.
 2222)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깨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223) 깨물어.
 2224)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내는 감탄사.
 2225) 賢哲. 어질고 슬기로우며 사리에 밝음.
 2226) 모양. 모습.
 2227) 살아서 하는 이별.
 2228) 어리석은 사람. 본래 ‘농판’은 ‘장난이나 농이 벌어진 자리나 그런 분위기’를 뜻하므로, 자신이 ‘농판’이라는 것은 자신이 웃음거리나 장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2229) 人事不省. (신상에 벌어지는 일을 도무지 모를 만큼) 의식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
 2230) 막음하는 말. 곧 이런저런 이론을 끝막음하는 말.
 2231) 어떤 사태가 매우 갑자기 진행되는 모양.
 2232) 賀禮. 축하하는 예식. 여기서는 ‘사례(謝禮, 감사의 인사)’로 해야 옳음.
 2233) 行裝. 여행할 때에 지니거나 차리는 여러 가지 물건.
 2234) 털썩.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거나 큰 물건이 내려앉는 모양, 또는 그 소리.
 2235) 天下.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드문.
 2236) 있다면.
 2237) 行하는지. 가는지.
 2238)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2239) 더위가 한창인 때.
 2240) 두부를 만들 때 비지를 짜는 자루의 겉으로 두붓물이 나오듯 한다는 뜻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할 때에 쏟아져 나오는 땀’을 이르는 말.
 2241)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2242) 炎天. 몹시 더운 날씨.
 2243) 清波流水. 흐르는 맑은 물.
 2244) 衣冠. 남자의 옷옷과 갓이라는 뜻으로,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이르는 말.
 2245) 壯히. 매우.
 2246) 덩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2247) 덩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2248) 가슴.
- 2249) 거침없이 옷을 시원스럽게 벗어버리거나 벗기는 모양.
- 2250)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2251) 이에서. 이보다.
- 2252) 툼병거리며. ‘툼병거리다’는 (크고 묵직한 물건이) 깊은 물에 잠길 때에 나는 소리를 연달아 내다.
- 2253) 심봉사보다.
- 2254) ‘죄다’의 잘못된 듯. ‘죄다’는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 2255)弄하려고. 농담하려고. 장난하려고.
- 2256) 누구여?
- 2257) 욕임.
- 2258) 인사녀석같으니라고. ‘인사(人士)’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인 구실을 하는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의미.
- 2259) 고약한 놈의.
- 2260) 인사녀석이로군.
- 2261) 사람이.
- 2262) 완전히. 남김없이 모두.
- 2263) 더위.
- 2264) 줄줄이 이어진 봉사들.
- 2265) 알기 때문에.
- 2266) 목숨.
- 2267) 武陵太守. 무릉 지방의 태수. ‘태수’는 고대 중국에서, 군(郡)의 으뜸 벼슬.
- 2268) 辟除. 존귀한 사람의 행차 때 하인들이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던 일로, ‘물렀거라’하고 소리침.
- 2269) 官長. 관청의 우두머리.
- 2270) 官은 民之父母라니. 관리는 백성의 부모라고 하니.
- 2271) 行次. ‘옷어른이 길 가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
- 2272)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2273)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된 봉사를 우습게 이르는 말.
- 2274) 及唱. 원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큰 소리로 전달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
- 2275) 拜謁次로. 뵈겠다고.
- 2276) 하려고 하는가.
- 2277) 小盲. 맹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278) 眞所謂畫出之魍魎. 참으로 이른바 대낮에 나온 도깨비임.
- 2279) 進退難谷.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이르는 말.
- 2280) 윗사람이 무엇을 대신해서 주고.
- 2281) 別般處分. 보통과 달리 잘 처리해 줌.
- 2282)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있다.
- 2283) 太守長. 태수 어른.

- 2284) 덕택에. 덕택으로.
- 2285) 可矜히. 불쌍히.
- 2286) 여기시어.
- 2287) 通引. 지방 관아의 관장(官長) 앞으로 딸린 잔심부름꾼.
- 2288) 衣籠. 옷을 넣어두는 농작.
- 2289) 一襲. 한 벌.
- 2290) 주로 병줄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 2291) 轎軍꾼. 가마를 메는 사람.
- 2292) 망건(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 (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2293) 隨陪. 원이 행차할 때 원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아전.
- 2294) 路資. 여행 경비.
- 2295) 無常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 2296) 나더러. 나에게.
- 2297) 크게 웃음.
- 2298) 담뱃대.
- 2299)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 2300) 百拜謝禮.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함.
- 2301) 洛水橋. 가상의 다리 이름. '낙수청운(洛水靑雲)'에 빗대어 지은 뜻함. '낙수청운'은 벼슬길을 이르는 말.
- 2302) 綠水亭. 가상의 정자 이름. '푸른 물가에 선 정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 2303) 日力. 하루의 해가 질 때까지의 남아 있는 동안.
- 2304) 전혀 없고.
- 2305) 人家. 사람이 사는 집.
- 2306) 언뜻언뜻. 어떤 물체나 소리가 자꾸만 잠깐 동안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 2307) 洞里. 동네. 마을.
- 2308) 논둑. '툐'이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꼴'이나 '판'이 되는 물건이므로, '논툐'는 논둑이 아닌가 생각됨.
- 2309) 밭둑. '툐'이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꼴'이나 '판'이 되는 물건이므로, '밭툐'는 밭둑이 아닌가 생각됨.
- 2310) 不知不覺. 알아차리지 못함.
- 2311) 똑성. 화를 낸 음성.
- 2312) 日牌. 말과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수선스러운 사람의 별명.
- 2313) 責望. 허물을 들어 꾸짖음. 잘못을 나무람.
- 2314) 男女有別.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구별이 있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별이 있음.
- 2315) 三尺童子. 키가 석 자(약 90c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 2316) 衣冠. 옷과 갓.
- 2317) 不問曲直. 일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음.
- 2318) 욕임.

- 2319) 손아랫사람을 좀 쉽게 이르는 말.
- 2320) 聲音. 목소리. 음성.
- 2321) 늦춰서. 다잡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하여.
- 2322) 아이고! 뜻밖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
- 2323) 방아.
- 2324) 줄려고 하려는가.
- 2325)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 2326) 길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은 영겁하다.
- 2327) 바람에. '바람'은 어떤 일의 여파, 또는 영향.
- 2328) 萬疊青山.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 2329)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셨으니.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천황씨라는 분이 나타나 목덕(木德 : 金木水火土의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靑에 가까운 기운을 이룸)으로써 임금이 되었다 함.
- 2330) 有巢氏.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2331) 構木爲巢.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들었음. 유소씨는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2332) 지으시며. 지으셨으며.
- 2333) 神農氏.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2334) 柔木爲耒.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었음. 신훈씨는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2335)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의 한 가지. 쟁기보다 좀 작고 보습이 좁게 생겼음.
- 2336) 五穀大夫. 춘추시대 사람 백리해(百里奚)를 말함.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암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라고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2337) 聖上.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이어 이르는 말.
- 2338) 卽位하시어. (임금 될 사람이 식을 올리고) 임금 자리에 오르시어.
- 2339) 國泰民安.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
- 2340)古今에. 옛부터 지금까지.
- 2341) 太平聖代.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 2342) 姜太公. 이름은 여상(呂尙). 무왕을 도와 재상이 되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웠으며, 후에 제나라의 임금에 봉해졌다.
- 2343) 造作이로다. 만든 것이로다. 방아의 등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썼는데, 이는 경신이 넷 겹치면 이루어진다는 길일과, 주나라의 재상이던 강태공의 힘을 빌어 목신(木神)을 누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함.
- 2344) 말이 끌며 돌아가는 연자매를 가리킴. '연자매'는 둥글고 관관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엮어서, 말이나 소로 끌게 하여 곡식을 쪼던 기구.

- 2345) 물을 이용해 방아를 찰도록 만든 방아.
- 2346) 절구로 찡는 방아. ‘절구’는 곡식 따위를 넣고 찡게 되어 있는 속이 우묵한 기구. 통나무나 돌로 만들었음.
- 2347)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찡거나 찡는 데 쓰는 방아. Y자 모양의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두 갈래진 다른 양 끝을 발로 디디게 되어 있음.
- 2348) 製作. (기계나 기구, 또는 미술품 따위를) 재료를 가지고 만들.
- 2349) 비양했던가. 흉내냈던가. 본뻤던가.
- 2350)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혈색이 도는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2351) 비녀일런가.
- 2352) 簪. 비녀.
- 2353) 楚王宮人. 초나라 왕궁의 궁녀.
- 2354) 맵시일런가. 맵시인가.
- 2355) 滄海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2356) 周文王之 頓首일런가. 주나라 문왕이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리는 것인가. ‘주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에 오른 무왕의 아버지. 그러나 돈수와는 상관이 없음. 다른 곳에서는 ‘초희왕의 돈술런가’로 부르기도 함.
- 2357) 벼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50~12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이삭은 가을에 익는데 아래로 늘어진다. 열매는 ‘황실(黃實)’이라고도 하는데, 붉은 누런색으로 떡, 술, 엿, 빵 따위의 원료나 가축의 사료로 쓴다. 선사 시대부터 이집트,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했으며 강원, 경북 등지에 분포한다.
- 2358) ‘사박사박’ 소리를 내는. ‘사박사박’은 가볍게 바스러질 만큼 무르고 부드러운 것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
- 2359) 울무. 벼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1~1.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이다. 7~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꽃이삭이 여러 개 나와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암갈색이며, 종자는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로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 2360) 고소하구나.
- 2361) 갯목. 기름을 짜낸 개의 지기.
- 2362) ‘메기다’는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 편이 먼저 부르다는 뜻.
- 2363) 흥겨운 신이나 멋.
- 2364) 지기.
- 2365) 힘.
- 2366) 세구나.
- 2367) 방귀.
- 2368) 방아꾼들. 방아를 찡는 사람들.
- 2369) 배充腹. 음식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움. ‘배’는 불필요한 말임.
- 2370) 빼걱빼걱.
- 2371) 모통이.

- 2372) 누구이시오. 누구시오.
 2373) 심봉사이시면.
 2374) 怪異한. 이상야릇한.
 2375) 外堂. 바깥채.
 2376) 후에.
 2377) 內堂. 안채.
 2378) 憂患. 집안에 복잡한 사건이나 환자가 생김으로 인한 근심이나 걱정.
 2379) 讀經. 경문을 소리 내어 외거나 읽음.
 2380) 뜻밖에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가는 일.
 2381) 위태롭다.
 2382) 侍婢.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시종드는 여자 종.
 2383) 座. 앉을 자리.
 2384) 있사웁니다. 있습니다.
 2385) 眼盲. 눈이 멀게 됨.
 2386) 배웠기 때문에.
 2387) 芳年. 꽃다운 젊은 나이. 여기서는 ‘혼인할 나이’로 쓰였음.
 2388) 眼目. 눈.
 2389) 配匹. 부부가 될 만한 짝.
 2390) 나와.
 2391) 짐작하여.
 2392) 庸劣.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함.
 2393) 버리지.
 2394) 없겠나이다. 없겠습니다.
 2395) 두부를 찐 때 쓰는 자루. 대개 삼베로 만든 자루를 씀.
 2396) 洞房華燭. 혼례를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 방에 머물러 자는 의식.
 2397) 胡蝶夢.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즐기며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음.
 2398) 夢事. 꿈에 나타난 일.
 2399) 일어나.
 2400) 百年佳約. 부부가 될 약속.
 2401) 奇薄. 이상하게 일이 빚나가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2402) 證驗. 증거로 될만한 경험.
 2403) 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생김.
 2404) 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세상사가 돌고돌아 순환됨을 이르는 말.
 2405) 생기는데.
 2406) 꾸며 만들어.
 2407) 壯히. 매우. 썩 훌륭하게.
 2408) 좋습니다.

- 2409) 解夢. 꿈에 나타난 일의 좋고 나쁨을 풀어 판단함.
- 2410) 身陷火中. 몸이 불 속에 들어감.
- 2411) 恢復. 여기서는 ‘회복’이 ‘재가 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몸이 불에 들어가니 회복을 알 수 있다고 하였음.
- 2412) 可知. 알 수 있음.
- 2413) 大夢. 앞으로 아주 크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보이는 꿈.
- 2414) 去皮作鼓.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
- 2415) 入宮之相. 궁궐에 들어갈 상.
- 2416) 鼓聲. 북소리.
- 2417) 宮聲. ‘궁’하는 소리. ‘宮聲’은 궁성(宮城)과 음이 같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궁중에 들어간다고 하였음.
- 2418) 들어갈.
- 2419) 歸根. 뿌리로 돌아감.
- 2420) 可逢. 만날 수 있음.
- 2421) 大夢. 큰 꿈. 아주 좋은 꿈.
- 2422) 千不當 萬不當. 어렵없이 사리에 맞지 않거나 정당치 않음.
- 2423) 萬不成說. 말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
- 2424) 無男獨女. 아들 없이 단 하나 있는 딸.
- 2425) 虛妄히.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게.
- 2426) 萬端으로. 온갖 방법으로.
- 2427) 朝飯. 아침밥. 아침 식사.
- 2428) 다치는. 부딪치는.
- 2429) 參禮. 예식에 참여함.
- 2430) 외치는.
- 2431) 奉命使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전하는 사령. ‘사령’은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 2432) 令旗. 조선조 때 군중에서 군대의 명령을 전할 때 쓰던 기. 사방 두 자 가량의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으로 ‘令’ 자를 썼음.
- 2433) 亡終. 마지막
- 2434)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2435) 크고 우렁차게.
- 2436) 酒店. 술집.
- 2437)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벌여 배열해 놓음.
- 2438) 丁寧. 틀림없이. 꼭.
- 2439) 哀痛. 몹시 슬퍼함.
- 2440) 돌아가셨나.
- 2441)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경험.
- 2442) 宛然히. 마치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 2443) 축에서. 일정한 특성으로 나뉘는 사람들의 부류에서.
- 2444) 當年. 그 해의 나이.

- 2445) 老患. 늙은이의 병환.
 2446) 路中. 길 가는 도중.
 2447)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2448) 오늘이.
 2449) 亡終. 마지막.
 2450) 自盡腹痛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뼈에 사무치는 듯이 원통하게.
 2451) 哀歎. 슬프게 탄식함.
 2452) 활짝.
 2453) 열어젖혀.
 2454) 營門. 병영의 문. 병영.
 2455) 內官. 내시.
 2456) 紙筆. 종이와 붓.
 2457) 家勢貧富. 집안 살림살이의 가난함과 부유함.
 2458) 有無識. 유식과 무식.
 2459) 一一이. 하나하나 자세히.
 2460) 皇后前에. 황후 앞에. 황후께.
 2461) 經. 점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소경이 외는 기도문과 주문.
 2462) 身數. 한 사람이 지닌 운수.
 2463) 財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수.
 2464) 婚姻宮舍. 혼인하기에 앞서 남녀의 생년월일시를 오행(五行)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길흉을 안다고 하는 점.
 2465) 四柱. 사람의 난 해·달·날·시의 네 가지, 또는 이에 근거하여 길흉 화복 따위를 점치는 법.
 2466) 失物. 잃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림.
 2467) 尋人. 사람을 찾음.
 2468) 內主張. 아낙네가 남편을 젖혀놓고, 주장이 되어 집안 일을 처리함.
 2469) 昏定晨省.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
 2470) 짓게 하고.
 2471) 乞食. 밥을 얻어먹음.
 2472) 명절을 앞두고 서는 장.
 2473)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좋은 방안이나 도리.
 2474) 風角쟁이. 장거리나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서 해금을 타거나 노래를 부르며 돈을 구걸하는 사람.
 2475) 제가. 자신이.
 2476)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재료.
 2477) 錢穀. 돈과 곡식.
 2478)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경제적 형편.
 2479) 裕餘. (모자람이 없이) 푼푼하고 넉넉함.
 2480) 二十. 스무 살. 스무 살에.

- 2481) 四書三經. 유교의 경전인 사서와 삼경. 사서는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대학(大學)》이고, 삼경은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
- 2482) 姓冊. 성명을 적은 장부.
- 2483) 別殿.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2484) 실답지 않게. '실답다'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다.
- 2485) 긴치 않은. 긴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 2486) 珠簾. 구슬을 엮어 만든 발.
- 2487) 待令.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림.
- 2488) 白首風神. 머리가 허영게 된 겉모양.
- 2489) 形容. 생긴 모양.
- 2490) 體重. 지위가 높고 점잖음.
- 2491) 鎮重. 점잖고 무게가 있음.
- 2492) 父女天倫. 아버지와 딸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2493)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2494) '건어버리고'의 잘못.
- 2495) 不知不覺. 알거나 깨닫지 못함.
- 2496) 연극 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구경거리.
- 2497) 희번덕.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를 굴러 번들거리는 모양.
- 2498) 나더러. 나에게.
- 2499) 于今. 지금까지.
- 2500) 數三年. 여러 삼 년. 곧 삼 년이 여럿이 되는 기간.
- 2501) 玉淚. '눈물'을 높여 이르는 말.
- 2502) 滿面. 얼굴에 가득함.
- 2503)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 2504) 보지.
- 2505) 아버지의.
- 2506) 青鶴. 푸른 학.
- 2507)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아가 앉던 전각.
- 2508) 五色彩雲. 여러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구름.
- 2509) 어떤 일의 여파, 또는 영향.
- 2510) 滿座. 모든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
- 2511) 모두.
- 2512) 造化.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게 된 사물을 만드는 재간.
- 2513) 모두.
- 2514) 뜨게 하는데.
- 2515) '갈모'는 '갓모'가 변하여 된 말. 비가 올 때에 갓에나 맨머리에 덮어 쓰던 우장의 하나인데,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으로, 펴면 고깔처럼 되고, 접으면 철부채처럼 훌쩍해진다. 이를 펼 때에는 “찍찍” 하는 소리가 몹시 난다.

- 2516) 떼는. 찢어내는.
 2517) 死境. 죽을 지경.
 2518) 不得이. 어찌할 수 없이.
 2519) 路中. 길 가는 도중.
 2520) 화내다가.
 2521) 깜짝거려보다가도.
 2522) 至於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
 2523) 짐승.
 2524) 大文. 글의 한 동강이나 단락.
 2525) 눈동자에 병적으로 나타나는 희끄무레한 무명씨와 같은 반점.
 2526) 박혀.
 2527) 白瞼. 몸의 열기나 그밖의 원인으로 눈앞에 덮이는 희끄무레한 막.
 2528) 자리를 잡는 데.
 2529) 굶은 눈. 좋지 않은 눈.
 2530) ‘칠보금관(七寶金冠)’의 잘못. 칠보로 화려하게 꾸민 금관. ‘칠보’는 금·은·유리·파리·마노·거거·산호, 또는 금·은·유리·마노·거거·진주·매괴.
 2531) 옆에.
 2532) 內外한다고.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차리느라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서로 피한다고.
 2533) 君臣之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2534) 至重. 지극히 무거움. 매우 무거움.
 2535) 惶悚無比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지위나 위엄에 놀리어 무섭고 두려움이 비할 데가 없음.
 2536) 殿上. 전각이나 궁전의 자리 위.
 2537) 나가십시오.
 2538) 甲子 四月 初八日 밤. 갑자년 4월 8일 밤. 광씨부인과 심봉사가 태몽을 꾸던 밤.
 2539) 引導還生. 중생들을 이끌어 다시 태어나게 함.
 2540) 生時.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살아 있는 동안.
 2541) 滄海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 먼 푸른 바다.
 2542) 還世上하여. 세상으로 살아 돌아와서.
 2543) 千千萬萬. ‘천만’을 강조한 말. ‘천만’은 ‘전혀, 절대로’라는 의미.
 2544) 山陽水 큰 싸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2545)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성은 조(趙), 이름은 운(雲). 자룡은 그의 자(字)임. 본디 원소(袁紹)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公孫瓚)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탁을 같이 하였다.
 2546) 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돌아옴.
 2547) 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로) 고생한 끝에는 그 보람으로 즐거움

- 이 있게 됨의 비유.
- 2548) 나로. 나를.
- 2549) 不重生男重生女. 아들 낳기를 중하게 여기지 말고, 딸 낳기를 중히 여김.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오는 구절.
- 2550) 頌德. 공덕을 칭송함.
- 2551)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서 이르는 말.
- 2552) 中華. ‘中’은 중앙이나 중심, ‘華’는 문화라는 뜻. 중국의 한족(漢族)이 주위의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에 대하여, 자기 민족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문명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컫는 말.
- 2553)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세상, 곧 태평성대.
- 2554) 太古적. 아주 오랜 옛날.
- 2555) 德兼三皇. 중국의 전설적인 세 황제인 삼황의 덕을 아울러 지님. ‘삼황’은 천황씨(天皇氏)·지황씨(地皇氏)·인황씨(人皇氏), 또는 수인씨(燧人氏)·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
- 2556) 功過五帝. 고대 중국의 훌륭한 다섯 임금인 오제보다 공이 많음. ‘오제’는 소호(少昊)·전욱(顓頊)·제곡(帝嚳)·요(堯)·순(舜).
- 2557) 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만세’를 강조한 말.
- 2558)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559) 太姒. 주(周)나라 문왕의 아내. 주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과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560) 女中堯舜. 여자 중의 요순같이 훌륭한 왕비.
- 2561)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 2562) 聖壽無疆. 임금님이나 왕비가 나이를 셀 수 없을 만큼 오래 삶.
- 2563) 古今에. 옛과 지금에.
- 2564) 列坐盲人. 죽 벌여 앉은 맹인.
- 2565) 춤출 무(舞)라는 글자. ‘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 2566) 壯觀. 굉장하여 볼 만한 광경.
- 2567) 하나.
- 2568) 物色. 까닭이나 형편.
- 2569) 放聲痛哭. 소리를 크게 내며 슬프게 울.
- 2570) 查實. 사실을 조사함.
- 2571) 伏地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 2572)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573) 아뢰리다. 아뢰겠습니다.
- 2574) 罪狀. 죄를 저지른 형편과 상태.
- 2575) 沈府院君. 심씨 성을 지닌 부원군. 여기서는 심봉사를 가리킴. ‘부원군’은 조선조 때

- 왕비의 친아버지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2576) 行次時. (웃어른이) 길을 갈 때.
- 2577) 留宿. (손님이나 나그네로) 남의 집에서 머물러 묵음.
- 2578) 五更時. 하루 저녁을 다섯 시로 나눈 다섯 번째 시각.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 2579) 九泉에. '구천'은 (대지의 밑, 땅 밑이라는 뜻으로) 죽은 뒤에 नी이 돌아간다는 곳.
- 2580)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쳐서.
- 2581)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느님.
- 2582) 바라. 것이기 때문에.
- 2583) 天下. 세상에 둘도 없는. 세상에 드문.
- 2584) 匕首劍. 날이 날카로운 작은 칼.
- 2585) 제가.
- 2586) 알기 때문에.
- 2587) 改過遷善. 잘못을 고쳐 착한 사람이 됨.
- 2588) 겨우.
- 2589) 쏘기.
- 2590) 積善之家.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
- 2591) 必有餘慶.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음.
- 2592) 積惡之家. 악한 일을 많이 한 집안.
- 2593) 必有餘殃.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음.
- 2594) 天道. 천지자연의 도리.
- 2595) 것인가.
- 2596)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2597) 封하시교. 임금이 벼슬이나 지위를 내려주시고.
- 2598) 靈位. 혼백(魂帛)이나 신위(神位)의 통틀어 일컬음. '혼백'은 신주를 만들기 전에 명주를 접어서 쓰는 임시적인 신위. 초상 때에만 쓰고, 장사 뒤에는 신주(神主)를 씀. '신위'는 신령이 의지하도록 마련해 놓은 것. 지방과 같은 것.
- 2599) 府夫人. 조선조 때 외명부에게 주던 작호. 왕비의 어머니나 대군의 아내 등에게 주던 것으로 품계는 정일품임.
- 2600) 加資. 관리의 품계를 올려줌.
- 2601) 追贈.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에게 벼슬을 줌.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후에 벼슬을 줌.
- 2602) 治山. 산소를 잘 만들거나 매만져서 다듬음.
- 2603) 石物. 묘 주위에 설치하는 비석이나 상석 따위 돌로 만든 물건.
- 2604) 凡節. 법도에 맞는 질서나 절차.
- 2605) 國陵. 왕이나 왕비의 묘.
- 2606) 教旨. 임금의 명령.
- 2607) 貞烈夫人. 정열이 있는 부인에게 내리는 가자(加資). '가자'는 관리의 품계를 올려줌.
- 2608) 別給賞賜. 따로 상을 줌.
- 2609) 職品. 벼슬의 품계.

- 2610) 돈우어. 높여.
- 2611) 千金賞. 상으로 주는 많은 돈.
- 2612)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2613) 堂上.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높은 관리. 이 벼슬에 있는 사람은 조각한 옥관자(玉貫子)를 하였고, ‘영감’이라고 불렀음.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관품이나 계급에 따라 금, 은, 옥, 대모, 호박, 쇠발톱 따위를 가려 썼음.
- 2614) 都船主. 배의 주인.
- 2615) 本城太守. 지방의 중심이 되는 성의 태수.
- 2616) 除授.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
- 2617) 有識者. 유식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 2618) 無識者. 무식한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
- 2619) 內職. 서울에 있는 각 관청의 관직.
- 2620) 稅役. 세금과 부역(賦役). ‘부역’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지우는 노역.
- 2621)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 2622) 言哉無窮. 할 말이 끝이 없음.
- 2623) 판소리의 끝에 쓰이는 말로, 정확한 어원이나 뜻은 알 수 없음. ‘더질더질’이라고도 함.